

How's Life? 2020

웰빙의 측정



How's Life? 2020

웰빙의 측정

본 문서에 언급된 의견과 논의들이 OECD 회원국 정부의 공식적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문서와 여기에 포함된 데이터와 지도는 영토, 도시 또는 지역의 이름, 국경 및 경계, 영토의 주권이나 그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통계 자료는 해당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제공받았습니다. OECD가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른 골란고원, 동예루살렘 및 서안지역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번역본의 원본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발간되었습니다: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 OECD 2020, <https://doi.org/10.1787/9870c393-en>.

이 번역본은 OECD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OECD의 공식 번역본이 아닙니다.

번역의 질과 원문과의 일관성은 온전히 번역본 저자의 책임 아래 있습니다.

원본과 번역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본만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1 OECD/Korea Policy Centre for this translation.

서문

*How's Life?*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을 장려하는 OECD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Better Life Initiative)의 일부로, OECD의 최우선 미션(overarching mission)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How's Life?*는 2~3년마다 발간되는 통계 보고서로 광범위한 웰빙 성과와, 그러한 성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구집단 간 및 국가 간 변화하는 추이를 기록한다. 이 평가는 11개의 현재 웰빙 영역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웰빙 유지를 돕는 4가지 유형의 전체적 자원을 포괄하는 다차원 프레임워크(multi-dimensional framework)에 근거한다. OECD *How's Life?*의 제5호인 본 보고서는 37개 OECD 국가와 4개의 파트너 국가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지 기록하고, 업데이트된 80개가 넘는 웰빙 지표로부터 최신 증거를 제시한다. 또한 *How's Life?* 2020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웰빙 데이터베이스도 수반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OECD.Stat(<http://stats.oecd.org/wbos/default.aspx?datasetcode=HSL>)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본 보고서는 OECD 통계데이터국(Statistics and Data Directorate)의 가구 통계 및 진도 측정 부서(Household Statistics and Progress Measurement Division)에서 작성했다. 각 장의 수석 작성자는 Lara Fleischer(제1장, 제5장, 제12장 및 제16장), Anil Aplman과 Carlotta Balestra(제10장과 제11장), Carrie Exton(제8장과 제14장), Hae Ryun Kim(제3장과 제13장), Jessica Mahoney(제6장과 제15장), Joshua Monje-Jelfs(제9장), Elena Tosetto(제2장, 제4장 및 제7장)이다. Lara Fleischer는 Carrie Exton이 감독하고, Marco Mira d'Ercole과 Martine Durand가 편집하고, Paul Schreyer의 지도 아래 출판한 본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Martine Zaida는 *How's Life?*의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로 프로젝트 내내 필수적 지원을 제공했다. Christine Le Thi는 탁월한 통계 지원을 제공했고 웰빙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을 이끌었다. Sonia Primot는 본 보고서에 나오는 새로운 웰빙 프레임워크 다이어그램을 설계했고 Mayank Sharma는 국가 프로필의 인포그래픽을 만들었다.

초안이나 특정 문의에 대해 도움과 의견, 통찰력을 제공해 준 OECD의 많은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여기에 모두 언급할 수는 없지만 Willem Adema, Aimée Aguilar Jaber, Christine Arndt-Bascle, Mario Barreto, Simon Buckle, Marie-Clemence Cnaud, Philip Chan, Michele Cecchini, Richard Clarke, Paul Davidson, Veronique Feypell, Michael Förster, Pauline Fron, Ivan Hascic, Emily Hewett, Alexander Hijzen, Katia Karousakis, Nicolaas Sieds Klazinga, Sebastian Königs, Maxime Ladaique, Gaetan Lafortune, Myriam Linster, Pascal Marianna, Mauro Migotto, Fabrice Murtin, Stephen Perkins, Marissa Plouin, Sonia Primot, Alexandre Santacreu, Bettina Wistrom, Isabelle Ynesta, 그리고 Jorrit Zwijnenburg에게 감사를 드린다.

사내 출판 및 제작 팀은 Carmen Fernandez Biezma, Vincent Finat- Duclos, Audrey Garrigoux, Kate Lancaster 및 Janine Treves로 구성되어 있으며, Patrick Hamm은 편집 지침을 제공했고 Paul Gallagher는 요약에 대한 조언을 제공했다. Anne-Lise Faron은 출판을 위한 원고를 준비하고 판형을 만들었다. 모든 분들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본 보고서는 초기의 초안에 대해 OECD 통계 정책 위원회(Committee on Statistics and Statistical Policy, CSSP) 각국 대표가 제공한 유용한 의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들의 기여와 조언에도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결과물이 그들에게 유용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How's Life?* 2020은 조사 보고서 “OECD 웰빙 대시보드의 미래(The future of the OECD Well-being Dashboard)”에 제시되었던 OECD 웰빙 프레임워크를 유용하게 이용했다. 참여했던 CSSP 각국 대표를 비롯해 모든 내·외부 참여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한국어판 서문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www.oecdkorea.org)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의 정책 경험과 주요 관심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회원국과 공유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서 보건, 사회복지, 연금 등 사회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정책본부는 OECD에서 발간하는 주요 자료들을 선별하여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How’s Life? 2020”*은 웰빙을 결정하는 요소들과 웰빙의 추세, 원인, 대책에 관해 OECD가 2011년과 2013년, 2015년, 2017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발간한 보고서로, 37개 OECD 국가와 4개의 파트너 국가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한국어판 발간을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가 감수를 해주셨습니다.

본 보고서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과 지표가 한국의 사회 정책과 연구를 위하여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장 정 영 훈

위의 한국어판 서문은 한국어판 저자가 작성한 것으로 영어 원본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어판 서문의 의견과 주장은 전적으로 한국어판 저자의 의견이며 OECD 또는 회원국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목차

서문	3
한국어판 서문	4
독자를 위한 가이드	14
요약	18
1. OECD에서의 삶은 어떠한가?	20
OECD에서의 삶은 어떠한가?	24
어떤 국가에서 삶이 더 나아지고 있거나 더 나빠지고 있는가?	32
누가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가?	41
웰빙은 앞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45
참고문헌	57
부록 1.A. 주요 웰빙 지표	58
주	63
2. 소득과 부	64
가구 소득	65
가구 자산	69
소득과 부의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72
참고문헌	77
3. 주거	78
과밀도	80
주택 구매력	81
주거비 과부담	82
기본적 위생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빈곤가구	83
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	84
주거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85
참고문헌	89
4. 일과 일자리의 질	90
고용률(25~64세)	92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15~24세)	92
장기 실업률	93
노동 시장 불안정성	93
소득	95
직업 긴장도	96
장시간 유급 노동	97
일과 일자리의 질의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98
참고문헌	104

5. 건강	105
출생 시 기대 수명	106
인지된 건강	107
자살, 급성 알코올 남용 및 약물 과다 복용의 사망	108
우울 증상	109
건강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111
참고문헌	117
6. 지식과 역량	118
15세의 인지 역량: 수학, 읽기 및 과학의 PISA 점수	120
성인의 인지 역량: 문해력과 수리력의 PIAAC 평균 점수	124
지식과 역량의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126
참고문헌	130
7. 환경의 질	131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	132
도시 지역에서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	134
환경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134
참고문헌	137
8. 주관적 웰빙	139
삶의 만족도	140
부정 정서 균형	143
주관적 웰빙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144
참고문헌	150
9. 안전	151
살인	152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함에 대한 느낌	152
교통사고 사망	154
안전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154
참고문헌	159
10. 일과 삶의 균형	160
휴식 시간	162
긴 무급 노동 시간	163
총 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	164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165
일과 삶의 균형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166
참고문헌	172
11. 사회적 연계	173
사회적 지원	175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내는 시간	175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176

사회적 연계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178

참고문헌 185

12. 시민 참여 186

투표율 187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 보유 188

시민 참여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189

참고문헌 194

13. 경제 자본 195

생산된 고정 자산 197

지적 재산 197

총 고정자본 형성 198

R&D 투자 198

총경제의 금융 순자산 200

일반 정부의 금융 순자산 200

가계 부채 201

금융 분야 레버리지 201

참고문헌 206

14. 자연 자본 207

생물 자원과 생물다양성 209

기후 변화 213

토양의 질과 담수 자원 215

폐기물과 물질 217

참고문헌 223

15. 인적 자본 225

젊은 성인 가운데 교육 성취도 226

노동 저활용률 227

조기 사망 229

흡연 유병률 229

비만 유병률 231

참고문헌 235

16. 사회 자본 236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238

타인에 대한 신뢰 238

기관에 대한 신뢰: 경찰 239

기관에 대한 신뢰: 중앙 정부 239

정부 이해당사자 관여활동 241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 241

부패 242

참고문헌 246

그림목차

그림 1.1. OECD 웰빙 프레임워크	23
그림 1.2. 2010년 이후 OECD 평균은 가계 가처분 소득, 고용률, 성별 임금 격차, 장시간 노동 및 주택 과밀이 개선되었다.	26
그림 1.3. OECD 평균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 감소와 주택 구매력 개선에서 진전이 없었다.	27
그림 1.4. 2010년에 비해 사람들은 더 긴 수명과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며, 유해한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비율은 줄었고,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30
그림 1.5. 사회적 지원 및 투표율 부족에 대한 느낌은 평균적으로 거의 바뀌지 않았다.	32
그림 1.6. 더 우수한 평균 웰빙의 국가들은 또한 더 평등한 경향이 있다.	33
그림 1.7. 이탈리아의 가계 가처분 소득, 2010~17	34
그림 1.8. 단 몇 개의 웰빙 평균만 악화되었다.	36
그림 1.9. 헝가리는 모든 웰빙 평균의 절반 이상이 개선된 유일한 OECD 국가이다.	37
그림 1.10. 2010년의 낮은 웰빙 평균의 OECD 국가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38
그림 1.11. 웰빙 불평등의 주요 지표 대부분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39
그림 1.12. 2010년 이후 OECD 국가 중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불평등 수치가 최고로 감소했다.	40
그림 1.13. 2010년 이후 가장 평등한 국가 중 일부는 약간의 변화를 겪고 있거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41
그림 1.14. OECD 국가의 여성은 사회적 연계가 더 높고 살인 또는 절망사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낮지만, 또한 더 적게 벌고 더 많은 무급 노동을 한다.	42
그림 1.15. OECD 국가의 젊은 사람들은 일 관련 성과에서 노년층과 중년층보다 더 나빠지고 있지만 사회적 연계와 휴식 시간은 더 많이 누리고 있다.	44
그림 1.16. 긴 노동 시간을 제외하고 교육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웰빙 영역에서 더 잘한다.	45
그림 1.17. 2010년 이후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생산된 자산이 증가했고 가계 부채는 줄었다.	47
그림 1.18. 종에 대한 위협과 원자재 소비에 대한 전망은 악화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전세계 감소 세부목표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48
그림 1.19. 인적 자본은 2010년 이후 주요 지표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 추세의 미래 웰빙을 위한 유일한 자원이다.	49
그림 1.20. 정부에 대한 신뢰 및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은 단지 느리게 개선되었다.	50
그림 1.21. 미래 웰빙을 위한 더 높은 자원은 오늘의 풍족한 생활과 연관된 경향이 있다.	51
그림 1.22. 미래 웰빙에 대한 자원의 진전은 혼합되어 있다.	52
그림 1.23 OECD 국가들 중에 전반적으로 미래 웰빙에 대한 자원의 증가가 감소보다 더 자주 있었다.	54
그림 1.24. 오늘날 웰빙에서의 증가와 미래에 대한 자원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55
그림 1.25. 2012년 이후 OECD에서 GDP 성장은 웰빙의 (전부가 아닌) 일부 변화와 관련이 있다.	56
그림 2.1. 소득과 부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65
그림 2.2. 2010년 이후 가구 소득은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6% 증가했다.	66
그림 2.3.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부유한 20%가 가장 빈곤한 20%보다 5.4배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	67
그림 2.4. OECD 국가 가운데 평균적으로 12%의 사람들이 상대적 소득 빈곤에서 생활한다.	68
그림 2.5. 유럽 OECD 국가에서 5명 중 1명이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다.	69
그림 2.6.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중위 가구의 부는 23배의 비율로 다를 수 있다.	70
그림 2.7. 평균적으로 가장 부유한 10%가 전체 가구의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다.	71

그림 2.8. OECD에서 1/3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에 처할 위험에 놓여 있다.	72
그림 3.1. 주거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79
그림 3.2. 과밀도 범위는 OECD 국가 전체에서 2% 미만부터 30% 이상까지 있다.	80
그림 3.3. 평균 OECD 가구는 주거비 지출 후 남은 가처분 소득이 79%이다.	81
그림 3.4. OECD 국가에서 저소득 가구 5개 중 하나는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한다.	82
그림 3.5. OECD 국가에서 기본 위생 시설이 부족한 빈곤 가구의 비율은 1% 미만부터 60% 이상이다.	83
그림 3.6. OECD 국가 내 가구의 80% 이상이 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	84
그림 3.7. 대다수 OECD 국가에서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 간 고속 인터넷 접근성은 격차가 크다.	85
그림 4.1. 일과 일자리의 질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91
그림 4.2. 25~64세의 고용은 금융 위기 이후 반등했다.	92
그림 4.3. OECD 국가 전체에서 10명 중 1명의 청년이 실업 상태이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이다.	93
그림 4.4. 장기 실업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2010년 이후 감소했다.	94
그림 4.5. 소폭의 노동 시장 불안정성 감소는 OECD 국가 전체에 걸친 큰 차이를 가리는 경향이 있다.	94
그림 4.6. 최고 임금 OECD 국가에서 전일제 근로자는 최저 임금 근로자보다 평균 4배 더 많이 번다.	95
그림 4.7.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평균적으로 90번째 백분위수의 소득자는 10번째 백분위수의 소득자보다 3배 더 많이 번다.	96
그림 4.8. 직업 긴장도는 OECD 국가에서 근로자 3명 중 거의 1명에게 영향을 준다.	97
그림 4.9. 201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감소했다.	98
그림 4.10.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여전히 남성은 여성보다 13% 더 많이 번다.	99
그림 5.1. 건강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106
그림 5.2. 2010년 이후 수명 증가는 일부 국가에서 느려졌고 OECD 평균 수준 미만의 국가에서 더 큰 경우가 많다.	107
그림 5.3. OECD 국가 국민의 약 2/3는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말한다.	108
그림 5.4. 절망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OECD 국가 일부에서 감소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증가했다.	109
그림 5.5. 자살은 가장 일반적인 절망사이며 그 다음이 알코올 관련 사망이다.	110
그림 5.6. 유럽 OECD 국가의 성인 6%가 최근에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	110
그림 5.7.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전반적 건강은 더 나쁘다고 인지한다.	111
그림 5.8. 절망사에서 성별 격차는 좁아졌지만 계속해서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남성이 자살과 급성 약물 남용으로 사망한다.	112
그림 5.9.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	113
그림 5.10. 더 높은 소득의 사람들은 그들의 건강이 더 낫다고 말한다.	113
그림 6.1. 지식과 역량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변화의 방향	119
그림 6.2. 15세 학생들의 수학 역량은 2003년 이후 1/3 이상의 OECD 국가에서 저하되었다.	120
그림 6.3. 15세 학생들의 읽기 역량은 2000년 이후 1/4 이상의 OECD 국가에서 저하되었다.	121
그림 6.4. 2006년 이후 15세 학생들의 과학 역량은 18개 OECD 국가에서 하락했고 세 개 국가에서 개선되었다.	122
그림 6.5. 평균적으로, 90번째 백분위수의 15세 학생은 인지 역량이 10번째 백분위수 학생들보다 약 65% 더 높다.	123
그림 6.6. 평균의 OECD 국가에서 학생 8명 중 1명이 PISA 과목 세 개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	123
그림 6.7. OECD 국가 전체에서 문해력 점수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수리력의 차이를 반영한다.	125
그림 6.8. 최저 성적 OECD 국가에서는 성인 인구의 약 50%가 레벨 1 이하의 성적을 보인다.	126
그림 6.9. 모든 OECD 국가에서 읽기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하다.	127

그림 6.10. 모든 OECD 국가에서 더 나이가 많은 성인은 더 젊은 성인보다 수리력 점수가 더 낮다.	128
그림 6.11. 부모가 초등 교육을 받은 15세 학생은 부모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급우들보다 성적이 더 낮다.	128
그림 7.1. 환경의 질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132
그림 7.2. 2005년과 비교했을 때 WHO 임계치 수준을 초과하는 PM2.5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했다.	133
그림 7.3. 일부 OECD 국가에서는 20% 이상의 사람들이 심각한 공기 오염에 노출된다.	133
그림 7.4. 유럽에서 도시 인구의 대다수는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 공간에 접근할 수 있다.	134
그림 7.5. 공기 오염에 대한 노출에서 지역적 차이는 국가 차이만큼 클 수 있다.	135
그림 8.1. 주관적 웰빙 스냅샷: 2010년 이후 현재 수준과 변화의 방향	140
그림 8.2. OECD 평균 삶의 만족도는 2013년 이후 약간 상승했다.	141
그림 8.3.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매우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는 사람의 비율이 2013년 이후 1.6% 포인트 감소했다.	142
그림 8.4. 가장 불평등한 OECD 국가에서 상위 20% 사람들의 평균 삶의 만족도가 하위 20% 사람들보다 2.5배 이상 높다.	143
그림 8.5. 약 13%의 사람들이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144
그림 8.6.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부정 정서 균형을 경험한다.	145
그림 8.7. 연령 관련 불평등이 낮은 국가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높다.	146
그림 8.8. 북부 유럽에서 부정 정서 균형은 30세 후 악화되지만 50세 후 다시 회복된다.	146
그림 8.9. 평균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OECD 국가는 교육 수준 관련 격차가 더 작다.	147
그림 8.10. 더 높은 교육 수준은 부정 정서 균형의 낮은 추세도와 관련이 있다.	148
그림 9.1. 안전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152
그림 9.2. 2010년 이후 OECD 평균 살인율은 약 1/3까지 감소했다.	153
그림 9.3. 절반 이상의 OECD 국가에서 2010~12년 이후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했다.	153
그림 9.4. 교통사고 사망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2010년 이후 감소했다.	154
그림 9.5. 극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살인율은 여성보다 남성에 대해 더 높다.	155
그림 9.6. 안전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큰 성별 격차는 2006~12년 이후 약간 좁아졌다.	155
그림 9.7.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밤에 혼자 걸을 때 덜 안전하다고 느낀다.	156
그림 10.1. 일과 삶의 균형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161
그림 10.2. OECD 국가에서 전일제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여가와 자기 돌봄에 하루 15시간을 보낸다.	162
그림 10.3. OECD 국가에서 7~17%의 사람들이 긴 시간 무급으로 일한다.	163
그림 10.4.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에 25분 더 일한다.	164
그림 10.5. 시간 사용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데이터가 있는 모든 OECD 국가에서 10점 중 8점 미만이다.	165
그림 10.6. 전일제 근로자 가운데 남성은 여성보다 휴식 시간이 더 많다.	166
그림 10.7. 여성은 무급 노동에서 일관되게 남성보다 더 길게 일한다.	167
그림 10.8. 중년 전일제 근로자는 휴식 시간이 가장 적다.	168
그림 10.9. 중년층은 자신의 시간 사용에 대해 가장 덜 만족한다	168
그림 10.10. 시간 사용 만족도는 교육 수준과 함께 감소한다.	169
그림 11.1. 사회적 연계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174
그림 11.2. 평균적으로 OECD의 국가 국민들의 90%는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175
그림 11.3. OECD 국가에서 사교에 쓰는 시간은 주당 2시간부터 9시간 이상까지 있다.	176
그림 11.4.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OECD 국가에서 좁은 범위로 펼쳐져 있다.	177

그림 11.5.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10%의 사람들은 자신의 관계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고한다.
..... 178

그림 11.6.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179

그림 11.7. 더 나이 든 사람들은 사회적 지원이 더 적다. 180

그림 11.8. 더 젊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181

그림 11.9. 교육 수준이 더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원을 덜 받는다. 182

그림 11.10. 더 낮은 교육 수준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 덜 만족한다. 182

그림 12.1. 시민 참여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187

그림 12.2. 2010~13년 이후 투표율의 대폭 하락은 몇 개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188

그림 12.3. 세 명 가운데 한 명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느낀다. 189

그림 12.4. 약간 더 많은 OECD 국가에서 투표를 하고 정부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약간 높다. 190

그림 12.5. 젊은 층에 비해 나이 든 사람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한다. 191

그림 12.6. 가장 나이 든 세대와 가장 젊은 세대가 발언권이 있다고 한 비율이 가장 낮다 (국가에 따라 다름). 191

그림 12.7. 교육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다. 192

그림 13.1. 경제 자본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196

그림 13.2. 2010년 이후 생산된 고정 자산의 누적 성장은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12%부터 +79%까지 있다. 197

그림 13.3. 가장 실적이 좋은 국가의 지적 재산은 가장 실적이 나쁜 국가보다 7배 높다. 198

그림 13.4. OECD 국가 중 1/3은 총 고정자산 형성의 연간성장율이 2010년보다 낮다 199

그림 13.5. OECD 국가 중 절반 정도는 R&D 투자가 GDP의 2% 미만이다. 199

그림 13.6. OECD 국가의 순 재정상태는 2010년 이후 더욱 양극화되었다. 200

그림 13.7. 2010년 이후 정부 금융 순자산은 이미 무거운 채무를 지고 있었던 국가에서 더욱 악화되었다.
..... 201

그림 13.8. OECD 국가 중 거의 2/3에서 가계 부채가 가처분 소득의 100%를 넘어선다. 202

그림 13.9. 2010년 이후 금융 분야 레버리지는 가장 레버리지가 높았던 국가 중 일부에서 하락했다. 202

그림 14.1. 자연 자본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208

그림 14.2. OECD 국가의 자연 토지 피복의 비축은 6%~90%이다. 209

그림 14.3. 자연 토지 손실은 한국, 이스라엘,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컸다. 210

그림 14.4. 11개 OECD 국가만 2000년 이후 총 6% 손상된 무손상 산림 경관을 가지고 있다. 211

그림 14.5. OECD 국가 육지 영역의 16%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11

그림 14.6. 10개의 OECD 국가는 2010년 이후 해양 보호구역의 비율을 두 배 증가시켰다. 212

그림 14.7. 적색목록 지수는 최대 생물다양성 압력의 국가에서 악화되었다. 212

그림 14.8. 2010년 이후 평균적으로 OECD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했다. 214

그림 14.9. OECD 1인당 평균 탄소 발자국은 2010년 이후 감소했다. 214

그림 14.10. 재생 가능 에너지는 여전히 대부분의 OECD 에너지 믹스에서 미미한 역할만을 하고 있다.
..... 215

그림 14.11. 물, 토양 및 공기에 대한 오염 압력을 더하는 과잉 질소 위험 216

그림 14.12. OECD 국가의 1/3이 자국 내부수의 20% 이상을 사용한다. 216

그림 14.13. 1인당 물질 발자국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217

그림 14.14. 도시 폐기물 회수율은 2010년 이후 모든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에서 개선되었다. 218

그림 15.1. 인적 자본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226

그림 15.2.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젊은 성인의 교육 성취도가 상승하고 있다. 227

그림 15.3. OECD 전체에 걸친 노동 인구 저활용의 큰 불일치 228

그림 15.4. 노동 저활용은 5개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OECD 국가에서 개선되고 있다.	228
그림 15.5. 한 개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OECD 국가에서 조기 사망이 감소했다.	229
그림 15.6. 흡연 유병률은 OECD 전체에 걸쳐 감소하고 있다.	230
그림 15.7.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흡연을 더 많이 한다.	231
그림 15.8. OECD 국가에서 5명 중 1명이 비만이며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232
그림 16.1. 사회 자본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237
그림 16.2. 6명 중 1명은 공식 조직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	238
그림 16.3. 타인에 대한 신뢰는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높다.	239
그림 16.4. 경찰에 대한 평균 신뢰는 10점 중 6.3점이다.	240
그림 16.5. 2010년 이후 1/4의 OECD 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반등했다.	240
그림 16.6. 평균 정부 이해당사자 관여활동은 2014년 이후 개선되었지만 이미 약화된 성과의 일부 국가에서는 감소했다.	241
그림 16.7. 정치는 여성에게 보다 포용적으로 되었지만 성별 동등성은 달성하지 못했다.	242
그림 16.8. 평균적으로 2012년 이후 인지된 부패는 고착된 상태로 남아 있다.	243

표제목

표 1. 국가별 지역별 ISO 코드	14
표 2. 선정된 지표별로 웰빙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계치	16
표 1.1. 오늘날의 웰빙: 소득과 부, 주거, 일과 일자리의 질	25
표 1.2. 오늘날의 웰빙: 건강, 지식과 역량,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	29
표 1.3. 오늘날의 웰빙: 사회적 연계, 시민 참여, 일과 삶의 균형	31
표 1.4. 불충분한 시계열이 있는 웰빙 주요 지표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임계치	35
표 1.5. 미래의 웰빙을 위한 자원	46
표 2.1. 이 장에서 고려한 소득과 부 지표	74
표 2.2. 소득과 부 지표는 유의미하게 연관성이 있지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76
표 3.1. 이 장에서 고려한 주거 지표	86
표 3.2. 위생 시설, 과밀도 및 인터넷 접근은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서로 관련되어 있다.	88
표 4.1. 이 장에서 고려한 일과 일자리의 질 지표	100
표 4.2. 일과 일자리의 질 지표는 예상대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	102
표 5.1. 이 장에서 고려한 건강 지표	114
표 5.2. 건강의 객관적 및 주관적 측정은 국가 수준과 관련이 있다.	115
표 6.1. 이 장에서 고려한 지식과 역량 지표	129
표 6.2. 지식과 역량 지표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	130
표 7.1. 이 장에서 고려한 환경의 질 지표	135
표 7.2. 공기 오염과 녹지 환경에 대한 접근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136
표 8.1. 이 장에서 고려한 주관적 웰빙 지표	148
표 8.2. 삶의 만족도와 부정 정서 균형은 관련이 있지만 다르다.	149
표 9.1. 이 장에서 고려한 안전 지표	157
표 9.2. 안전에 대한 객관적 척도와 주관적 척도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	158
표 10.1. 이 장에서 고려한 여가와 문화 지표	170
표 10.2.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오래 일하는 경우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172
표 11.1. 이 장에서 고려한 사회적 연계 지표	183

표 11.2.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적 지원은 상관관계가 없다. 184

표 12.1. 이 장에서 고려한 시민 참여 지표 192

표 12.2. 정부에 대한 발언권 보유와 투표율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193

표 13.1. 이 장에서 고려한 경제 자본 지표 203

표 13.2. 가계 부채는 생산된 고정 자산, 지적 재산 및 금융 순자산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204

표 14.1. 이 장에서 고려한 자연 자본 지표 219

표 14.2. 각각의 자연 자본 지표는 전체적 그림에 기여한다. 222

표 15.1. 이 장에서 고려한 인적 자본 지표 233

표 15.2. 이 장에서 사용된 지표는 인적 자본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다. 234

표 16.1. 이 장에서 고려한 사회 자본 지표 243

표 16.2. 타인에 대한 신뢰, 의사 결정의 포용성 및 인지된 부패는 사회 자본의 다른 여러 측면을 포착한다.
..... 245

부록 표1.A.1. 주요 지표: 현재의 웰빙 평균 58

부록 표1.A.2. 주요 지표: 현재의 웰빙 불평등 59

부록 표1.A.3. 주요 지표: 미래의 웰빙을 위한 자원 61

OECD 출판물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twitter.com/OECD_Pubs
	http://www.facebook.com/OECDPublications
	http://www.linkedin.com/groups/OECD-Publications-4645871
	http://www.youtube.com/oecdlibrary
	http://www.oecd.org/oecdirect/

본 보고서는... **StatLinks** 

인쇄된 페이지에서 Excel® 파일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표 또는 그래프의 하단에서 StatLinks2 를 찾으십시오. 관련 Excel® 스프레드시트를 다운로드하려면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 <https://doi.org>로 시작하는 링크를 입력하거나 전자책에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독자를 위한 가이드

2018년 5월 25일, OECD 이사회는 콜롬비아를 회원국으로 승인했다. 콜롬비아는 OECD 회원국 목록에 있고 본 출판물에 기록된 OECD 평균에 포함되어 있는 한편, 출판물을 준비하던 당시 콜롬비아는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중이었고 OECD 협약에 대한 콜롬비아의 가입 문서 기탁은 계류 중이었다.

표기 규칙

- 각 그림에서 “OECD”라고 표시된 데이터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그림에 나와 있는 OECD 국가의 단순 평균치이다. 37개 OECD 국가 모두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산에 포함된 국가의 수가 그림에 명시된다(예: OECD 국가 33개).
- 가중치를 준 OECD 평균(또는 OECD 합계)은 OECD 협약이 이 유형의 평균을 제공하는 경우에 표시된다. 사용되는 경우 가중치 부여 방법론의 세부 사항과 함께 그림 주에 명시된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인구 가중치를 사용한 경우 이는 총 OECD 인구 비율로 각 국가의 인구 크기에 따라 수행된다. OECD 합계는 모든 OECD 국가를 각 국가가 비례해서 총계에 기여하는 단일 독립체로 간주한다.
- 국가의 표본은 일년내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경과와 추세선에 따른 변화의 분석에서 OECD 평균은 매년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만을 나타낸다. 이는 완전한 시계열이 있는 국가들만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최신 및 가장 빠른 이용 가능한 시점(제2장~제16장의 참고문헌에 표시됨)에 대한 평균과 비교하여 간혹 추세선(제1장에 표시됨)에 대해 다른 OECD 평균을 초래할 수 있다.
- 각각의 그림은 해당 기간을 명시하며, 그림의 주는 데이터가 다른 국가들에 대한 다른 연도를 가리킬 때 추가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 국가는 ISO 코드로 표시된다(표 1).
- 핵심 파트너 국가(브라질, 코스타리카,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데이터(가능한 경우는)는 OECD 국가에 대한 그림에서 분리된 부분에 제시된다.

표 1. 국가별 지역별 ISO 코드

AUS	호주	FIN	핀란드	MEX	멕시코
AUT	오스트리아	FRA	프랑스	NLD	네덜란드
BEL	벨기에	GBR	영국	NOR	노르웨이
BRA	브라질	GRC	그리스	NZL	뉴질랜드
CAN	캐나다	HUN	헝가리	OECD	OECD 평균
CHE	스위스	IRL	아일랜드	POL	폴란드
CHL	칠레	ISL	아이슬란드	PRT	포르투갈
COL	콜롬비아	ISR	이스라엘	RUS	러시아
CRI	코스타리카	ITA	이탈리아	SVK	슬로바키아
CZE	체코	JPN	일본	SVN	슬로베니아
DEU	독일	KOR	한국	SWE	스웨덴
DNK	덴마크	LTU	리투아니아	TUR	터키
ESP	스페인	LUX	룩셈부르크	USA	미국
EST	에스토니아	LVA	라트비아	ZAF	남아프리카공화국

How's Life? 지표 대시보드

OECD 웰빙 프레임워크(Exton 및 Fleischer, 2020^[11])의 철저한 검토에 이어 *How's Life? 2020*은 80개가 넘는 웰빙 지표에 대한 확대 대시보드를 특별히 포함하고 있다. 이들 지표는 11개의 현재 웰빙 영역과 OECD 웰빙 프레임워크의 미래 웰빙에 대한 4가지 자본을 반영한다. *How's Life? 2017*에 비해 이번 호는 환경, 정신 건강, 시간 사용, 무급 노동과 인간 관계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포함한다.

주요 지표 선정

보다 간결한 정보 전달과 핵심 조사 결과 강조를 위해 제1장은 세 가지의 주요 지표 세트를 사용하는데, 현재 웰빙 평균 주요 지표 12개, 현재 웰빙 불평등 지표 12개, 그리고 미래의 웰빙을 위한 자원 지표 12개 등이다 (제1장 부록 참조).

주요 지표는 개념 기준과 실제 기준을 가능한 최대 범위까지 공동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확대 대시보드에서 선택되었다.

- 이들 지표는 웰빙 프레임워크의 모든 구성요소 전체에 걸친 균형을 반영하며 현재 웰빙의 각 영역에 대해 적어도 하나의 평균 및 하나의 불평등 지표, 그리고 각 자본 유형에 대해 3개의 지표를 포함한다. 주요 불평등은 또한 *How's Life? 2017*에 소개된 웰빙 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따른다. 즉, 분포의 상층과 하층 간 격차(“수직적 불평등”), 인구집단 간 차이(“수평적 불평등”), 박탈(정해진 최소 임계치 아래에 있는 인구의 비율)의 예를 포함한다.
- 이들 지표는 OECD 국가가 주도하는 다양한 국가 웰빙 이니셔티브에 자주 등장하며 다른 OECD 정책에서 드러나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일부 합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 이니셔티브와 OECD 포용적 성장 정책 실행을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Policy Action on Inclusive Growth)(OECD, 2018^[21])에 성별 임금 격차가 포함된다.
- 이들 지표는 다양한 통계 품질 기준에서 특히 활발한 역할을 한다. 다수의 지표가 각 영역의 폭넓은 요약 지표 역할을 하고 대다수 OECD 국가를 포괄하며, 확대 대시보드의 다른 지표보다 더욱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좀 더 자주 수집되고 만들어진다. 하지만 어떤 영역에는 다른 영역보다 훨씬 더 나은 데이터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과 삶의 균형과 사회적 연계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지표는 5~10년마다 OECD 국가의 부분집합에 대해서만 수행되는 생활시간조사에서 나온다. 그에 반해, 일과 일자리의 질에 대한 몇 개의 지표는 매년 수행되는 노동력 조사에서 나온다.

정보 전달을 위한 주요 지표 세트의 소개는 이들이 확대 대시보드의 다른 지표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이 더 작은 지표 세트가 웰빙을 완전히 분석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더 면밀한 모니터링과 정책적 주의를 요구하는 웰빙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과가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또는 나빠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How's Life? 2020*은 추세를 분류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의 분석을 사용한다(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2010년 이후).

- 충분한 시계열이 있는 지표의 경우(국가당 최소 3회의 관찰), 전체적 추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부를 감지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전 기간에 걸친 움직임을 고려한다. 이는 지표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즉, 2010년과 2018년) 사이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제한하는 것은 비일반적인 연도와 실제 변화의 과대 또는 과소 평가를 포착할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최소 75%에 대해 충분한 시계열이 있을 때마다 *How's Life*는 각 지표의 관찰된 값과 시간(연도로 표시) 사이의 스피어만(순위)

상관 계수를 이용한다. 스피어만 상관관계가 적어도 10% 수준으로 중요한 경우 국가는 “**지속적으로 개선 중**” 또는 “**지속적으로 악화 중**”으로 분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뚜렷한 추세 없음**”으로 분류된다.

-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 중 적어도 75%에 대해 국가당 관찰이 3회 미만인 지표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2010년(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과 2018년(또는 최신 가용 연도) 사이의 단일 변화점으로서 평가했다. 국가는 지표별 임계치와 관련하여 “개선 중”, “악화 중” 또는 “뚜렷한 추세 없음”으로 분류된다(표 2). 이들 임계치는 절대 단위 값과 상대적 퍼센트 변화 조건 둘 다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관찰된 전체 변화 규모, OECD 국가 중에서 값의 단일변수분포, 추정값에서 예상되는 오차 범위를 포함한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

표 2. 선정된 지표별로 웰빙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계치

지표	측정 단위	임계치
소득과 일		
가구 자산	중위 순 부, 2016년 PPP일 때 USD	+/-9,000 USD
일과 일자리		
직업 긴장도	직무 자원의 수를 넘어서는 다수의 직무 요구를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	+/-3.0% 포인트
건강		
자살, 알코올, 약물로 인한 사망	자살, 급성 알코올 남용 및 약물 과다 복용의 결합 사망, 인구 10만 명당	+/-1.9명 사망
지식과 역량		
학생 역량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on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 PISA) - 수학, 읽기 및 과학 평균 점수	OECD 교육국(Education Directorate)이 제공하는 신뢰 구간에 기반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11점 척도에서 평균 값, 응답 범위 0(전혀 만족스럽지 않음)부터 10(완전히 만족스러움)까지	+/-0.2점 척도
안전		
안전감에 대한 성별 격차	밤에 혼자 걸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덜 안전함을 느끼는 퍼센트 차이	+/-5.0% 포인트
일과 삶의 균형		
휴식 시간	여가와 자기 돌봄에 할당된 시간, 하루당 시간	+/-20분
사회적 연계		
사회적 상호작용	일차적 활동으로 친구 및 가족과 상호작용하며 보내는 시간, 주당 시간	+/-20분
시민참여		
투표율	투표하는 등록 유권자의 비율	+/-3% 포인트
자연 자본		
자연 및 반자연 토지 피복	총 토지 면적 퍼센트로서 자연 및 반자연 초생 토지 피복 (나무로 덮인 지역, 초원, 습지, 관목지와 희박한 초목)	0과 다른 모든 변화
손상되지 않은 산림	제곱 킬로미터	0과 다른 모든 변화
인적 자본		
흡연 유병률	매일 흡연하는 것으로 보고한 15세 이상의 비율	+/-1% 포인트
비만 유병률	15세 이상 비만인 비율, 자기 보고 또는 건강 면접을 통한 측정	+/-1% 포인트
사회 자본		
정부 이해당사자 관여활동	0~4 척도, OECD 규제 지표 조사(Regulatory Indicators Survey)에 기반	0과 다른 모든 변화
부패	0(매우 부패)~100(매우 청렴) 척도의 부패 인식 지수 점수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제공하는 신뢰 구간에 기반

불평등 분석에서 고려하는 분류

본 보고서 전체에 걸쳐 불평등 섹션에서 고려된 교육 수준과 연령 범위는 종합 통계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 교육 수준 범위는 이수한 교육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고등학교 미만” 수준(초등 이하, 초등 및 중등)의 경우 ISCED 수준 0~2, “고등학교” 수준(중등 및 중등 이후 비대학 교육)의 경우 3~4, “대학” 수준의 경우 5~8에 해당한다. ISCED 2011 분류에 대한 개별 국가 차원의 매핑은 <http://uis.unesco.org/en/isced-mappings>를 참조한다.
 - 갤럽 세계 조사(Gallup World Poll)에서 구한 지표는 “초등” 수준은 초등 교육 이하를 이수한 경우(최대 8년의 기초 교육), “중등” 수준은 중등 교육부터 최대 3년의 3차 교육을 이수한 경우(9~15년의 교육),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의 4년 교육 이수 및/또는 “학사” 수준의 4년제 대학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 고려한 연령 범위는 지표 간에 다를 수 있으며 각각의 그림 주에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 Exton, C. and L. Fleischer (2020), “The Future of the OECD Well-being Dashboard”,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forthcoming, OECD Publishing, Paris. [1]
- OECD (2018), *Opportunities for All: A Framework for Policy Action on Inclusive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1665-en>. [2]

요약

여러모로, 삶은 나아지고 있다...

좋은 소식은, 어떤 면에서 웰빙이 여러 OECD 국가에서 금융 위기의 영향을 심각하게 느꼈던 2010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안전한 삶을 더 오래 살고 있다. OECD 국가 전체에서 기대 수명은 1년 이상 증가했으며 오늘 태어난 보통의 신생아는 80세 이상까지 살 것이다. 2010년 이후 OECD 평균 살인율은 1/3까지 감소했고, 교통사고 사망은 줄고 있으며, 사람들은 밤에 주변을 혼자 걸을 때 더 안전하고 느낀다. 여덟 가구 중 한 가구는 과밀 조건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2010년보다 3%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소득과 부는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고용률과 평균 가구 소득이 최대 5% 포인트 상승했다. 오늘날 성인 10명 중 약 8명이 유급 고용 상태이다. 최근의 조사는 사람들이 2013년에 느꼈던 것에 비해 그들의 삶에 보다 만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다른 OECD 국가들은 매우 다른 현실에 직면해 있다

*How's Life?*는 OECD 평균이 강조하는 것만큼 가려지는 부분도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이 모든 회원국에 대해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니며 평균에 해당하는 국가 내에서조차 어떤 인구집단의 경우 평균 이하가 존재한다. 본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지표인 기대 수명 증가의 경우에도 안정기인 일부 OECD 국가에서 불안해지고 있다. 2010년 이후 주택 구매력, 상대적 소득 빈곤, 투표율 및 사회적 지원 각각은 개선된 OECD 국가의 수만큼 대체로 악화되었다. 현재 웰빙의 최대 증가는 2010년대 초반 웰빙이 더 약했던 국가들에 흔히 집중되었고 이들 중 다수는 동유럽에 있다. 그에 반해 경제, 자연 및 사회 자본 같은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은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고성과자(top performer)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이미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가들의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일부 웰빙 증가는 최근의 GDP 성장과 관련이 있는 한편, 이는 모든 경우, 특히 건강 성과, 불평등 및 환경에서 보장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불안과 단절, 절망이 일부 인구에 영향을 미친다

2010년 이후 현재 웰빙에서 일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훨씬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많은 가정의 생활은 아직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다. OECD 가구의 약 40%가 재정적으로 불안하며 이는 3개월간 소득이 없을 경우 이들이 빈곤 상태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다. OECD 전체 인구의 12%가 상대적 소득 빈곤 상태에서 생활하는 한편, 유럽의 OECD 국가에서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거의 두 배인 21%이다. 2010년 이후 데이터가 존재하는 국가들에서 중위 가구의 부는 평균 4% 감소했다. 저소득 가구 5곳 중 하나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하며 생활의 다른 필수적인 것들을 위한 소득은 거의 남지 않는다.

삶의 질은 또한 관계에 대한 것이다.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사람들은 주당 6시간 정도를 친구와 가족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보내는데, 특히 무급 가사노동이 반영될 경우 노동 시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영역에 존재하는 추세 데이터는 거의 없지만, *How's Life? 2020*은 사람들이 10년 전에 비해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약 30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우려스러운 감소 징후를 보여준다. 게다가 11명 중 1명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말한다.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 지원이 거의 세 배 정도 부족할 가능성이 많으며 노령층의 외로움을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낮은 정서적 웰빙, 그리고 절망과 싸우고 있다. 상당한 소수의 남성(12%)과 여성(15%)이 일반적인 하루 동안 긍정적 느낌보다 부정적 느낌을 더 많이 경험한다. 2010년 이후 삶의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개선된 한편, OECD 국가에서 상당한 비율의 인구(7%)가 매우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고한다. 유럽의 OECD 국가에서는 성인 15명 중 1명 정도가 지난 2주 동안 뉘가를 하는 데 거의 흥미가 없고, 피곤함을 느끼며, 과식을 하거나 입맛이 전혀 없는 등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사망의 매우 작은 비율이긴 하지만 자살, 급성 알코올 남용 및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절망사”가 일부 국가에서 증가했다. 그러한 사망의 OECD 평균 사망자 수는 교통사고 사망보다 3배 높고 살인으로 인한 사망보다 6배 더 높다.

웰빙에서의 불평등은 지속된다

*How's Life?*는 성별,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를 고성과자(top performer)와 저성과자(bottom performer) 간 차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평균 가구 소득은 상승한 한편, 소득 불평등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소득 분포에서 상위 20%에 드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위 20%의 사람들보다 5배 이상 벌고 있다. OECD 국가의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 연계는 남성보다 더 높은 반면 소득은 남성보다 13% 덜 벌고 있으며, 유급 및 무급 노동(집안일, 돌봄 책임 등) 둘 다 고려했을 때 매일 약 30분 정도 더 오래 일한다.

웰빙 평균 수준이 더 높은 OECD 국가는 인구집단 간 평등이 더 높고 박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더 적다. 전체적으로, 북유럽 국가,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 전통적으로 높은 웰빙과 관련된 국가의 사람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높은 현재 웰빙 수준과 더 낮은 불평등을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간 가장 평등한 국가 중 일부는 약간의 변화를 겪고 있거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높은 삶의 질로 유명한 스웨덴과 덴마크는 최근에 소득 불평등 증가, 사회적 지원의 하락 및 매우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는 사람들의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미래의 웰빙을 위협하는 자연, 경제 및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험

앞날을 생각했을 때 현 상태에 만족할 여지는 없다. 주로 환경과 사회 변화에서 기인하는 부정적 영향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OECD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오늘날의 웰빙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OECD 국가 사람들의 약 2/3가 위험한 수준의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2018년, 평균 OECD 거주자는 2010년에 비해 탄소를 덜 소비하고 있지만 더 많은 지구의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 OECD의 온실가스 배출(GHG) 감소는 기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한참 모자라며, OECD 국가의 절반 가까이에서 더 많은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2/3에 가까운 OECD 국가에서 가계 부채가 연간 가계 가처분 소득을 초과했고 2010년 이후 회원국의 1/3에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는 평균 3% 포인트까지 개선되었지만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절반 이하의 인구가 기관을 신뢰하며 불과 1/3의 사람들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OECD 의회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의석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따라서 포용적 의사결정은 먼 목표로 남아 있다.

대체로, 웰빙에서 최근의 발전은 시간 경과에 따라 웰빙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서의 개선과 일치하지 않았다. 가계의 재정적 불안부터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및 민주주의 제도의 기능 수행 방식에 대한 위협까지, 우리는 오늘날 웰빙의 극대화를 넘어 생각해야 한다. 인간과 지구의 지속적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웰빙을 뒷받침하는 대담하고 전략적인 자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1 OECD 회원국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 측면에서 2010년 이후 OECD 국가에서 사람들의 웰빙은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진전은 느리거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정부와 연결되는 방식을 포함해서 삶의 어떤 측면에서는 악화되었다. 성별, 연령 및 교육 수준별 큰 격차는 웰빙 성과 전체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높은 OECD 국가는 인구집단 간 평등이 더 높고 박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더 적다. 현재 웰빙의 최대 증가는 2010년대 초반 웰빙이 더 약했던 국가들에 흔히 집중되어있다. 이러한 증가는 때로 최근의 GDP 성장과 관련이 있는 한편,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전을 평가할 때 GDP를 넘어 생각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자연, 인간, 경제 및 사회 자본 전반에 걸쳐 부상하는 전체적 위험과 함께, 현재 웰빙에서의 증가는 시간 경과에 따라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활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사람과 사회가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웰빙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공 정책을 설계하려면 정부는 경제의 기능 너머를 생각해야 하고 다양한 생활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및 사회적 연계 같은 영역에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데이터와 통계가 필요하다.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나아지고 있고 누구를 위해 나아지고 있는지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치적 평균 너머를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웰빙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웰빙을 미래까지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될 자원도 평가해야 한다.

사람들을 위해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OECD 웰빙 프레임워크(상자 1.1)가 그 어느 때보다 관련이 있다. 데이터 격차, 그리고 폭넓은 사람들의 생활 조건을 말해주는 통계의 부재에 관한 우려는 2007년 이전까지의 완화된 GDP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의 10년("대완화기") 동안 이미 명백했다. 몇몇 OECD 국가에서의 2008년 금융 위기와 뒤이은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불만 및 시민 불안은 사람들의 경험과 상황에 관한 더 나은 데이터의 필요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사람들이 그들의 번영, 평화, 파트너십 그리고 지구의 장기적 건강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기 위한 정책 노력에 새로운 자극을 가져왔다. 웰빙의 중요성을 점점 더 많은 중앙 정부가 인식하고 있고, 이들 중 몇몇 국가는 OECD와 비슷한 웰빙 프레임워크를 설계했다. 또한 일부 OECD 정부는 사람들의 웰빙을 전략적 목표와 의제 설정, 정책 분석 및 예산 편성에 통합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Durand 및 Exton, 2019^[1], OECD, 2019^[2], Fleischer, Frieling 및 Exton, 2020^[3]).

그러면, OECD 국가 사람들의 삶은 나아지고 있을까? *How's Life? 2020*(상자 1.2)은 어떤 면에서 웰빙이 대다수 OECD 국가에서 금융 위기의 영향을 심각하게 느꼈던 2010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OECD 전체에서 사람들은 이제 더 높은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있고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생활에 좀 더 만족하며, 과밀 가정에서 거주할 가능성은 더 낮다. 살인율은 감소했고 사람들은 대체로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보고한다.

그렇지만 진전은 느려지고 있거나 다른 영역에서는 심지어 악화되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개인적 관계의 질과 관련이 있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정부와 연결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개발은 더 면밀한 모니터링과, 보다 근본적으로, 정책 조치를 요청한다.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 OECD 국가의 가계가 주거비에 쓰는 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람들이 어려울 때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는지 여부, 그리고 투표율은 정체되어 왔다. 중위 가구의 부,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과학 시험에서 학생들의 성적, 그리고 사람들이 친구와 가족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보내는 시간 등은 모두 감소했다. 게다가 성별, 연령별 및 교육 수준별 극명한 차이는 웰빙의 대부분의 측면에서 지속되고 있다.

높은 수준의 평균 웰빙 달성 면에서 보다 성공적인 OECD 국가는 또한 사회-인구학적 집단(성별, 연령 또는 교육 수준 등) 간 그리고 각각의 웰빙 영역에서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더 우수한 평등성의 증거가 되며 박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더 적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북유럽 국가,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등 전통적으로 높은 웰빙과 관련된 국가의 사람들은 더 높은 현재 웰빙 수준과 더 낮은 불평등을 누리고 있다. 그렇지만 2010년 이후 가장 평등한 국가 중 일부는 약간의 변화를 겪고 있거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좋은 소식은 처음에는 더 열악한 웰빙의 증거가 되었던 많은 OECD 국가들이 지난 10년간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가 동유럽 국가인 이들 국가는 이 장에서 고려한 웰빙 지표 전체에 걸쳐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의 개선과 가장 많은 수의 불평등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웰빙 증가 중 일부는 더 높은 GDP 성장과 관련이 있는 한편, 이것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며 진전의 유일한 지표로서 GDP 성장 너머를 살펴보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상자 1.5).

앞날을 생각했을 때 현 상태에 만족할 여지는 없으며 모든 OECD 국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과 지구의 웰빙을 지속시키기 위해 좀 더 미래 지향적 접근법에 다가가야 한다. 이는 OECD 정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 특히 장기적 경기 침체 경고와 눈앞에 놓인 자연적 사회적 혼란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매우 중요하다(OECD, 2019^[4]). *경제* 및 *자연 자본* 둘 다와 관련이 있는 분명한 경고 징후가 있으며, 2010년 이후 *사회 자본*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 예를 들어 둘 다 이미 OECD 평균보다 훨씬 아래였던 국가에서 정부와 가계

부채가 심화되었다.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세계적 온실가스 배출이 2018년 이후 계속 최고 수준에 도달하면서 기후 변화는 미래의 웰빙에 만만치 않은 위협을 가한다. OECD 국가는 2010년보다 1인당 지구의 물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더 많은 종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으며,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은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편 여전히 먼 목표이다.

미래 웰빙에 대한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OECD 전체에서 *인적 자본*에서는 일부 증가가 있었다. 2010년 이후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젊은 성인의 비율이 증가하고(교육의 질에서 시험 성과 점수는 소폭 하락을 나타 내기는 하지만), 실업자, 구직단념자 또는 불안전고용 근로자¹가 줄고 조기 사망이 감소했다. 하지만 대체로 국가의 현재 웰빙에서의 발전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서의 개선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후 몇 년 안에 OECD 국가들은 오늘날의 웰빙 너머를 살펴봐야 할 것이고 웰빙의 모든 면에 대해 보다 거시적 접근법에 다가가야 할 것이다.

상자 1.1. OECD 웰빙 프레임워크

*How's Life?*는 OECD 국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핵심 통계를 제공한다. 현재의 웰빙 데이터는 개인, 가구 및 공동체 수준의 생활 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설명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특히 “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또는 소모), 그리고 웰빙에서 미래의 변화의 형태를 만들어갈 위험 및 회복력 요소를 통해 미래에 웰빙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한 통계로 뒷받침된다. 현재 웰빙과 그 지속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기록은 전자의 극대화가 후자에 대한 타협의 결과로 연계 되는 것인지(또는 그 반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이는 정책 설계에서 시점 간 균형을 알리고 국가의 웰빙에 대한 세대간 전망을 나타낼 수 있다.

OECD 웰빙 프레임워크(그림 1.1)에서 현재 웰빙은 11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영역은 사람들의 경제적 옵션(소득과 부, 주거, 일과 일자리의 질)의 형태를 만드는 물질적 조건,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활 장소가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한지(건강, 지식과 역량,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를 망라하는 삶의 질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삶의 질은 또한 사람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도 포괄한다(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연계, 시민 참여).

전국 평균이 인구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광범위한 불평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구집단 간 격차(예: 남성과 여성 간, 노인과 젊은이 간 등. 수평적 불평등으로서 집합적으로 설명), 각 영역에서 성취 척도의 상위에 있는 이들과 하위에 있는 이들 간 격차(예: 가장 빈곤한 개인 20%의 소득과 비교한 가장 부유한 개인 20%의 소득, 수직적 불평등이라고 함), 그리고 박탈(역량 또는 건강의 최소 수준 등 정해진 성취 임계치 이하 인구의 비율)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불평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웰빙의 분포를 고려한다.

시간 경과에 따라 미래의 웰빙을 뒷받침하는 전체적 자원은 네 가지 유형의 자본 유형으로 표현된다. 즉, 시간이 지나도 지속되는 비축은 지금 내린(또는 내리지 않은) 결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경제 자본*은 사람이 만든 자산과 금융 자산을 포함하며 *자연 자본*은 자연 자본(예: 천연 자원 비축, 토지 피복, 종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및 그 서비스(예: 대양, 삼림, 토양 및 대기)를 포함하며, *인적 자본*은 개인의 역량과 미래 건강을 나타낸다. *사회 자본*은 협력을 조성하는 사회 규범, 공유 가치와 제도 정비를 나타낸다. 이러한 자본 비축과 흐름의 다수는 민간 행위자가 “소유한” 자본 이상으로 확대되며 사실상 공공 재화이다. 예를 들어 타인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믿음은 국가 또는 공동체의 전반적 대인 관계 신뢰의 분위기에 기여하는 한편, 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 세계의 전반적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 비축과 흐름을 고려하는 것 외에도 *How's Life?*는 미래에 이러한 비축과 흐름의 웰빙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위험 및 회복력 요소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정치에서 의사결정의 포괄성이 웰빙을 위한 보호 요소가

될 수 있는 한편, 가계 부채는 미래 경제 전망에 위험을 가한다.

그림 1.1. OECD 웰빙 프레임워크



시간 경과에 따른 *How's Life?*

*How's Life? 2020*은 2011년 OECD의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 시리즈의 제5호이다. 그때 이후 웰빙에 대한 OECD의 연구는 2019년 웰빙 프레임워크와 지표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 뒤따른 몇 가지 개선과 함께 상당히 진화했다(Exton 및 Fleischer, 2020^[5]). 이는 *How's Life 2020*에 반영되었고 오늘날 웰빙과 미래에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 간 더 분명한 차이(즉, 이러한 두 범주 간에 전에 존재했던 지표 중복 제거)², 일부 현재 웰빙 영역의 리브랜딩, 환경, 정신 건강, 시간 사용, 무급 노동 및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포함한 80개가 넘는 지표로 웰빙 대시보드 확대를 포함한다.

상자 1.2. 이 책을 읽는 방법

*How's Life? 2020*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OECD 회원국의 How's Life?” - 웰빙의 개요(제1장)
- 평균, 불평등 및 시간 경과, 지표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각각의 웰빙 영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제2장~제16장 참고문헌)
- 각각의 OECD 및 파트너 국가의 웰빙 성과에 대한 핵심 통계(국가 프로파일은 온라인으로만 제공됨 (<http://oecd.org/howslife>))

현재 장은 주요 지표 소규모 세트를 기반으로 2010년 이후 웰빙 추세의 전반적 분석을 제시한다. OECD 웰빙 대시보드의 80개 이상의 지표에 대한 폭넓은 결과를 포함하는 제2장~제16장 참고문헌에서 제공된 보다 심층적인 증거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점을 제공한다. 웰빙의 특정 영역(건강 등)에 대한 추가 정보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해당 참조 장으로 가서 다양한 건강 성과에 대한 국가별 데이터, 이들이 시간 경과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 건강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장은 또한 평가 방법과 사람들의 웰빙에 대한 보다 포괄적 그림을 제공하기 위해 여전히 메워져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데이터 격차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제1장에서 사용된 주요 지표는 보다 간결한 정보 전달을 위해 선정되었으며 현재 웰빙 평균 주요 지표 12개, 현재 웰빙 불평등 지표 12개, 그리고 미래의 웰빙을 위한 자원 지표 12개는 핵심 조사 결과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부록 1.A 참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1장은 이들 주요 세트만을 나타낸다.

OECD에서의 삶은 어떠한가?

소득과 부, 주거, 일과 일자리의 질

물질 측면은 사람들의 경제적 조건을 형성하고 삶의 다른 측면(교육, 건강 등)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심 영역은 사람들의 소비 가능성을 함께 결정하는 *소득과 부*, *주거지*, *안전*, *프라이버시* 및 *개인 공간을 제공*하는 *주거*, *고용 기회*의 *이용가능성* 및 *임금 근로자의 노동 조건*과 관련된 *일과 일자리의 질*이다.

2017 또는 최신 가용 데이터에 따르면, OECD의 평균 연간 가구 소득은 약 USD 28,000이며 중위 가구의 부는 약 USD 162,000이다. 평균적으로, 분포에서 상위에 있는 20%의 사람들은 하위 20%에 있는 사람들보다 5.4배 높은 연간 소득을 올리고 있다. OECD 국가의 가구는 가처분 소득의 21%가 약간 넘는 금액을 주거비에 지출하고 있으며 12%의 가구는 과밀 조건에서 살고 있다. OECD에서 25~64세 성인 10명 중 약 8명은 유급 고용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임금 근로자의 7%가 일상적으로 매우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있으며(주당 50시간 이상)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연간 13% 정도 덜 벌고 있다(표 1.1).

표 1.1. 오늘날의 웰빙: 소득과 부, 주거, 일과 일자리의 질

	주요 지표	유형	OECD 평균 및 범위,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	OECD 2010년 이후 평균 변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국가의 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국가의 수
소득과 부	가구 소득 (가계 순조정가처분 소득, 2017년 PPP일 때 USD*, 1인당)	평균		6%	20	2
	가구 자산 (중위 순 부, 2016년 PPP일 때 USD)	평균		-4%	3	6
	S80/S20 소득 점유율 (하위 20%의 가구 소득으로 나눈 상위 20%의 가구 소득)	불평등		- 0.03 비율 포인트	6	11
주거	주택 구매력 (주거비 지출후 남은 가처분 소득 비율)	평균		+0.1% 포인트	11	9
	과밀도 (과밀 조건에서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	불평등		-2.6% 포인트	10	6
일과 일자리의 질	고용률 (같은 연령 인구의 비율로서 25~64세 취업자)	평균		+4.8% 포인트	31	1
	성별 임금 격차 (남성 임급의 비율로 표시되는 남성과 여성 중위 임급 간 차이)	불평등		-1.2% 포인트	10	2
	장시간 유급 노동 (일반적으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	불평등		-1.7% 포인트	16	2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지속적인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지속적인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한 추세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로 OECD 평균과 함께(검은색, 37개 모든 회원국이 포함되지 않는 한 평균의 국가 수를 상세히 설명)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추세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자 1.3을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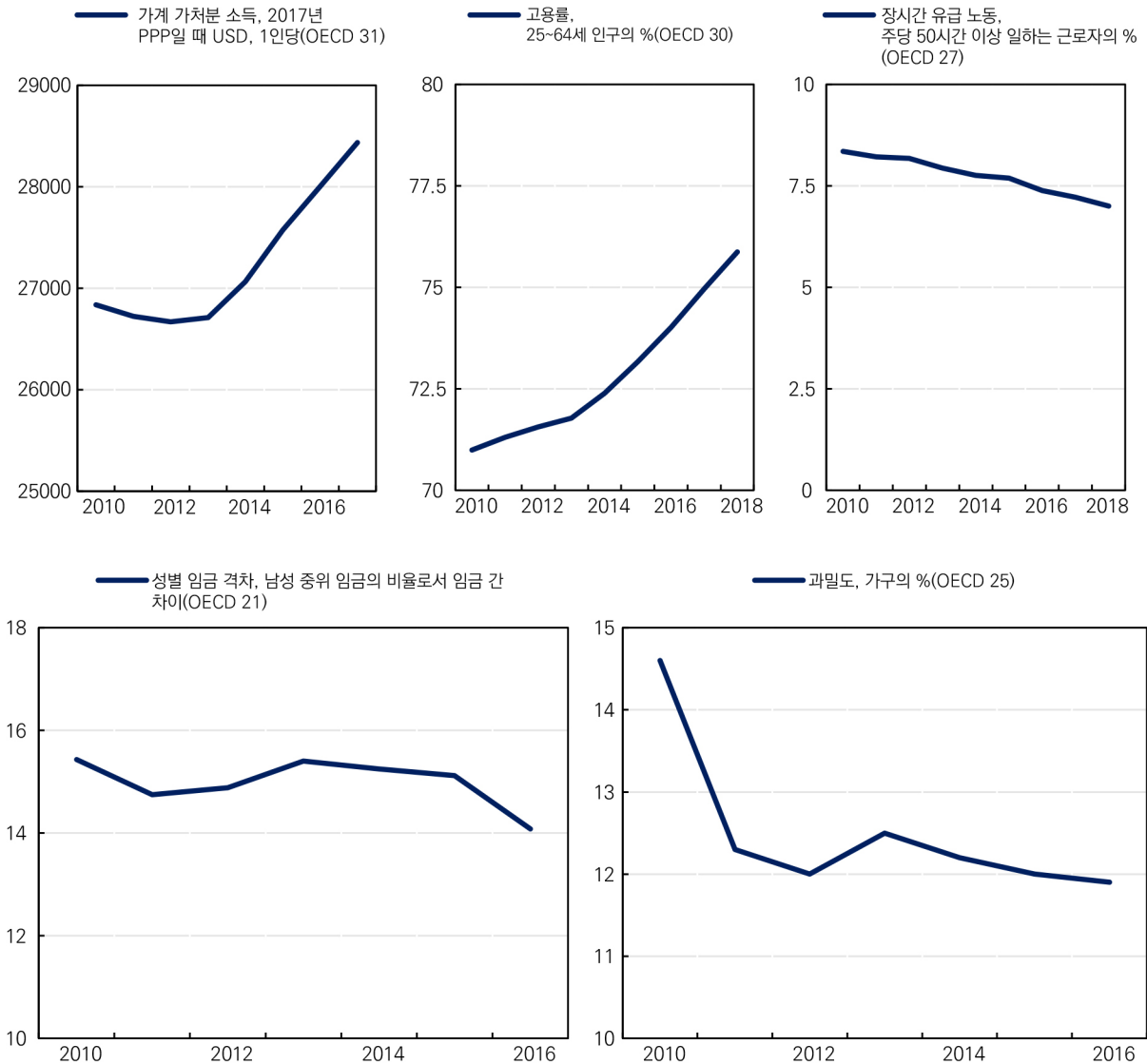
* 무급 노동은 일상적 집안일, 재화 및 서비스 쇼핑(주로 식품, 의류 및 거처와 관련된 물품), 세대 구성원(자녀와 어른)과 비세대 구성원 돌보기, 자원봉사, 가계 활동과 관련된 이동 및 기타 무급 노동을 포함한다.

출처: OECD 계산, 부록 1.A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2010년에 비해 OECD 국가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물질적 측면이 일부 개선되었고 몇몇 국가는 위기에서 회복되었다. 특히 가계 가처분 소득과 고용률은 각각 6% 및 5% 포인트 상승하면서 둘 다 2013년과 2017년 사이에 증가했다. 과밀도는 약 3% 포인트 하락했는데 주로 2010년과 2011년 사이의 가파른 하락 때문이다. OECD 국가의 약 1/3은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남성과 여성 소득 간 격차를 감소시키면서 지속적인 진전을 이뤘다. 하지만 평균 성별 임금 격차는 이 시기 동안 불과 1% 포인트 줄었으며 평등과는 상당히 먼 약 13%로 남아 있다(그림 1.2).

그림 1.2. 2010년 이후 OECD 평균은 가계 가처분 소득, 고용률, 성별 임금 격차, 장시간 노동 및 주택 과밀이 개선되었다.

OECD 평균, 2010~2018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주: 불완전한 시계열 및/또는 중단 때문에 가구 소득에 대한 OECD 평균은 칠레,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및 터키를 제외한다. 고용률에 대한 평균은 칠레, 콜롬비아,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및 스위스를 제외한다. 장시간 유급 노동에 대한 평균은 칠레, 콜롬비아, 독일,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및 스위스를 제외한다.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평균은 칠레,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및 터키를 제외한다. 과밀도에 대한 평균은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독일,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및 터키를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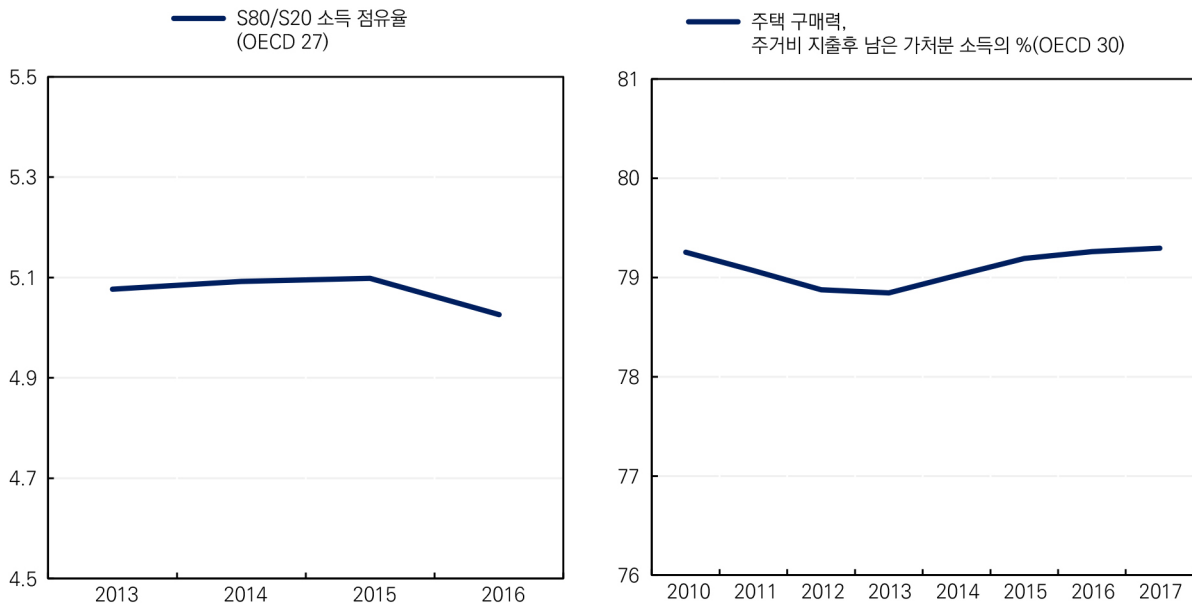
출처: 부록 1.A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409>

평균 소득 불평등 감소 또는 주택 구매력 개선과 관련하여 2010년 이후 달성한 진전은 거의 없었다(가구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그림 1.3). 게다가 가용 데이터가 있는 국가 15개의 경우 2010년 즈음부터 중위 가구의 부는 평균 4% 감소했다. 일부 OECD 국가에서 가구의 부의 이러한 감소는 부분적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OECD, 2017_[6]).

그림 1.3. OECD 평균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소득 불평등 감소와 주택 구매력 개선에서 진전이 없었다.

OECD 평균, 2010~2017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주: 불완전한 시계열 및/또는 중단 때문에 S80/S20 소득 점유율에 대한 OECD 평균은 호주, 칠레,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및 터키를 제외한다. 주택 구매력에 대한 평균은 칠레,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스위스 및 터키를 제외한다.

출처: 부록 1.A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428>

여기에서 보여주는 물질적 조건에 대한 주요 지표 너머를 강조할 가치가 있는 핵심 통계가 있다(제2장~제4장 참고문헌). 예를 들어 가장 부유한 가구 10%가 모든 가구의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OECD 국가 인구의 12%가 상대적 소득 빈곤 상태(국가 중위 절반의 임계치에 기반)에서 생활하는 한편, 유럽의 OECD 국가에서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거의 두 배(21%)이다. 2010년 이후 겨우 먹고 살 만큼 벌기 위한 사람들의 능력은 평균적으로 개선된 반면, 상대적 소득 빈곤은 공고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한편, 가용 데이터가 있는 이러한 OECD 국가 사람들의 1/3 이상은 재정적으로 불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소득 충격 발생 시 3개월 이상 소득 빈곤 수준에서 그들의 가계를 지탱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적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저소득 가구 가운데 약 1/5은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집세 및 용자금에 지출하고 있다. 또한 청년(15~24세) 10명 중 1명은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는 실업 상태이며(전체 고용률 76%에 비해), 이는 2010년 이후 아주 소폭 내려간 비율이다(2% 포인트).

건강, 지식과 역량,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

삶의 질은 개인적 경험과 환경 조건에 대한 것이다. 즉,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상태이고 얼마나 좋은 기분인지, 그리고 주변이 얼마나 건강하고 안전한가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건강*(신체적/정신적 질병 없는 긴 수명,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지식과 역량*(사람들이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환경의 질*(오염으로부터의 자유와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 포함), *주관적 웰빙*(양호한 정신 상태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경험하는 방식) 및 *안전*(위험으로부터의 자유)이 포함된다.

2017년의 신생아는 모든 OECD 국가 전체에서 평균 80.5년의 수명이 기대된다. 삶이 계속되면서 강력한 교육 및 소득 관련 불평등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평균적으로 대학 교육을 이수한 25세 남성은 낮은 교육 수준(학교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최대 중등 교육 학력)의 남성보다 7.6년 더 오래 살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의 경우 동일한 격차가 4.8년이다. OECD의 PISA 조사로 평가한 바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5세 학생 8명 중 1명 정도는 “기준치” 수준 이하의 역량을 가졌다. 즉, 수학, 읽기, 과학 등 세 과목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다는 뜻이다. 유럽의 OECD 국가에서 도시 인구의 93%가 집에서 공원이나 다른 녹지 공간으로 10분 이내에 걸어가 수 있다. 2017년 현재, 모든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60%가 넘는 인구가 초미세먼지 수준($PM_{2.5}$) $10\mu g/m^3$ 을 초과하는 대기오염(세계보건기구(WHO)가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는 임계치)에 노출되어 있다. OECD 전체에 걸쳐 폭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만 명당 2명이며, 이러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아메리카 대륙 국가에서는 젊은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는 30~44세 남성이다(UNODC, 2019_[7]). OECD에서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안전함을 느낀다고 보고한다. 밤에 거주지 주변을 혼자 걸어 다닐 때 안전함을 느낀다고 말한 여성은 10명 중 6명인 것에 비해 남성은 10명 중 8명이 안전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0점(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10점(완전히 만족함)의 척도로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물었을 때 OECD 국가에서 평균 평가는 7.4이다. 8명 중 1명 정도가 일상적인 하루 동안 긍정적(즐거움, 자주 웃거나 미소짓기, 폭 쉬기) 느낌보다 부정적(분노, 슬픔, 걱정) 느낌을 더 많이 경험한다(표 1.2).

2010년에 비해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에 대해 평균적으로 0.8% 줄었고,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성별 격차는 3.5% 포인트까지 좁혀졌다. 게다가 OECD 국가의 신생아는 약 1년 2개월 더 오래 살 것으로 기대되며, 15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약간 더 만족하고(2013년에 비해), 유해한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사람의 수가 약간 줄었다(그림 1.4). 하지만 중요한 자격 요건이 있는데, 이미 수명 수준이 높은 일부 국가(아이슬란드, 독일, 그리스, 영국 등)에서는 기대 수명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2010년 이후 순 증가가 없었다. 대기오염 수준은 2005년 이후 약 12% 포인트까지 감소했지만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곳에서는 개선이 항상 발생하지는 않았다. 10개의 OECD 국가(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는 거의 전체 인구가 계속 위험한 수준의 $PM_{2.5}$ 에 노출되고 있다.

부정 정서 균형에 대해 달성된 진전은 거의 없었고(일상적인 하루 동안 긍정적 느낌과 상태보다 부정적 느낌과 상태를 보고한 인구의 비율), 2010~12년 이후 비교적 공고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한편 과학 분야에서 학생들의 인지 역량은 전반적으로 저하되었다(표 1.2).

표 1.2. 오늘날의 웰빙: 건강, 지식과 역량,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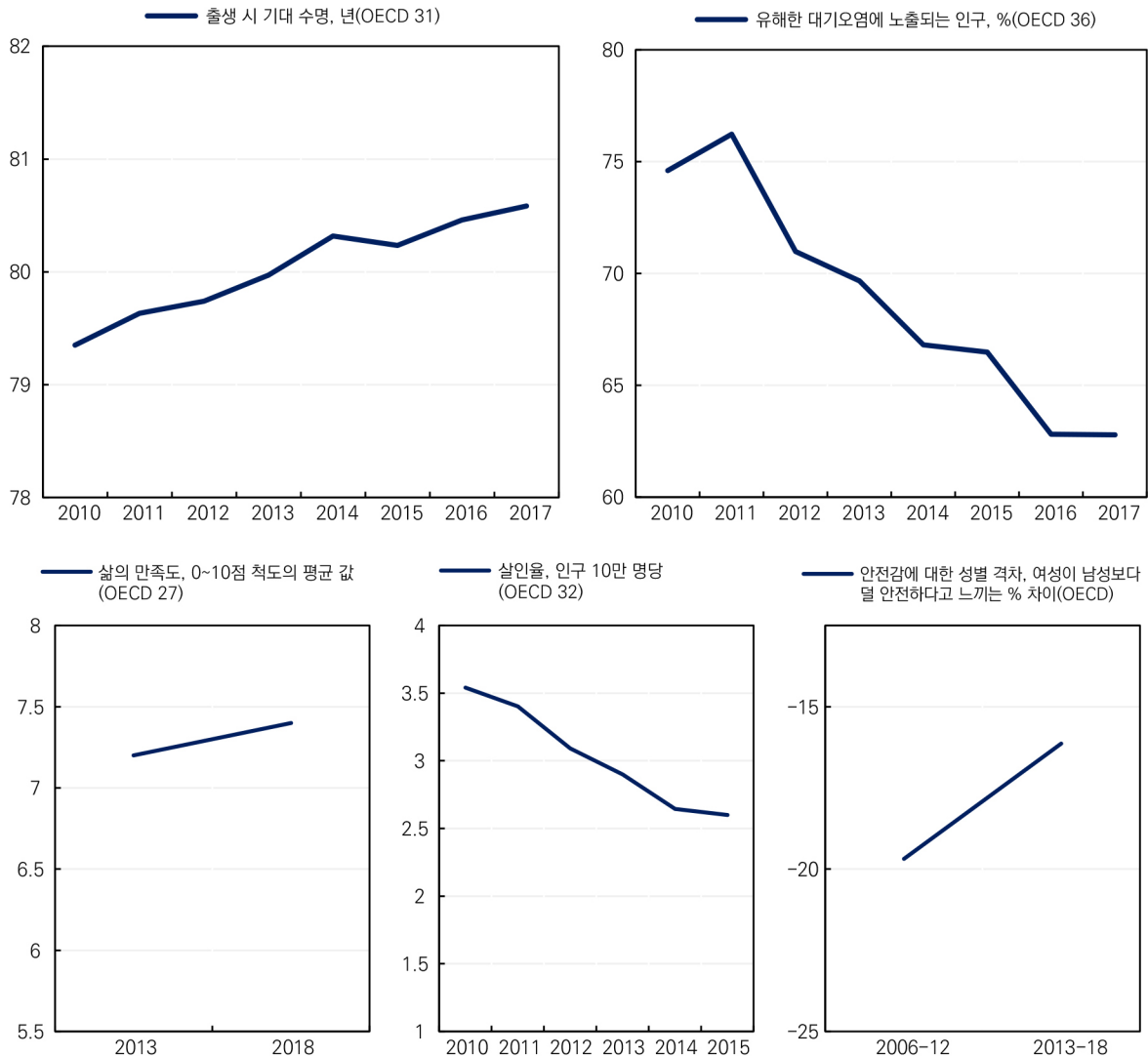
	주요 지표	유형	OECD 평균 및 범위,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	OECD 2010년 이후 평균 변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국가의 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국가의 수
건강	기대 수명 (신생아가 기대할 수 있는 수명)	평균		14개월 이상 (1.5%)	35	0
	교육 수준별 기대 수명의 격차 (25세 남성 가운데)	불평등		시계열 없음		
지식과 역량	학생의 과학 역량 (PISA 평균 점수)	평균			3	18
	낮은 역량보유 학생 (수학, 읽기 및 과학에서 낮은 점수의 비율)	불평등		시계열 없음		
환경의 질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 (도보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인구의 비율)	평균		시계열 없음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 (인구 비율 > WHO 임계치)	불평등		-11.6% 포인트	32	0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0~10점 척도의 평균 값)	평균		+0.2점 척도	15	2
	부정 정서 균형 (어제 긍정적 느낌과 상태보다 부정적 느낌과 상태를 보고한 인구의 비율)	불평등		-0.1% 포인트	9	8
안전	살인 (인구 10만 명당)	평균		-0.8	18	0
	안전감에 대한 성별 격차 (밤에 혼자 걸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덜 안전함을 느끼는 퍼센트 차이)	불평등		-3.5% 포인트	13	0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지속적인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지속적인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한 추세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로 OECD 평균과 함께(검은색). 37개 모든 회원국이 포함되지 않는 한 평균의 국가 수를 상세히 설명)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추세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자 1.3을 참조한다.

출처: OECD 계산, 부록 1.A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그림 1.4. 2010년에 비해 사람들은 더 긴 수명과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느끼며, 유해한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비율은 줄었고, 더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OECD 평균, 2010~2018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주: 불완전한 시계열, 방법론적 차이 및/또는 중단 때문에 기대 수명에 대한 OECD 평균은 콜롬비아, 벨기에, 헝가리, 룩셈부르크, 스위스 및 터키를 제외한다. 대기오염 노출에 대한 평균은 터키를 제외한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은 호주, 콜롬비아, 칠레,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터키 및 미국을 제외한다. 살인율에 대한 평균은 호주,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및 터키를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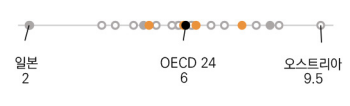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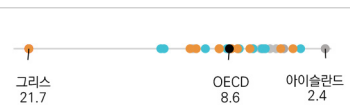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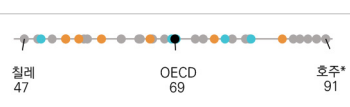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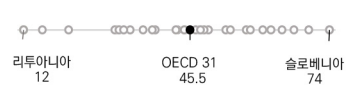
출처: 부록 1.A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447>

사회적 연계, 시민 참여, 일과 삶의 균형

삶의 질은 사람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관계를 맺는지,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등 관계의 질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핵심 영역은 **사회적 연계**(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의 양과 질,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는 방식), **시민 참여**(시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시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는지 여부) 및 **일과 삶의 균형**(유급 또는 무급에 관계없이) 가정, 여가, 일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음³을 포함한다.

표 1.3. 오늘날의 웰빙: 사회적 연계, 시민 참여, 일과 삶의 균형

	주요 지표	유형	OECD 평균 및 범위,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	2010년 이후 OECD 평균 변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국가의 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국가의 수
일과 삶의 균형	휴식 시간 (여가와 자기 돌봄에 할당된 시간, 하루당 시간)	평균		-6분/일, 6개 국가(BEL, CAN, ITA, JPN, KOR, USA)	0	0
	동 시간의 성별 격차 (하루에 여성이 더 많이 일한 유급 및 무급 분(minute))	불평등		시계열 없음		
사회적 연계	사회적 상호작용 (주당 시간)	평균		-24분/주, 7개 국가(BEL, CAN, ITA, JPN, KOR, TUR, USA)	0	4
	사회적 지원의 부족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친척이 없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불평등		0.2%	9	10
시민 참여	투표율 (투표하는 등록 유권자의 비율)	평균		-0.5% 포인트	8	7
	정부에 대한 발언권 없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불평등		시계열 없음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9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지속적인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지속적인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한 추세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로 OECD 평균과 함께(검은색). 37개 모든 회원국이 포함되지 않는 한 평균의 국가 수를 상세히 설명)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추세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자 1.3을 참조한다. * 투표율은 의무투표를 나타낸다.

출처: OECD 계산, 부록 1.A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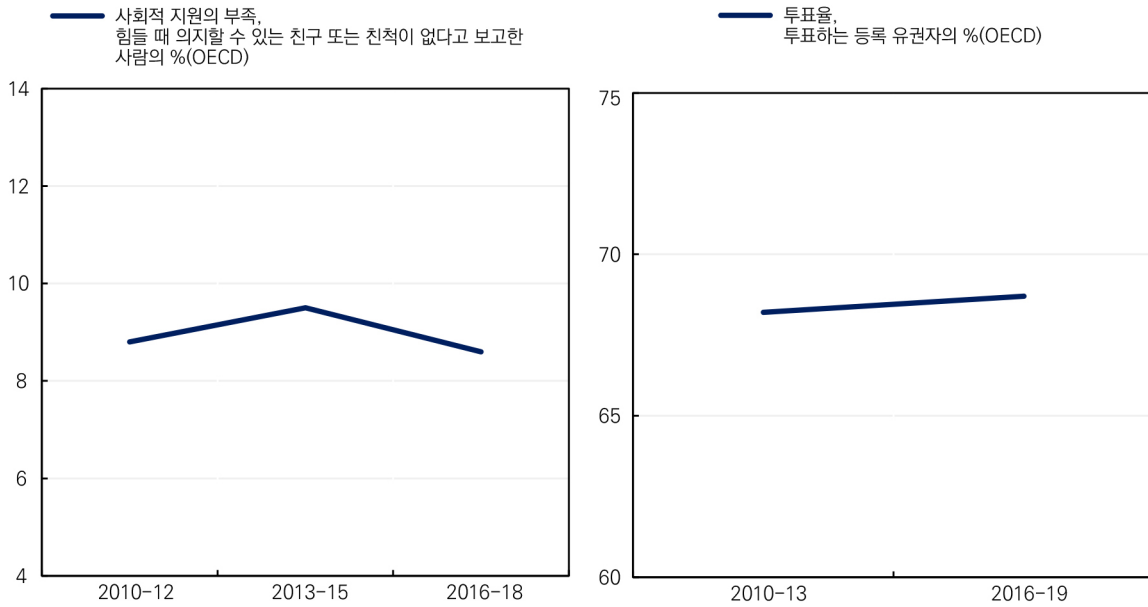
평균적으로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주당 약 6시간을 보낸다(가족들과 대화하거나 친구들과 외출⁴). 전반적으로, 10명 중 1명 정도가 사회적 지원의 부족을 표현한다. 즉,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없다고 말한다. 약 70%의 인구가 지난 선거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등록했지만 거의 절반(46%)의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이 없음을 느낀다고 보고했다. 전일제 근로자는 평균 하루 15시간의 “휴식 시간”(여가와 자기 돌봄에 보내는 시간(수면 포함))을 갖는다. 유급 및 무급 노동 둘 다 고려했을 때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일한다(평균적으로 하루 25분 정도 또는 한 달에 12시간 30분 정도)(표 1.3).

이러한 관계 영역 전체에 걸친 종합적 추세는 물질적 조건과 삶의 질 개인적 수준 측면에 관련된 웰빙 지표의 개선을 향한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공고하거나 약간 부정적이다. 웰빙의 많은 관계 측면에 대한 시간 사용의 추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용할 수 없으며, 오직 6개의 OECD 국가(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일본 및 미국)만이 지난 20년 동안 적어도 두 번의 생활시간조사를 수행했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이들 국가 중에서 여가와 자기 돌봄을 위한 사람들의 휴식 시간이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내는 평균 주당 시간은 이들 국가 중 네 개 국가에서 20분 이상 감소했다.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에서는 30분 정도 감소했고 벨기에에는 40분 정도 감소했다(표 1.3). OECD 국가에서 사회적 지원 및 투표율 부족의 평균 비율은 2010~13년 이후 고착된 상태로 남아 있다(그림 1.5).

그림 1.5. 사회적 지원 및 투표율 부족에 대한 느낌은 평균적으로 거의 바뀌지 않았다.

OECD 평균, 2010~2019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출처: 부록 1.A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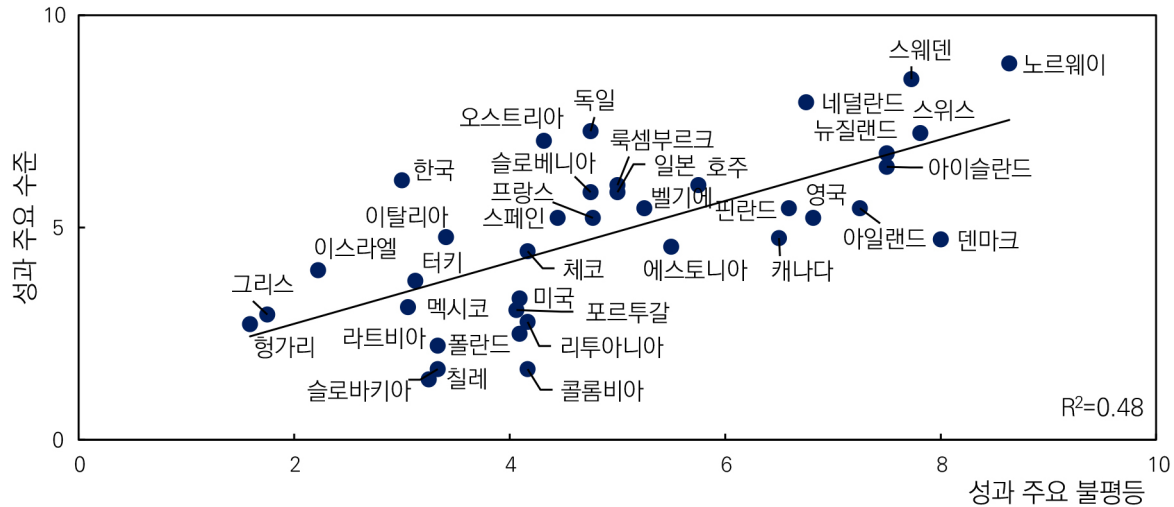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466>

어떤 국가에서 삶이 더 나아지고 있거나 더 나빠지고 있는가?

여기에서 고려한 주요 지표 전체에 걸쳐, 더 높은 평균 현재 웰빙의 OECD 국가들은 또한 좀 더 평등한 경향이 있다. 즉, 궁핍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낮고 웰빙 성과 분포의 격차가 더 작으며 인구 집단 간 차이가 더 적다(그림 1.6). 일반적으로 말하면, 북유럽 국가,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의 사람들은 더 높은 현재 웰빙 수준과 더 낮은 불평등을 누리고 있다. 반면에, 동유럽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터키와 그리스의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현재 웰빙을 경험하고 있고 비교적 더 심각한 불평등에 노출되어 있다. 예외가 있는데, 덴마크는 웰빙 수준에 비해 불평등에서 더 잘하고 있는 반면, 오스트리아, 한국과 독일은 평균 웰빙 점수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

그림 1.6. 더 우수한 평균 웰빙의 국가들은 또한 더 평등한 경향이 있다.

현재 웰빙 평균과 불평등에 대한 비교 성과,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누락 데이터 제외)



주: 평균 웰빙 수준 측면에서 OECD 국가의 성과는 가계 가처분 소득, 중위 가구의 부, 주택 구매력, 고용률, 기대 수명, 과학 분야의 학생 역량,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 삶의 만족도, 살인율, 휴식 시간, 사회적 상호작용, 투표율 등 12개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웰빙의 불평등 측면에서의 성과는 S80/S20 소득률, 과밀도, 성별 임금 격차, 장시간 유급 노동, 25세 남성 간 교육 수준별 기대 수명의 격차, 낮은 역량보유 학생,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 부정 정서 균형, 안전감에 대한 성별 격차, 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 사회적 지원 부족 인구의 비율,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이 없는 인구의 비율 등의 12개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비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OECD 국가는 2010년 또는 가장 이른 가용 연도의 값을 기반으로 “점수를 얻는다”(OECD 리그의 하위 세 번째는 0, 중간 세 번째는 5, 상위 세 번째는 10). 그런 다음 점수를 영역 전체에 걸쳐 평균화(동일 가중치를 각 영역에 적용)하기 전에 영역 내에서 평균화(각 지표에 동일 가중치 적용)한다. 누락 데이터 지점은 각 국가의 점수에서 제외되며 데이터 격차의 경우 해당 점수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출처: OECD 계산, 부록 1.A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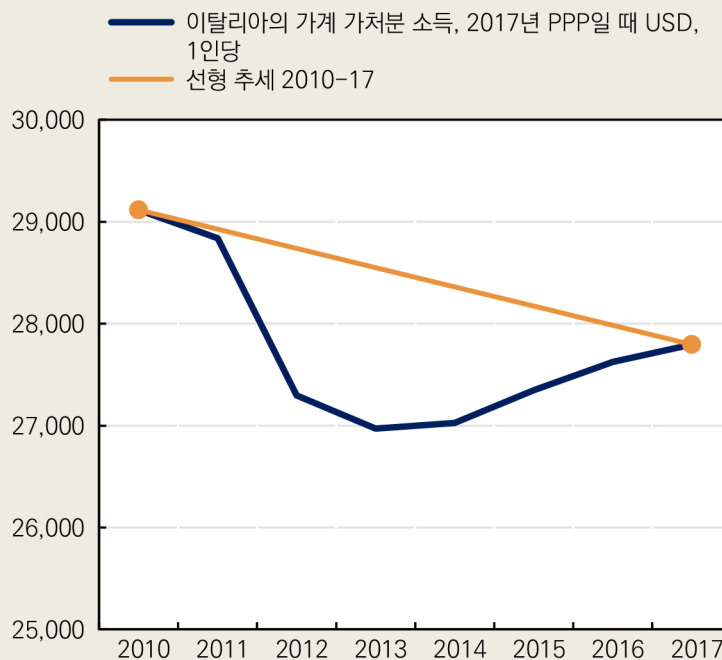
전체 OECD 지역에 대한 평균 추세는 국가 수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가리는 경우가 많다. 2010년 이후 회원국의 발전을 고려할 때, 주요 지표가 포착한 현재 웰빙의 모든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국가는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상자 1.3). 오히려 웰빙에는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있다.

상자 1.3. 웰빙의 추세 평가하기: 방법론에 대한 주

더 면밀한 모니터링과 정책적 주의를 요구하는 웰빙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과가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 또는 나빠지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How's Life? 2020*은 추세를 분류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의 분석을 사용한다.

- 충분한 시계열이 있는 지표의 경우(국가당 최소 3회의 관찰), 전체적 추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여부를 감지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전 기간에 걸친 움직임을 고려한다. 이는 지표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즉, 2010년과 2018년) 사이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제한하는 것은 비일반적인 연도와 실제 변화의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를 포착할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적어도 75%에 대해 충분한 시계열이 있을 때마다 *How's Life*는 각 지표의 관찰된 값과 시간(연도로 표시) 사이의 스피어만(순위) 상관 계수를 이용한다. 스피어만 상관관계가 적어도 10% 수준으로 중요한 경우 국가는 “지속적으로 개선 중” 또는 “지속적으로 악화 중”으로 분류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뚜렷한 추세 없음”으로 분류된다. 그림 1.7은 이를 보여준다. 비록 이탈리아의 가계 가처분 소득이 2010년보다 2017년에 더 낮았지만, 실제로 이 기간 동안 3년간은 감소했고 4년간은 증가했다. 따라서 스피어만 방법의 결과는 이것을 “뚜렷한 추세 없음”으로 제시한다.

그림 1.7. 이탈리아의 가계 가처분 소득, 2010~17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504>

- 시계열이 불충분한 지표의 경우(데이터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의 75% 미만이 적어도 3회 관찰한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2010년(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과 2018년(또는 최신 가용 연도) 사이의 단일 변화점으로서 평가했다. 국가는 지표별 임계치와 관련하여 “개선 중”, “악화 중” 또는 “뚜렷한 추세 없음”으로 분류된다(표 1.4). 이들 임계치는 OECD 국가 중에서 관찰된 전체 변화 규모(절대 단위 값과 퍼센트 조건 둘 다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값의 단일변수분포, 추정값에서 예상되는 오차 범위를 포함한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

제한사항

누락 데이터는 많은 국가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평가하는 가능성을 제한하고 보다 빈번한 공식 웰빙 통계 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OECD 국가의 절반 이상(23)이 현재 웰빙의 평균에 대한 12개 주요 지표 중 적어도 1/3의 추세를 결정하는 데 불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호주, 아이슬란드, 터키, 뉴질랜드는 이러한 매트릭스의 절반이 누락되었으며 콜롬비아와 이스라엘은 거의 60%가 누락되었다. 모든 OECD 국가가 12개 주요 지표 중 적어도 1/3에 대한 정보를 누락한 현재 웰빙에서는 불평등 측면에 더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일부 주요 측정의 경우,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 교육 수준별 기대 수명의 격차, 낮은 역량보유 학생의 비율, 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 등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데이터 지점이 있는 OECD 국가는 없다. 더 폭넓은 OECD 웰빙 데이터 세트(제2장~제16장 참고문헌) 전체에 걸쳐 유의미한 분석을 저해하는 훨씬 더 많은 격차가 존재한다.

표 1.4. 불충분한 시계열이 있는 웰빙 주요 지표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임계치

지표	측정 단위	임계치
소득과 부		
가구 자산	중위 순 부, 2016년 PPP일 때 USD	+/-9,000 USD
지식과 역량		
과학 분야의 학생 역량	PISA 평균 점수	OECD 교육국(Education Directorate)이 제공하는 신뢰 구간에 기반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0~10점 척도의 평균 값	+/-0.2점 척도
안전		
안전감에 대한 성별 격차	밤에 혼자 걸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덜 안전함을 느끼는 퍼센트 차이	+/-5.0% 포인트
일과 삶의 균형		
휴식 시간	하루당 시간	+/-20분
사회적 연계		
사회적 상호작용	주당 시간	+/-20분
시민 참여		
투표율	투표하는 등록 유권자의 비율	+/-3% 포인트

2010년 이후 평균 웰빙 주요 지표의 추세, 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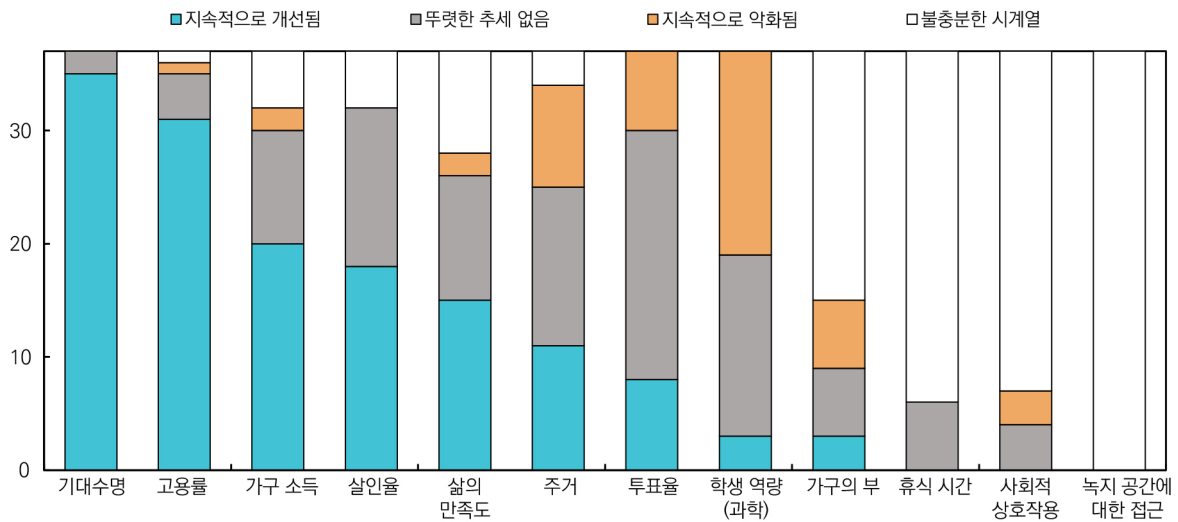
현재 웰빙의 주요 지표 대부분에서 2010년 이후 평균 점수는 개선되었거나 뚜렷한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그림 1.8). OECD 국가 절반 이상에서 기대 수명, 고용률, 가구 가처분 소득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노르웨이는 고용률이 크게 감소했던 유일한 국가이며, 오스트리아와 그리스는 가계 순조정 가처분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유일한 두 개의 국가이다. 살인율은 37개 OECD 국가 중 18개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삶의 만족도는 27개 OECD 국가 중 15개에서 상승했다. 다른 측면에서는 추세가 다양하다. 2010~12년에 비해 대다수 OECD 회원국이 투표율에서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던 한편, 나머지 국가의 경우 8개 국가에서는 증가가 있었지만

7개 국가에서는 하락이 있었다(라트비아와 슬로베니아는 10% 포인트를 초과하는 하락 경험). 주택 구매력은 11개 OECD 국가에서는 개선되었지만 10개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에서는 가계가 2010년에 주거비에 지출했던 것에 비해 소득의 2% 포인트 이상을 더 지출한다.

가용 데이터가 있는 OECD 국가의 다수가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여러 성과가 악화되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PIAS 과학 시험 점수는 절반 가까이의 OECD 국가에서 상당히 악화되었다. 가용 정보가 있는 국가의 부분집합 가운데 중위 가구의 부는 개선되었던 국가보다 두 배 많은 수의 국가에서 떨어졌다. 그리스에서 중위 가구의 부는 2010년 이후 40%까지 감소했다. 시간 사용 측면(2010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에 비해 여가와 자기 돌봄,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낸 시간)에서 개선된 OECD 국가는 없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낸 시간의 양은 캐나다, 이탈리아 및 미국에서 약 30분 줄었고 벨기에에서는 40분 조금 넘게 줄었다.

그림 1.8. 단 몇 개의 웰빙 평균만 악화되었다.

2010년 이후 현재 웰빙 평균의 주요 지표에 대한 추세, OECD 국가 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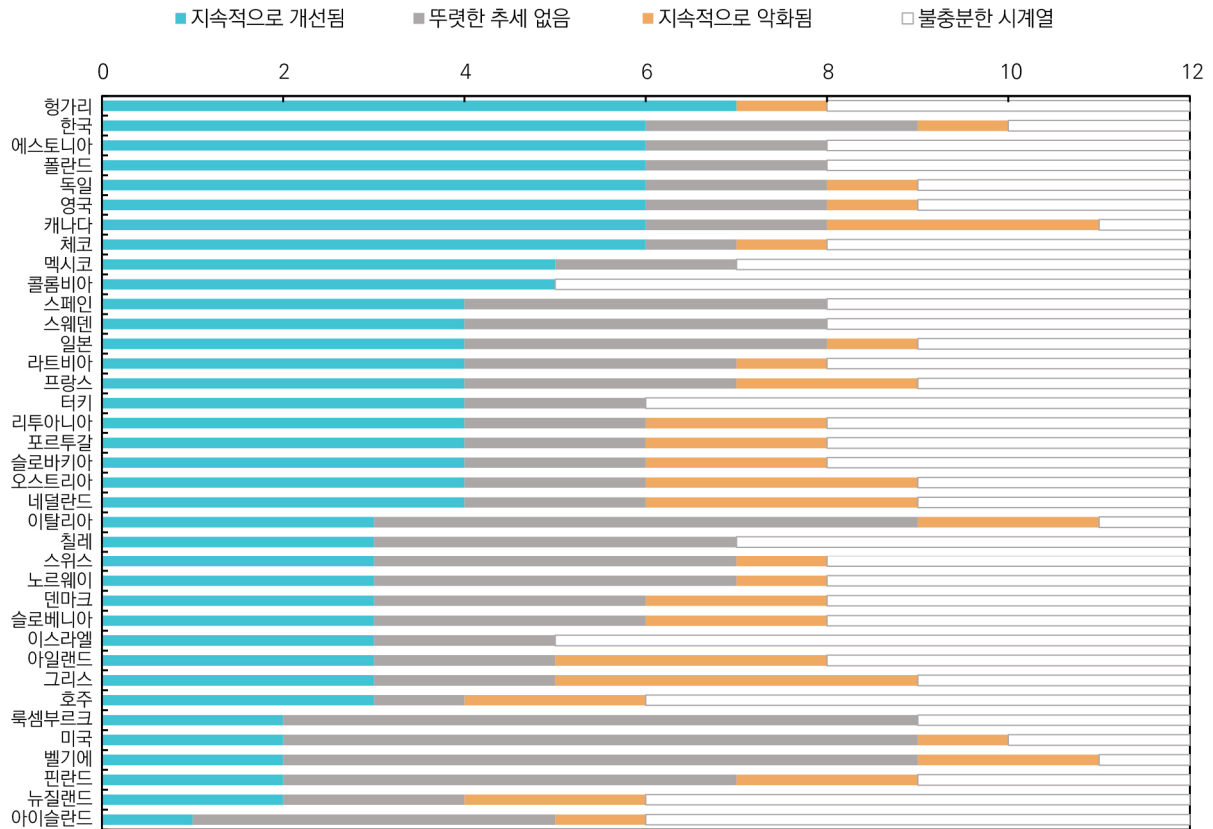
주: 추세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자 1.3을 참조한다.
출처: OECD 계산, 부록 1.A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523>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한국, 독일, 폴란드 및 영국은 현재 웰빙 평균에서 최고 수치의 상승을 경험했다(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의 주요 지표 개선)(그림 1.9). 이들 고성과자 중 일부(예: 독일)는 2010년에 비교적 높은 웰빙 위치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진전은 더 낮은 기준치 수준에서 시작했던 국가들 간에 집중된 경우가 많았으며 따라서 상승할 여지가 더 많다(그림 1.10). 예를 들어 헝가리는 웰빙 평균의 절반 이상이 개선된 유일한 OECD 국가이다. 가계 가처분 소득, 고용률, 주택 구매력, 기대 수명, 삶의 만족도 및 투표율 모두 상승한 한편 살인율은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는 이러한 지표에 대해 OECD 국가 중 아래에서 세 번째이며 다른 상위 개선국인 폴란드도 마찬가지이다(그림 1.6). 반면에, 2010년 이후 증가 수치가 최저인 국가는 벨기에, 핀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및 미국이다(그림 1.9). 일반적으로 평균 웰빙에서 강력한 성과자인 아이슬란드에서는 고용률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뉴질랜드는 오직 가구 소득과 기대 수명만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⁵.

그림 1.9. 헝가리는 모든 웰빙 평균의 절반 이상이 개선된 유일한 OECD 국가이다.

현재 웰빙 평균의 주요 지표에 대한 추세, 2010년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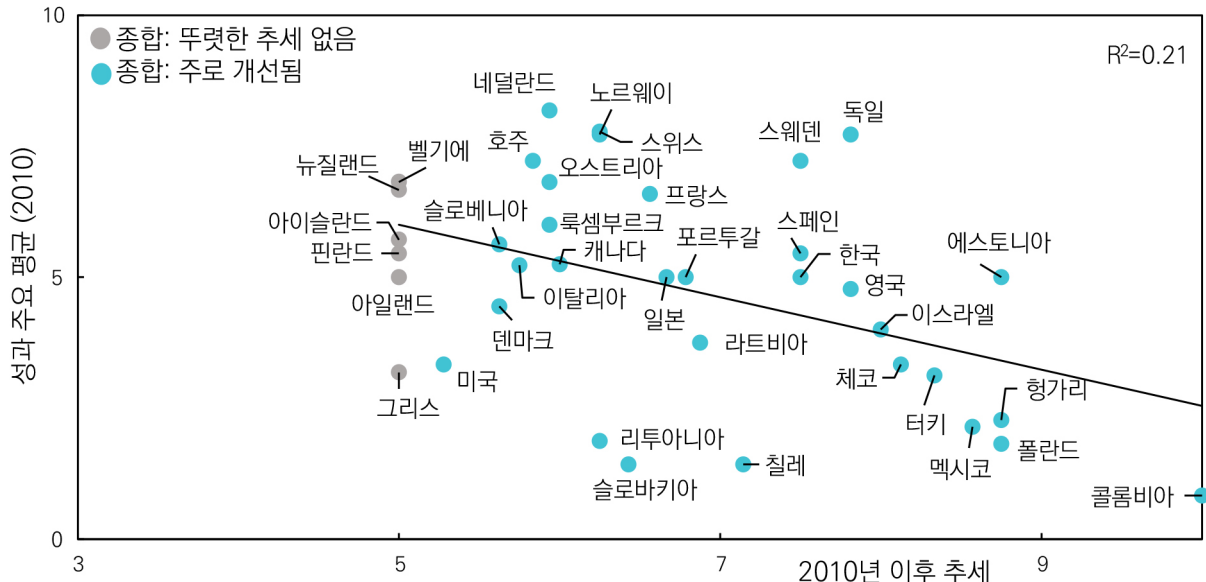
주: 가계 가처분 소득, 중위 가구의 부, 주택 구매력, 고용률, 기대 수명, 과학 분야의 학생 역량, 삶의 만족도, 살인율, 휴식 시간, 사회적 상호작용, 투표율 등과 같은 주요 지표에서 OECD 국가의 다수에 대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녹지 공간 접근에 대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에 관해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없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가 누락으로 표시된다. 추세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자 1.3을 참조한다.
출처: OECD 계산, 부록 1.A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542>

삶의 일부 측면에서의 긍정적 개선이 다른 측면에서의 개선으로 자동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평균 웰빙의 주요 지표에서 절반 정도가 개선된 상위 OECD 국가 중 하나이지만 가계가 주거비에 충당하는 소득의 비율, 과학 분야의 학생 역량, 그리고 친구 및 가족과 상호작용하며 보내는 시간은 2010년 이후 모두 악화되었다. 그리스는 2010년 이후 학생 역량, 투표율, 가처분 소득 및 중위 가구의 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평균 웰빙에서 최대 수치의 하락을 경험했다(그림 1.9).

그림 1.10. 2010년의 낮은 웰빙 평균의 OECD 국가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2010년(또는 가장 이른 가용 연도) 이후 현재 웰빙 평균의 주요 지표와 그 이후 추세(누락 데이터 제외)에 대한 비교 성과



주: 현재 웰빙 수준 측면에서 OECD 국가의 성과는 가계 가처분 소득, 중위 가구의 부, 주택 구매력, 고용률, 기대 수명, 과학 분야의 학생 역량,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 삶의 만족도, 살인율, 휴식 시간, 사회적 상호작용, 투표율 등 12개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을 제외하고 모든 지표에 대해 2010년 이후 시계열을 이용할 수 있다. 비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OECD 국가는 2010년 또는 가장 이른 가용 연도의 값을 기반으로 “점수를 얻는다”(OECD 리그의 하위 세 번째는 0, 중간 세 번째는 5, 상위 세 번째는 10). 2010년(또는 가장 이른 가용 연도) 이후 추세를 평가하기 위해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국가는 0의 “점수를 얻고”,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경우 5,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경우 10을 얻는다. 추세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자 1.3을 참조한다. 비교 성과와 시간 추세(trend-over-time) 국가 점수 둘 다 먼저 영역 내에서 평균화되며(각각의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 적용), 그런 다음 영역 전체에 걸쳐 평균화된다(각각의 영역에 동일한 가중치 적용). 누락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되며 데이터 격차의 경우 해당 점수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출처: OECD 계산, 부록 1.A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561>

2010년 이후 평균 웰빙 주요 지표의 불평등 추세, 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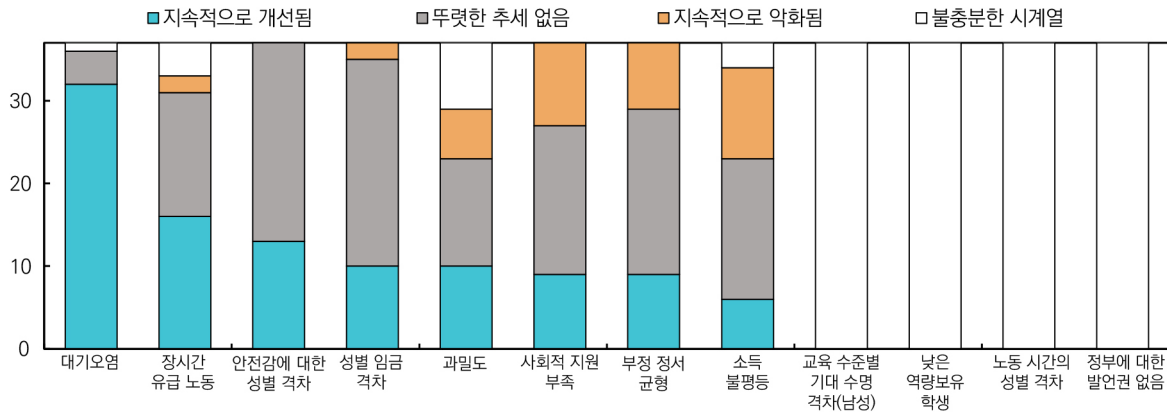
현재 웰빙의 전체적 증가와 대조적으로, OECD 국가는 전반적으로 진전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불평등 감소에서는 다소 성공적이지 못했다(그림 1.11). 정기적으로 장시간 노동하고 유해한 대기오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0년 이후 대다수(절반 이상) OECD 국가에서 박탈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 유일한 주요 측정이다. 32개 국가는 초미세먼지(PM_{2.5})에 대한 노출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 반면, 10개의 OECD 국가(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는 거의 전체 인구가 위험한 수준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

주요 세트의 다른 모든 불평등의 경우 일반적 패턴은 “뚜렷한 변화 없음” 가운데 하나이다. 2010년 이후 일관된 추세를 보여주는 국가의 부분집합에 대한 패턴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사람들의 비율은 감소한 국가의 수 만큼(10개) 다른 국가에서 증가했다(9개 국가). 이러한 국가 중 하나는 그리스로, 5명 중 1명 정도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동시에, 5개의 OECD 국가는 2010년 이후 가장 부유한 인구 20%와 가장 가난한 인구 20% 사이의 소득 격차가 지속적

으로 감소한 반면,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측정은 감소했던 국가 수의 두 배가 넘는 11개 국가에서 증가했다.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이는 가장 부유한 인구 20%가 하위 20%에 비해 거의 8배를 벌어들이는 리투아니아에서 주로 증가했다(30% 이상).

그림 1.11. 웰빙 불평등의 주요 지표 대부분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다.

2010년 이후 현재 웰빙 불평등의 주요 지표에 대한 추세, OECD 국가 수별



주: 추세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자 1.3을 참조한다.
출처: OECD 계산, 부록 1.A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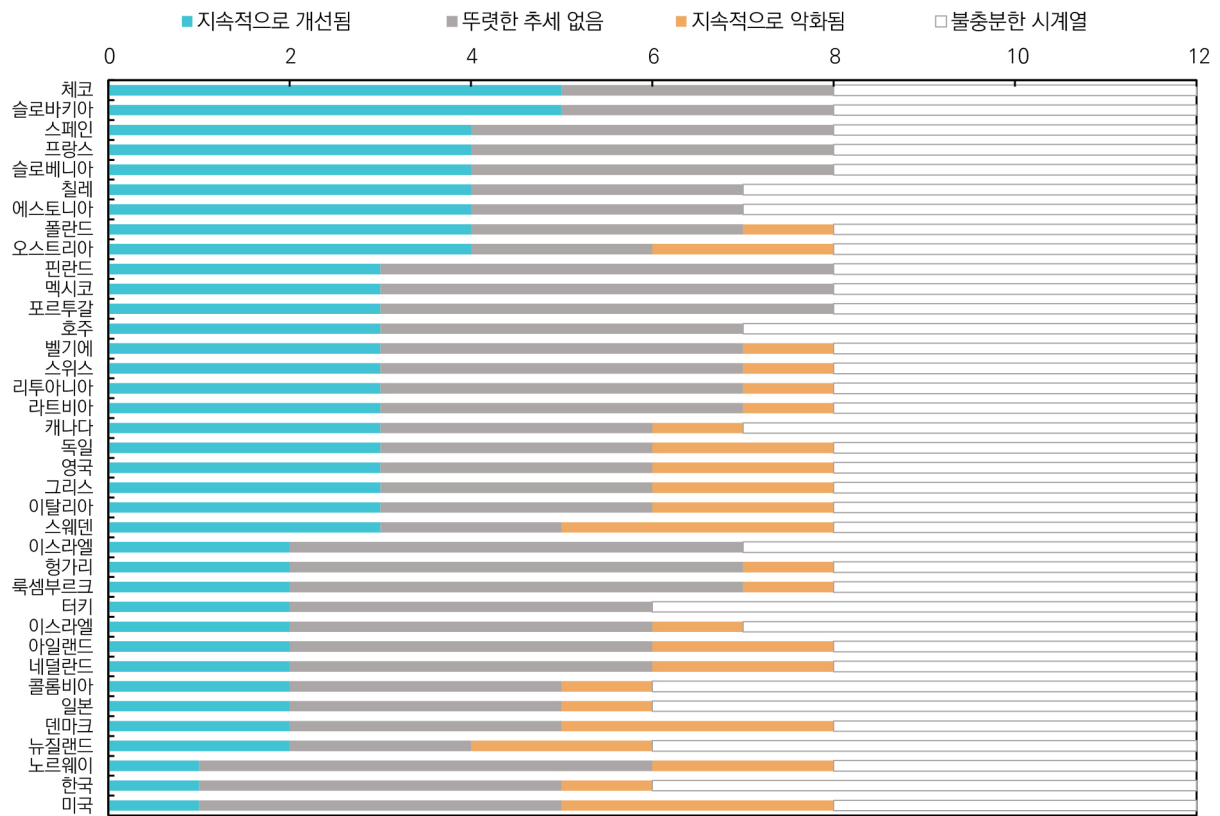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580>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불평등 감소에서 원활한 진전을 보였다.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지표의 40%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그림 1.12). 양쪽 국가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근로자의 비율, 과밀 조건에서 생활하는 가구의 수, 긍정적 느낌과 상태보다 부정적 느낌을 보고한 인구(또는 부정 정서 균형의 인구)가 감소했다. 또한, 체코에서 소득 불평등과 대기오염은 줄어든 한편, 슬로바키아에서는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성별 격차가 좁아지고 사회적 지원의 부족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었다.

그에 비해, 한국, 노르웨이 및 미국은 2010년 이후 각각 오직 한 가지 유형의 불평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안전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성별 격차, 노르웨이와 미국에서는 유해한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이다. 불평등은 덴마크, 스웨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주요 측정(총 3개)에서 확대되었다. 이들 세 국가에서 현재 과밀 조건에서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게다가,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은 계속해서 더 높아지는 소득 불평등을 확인하는 한편, 미국은 일상적인 하루 동안 긍정적 느낌보다 부정적 느낌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는 인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1.12. 2010년 이후 OECD 국가 중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불평등 수치가 최고로 감소했다.

현재 웰빙의 불평등 주요 지표에 대한 추세, 2010년과 비교



주: S80/S20 소득률, 성별 임금 격차와 안전감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수평적 불평등의 경우, 그리고 과밀도, 장시간 유급 노동, WHO 임계치 수준을 초과하는 PM_{2.5} 대기오염률에 대한 노출, 부정 정서 균형 및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인구 비율에 대한 박탈의 경우에 대해 시간 경과에 따른 수직적 불평등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 25세 남성 가운데 교육 수준별 기대 수명의 격차, 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 낮은 역량보유 학생, 그리고 정부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에 대한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에 대해 제공되는 데이터가 없다. 추세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자 1.3을 참조한다.

출처: OECD 계산, 부록 1.A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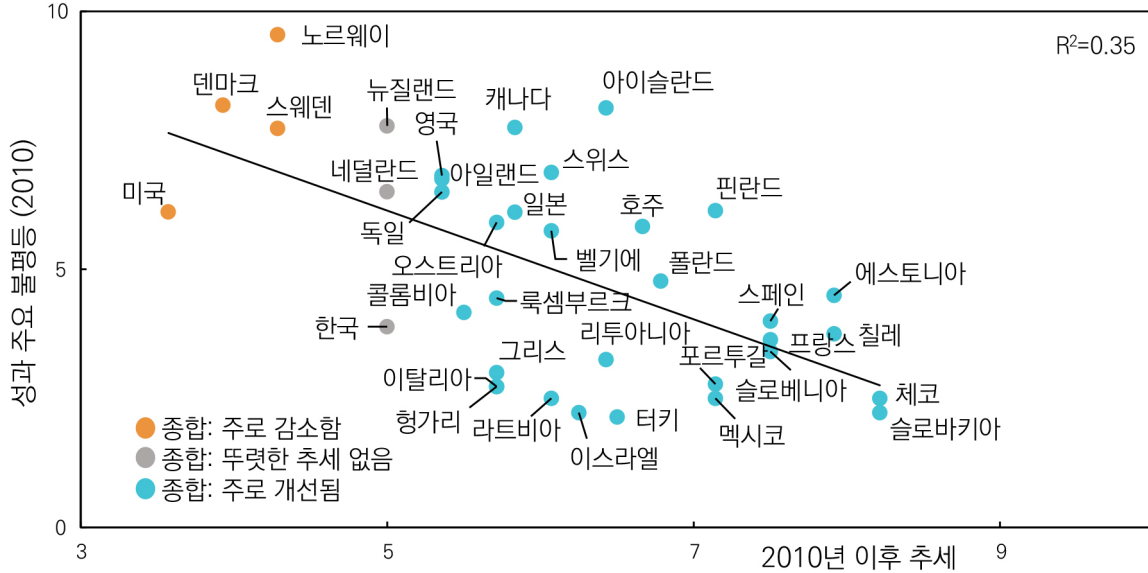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599>

2010년 이후 불평등에서 최대 수치의 개선을 보인 국가가 처음에는 격차가 가장 큰 국가였던 경우가 가끔 있다(그림 1.13).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소득 불평등은 꾸준히 좁아진 한편, 가장 부유한 20%는 여전히 소득 분포 하위의 인구보다 10배를 벌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 칠레와 함께 소득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성별 임금 격차는 2010년 이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하위 3위 이내에 남아 있다.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서는, 전통적으로 불평등의 국제 비교에서 매우 잘 해왔던 북유럽 국가와 영어 사용 국가 중 일부가 순위 하락을 겪었다. 예를 들어, 개선과 뚜렷한 변화 없음 영역 둘 다 고려했을 때 덴마크와 노르웨이, 스웨덴(불평등과 평균 웰빙 양쪽의 측면에서 고성과자이기는 하지만)은 미국과 함께 2010년 이후 전체적으로 덜 평등해졌다.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와 네덜란드는 모든 주요 불평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불평등 감소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정체되었다.

그림 1.13. 2010년 이후 가장 평등한 국가 중 일부는 약간의 변화를 겪고 있거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웰빙에서 불평등의 주요 지표(2010년 또는 가장 이른 가용 연도)와 그 이후 추세(누락 데이터 제외)에 대한 비교 성과



주: 불평등에서 OECD 국가의 성과는 12개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S80/S20 소득률, 과밀도, 성별 임금 격차, 유급 노동에서 긴 노동 시간, 25세 남성 가운데 교육 수준별 기대 수명의 격차, 낮은 역량보유 학생,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 부정 정서 균형, 안전감에 대한 성별 격차, 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 사회적 지원 부족 인구의 비율,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이 없는 인구의 비율 등의 12개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 25세 남성 가운데 교육 수준별 기대 수명의 격차, 노동한 시간의 성별 격차, 낮은 역량보유 학생, 그리고 정부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에 대한 2010년 이후 추세를 결정하기 위해 제공되는 시계열이 없다. 비교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OECD 국가는 2010년 또는 가장 이른 가용 연도의 값을 기반으로 “점수를 얻는다”(OECD 리그의 하위 세 번째는 0, 중간 세 번째는 5, 상위 세 번째는 10). 2010년(또는 가장 이른 가용 연도) 이후 추세를 평가하기 위해 지표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경우 국가는 0의 “점수를 얻고”,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경우 5,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된 경우 10을 얻는다. 추세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자 1.3을 참조한다. 비교 성과와 시간 추세(trend-over-time) 국가 점수 둘 다 먼저 영역 내에서 평균화되며(각각의 지표에 동일한 가중치 적용), 그런 다음 영역 전체에 걸쳐 평균화된다(각각의 영역에 동일한 가중치 적용). 누락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되며 데이터 격차의 경우 해당 점수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출처: OECD 계산, 부록 1.A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618>

누가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가?

불평등은 평균을 넘어 “누가 무엇을 얻는가?”에 집중한다. 수평적 불평등은 다양한 집단(예: 여성과 남성, 다양한 연령과 교육 수준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웰빙 달성과 약점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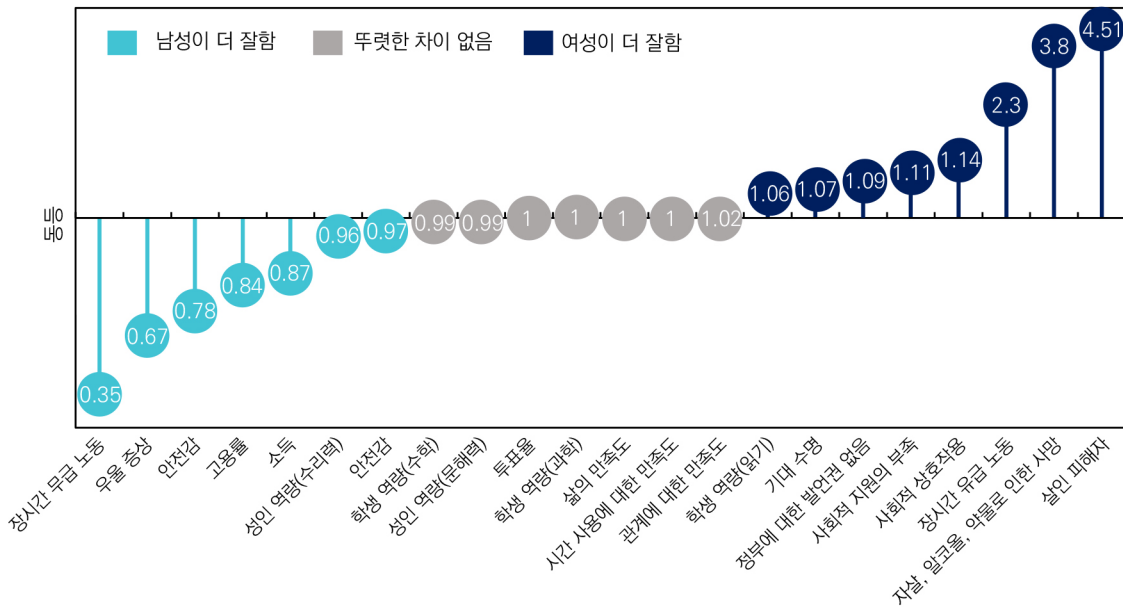
여성과 남성 간 웰빙 불평등

삶의 만족도, 투표율, 휴식 시간, 그리고 성인의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여성과 남성 간 평균 차이는 매우 작다(그림 1.14). 2018년, 15세 여학생과 남학생은 수학과 과학에서 비슷한 시험 점수를 달성한 한편(2000년 OECD의 PISA 연구 출범 이후 처음) 여학생이 읽기에서 남학생을 계속해서 약간 능가했다(제6장 참고문헌

참조)6. 일에 대한 경험에서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남성들이 고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고(OECD 평균 고용률은 남성 83% 대 여성 70%) 13% 더 많이 번다. 하지만 남성들은 정기적으로 장시간 노동(주당 50시간 이상)할 가능성이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유급 및 무급 노동(일상적 집안일, 아동과 어른에 대한 돌봄 노동, 가정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 가정 활동과 관련된 이동) 둘 다 고려했을 때, 여성은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하루 25분 또는 월간 12시간 30분 정도 남성보다 더 오래 일한다(제10장 참고문헌 참조). 사실, 모든 OECD 국가에서 유급 일자리가 있는 남성은 여성보다 더 오래(평균 하루 90분 더 오래)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모든 가용 데이터를 통해 가장 평등한 국가에서조차 여성은 체계적으로 남성보다 무급 노동에 더 오랜 시간(OECD 평균의 경우 하루 약 2시간 더 오래)을 보낸다. 유급 노동에 쓰는 시간에서 성별 차이가 작은 국가(예: 에스토니아)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가장 많은 몫의 무급 노동을 하고 있다. 반면에, 시간 사용에 대한 전 인구집단(16세 이상 사람들 중에서)의 만족도 척도는 성별 차이를 거의 보여주지 않으며 이들의 방향은 국가 전체에 걸쳐 다르다.

그림 1.14. OECD 국가의 여성은 사회적 연계가 더 높고 살인 또는 절망사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낮지만, 또한 더 적게 벌고 더 많은 무급 노동을 한다.

OECD 평균 성비(동등성에서의 거리)



주: 소득 격차는 시간당 수입을 나타내며, 투표율은 사람들의 자기 보고를 기반으로 한다. 남성과 여성 간 “뚜렷한 차이 없음”은 동등성까지의 거리 0.03포인트 내에 있는 성비로 정의된다.

출처: OECD 계산, 제2장~제12장 참고문헌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637>

사회적 연계 면에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에 평균적으로 주당 40분을 덜 쓰며,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10% 더 높다. 안전감 경험은 또한 여성과 남성 간에 극명하게 다르다. 한편, OECD 국가의 남성들은 콜롬비아(살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남성은 여성보다 10배 더 높음)와 멕시코(살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남성은 여성보다 8배 이상 더 높음)에서 관찰된 높은 값을 반영하면서 폭행으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4.5배 더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균적으로 남성들은 10명 중 8명이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함을 느낀다고 전하지만 여성들은 10명 중 6명만 그렇게 느낀다고 전하면서 여성에 대한 범죄와 성폭력 위험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한다.

건강과 관련해서 신생아 여아는 남아보다 평균 5년 더 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남성은 또한 “절망사”로 사망할 가능성이 약 4배 더 높다(자살 및 급성 물질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비해 여성들 가운데 절망사가 증가하면서 OECD 국가 중 1/3에서 증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OECD 절망사 희생자 수는 교통사고 사망보다 3배 더 높고 살인으로 인한 사망보다 6배 더 높다(제5장 참고문헌 참조).

연령에 따른 웰빙 불평등

모든 OECD 국가에서 젊은 연령층(15~24/29세), 중년층(25/30세~45/50세), 노년층(50세 이상) 사이에 주목할 만한 웰빙 차이가 있다(그림 1.15). 평균적으로 청년층은 자신의 삶에 보다 만족하며 절반을 약간 넘는 사람들이 중년층에 비해 사회적 지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일과 시간 사용에 관련된 웰빙 성과의 격차는 다양한 연령 집단의 생활 주기 요소와 노동 시장 경험을 부분적으로 반영한다. 중년층은 고용될 가능성이 두 배 더 높고(젊은 성인층의 고용률 41%에 비해 중년층은 81%) 시간당 평균 USD 8(2018년 PPP일 때)를 더 번다. 한편, 이들은 유급 고용으로 더 장시간 일할 가능성이 50% 정도 더 높고 휴식 시간은 중년층에서 가장 낮다. 통일된 가용 데이터가 있는 13개 OECD 국가의 경우, 젊은 연령층 및 노년층 전일제 근로자는 30~49세 전일제 근로자보다 각각 하루 평균 약 50분 및 25분의 휴식 시간을 더 누린다. 연령 집단 전체에 걸쳐 30~49세는 또한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가장 덜 만족하고 있다(제10장 참고문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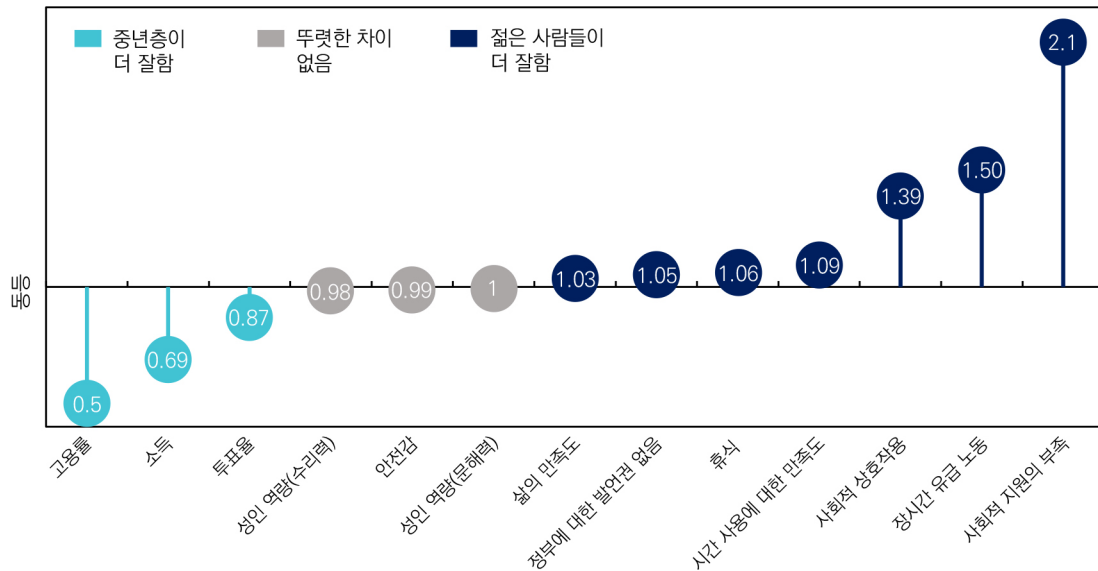
나이 많은 사람들(50세 이상) 가운데 투표율은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보다 17% 포인트 더 높으며, 노인들은 또한 웰빙의 노동 시장 관련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낮다(더 많은 고용, 더 높은 소득). 하지만 더 젊은 사람들은 역량 시험에서 더 나은 점수를 얻고 자신의 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으며,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보고하고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한 비율이 더 높다(단, 후자에 대한 패턴은 국가에 따라 다름. 제12장 참고문헌 참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보다 거의 세 배 더 많으며 이는 노년층의 외로움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육 수준에 따른 웰빙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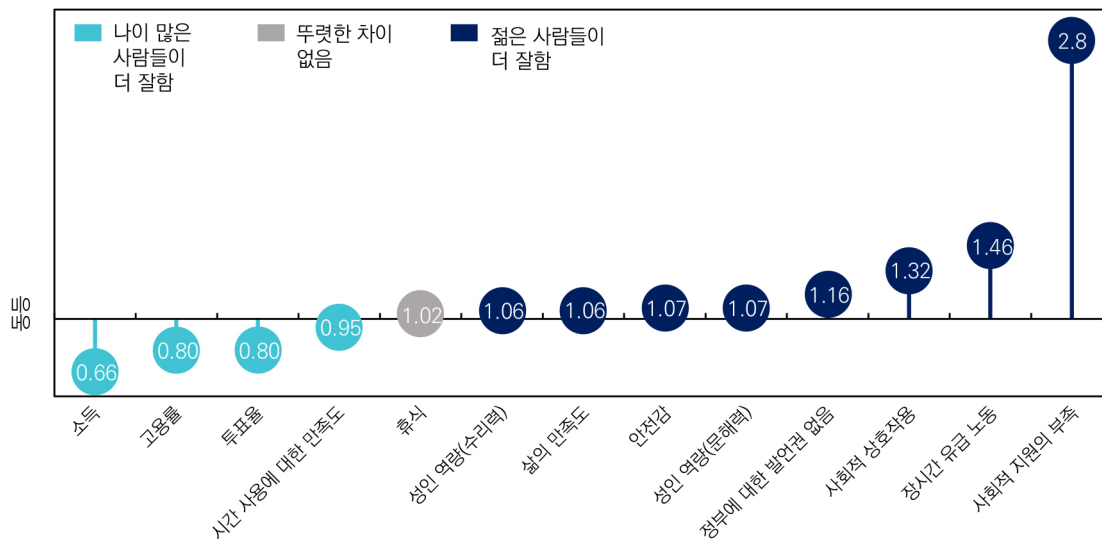
더 높은 학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긍정적 수익과 개인별 특성 및 사회 경제적 상황은 더 나은 웰빙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유급 고용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장시간 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고등학교 교육만 이수한 사람들에 비해 대부분의 웰빙 영역에서 훨씬 낫다(그림 1.16). 예를 들어, 교육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의 투표율은 6% 포인트 이상 더 높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32%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비해 학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43%가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1.15. OECD 국가의 젊은 사람들은 일 관련 성과에서 노년층과 중년층보다 더 나빠지고 있지만 사회적 연계와 휴식 시간은 더 많이 누리고 있다.

A. 중년층에 비해 더 젊은 사람에 대한 OECD 평균 연령비(동등성에서의 거리)



B. 나이 많은 사람에 비해 더 젊은 사람에 대한 OECD 평균 연령비(동등성에서의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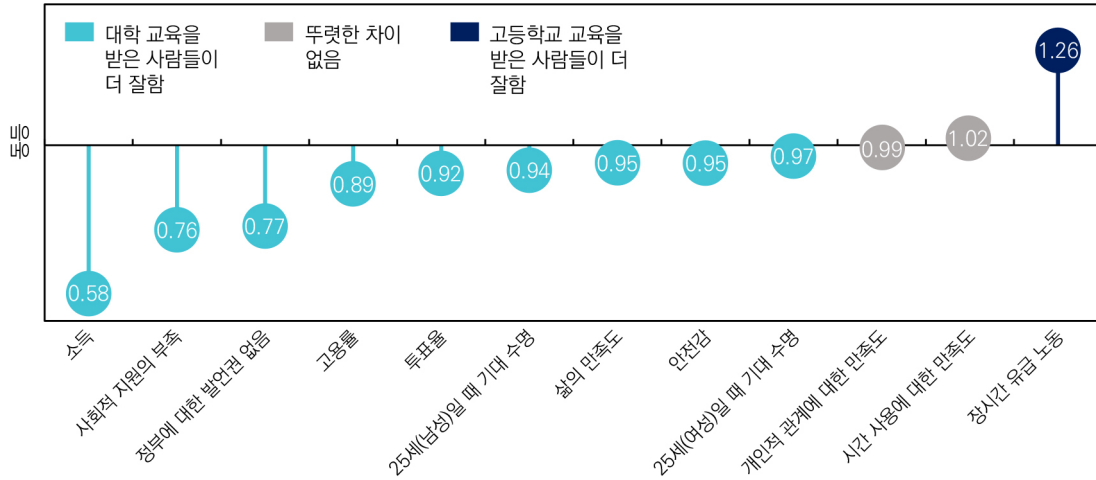


주: 소득 격차는 시간당 수입을 나타내며, 투표율은 사람들의 자기 보고를 나타낸다. 연령 집단 간 뚜렷한 차이 없음은 동등성까지의 거리 0.03포인트 내에 있는 성비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순수한 연령 차이와 같은 연령의 다양한 출생 코호트 간 차이를 구별할 수 없더라도, 몇 개의 지표는 뚜렷한 연령 패턴(예: 소득, 고용률)을 보여준다. 연령 범위는 각각의 지표에 따라 다르며 오직 대략적으로 비교할 만하다. 젊은 사람들은 고용률, 장시간 유급 고용 및 투표율에 대해서는 15~24세의 사람들이며, 성인 역량과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에 대해서는 16~24세, 소득, 삶의 만족도, 안전감, 휴식 시간,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지원의 부족에 대해서는 15~29세이다. 중년은 성인 역량과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25~44세이고, 고용률, 장시간 유급 고용과 투표율에 대해서는 25~54세, 소득, 삶의 만족도, 안전감, 휴식 시간,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지원의 부족에 대해서는 30~49세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성인 역량과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45~64세이고, 소득에 대해서는 50~64세, 고용률과 장시간 유급 고용에 대해서는 55~65세, 삶의 만족도, 안전감, 휴식 시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50세 이상, 투표율에 대해서는 54세 이상이다.

출처: OECD 계산, 제2장~제12장 참고문헌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그림 1.16. 긴 노동 시간을 제외하고 교육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웰빙 영역에서 더 잘한다.

OECD 평균 교육 수준 비(동등성에서의 거리)



주: 소득 격차는 시간당 수입을 나타내며, 투표율은 사람들의 자기 보고를 나타낸다.
출처: OECD 계산, 제2장~제12장 참고문헌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675>

웰빙은 앞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

모두를 위한 좋은 삶은 웰빙을 지탱하는 자원이 유지되며 경제, 자연 및 사회 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경우에만 시간이 흘러도 지속될 수 있다(상자 1.4). 전체적으로 2010년 이후 추세는 **인적 자본**의 진전, **자연 자본**의 우려에 대한 몇 가지 원인, 그리고 **경제** 및 **사회 자본**의 개선의 여지를 나타낸다. **경제 자본**은 사람이 만든 자산과 금융 자산을 포함하며 **자연 자본**은 자연 자본(예: 천연 자원 비축, 토지 피복, 종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및 그 서비스(예: 대양, 숲, 토양 및 대기)를 포함하며, **인적 자본**은 개인의 역량과 미래 건강을 나타낸다. **사회 자본**은 협업을 조성하는 사회 규범, 공유 가치와 제도 정비를 나타낸다.

2010년 이후 **경제 자본** 주요 지표의 발전은 느리기는 하지만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OECD 평균의 1인당 생산된 고정 자산 비축(건물, 기계, 인프라 등)은, 이전 기간(2005~2010년)에 기록되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연간 속도지만, 2010년~2018년 사이에 약 11%가 점증적으로 증가하면서 USD 119,000 가까이 된다(표 1.5). 정부의 금융 채무가 금융 자산을 초과하여 2018년 GDP의 27% 포인트에 육박하는 동안, 가계는 2017년 가처분 소득의 126%에 상응하는 부채가 있었다. OECD 정부의 평균 금융 순자산은 2010년 이후 전체 GDP의 4% 포인트가 하락했으며, 2014년(채무가 GDP의 30% 이상 자산을 초과했을 때)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후 부분적으로만 회복했다. 같은 기간 동안 가계 부채는, 13개 국가에서는 부채 상상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평균적으로 OECD 국가 가구 소득의 3% 포인트 정도 감소했다(그림 1.17).

표 1.5. 미래의 웰빙을 위한 자원

	주요 지표	OECD 평균 및 범위,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	OECD 2010년 이후 평균 변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국가의 수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국가의 수
경제 자본	생산된 고정 자산 (2010년 PPP일 때 1인당 USD)		+11% 포인트	23	3
	일반 정부의 금융 순자산 (GDP 퍼센트)		-4% 포인트	5	13
	가계 부채 (가계 순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3% 포인트	12	13
자연 자본	온실가스 배출 (CO ₂ 등가물, 국내 생산, 1인당 톤)		1인당 -1톤	22	2
	물질 발자국 (경제의 최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출된 사용 원자재, 1인당 톤)		+1.2 1인당 톤	3	16
	멸종우려종의 적색목록 지수 (0 = 모든 종 멸종, 1 = 최소 관심 대상으로 지정된 모든 종)		-0.01	13	2
인적 자본	젊은 성인 가운데 교육 성취도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25~34세 사람들의 비율)		+2% 포인트	26	3
	노동 저활용 (노동 인구에서 실업자, 구직단념자, 불안정고용 근로자의 비율)		-4.8% 포인트	15	2
	조기 사망 (주민 10만 명당 질병 또는 사망 사고로 인한 잠재적 수명 상실 연수)		-620년 손실	29	2
사회 자본	타인에 대한 신뢰 (0~10 척도에서 평균 점수)		시계열 없음		
	정부에 대한 신뢰 (긍정적으로 응답한 인구의 비율)		+3% 포인트	9	6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 (국회에서 여성의 비율)		+2.6% 포인트	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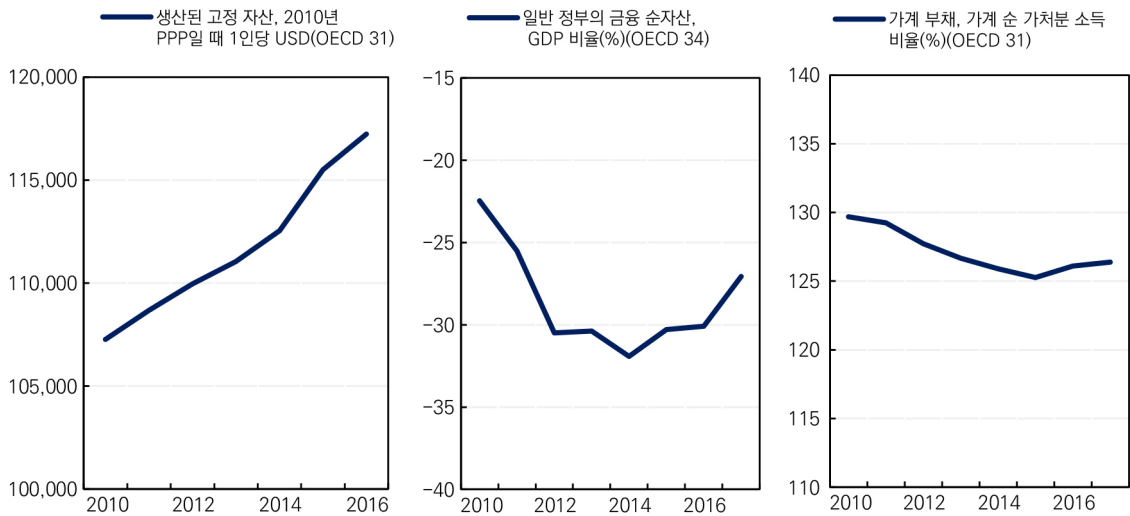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9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지속적인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지속적인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한 추세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로 OECD 평균과 함께(검은색, 37개 모든 회원국이 포함되지 않는 한 평균의 국가 수를 상세히 설명)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추세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자 1.3을 참조한다.

출처: OECD 계산, 부록 1.A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자연 자본에서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관련된 여러 경고 징후가 있다.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국내 생산의 총 OECD GHG 배출이 4.3% 감소했으며 최근에 안정화되기는 했지만 최근에 증가하는 에너지 사용과 CO₂ 관련 배출로 인해 미래에 다시 상승할 수 있다(OECD, 2019^[8]). 1인당 기준으로, OECD 평균 GHG 배출은 2010년부터 약 1톤씩 감소하여 2017년에는 연간 11.9톤이 되었다(표 1.5). 하지만 인구 증가가 1인당 배출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대부분의 국가를 2015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의 배출 감소 세부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궤도에 올려놓을 것 같지는 않다. 자체 생산의 배출을 넘어, OECD 국가는 그들의 수입품에 내장된 배출을 통해 비 OECD 국가의 증가하는 배출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 세계적 규모로 총 대기 중 탄소 농도는 여전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세계적 배출은 1990년 이후 1.5배 증가했으며, 에너지 사용에서 CO₂ 배출은 2018년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참고문헌 제14장 참조). OECD 국가는 또한 2010년보다 지구의 물질을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 총 OECD 물질 발자국은 1인당 1.2톤에서 25톤으로 증가했다(표 1.5). OECD 국가의 생물다양성 또한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 2010년에 비해 멸종 위기로 분류되는 종의 수가 증가하면서 멸종우려종에 대한 적색 목록 지수가 평균적으로 0.01 악화되었다(그림 1.18).

그림 1.17. 2010년 이후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생산된 자산이 증가했고 가계 부채는 줄었다.

OECD 평균, 2010~2017 또는 최신 가용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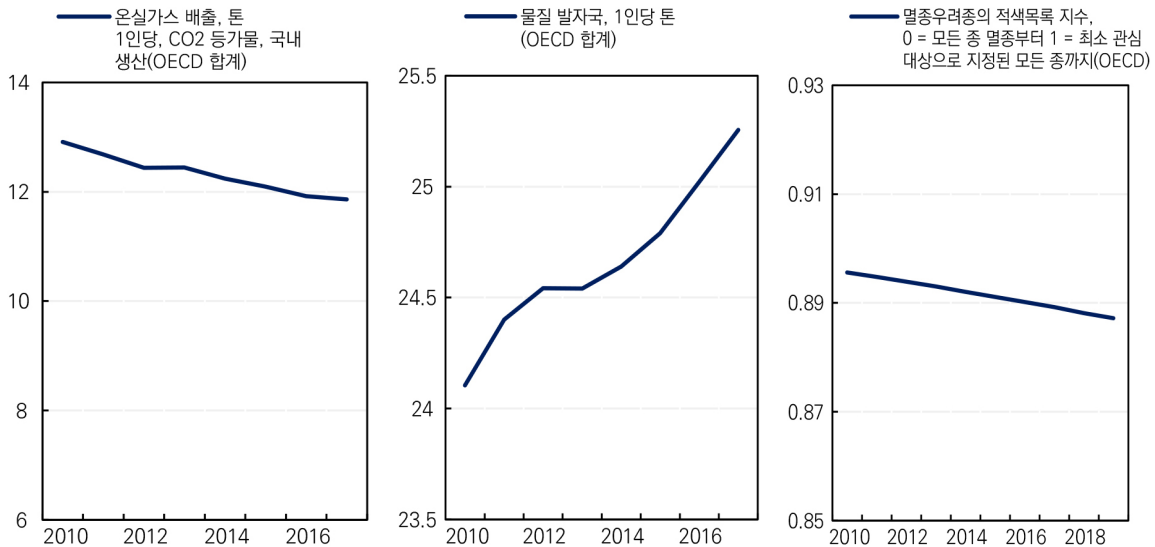
주: 불완전한 시계열 및/또는 중단 때문에 생산된 고정 자산에 대한 OECD 평균은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터키를 제외한다. 일반 정부의 금융 순자산에 대해서는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멕시코를 제외하며,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스위스, 터키를 제외한다.

출처: 부록 1.A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694>

그림 1.18. 종에 대한 위협과 원자재 소비에 대한 전망은 악화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전세계 감소 세부목표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OECD 평균/합계, 2010~2019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주: 불완전한 시계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OECD 합계는 콜롬비아를 제외하며 물질 발자국에 대한 OECD 합계는 체코와 콜롬비아를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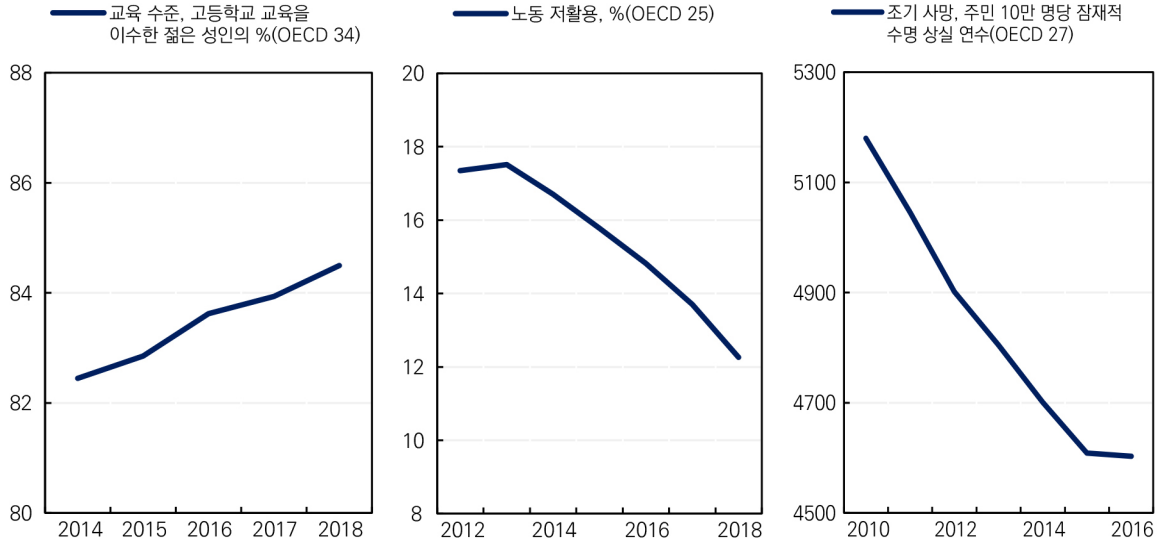
출처: 부록 1.A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713>

개선은 *인적 자본*의 측면에서 좀 더 고무적이다(표 1.5, 그림 1.19). 오늘날 25~34세 젊은 성인(OECD의 미래 노동 인구)의 85%가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2%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저하된 PISA 시험 점수를 고려했을 때 습득한 인지 역량의 질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참고문헌 제6장 참조). 평균적으로 노동 인구의 12%가 실업자, 구직단념자, 불안전고용 근로자(모두 합쳐서 노동 저활용률로 지칭)이며, 노동 시장의 부진은 사람들의 역량, 자신감, 학습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미래의 낮은 *인적 자본*의 잠재적 원인이다. 상승하는 고용률에 따라 노동 저활용률은 평균적으로 5% 포인트 가까이 내려갔다. 다양한 질병 또는 사망 사고로 인한 OECD 국가에서의 조기 사망은 주민 10만 명당 잠재적 수명 상실 연수가 약 4600년이다. 이것 역시 잠재적 수명 상실 연수가 평균적으로 620년 감소하면서 2010년 이후 개선되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15장 참고문헌에서 다루는 더 넓은 인적 자원 지표 집합은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증가하는 비만율이 미래 건강 상태에 위협을 제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5명 중 1명이 비만이다(체질량 지수 30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한 경우). 시계열 데이터가 있는 27개 국가 중에서 비만을 감소시킨 국가는 없었으며 두 개 국가만 지난 15년 동안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

그림 1.19. 인적 자본은 2010년 이후 주요 지표에서 전체적으로 긍정적 추세의 미래 웰빙을 위한 유일한 자원이다.

OECD 평균, 2010~2018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주: 불완전한 시계열 및/또는 중단 때문에 젊은 성인의 교육 성취도에 대한 OECD 평균은 칠레, 콜롬비아, 일본, 아일랜드를 제외한다. 노동 시장 저활용에 대한 평균은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및 터키를 제외하며, 조기 사망에 대한 평균은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를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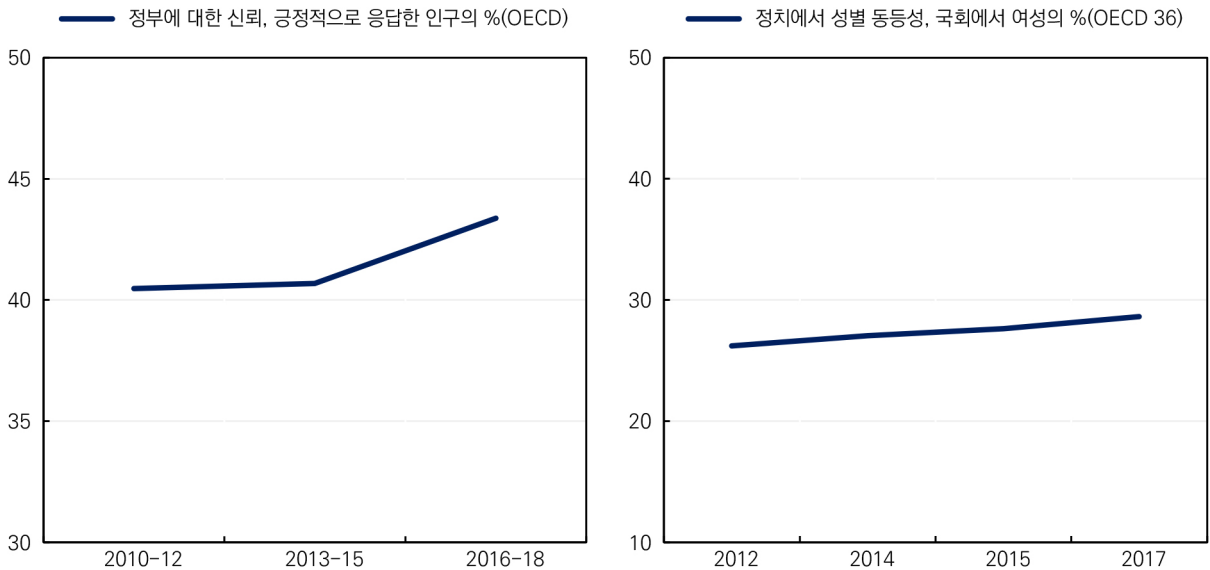
출처: 부록 1.A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732>

사회 자본은 개선의 여지가 크다. 사람들에게 타인을 신뢰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을 때(0은 신뢰하지 않음, 10은 완전히 신뢰함) OECD 국가의 평균 점수는 6.1이다(표 1.5). 2007~08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한 전반적인 악화 이후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는 2010년 이후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3% 포인트 개선되었지만 중앙 정부를 신뢰하는 인구는 여전히 절반 미만(43%)이다. 이는 눈앞에 놓인 과제에 대한 집단적 대응을 시행하기 위한 국가의 역량을 압박할 수 있다.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은 달성과 거리가 멀다. 여성은 OECD 국가의 국회에서 평균적으로 1/3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등성에 도달한 국가는 없다. 이 의사결정의 포괄성 측정에서 2010년 이후 평균적으로 겨우 2.6% 포인트 상승하면서 진전은 느리게 이뤄지고 있다(그림 1.20).

그림 1.20. 정부에 대한 신뢰 및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은 단지 느리게 개선되었다.

OECD 평균, 2010~2018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주: 불완전한 시계열 때문에,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에 대한 OECD 평균은 콜롬비아를 제외한다.
출처: 부록 1.A 참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751>

상자 1.4. 현재 웰빙과 미래를 위한 자원 사이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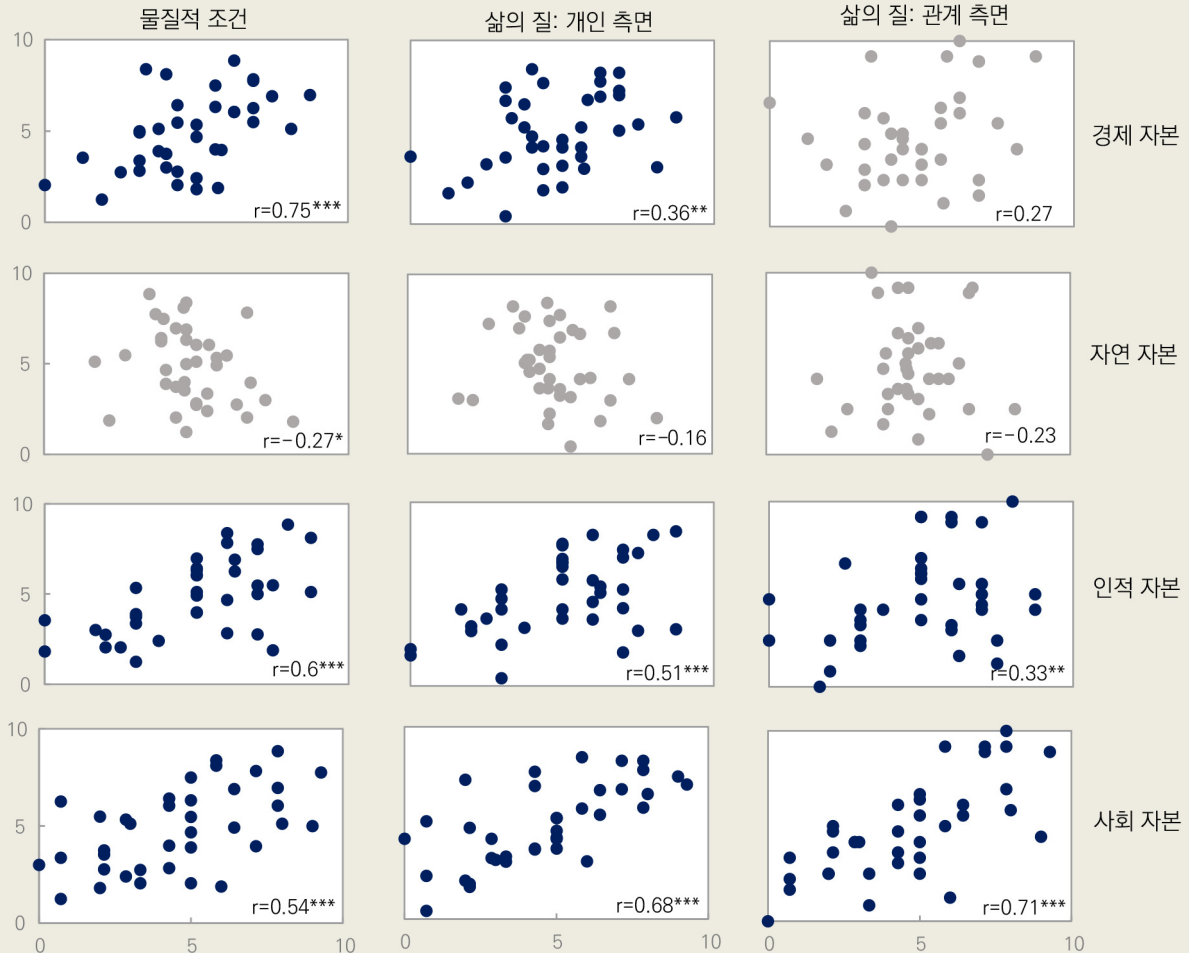
현재의 웰빙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경제, 자연, 인적 및 사회 자본의 비축과 흐름이 결합하는 방식을 구분하고 어떤 다른 요소가 작동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한 한편, 기초적 상관관계는 일부 공동 의존성을 시사한다(그림 1.21).

경제 자본이 강력한 OECD 국가는 또한 물질적 조건(즉, 소득과 부, 주거, 일과 일자리의 질)에 관련된 현재 웰빙의 측면과 삶의 질의 개인적/환경적 측면(즉, 건강, 지식과 역량,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과 안전)에서 우수한 비교 성과를 달성한다. 마찬가지로,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 양쪽에서의 성취는 물질적 조건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즉,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연계, 시민 참여)을 포함한 삶의 질의 모든 측면과도 관련된 높은 웰빙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

웰빙에 매우 중요한 자연 자본의 많은 부분이 전 세계적 공유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웰빙과 자연 자본 간 국가별 관계는 분석하기가 좀 더 복잡하다. 단기적으로, 어떤 국가 내에서 높은 현재 웰빙은 미래의 웰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 자본 비축에 대한 위협과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존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웰빙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 자본의 사용은 미래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비축을 고갈시키며, 실제로 현재 웰빙의 우수한 성과와 자연 자본 간의 연관성은 비록 중요하지 않을 지라도 부정적이다.

그림 1.21. 미래 웰빙을 위한 더 높은 자원은 오늘의 풍족한 생활과 연관된 경향이 있다.

현재 웰빙의 다양한 측면에서 OECD 국가의 성과와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 간 연관성,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주: 이 그림은 현재와 미래 웰빙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과 간 연관성을 시각화한다. 비중요 쌍의 상관관계는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각각의 OECD 국가는 다양한 현재 웰빙의 영역(평균 값과 불평등 둘 다와 관련이 있는)과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에서 비교 성과(OECD 순위의 하위 세 번째일 때 값은 0, 중간 세 번째는 5, 상위 세 번째는 10)에 따라 “점수를 얻는다”. 제1장의 대부분과 달리, 이 분석은 주요 지표들 넘어 전체 *How's Life?* 웰빙 대시보드를 기반으로 한다. 각각의 국가별 점수는 먼저 현재 웰빙 영역 내에서 평균화되고(각각의 지표에 대해 동일한 가중치 적용), 그런 다음 영역 전체에서 평균화된다. 같은 절차가 경제, 자연, 인적 및 사회 자원에 대한 주요 지표에 사용된다. 누락 데이터 지점은 각 국가의 점수에서 제외되며 데이터 격차의 경우 해당 점수가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출처: OECD 계산, 독자를 위한 가이드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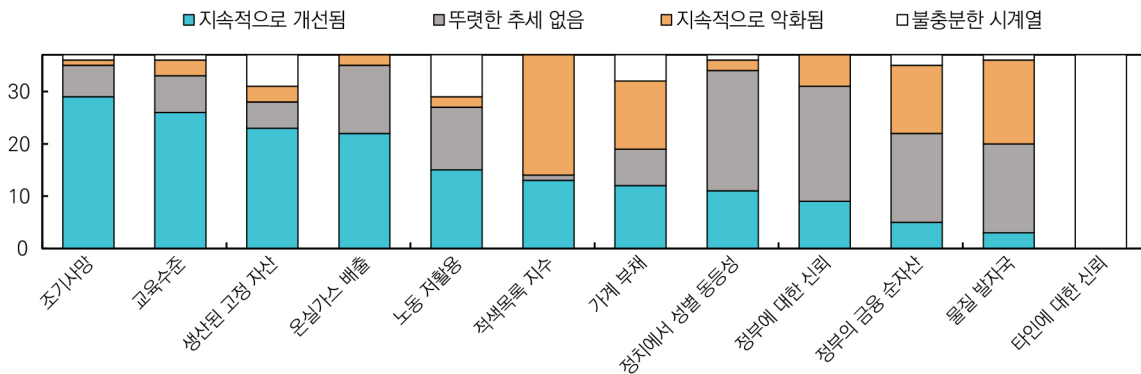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770>

2010년 이후 미래 웰빙 주요 지표를 위한 자원의 추세, 국가별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의 추세는 2010년 이후 고려한 자원에 따라 나뉘었다(그림 1.22). 한편으로는 모든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이 조기 사망, 젊은 성인의 교육 성취도, 노동 저활용, 1인당 온실가스 배출 및 생산된 고정 자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었다.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일반적 추세에 맞서면서 2010년 이후 생산된 고정 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국가들이며, 미국은 출생 시 기대 수명의 추세를 반영하면서 더 높은 조기 사망을 겪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히 OECD에서 1인당 배출이 가장 낮은 국가인 칠레와 터키에서 꾸준히 증가해왔다. 다른 한편, *사회 자본*에 관한 한, 특히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에서, 대다수 국가가 “뚜렷한 변화 없음”을 확인했다. 추세에 뚜렷한 방향이 있는 국가 가운데, 신뢰는 악화된 국가(6)보다 증가한 국가(9)가 더 많다. 어떤 경우에는 공공 기관을 신뢰하는 인구 비율의 감소가 상당했는데, 칠레와 스웨덴에서는 10% 포인트를 초과했고 콜롬비아에서는 20% 포인트를 초과했다. OECD 국가 1/3에서 *경제 자본*(가계 부채와 정부의 금융 순자산) 측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OECD 평균보다 이미 훨씬 낮은 국가(예: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발생하는 정부 순자산의 최대 하락이 있었다.

그림 1.22. 미래 웰빙에 대한 자원의 진전은 혼합되어 있다.

OECD 국가 수별 2010년 이후 미래 웰빙에 대한 자원의 주요 지표에 대한 추세



주: 추세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자 1.3을 참조한다.
출처: OECD 계산, 부록 1.A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789>

생물다양성은 2010년 이후 여러 OECD 국가(23)에서 지속적으로 상실되어왔다. 멸종우려종에 대한 적색목록 지수의 최대 감소는 뉴질랜드, 멕시코, 한국, 콜롬비아, 칠레, 영국, 일본과 호주, 프랑스를 비롯해 이미 위험율이 높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1인당 더 낮은 온실가스 배출에도 불구하고, 37개 OECD 국가 중 16개가 1인당 물질 발자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대 증가(3톤 이상)는 OECD 평균을 초과하는 발자국의 국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호주가 기록했다. 이들 국가의 다수가 2010년 이후 현재 웰빙에서 강력한 증가를 기록했던 국가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는 지속가능성과 생활 수준 개선 간 균형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평균 이하 발자국의 OECD 국가 세 곳, 즉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전반적 추세에 맞서 지구의 물질에 대한 소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1인당 3톤 이상의 물질 발자국이 감소했다.

지표 수준에서 혼합된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대다수 OECD 국가는 미래 웰빙에 대한 자원의 적어도 50%의 주요 지표에서 진전을 달성했다(그림 1.23). 다른 국가에 비해 캐나다는 2010년 이후 11개 주요 지표 중 8개에서 지속적 증가를 얻으면서 최대의 개선을 기록했다(고정 생산 자산, 정부의 순자산,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인적 자본*(조기 사망, 젊은 성인의 교육 성취도, 노동 저활용)과 정부에 대한 신뢰,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 등 세 가지 지표). 그에 반해, 터키는 가장 적은 전체적 자원이 개선되었으며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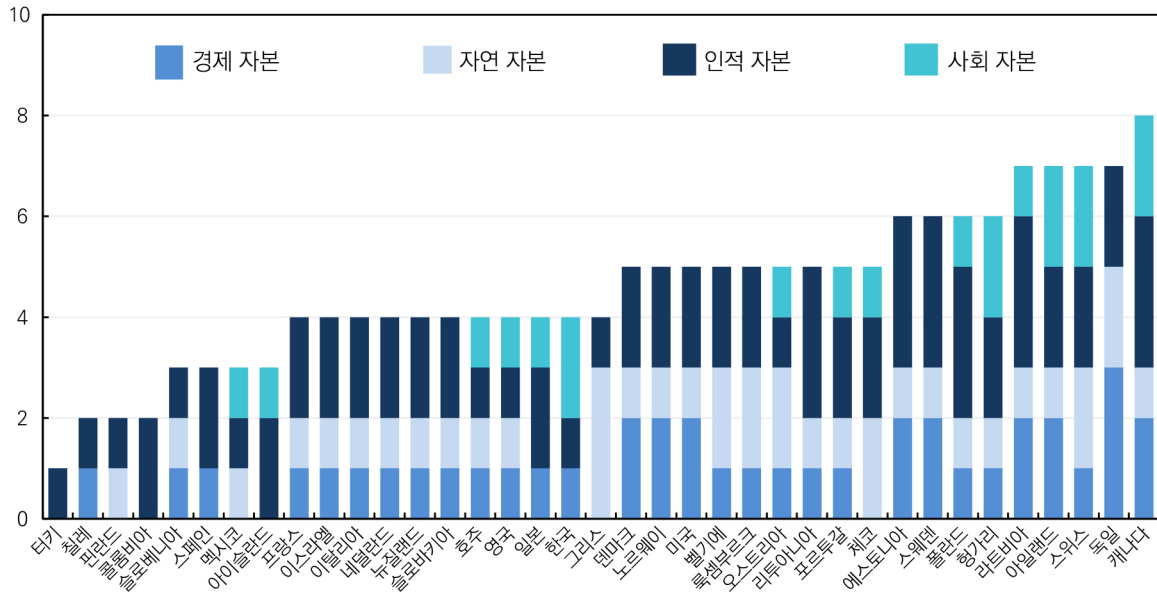
성인의 비율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칠레, 콜롬비아, 핀란드도 미래 웰빙의 11개 측면 중 2개만 개선되었으며 칠레는 미래 웰빙에 대한 자원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였다.

일부 OECD 국가는 단 하나의 주요 지표에 대한 자원 악화를 기록하거나 어떠한 지표에 대해서도 자원 악화를 기록하지 않았다. 다수의 현재 웰빙 지표에서 개선을 경험했던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이스라엘과 몇몇 동유럽 국가가 이런 경우이다(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그림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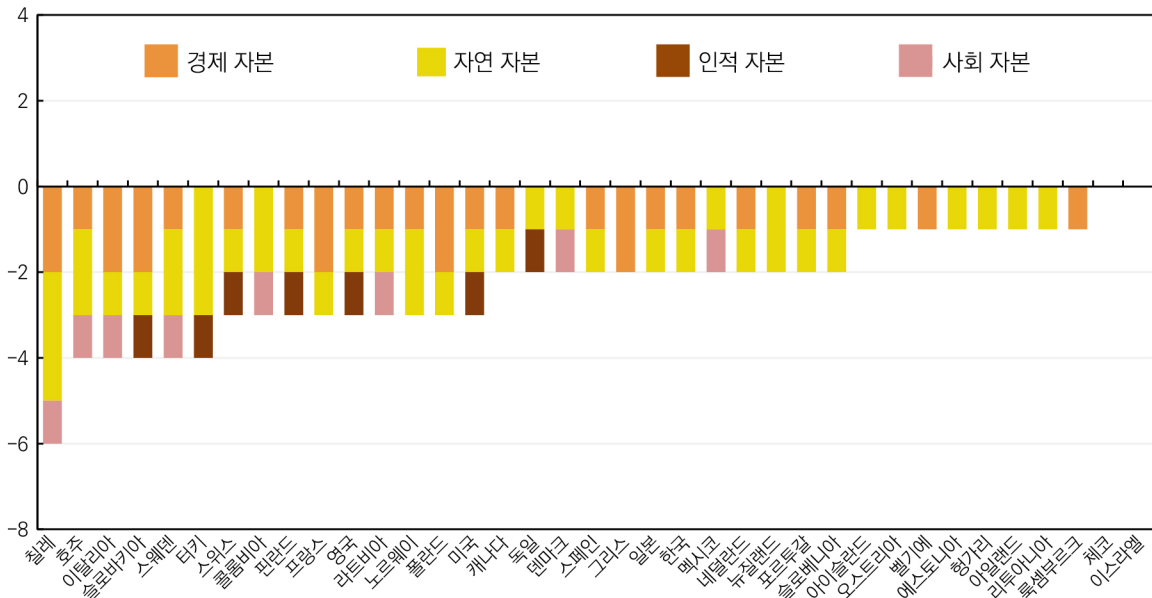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웰빙의 진전 속도가 미래 웰빙에 대한 자원의 진전 속도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오늘날 웰빙 성과에서 많은 개선을 경험한 국가들이 미래에 대한 자원에서 이와 비슷한 개선을 항상 얻지는 않았다(그림 1.24). 아일랜드, 스위스, 미국 같은 OECD 회원국은 “지금 당장”의 웰빙 성과에서 그들이 개선했던 것보다 미래 웰빙에 대한 자원에서 비교적 훨씬 더 많은 증가를 얻었다. 콜롬비아, 터키, 슬로바키아 같은 다른 국가는 미래 자원에 투자했던 것보다 오늘날 사람들의 웰빙이 훨씬 더 증가했다. 이는 세대 간 웰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가가 웰빙의 현재와 미래 측면 둘 다 별도로 고려해서 다른 하나를 대가로 치르고 하나를 방치하는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이는 *자연 자본*의 경우에 특히 극심하게 나타나는 위험이다(상자 1.4). 또한 일부 웰빙 증가가 더 높은 GDP 성장과 관련이 있는 한편, 이것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며 진전의 유일한 지표로서 GDP 성장 너머를 살펴봐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다(상자 1.5).

그림 1.23 OECD 국가들 중에 전반적으로 미래 웰빙에 대한 자원의 증가가 감소보다 더 자주 있었다.

A. 미래 웰빙에 대한 자원의 주요 지표 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B. 미래 웰빙에 대한 자원의 주요 지표 수는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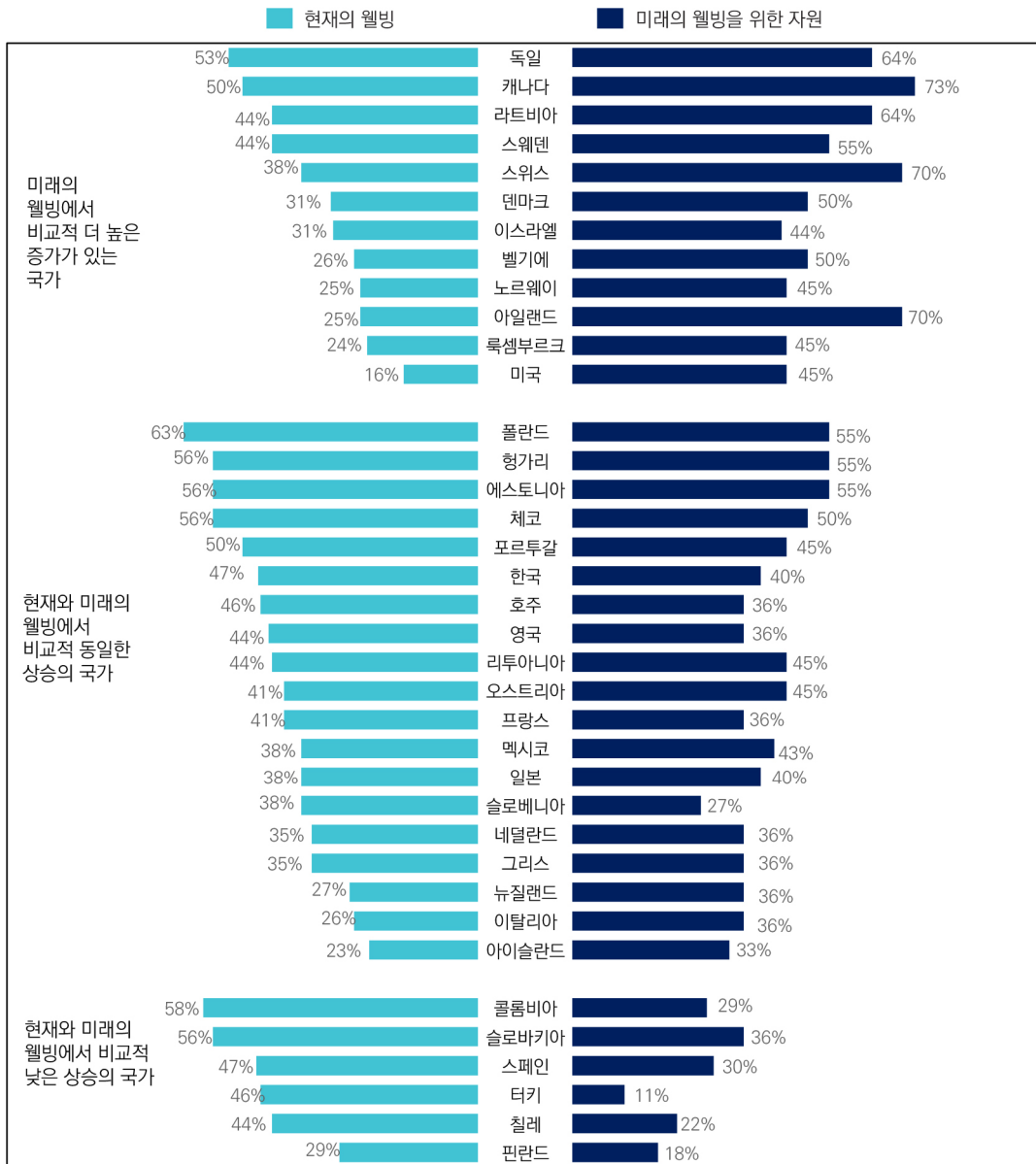


주: 경제 자본의 경우 생산된 고정 자산, 일반정부의 금융 순자산 및 가계 부채에 대해 시간 경과에 따른 주요 지표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다. 자연 자본의 경우 1인당 온실가스와 멸종우려종의 적색목록 지수 및 물질 발자국에 대한 정보, 인적 자본의 경우 젊은 성인의 교육 성취도, 노동 저활용률 및 잠재적 수명 상실 연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회 자본의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치에서의 성별 동등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타인에 대한 신뢰의 사회 자본 지표에 이용할 수 있는 시계열은 없다. 추세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자 1.3을 참조한다.

출처: OECD 계산, 부록 1.A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그림 1.24. 오늘날 웰빙에서의 증가와 미래에 대한 자원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현재 웰빙(왼쪽)과 미래 웰빙(오른쪽)의 주요 지표의 비율. 각 가능성 있는 24개 지표와 12개 지표(누락 데이터 제외)



주: 누락 지표는 각각의 국가에 대한 가용 지표의 총 수에서 뺐다. 각각의 지표 간 개선의 차이가 >10%인 경우 국가는 현재 웰빙/미래 자원에서 더 높은 증가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현재 웰빙에 대한 2010년 이후 추세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있는 주요 지표(평균과 불평등 결합된)는 가구 소득, 중위 가구의 부, 주택 구매력, 고용률, 기대 수명, 과학 분야의 학생 역량, 삶의 만족도, 살인율, 여가와 자기 돌봄 시간, 사회적 상호작용, 투표율, S80/S20 소득률, 과밀도, 성별 임금 격차, 장시간 유급 노동, 유해한 대기오염 노출, 부정 정서 균형, 안전감에 대한 성별 격차, 그리고 사회적 지원 부족 인구의 비율이다. 미래 웰빙에 대한 2010년 이후 추세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있는 주요 지표는 경제 자본에 대한 생산된 고정 자산, 정부의 금융 순자산, 가계 부채, 자연 자본에 대한 1인당 온실 가스 배출(국내 생산), 멸종우려종의 적색목록 지수 및 물질 발자국, 인적 자본에 대한 젊은 성인의 교육 성취도, 노동 저활용률 및 조기 사망, 사회 자본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 및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이다. 모든 국가에 대해 시간 경과에 따른 추세를 결정하기 위해 사회 자본 하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추세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자 1.3을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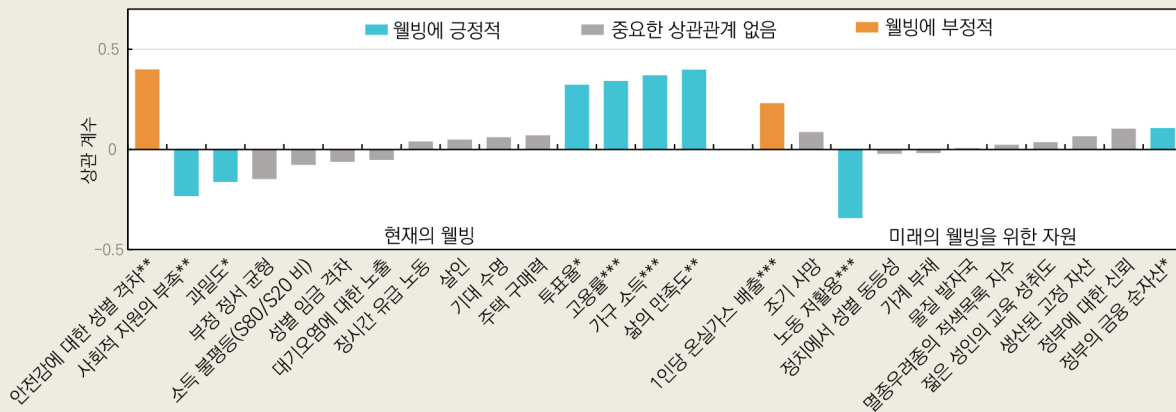
출처: OECD 계산, 부록 1.A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

상자 1.5. GDP 성장과 웰빙 간 관계

웰빙 접근법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광범위한 성과 전체에 걸쳐 국가의 상대적 강점과 약점을 한눈에 식별하는 데 유용하다. 이는 조치를 위한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정책의 균형을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웰빙에 대한 데이터는 또한 GDP 성장을 주된 진전 지표로 간주할 때 어떤 영역이 특히 간과될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GDP 성장은 2012년(최신 OECD 계산에서 GDP 성장에 대한 비교할 만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도) 이후 현재와 미래 웰빙 둘 다의 몇몇 측면에서 변화에 대한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잘 수행한다. 하지만 모든 웰빙 지표가 GDP 성장과 긍정적 관계를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GDP가 성공을 판단하는 데 사용된 유일한 척도였을 경우 여러 다른 지표가 완전히 간과될 것이다(그림 1.25).

그림 1.25. 2012년 이후 OECD에서 GDP 성장은 웰빙의 (전부가 아닌)일부 변화와 관련이 있다.

GDP 성장률과 웰빙 지표의 변화 간 쌍의 상관관계, 2012~18



주: 분석은 OECD 37개 회원국 모두를 망라하는 패널 데이터세트를 기반으로 한다. 지표 이름 옆에 표시된 기호 *는 p<0.10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는 p<0.05 수준, ***는 p<0.01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비중요 상관관계는 회색이다.

출처: OECD 국가 계정(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과 부록 1.A에 나열된 출처에 기반한 OECD 계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846>

2012년 이후 국가 수준에서 GDP 성장은 더 높은 가구 소득, 고용률 및 더 낮은 노동 저활용(실업자, 구직단념자, 불완전고용 근로자) 등 물질적 조건 여러 측면에서의 성장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 경제가 성장한 국가에서는 자신의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또한 개선되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과밀 주택 조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줄었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없다고 느낀 인구의 비율이 줄었으며 정부의 금융 순자산이 상승했다. 하지만 경제가 위축되면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이 개선되었고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성별 격차가 좁아졌다(그 이유는 주로 강력한 GDP 성장을 겪지 않았던 국가가 안전감에 대한 성별 격차를 줄이는 데 더 성공적이었기 때문).

동시에, 다른 웰빙 성과의 진전은 GDP 성장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 불평등, 장시간 유급 고용의 성행, 성별 임금 격차, 주택 구매력, 대기오염, 살인율과 기대 수명에 대한 현재 웰빙 지표의 변화는 GDP의 변화와 중요한 관계가 없다. 이는 미래 웰빙(가계 부채, 생산된 고정 자산, 조기 사망, 젊은 성인의 교육 성취도, 멸종우려종의 보호, 국가의 물질 발자국, 정부에 대한 신뢰 및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에 대한 몇 가지 자원의 변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성장하는 경제는 삶의 일부 측면에서 상승하는 웰빙과 연관될 수 있는 한편, 오늘날과 미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포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참고문헌

- Durand, M. and C. Exton (2019), “Adopting a Well-Being Approach in Central Government: Policy Mechanisms and Practical Tools”, in *Global Happiness Policy Report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New York, <http://happinesscouncil.org/>. [1]
- Exton, C. and L. Fleischer (2020), “The Future of the OECD Well-being Dashboard”,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Paris (forthcoming). [5]
- Fleischer, L., M. Frieling and C. Exton (2020), “Measuring New Zealand’s Well-being”,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OECD Publishing, Paris (forthcoming). [3]
- OECD (2019), *Environment at a Glance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ac4b8b89-en>. [8]
- OECD (2019),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9 Issue 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b2e897b0-en>. [4]
- OECD (2019), *OECD Economic Surveys: New Zealand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b0b94dbd-en>. [2]
- OECD (2019), *PISA 2018 Results (Volume II): Where All Students Can Succeed*,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b5fd1b8f-en>. [9]
- OECD (2017),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17 Issue 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eco_outlook-v2017-1-en. [6]
- UNODC (2019), *Global Study on Homicide*, <http://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gsh/Booklet2.pdf> (accessed on 17 January 2020). [7]

부록 1.A. 주요 웰빙 지표

부록 표1.A.1. 주요 지표: 현재의 웰빙 평균

영역	라벨	지표	단위	최신 가용 연도	출처
소득과 부	가구 소득	가계 순조정 가처분 소득	2017년 PPP일 때 USD, 1인당	2017	OECD 국가 계정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
	가구 자산	중위 가구의 순 부	2016년 PPP일 때 USD	2016	OECD 부의 분포(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REALTH
주거	주택 구매력	주거비 지출후 가처분 소득	남은 가계 총 조정 가처분 소득의 비율, 주택 임대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제 후	2018	OECD 국가 계정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5 and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14A
일과 일자리의 질	고용률	고용률	25~64세 취업자, 같은 연령 인구의 비율로서	2018	OECD 성별 및 연령별 노동 인구 통계 - 지표(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SEXAGE_LR
건강	기대 수명	출생 시 기대 수명	신생아가 기대할 수 있는 수명	2017	OECD 건강 상태(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지식과 역량	과학 분야의 학생 역량	15세 학생의 과학 분야 인지 역량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 과학 평균 점수	2018	OECD(2019), PISA 2018 결과(권): <i>What Students Know and Can Do(학생들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i> , PISA, OECD 출판, 파리, https://doi.org/10.1787/5f07c754-en
환경의 질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	도보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인구의 비율	2012	Poelman (2018), "A walk to the park? Assessing access to green areas in Europe's cities, update using completed Copernicus urban atlas data(공원까지 걷기? 유럽 도시의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성 평가, 코페르니쿠스 도시 아틀라스 원료 데이터를 이용한 업데이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역 및 도시 정책,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gener/works/2018_01_green_urban_area.pdf
주관적 웰빙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11점 척도에서 평균 값, 응답 범위 0(전혀 만족스럽지 않음)부터 10(완전히 만족스러움)까지	2018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 호주 종합 사회 조사(General Social Survey), 캐나다 지역건강조사(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 콜롬비아의 삶의 질 전국조사(National Quality of Life Survey), 한국 사회통합실태조사(Social Integration Survey), 멕시코 가계소득지출 전국조사(National Survey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사회경제적 조건 모듈) 및 뉴질랜드 종합 사회 조사(General Social Survey)

영역	라벨	지표	단위	최신 가용 연도	출처
안전	살인	폭행으로 인한 사망	연령 표준화 비율, 인구 10만 명당	2016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I OECD 건강 상태(데이터베이스), 공적사용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이용 가능한 경우), 유럽통계청(Eurostat)의 통일된 유럽 생활시간조사(Harmonised European Time Use Surveys)(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time-use-surveys 와 통계청의 표에 기반한 OECD 계산
일과 삶의 균형	휴식 시간	여가와 자기 돌봄에 할당된 시간	하루당 시간, 전일제 근로자	2018년 경	공적사용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이용 가능한 경우), 유럽통계청의 통일된 유럽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time-use-surveys 와 통계청의 표에 기반한 OECD 계산
사회적 연계	사회적 상호작용	임차적 활동으로 친구 및 가족과 상호작용하며 보내는 시간	주당 시간	2018년 경	공적사용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이용 가능한 경우), 유럽통계청의 통일된 유럽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time-use-surveys 와 통계청의 표에 기반한 OECD 계산
시민 참여	투표율	투표율	투표 등록된 인구 가운데 투표하는 비율	2016~19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 연구소(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데이터베이스), https://www.idea.int/

부록 표1.A.2. 주요 지표: 현재의 웰빙 불평등

영역	라벨	지표	단위	최신 가용 연도	출처	불평등 유형
소득과 부	S80/S20 소득 점유율	소득 분포 상위 20%의 평균(균등화된) 가계 가처분 소득 대 하위 20%의 평균 소득 비율	가계 가처분 소득의 S80/S20 비율	2017	OECD 소득 분포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수직적
주거	과밀도	과밀도	과밀 조건에서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EU-정의)	2017	OECD 부담 가능한 주택 데이터베이스, http://oecd.org/social/affordable-housing-database/	박탈
일과 일자리의 질	성별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	남성 임금의 비율로 표시되는 남성과 여성 중위 임금 간 차이	2018	고용에서 성별 평등에 대한 OECD 지표(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GENDER_EMP	수평적
	장시간 유급 노동	매우 긴 시간 동안 (유급으로) 일하는 근로자	일반적으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	2018	OECD 성별 및 연령별 노동 인구 통계 - 지표(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SEXAGE_I.R	박탈

영역	라벨	지표	단위	최신 가용 연도	출처	불평등 유형
건강	교육 수준별 기대 수명의 격차	낮은(학교 교육을 받지 않음,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 수준) 및 높은(대학 교육 수준의 25세 남성 간 기대 수명의 격차	년	2011	Murtin 외 (2017), "OECD 국가에서 교육 수준에 따른 수명 불평등: 세로운 OECD 추산의 통찰력(Inequalities in longevity by education in OECD countries: Insights from new OECD estimates)", OECD 통계 조사 보고서, No. 2017/2, OECD 출판, 파리, https://dx.doi.org/10.1787/6b64d9cf-en	수평적
지식과 역량	낮은 역량보유 학생	수학, 읽기 및 과학에서 점수가 낮은 15세 학생의 비율	읽기, 수학 및 과학에서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레벨 2 미만인 15세 학생의 비율	2018	OECD(2019), PISA 2018 결과(권): <i>What Students Know and Can Do(학생들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i> , PISA, OECD 출판, 파리, https://doi.org/10.1787/5f07c754-en	박탈
환경의 질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을 초과하는 초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에 노출된 인구	10g/m ³ 이상의 PM _{2.5} 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	2017	OECD 국가와 지역의 PM _{2.5} 노출(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EXP_PM2_5	박탈
주관적 웰빙	부정 정서 균형	부정 정서 균형	일상적인 하루 동안 긍정적 느낌과 상태보다 부정적 느낌과 상태를 보고한 인구의 비율	2016~18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박탈
안전	안전감에 대한 성별 격차	밤에 안전함을 느끼는 성별 격차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 남성보다 여성이 덜 안전함을 느끼는 퍼센트 차이	2013~18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수평적
일과 삶의 균형	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	여성이 일하며(유급 및 무급) 보내는 총 시간에서 추가적 시간, 남성에 비해(15~64세)	하루당 분	2005~18 사이	OECD 시간 사용(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ME_USE	수평적
사회적 연계	사회적 지원의 부족	사회적 지원의 부족 인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친척이 없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2016~18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박탈
시민 참여	정부에 대한 발언권 없음	정부에 대한 발언권 없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고 느끼는 16~65세 사람들의 비율	2012년 경	OECD 성인역량조사(PIAAC)(데이터베이스), https://oecd.org/skills/piaac	박탈

부록 표1.A.3. 주요 지표: 미래의 웰빙을 위한 자원

영역	라벨	지표	단위	최신 가용 연도	출처	자본 유형
경제 자본	생산된 고정 자산	생산된 고정 자산	2010년 PPP일 때 USD, 1인당	2018	OECD 국가 계정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_BLE9B	비축
	일반 정부의 금융 순자산	일반 정부의 조정 금융 순자산	GDP 퍼센트	2018	OECD 재정 지표 - 비축(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_ND_FBS	위험 요소
	가계 부채	가계 부채	가계 순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8	OECD 재정 지표 - 비축(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_ND_FBS	위험 요소
	온실가스 배출	국내 생산의 총 온실가스 배출,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삼림 관리로 인한 배출 제외(LULUCF)	1인당 톤, CO ₂ 등기물	2017	OECD 온실가스 배출(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IR_GH_G	위험 요소
자연 자본	물질 발자국	경제의 최종 수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출된 사용 원자재	1인당 톤	2017	OECD 물질 자원(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ATERI_AL_R_ESOURCES	희름
	멸종우려종의 적색목록 지수	멸종우려종의 적색목록 지수	조류, 포유류, 양서류, 소철류 및 산호초의 멸종 위험 결합 지표 1.0의 값은 최소 관심 대상으로 지정된 모든 종(즉, 가까운 미래에 멸종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과 동일하다. 0의 값은 멸종된 모든 종과 동일하다.	2019	UN DESA 전세계 SDG 지표 데이터베이스, 지표 15.5.1 http://unstats.un.org/indicators/indicator-15-5-1-red-list-index-2/data?orderBy=seriesCode - 출처: 국제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IUCN)	위험 요소
인적 자본	젊은 성인 가운데 교육 성취도	젊은 성인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 이수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25-34세 사람들의 비율	2018	OECD 교육 수준과 노동 인구 상태(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NEAC	비축
	노동 저활동	광범위한 노동 저활동률	전체 노동 인구에서 실업, 구직단념(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았지만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할 수 있는 노동 인구에 속하지 않은 사람) 및 불완전 고용(경제적 이유로 조사 기준 수 동안 평소보다 일을 덜한 전일제 근로자 및 전일제 일자리를 원했지만 찾지 못한 시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비율	2018	OECD 기계 대비(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H_DASH	위험 요소

영역	라벨	지표	단위	최신 가용 연도	출처	저본 유형
	조기 사망	다양한 질병과 사망 사고로 인한 잠재적 수명 상실 연수	인구 10만 명당 잠재적 수명 상실 연수(연령 표준화)	2017	OECD (2020), "잠재적 수명 상실 연수"(지표), https://doi.org/10.1787/193a2829-en (2020년 2월 4일 엑세스)	흐름
	타인에 대한 신뢰	대인관계 신뢰	0(다른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않음)부터 10(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음)의 척도에서 평균 점수	2013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_stats_NZ (뉴질랜드 통계청)	비축
사회 자본	정부에 대한 신뢰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에 관한 질문에 "예"로 응답한 인구의 비율	2016~18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비축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	국회에서 여성의 비율	국회 또는 상원/하원에서 여성의 비율	2017	OECD 정치에서의 여성(데이터베이스), https://data.oecd.org/inequality/women-in-politics.htm , 리투아니아 통계청(Statistics Lithuania)	회복력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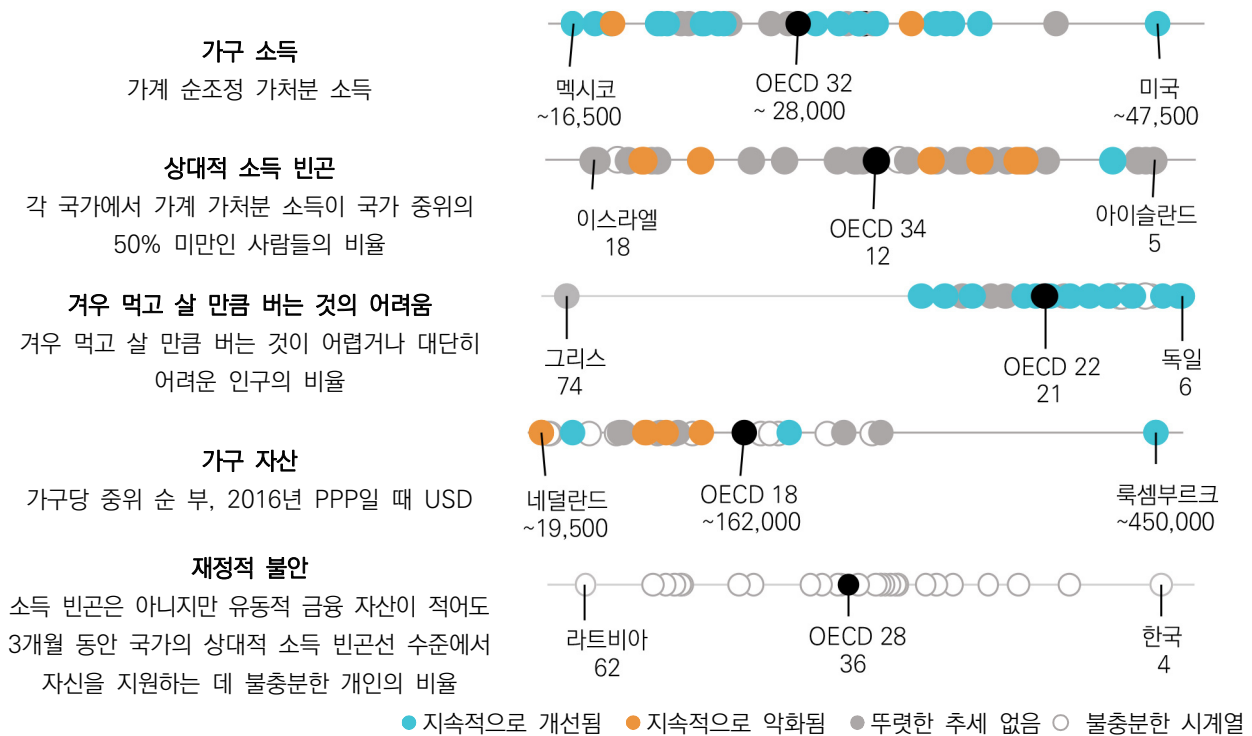
주

- ¹ 노동 저활용률은 실업자, 구직단념자(즉,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았지만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할 수 있는 노동 인구에 속하지 않은 사람) 및 불완전고용 근로자(경제적 이유로 조사 기준 주 동안 평소보다 일을 덜한 전일제 근로자 및 전일제 일자리를 원했지만 찾지 못한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 ² 2017년 *How's Life?* 대시보드는 현재 웰빙과 미래 웰빙에 대한 자원 하에서의 몇 개의 지표를 나열했다. 지식, 건강 및 부는 개인에게 굉장히 귀중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 웰빙 성과를 결정하며 전체 사회를 위해서도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2015년 미래 웰빙에 대한 자원의 지표가 운용 가능해졌을 때 이 이중 목록은 의도적 결정이었다. 하지만 지표의 여러 목록은 프레임워크의 논리를 이해당사자들에게 전달할 때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 명확성과 해석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How's Life? 2020*은 웰빙 영역과 자본의 정신과 청렴성을 유지하는 한편 지표의 중복을 최대한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전에는 성인과 (15세) 청소년의 인지 역량이 현재의 웰빙에서 *지식과 역량* 영역과 미래의 웰빙에서 *인적 자본* 모두에 포함되었다. 이들은 오늘날의 웰빙에 중요하고 미래의 성과를 견인하는 한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며(즉, 그들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지식과 역량* 하에 유지된다. *인적 자본*은 젊은 성인의 교육 성취도에 대한 지표를 통한 (미래 지향적) 교육 측정을 계속 포함한다.
- ³ 무급 노동은 일상적 집안일, 재화 및 서비스 쇼핑(주로 식품, 의류 및 거처와 관련된 물품), 세대 구성원(자녀와 어른)과 비세대 구성원 돌보기, 자원봉사, 가계 활동과 관련된 이동 및 기타 무급 노동을 포함한다.
- ⁴ 측정은 일차적 활동(예: 식사를 하거나 세대 구성원을 돌볼 때)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다른 상호작용을 제외한다.
- ⁵ 현재 웰빙 평균에 대한 주요 지표 절반의 추세에 대한 데이터는 이들 두 국가에 대해 누락되었는데 이는 이들의 비교 평가에 부정적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
- ⁶ 하지만 성별 고정화는 직업을 선택할 때 계속해서 강력한 장벽으로 작동하며, 여성에 대한 미래 직종 분리의 강력한 원동력이다.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미래에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직업에서 일하는 것을 구상하는 경우는 PISA 평가를 받은 15세 여학생 가운데 1%에 불과하며 이에 비해 남학생은 8%인 것으로 전해졌다(OECD, 2019^[9]).

2 소득과 부

소득과 부는 모두 가계의 경제적 웰빙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이다. 2010년 이후 OECD 1인당 평균 가계 가처분 소득은 점진적으로 6% 증가했다. 한편, 중위 가구의 순 부는 4% 하락했다. 유럽 OECD 국가에서 5개 가구 중 하나는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OECD 전체에서 8개 가구 중 한 가구 정도가 상대적 소득 빈곤 상태에 있다. 또한, 3개 가구 중 하나 이상이 재정적으로 불안한데, 이는 당장 소득 빈곤상태는 아니지만 3개월 동안 소득이 없을 경우 빈곤에 처할 위험에 있다는 뜻이다. 평균적으로 소득 분포 상위 20%의 사람들이 하위 20%의 사람들보다 5.4배 정도 더 벌고 있다. 가장 부유한 가구 10%가 모든 가구의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연령이 젊을수록 더 낮은 소득과 부가 적은 가정에서 살고 있을 확률이 높아 더 높은 빈곤위험에 처해 있다.

그림 2.1. 소득과 부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하거나 일관된 변화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 OECD 평균과 함께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방법론에 대한 세부 항목 정보는 독자를 위한 가이드를 참조한다.

출처: OECD 국가 계정 통계(데이터베이스)(<http://dx.doi.org/10.1787/na-data-en>), OECD 부의 분포(데이터베이스)(<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 OECD 소득 분포 데이터베이스(<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및 유럽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 조건 통계(EU-SILC)(<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data/database>)에 기반한 OECD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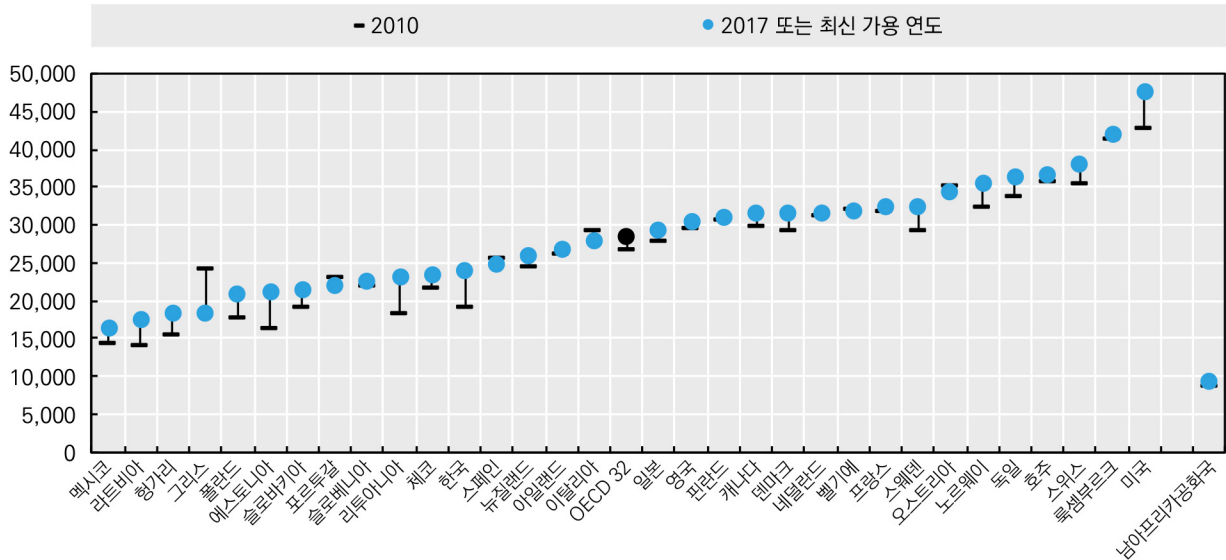
가구 소득

평균 가계 순조정 가처분 소득

2017년 OECD 국가에서 1인당 평균 가계 순조정 가처분 소득은 평균 약 USD 28,000였다. 이것은 국민 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의 측정을 기반으로 하며 세후 소득과 경상이전뿐만 아니라 가계가 정부와 비영리 기관으로부터 무료 또는 보조금 지급된 가격으로 받는 현물 서비스도 반영한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자 2.1 참조). 수치는 멕시코와 라트비아에서 가장 낮았고(약 USD 17,000) 미국과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높았다(USD 42,000 초과). 2010년 이후 OECD 1인당 평균 가계 순조정 가처분 소득은 점진적으로 6% 증가했다(그림 2.2). 2010년 이후 증가는 에스토니아에서 최대였고(29% 상승, 점진적으로) 다른 발트해 국가와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26~27%). 이와 동시에, 이 수치는 이탈리아에서 내려갔고 특히 그리스에서는 23%(즉, USD 5,500) 하락했다.

그림 2.2. 2010년 이후 가구 소득은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6% 증가했다.

가계 순조정 가처분 소득, 1인당, 2017년 PPP일 때 USD



주: 뉴질랜드의 최신 가용 연도는 2015년이다.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칠레,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및 터키를 제외한다.

출처: OECD 국가 계정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에 기반한 OECD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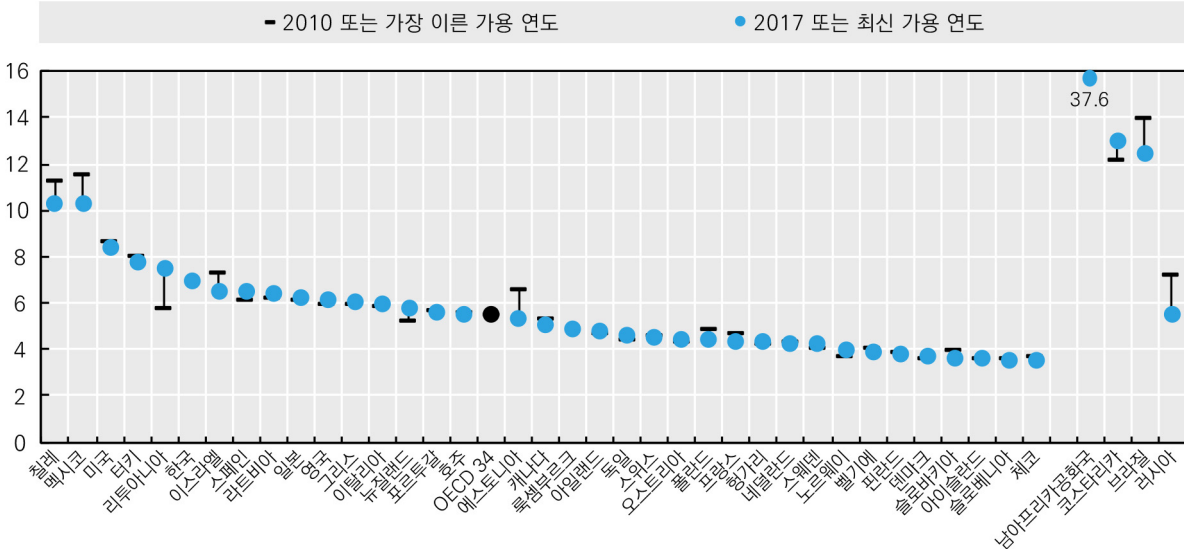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865>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 격차

가계 조정 가처분 소득의 SNA 측정 분포를 보여주는 데이터(위)는 여전히 실험적이며 한정된 수의 국가에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균등화된”(즉, 가구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기 위해 균등화 지수에 의해 “조정된”) 가계 가처분 소득 분포에 대한 정보(사회적 현물 이전을 고려하지 않은 보다 제한적 소득 개념)는 전국 가구 조사와 행정 기록에 기반한 OECD 소득 분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상자 2.1 참조). 이들 데이터는 OECD 국가 가운데 평균적으로 분포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보다 5.4배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그림 2.3). 불평등은 일부 중앙 및 동유럽 국가(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 및 벨기에가 가장 낮으며 비율이 4를 초과하지 않는다. 반대로, 칠레, 멕시코, 미국은 소득 분포 상위 20%가 하위 20%가 받는 것보다 8~10배 더 많이 받는다. 2010년에 비해 이 비율은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평균적으로 널리 공고해졌다. 에스토니아와 멕시코에서는 1.2포인트 감소했고 칠레에서는 약 1포인트 감소했지만 리투아니아에서는 약 1.8%가 증가했다.

그림 2.3.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부유한 20%가 가장 빈곤한 20%보다 5.4배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

소득 분포 하위 20%의 평균 소득에 대한 상위 20%의 평균(균등화된) 가계 가처분 소득의 비율 (S80/S20 소득 점유율)



주: 코스타리카에 대한 최신 가용 연도는 2018년이고, 캐나다, 칠레, 핀란드, 이스라엘,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및 미국에 대한 연도는 2017년이며, 독일, 아이슬란드, 일본, 스위스,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15년, 뉴질랜드는 2014년, 브라질은 2013년,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는 2016년이다. 칠레, 덴마크,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터키, 브라질, 러시아 연방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1년이고, 호주, 프랑스, 일본, 멕시코에 대한 연도는 2012년이며, 에스토니아, 스웨덴, 미국에 대한 연도는 2013년이다. OECD 평균은 불안정한 세계열 때문에 콜롬비아, 한국 및 룩셈부르크를 제외한다. 가계 가처분 소득은 가계 요구에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기 위해 가계 규모의 제공근으로 가구 소득을 나누는 균등화 지수에 의해 조정되는 방식으로 “균등화”된다(즉, 특정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가구 구성원은 가구 소득의 비례적 증가보다 더 적게 요구한다는 개념).

출처: OECD 소득 분포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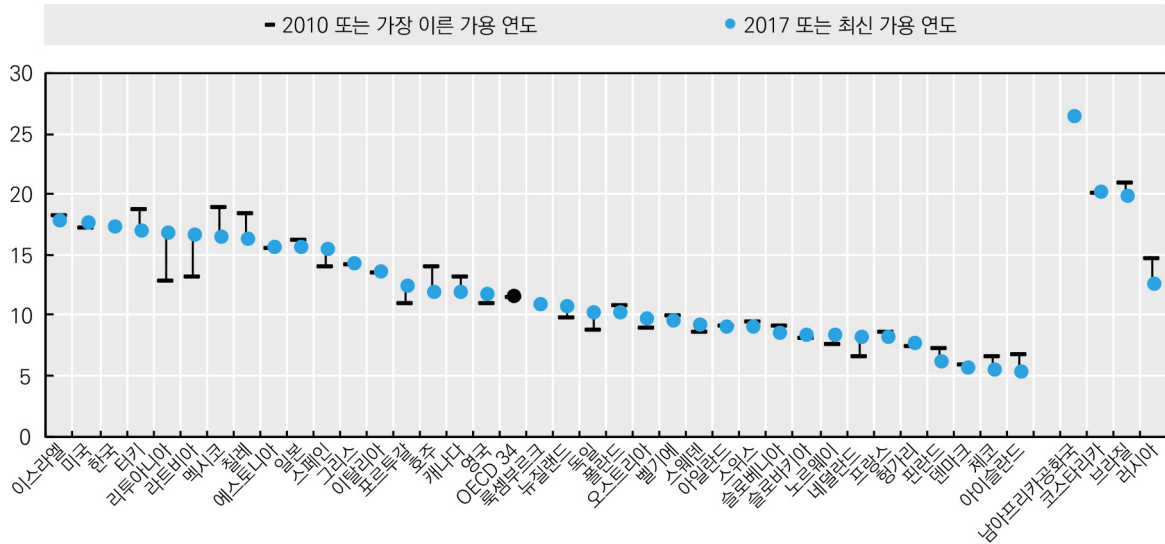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884>

상대적 소득 빈곤

국가 중위의 절반 미만 가처분 소득으로 정의되는 상대적 소득 빈곤은 평균적으로 OECD 국가 국민들의 12%에 영향을 준다(그림 2.4). 그 비율은 아일랜드, 체코, 덴마크에서 가장 낮고(6% 미만) 이스라엘, 미국, 한국, 터키에서 가장 높다(17% 초과). 2010년에 비해 소득 빈곤율은 다수의 OECD 국가에서 널리 공고한 상태로 남아 있다. 하지만 그 비율은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에서 4% 포인트 증가했고 멕시코, 칠레, 호주에서는 2% 포인트 감소했다. 따라서 국가 중위 소득의 전년 대비 변화를 반영하는 상대적 소득 빈곤의 이러한 변화는 국가 소득이 빠르게 상승한 국가(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는 빈곤선이 함께 상승한 반면, 국가 소득이 하락한 국가(예: 그리스, 이탈리아)에서는 빈곤선이 함께 하락했다. 특정 연도(예: 2005년)에 고정된 소득 빈곤의 변화는 더 크며 더 많은 국가에 영향을 준다(OECD, 2015₍₁₎).

그림 2.4. OECD 국가 가운데 평균적으로 12%의 사람들이 상대적 소득 빈곤에서 생활한다.

(균등화된) 가계 가처분 소득이 국가 중위의 50%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 퍼센트



주: 코스타리카에 대한 최신 가용 연도는 2018년이고, 캐나다, 칠레, 핀란드, 이스라엘, 한국,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에 대한 연도는 2017년이며,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일본, 스위스, 터키의 경우 2015년, 헝가리와 뉴질랜드는 2014년,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는 2016년이다. 칠레, 덴마크,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뉴질랜드, 터키, 브라질, 러시아 연방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1년이고, 호주, 프랑스, 헝가리, 일본, 멕시코에 대한 연도는 2012년이며, 에스토니아, 스웨덴, 미국에 대한 연도는 2013년이다. OECD 평균은 불완전한 시계열 때문에 콜롬비아, 한국 및 룩셈부르크를 제외한다. 가계 가처분 소득은 가계 요구에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기 위해 가계 규모의 제공근으로 가구 소득을 나누는 균등화 지수에 의해 조정되는 방식으로 “균등화”된다(즉, 특정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가구 구성원은 가구 소득의 비례적 증가보다 더 적게 요구한다는 개념).

출처: OECD 소득 분포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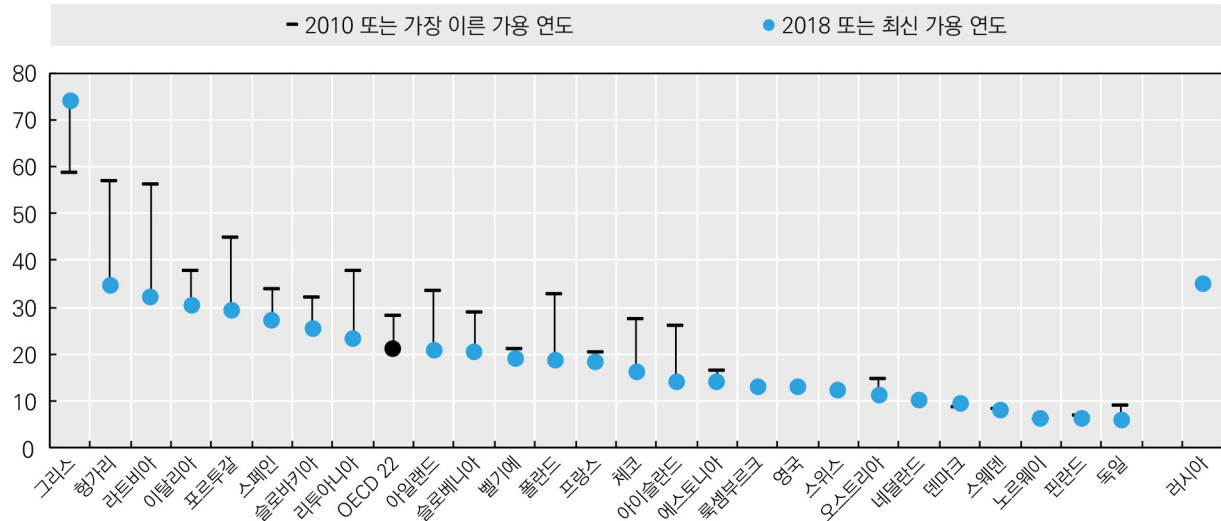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903>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것의 어려움

가계가 경험하는 경제적 긴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대한 (자기 보고) 데이터를 통해 제공된다. 유럽 국가에 대해서만 제공되는 이 측정을 기반으로, 평균적으로 21%의 사람들이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데 어려움 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림 2.5). 핀란드의 1% 포인트 이하부터 그리스의 60% 포인트까지 두 측정 간 차이와 함께, 상대적 소득 빈곤선을 기준으로 이 비율은 빈곤층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훨씬 넘는다(그림 2.4). 2010년에 비해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유럽 OECD 국가에서 평균 약 7% 포인트가 감소했으며 라트비아와 헝가리에서 최대 감소(20포인트 이상)가 있었다. 그에 반해, 그리스에서는 약 16% 포인트가 증가했다.

그림 2.5. 유럽 OECD 국가에서 5명 중 1명이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다.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것이 어렵거나 대단히 어려운 인구의 비율, 퍼센트



주: 아이슬란드의 최신 가용 연도는 2016년이다. 폴란드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1년이고, 에스토니아는 2015년이다. 2018년 데이터는 아일랜드와 영국의 예비 데이터이다.

출처: 유럽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data/database>와 러시아 연방에 대한 가구 소득 및 사회적 프로그램 참여 조사에 기반한 OECD 계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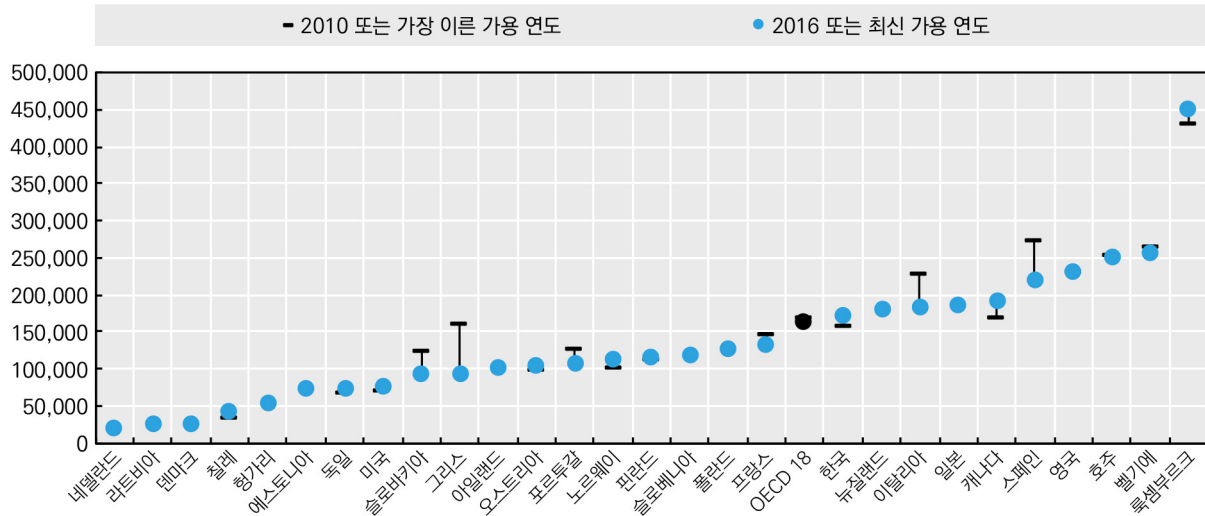
가구 자산

가구당 중위 부

가구의 부는 가구가 보유한 모든 금융 및 비금융 자산(주택, 토지, 통화와 예금, 주식 등)과 가구의 모든 금융 부채(담보 대출, 소비자 금융 등) 간 차이이다. 이 측정은 정확히 분포의 중간에 있는 가구에 대해 보고된다(50%보다 많은 부, 50% 아래의 부 및 중간의 부를 가지고 있는 가구).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 간에, 가구당 중위 부는 USD 162,000 정도이다. 값의 범위는 네덜란드, 라트비아 및 덴마크는 OECD 평균의 1/5 미만이고 룩셈부르크는 OECD 평균의 거의 세 배이다(그림 2.6). 국가 간 중위 부 수준의 차이는 완전한 주택 소유율(담보 대출 없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과 노년기의 넉넉한 사회 보장 연금의 존재와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다. 평균 가처분 소득의 면에서 가구의 상대적 위치와 비교할 때(그림 2.2), 가구당 중위 부는 자신의 집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OECD에서 가장 낮은 국가인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낮다(Balestra 및 Tonkin, 2018_[2]). 2010년 이후 중위 부는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평균적으로 4%(약 USD 6,000) 감소했다. 칠레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고(32%)(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견인함)(Balestra 및 Tonkin, 2018_[2]) 캐나다(16%), 독일과 미국(13%)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주로 더 높은 금융 자산을 반영한다(Balestra 및 Tonkin, 2018_[2]). 2010년 이후 최대 하락은 그리스에서 발생했고(-41%) 슬로바키아(-25%), 이탈리아와 스페인(-19%)이 그 뒤를 따르며, 주로 부동산 자산 가치의 하락을 반영한다(Balestra 및 Tonkin, 2018_[2]).

그림 2.6.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중위 가구의 부는 23배의 비율로 다를 수 있다.

가구당 중위 순 부, 2016년 PPP일 때 USD



주: 캐나다와 미국의 최신 가용 연도는 2016년이고, 덴마크,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및 영국은 2015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은 2013년, 스페인은 2012년,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는 2014년이다.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및 스페인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09년, 벨기에,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미국은 2010년,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는 2012년, 한국은 2013년,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는 2011년이다. OECD 평균은 두 개의 시점에 대한 가용 데이터가 있는 18개 국가로 제한된다. 영국에 대한 데이터는 그레이트브리튼으로 제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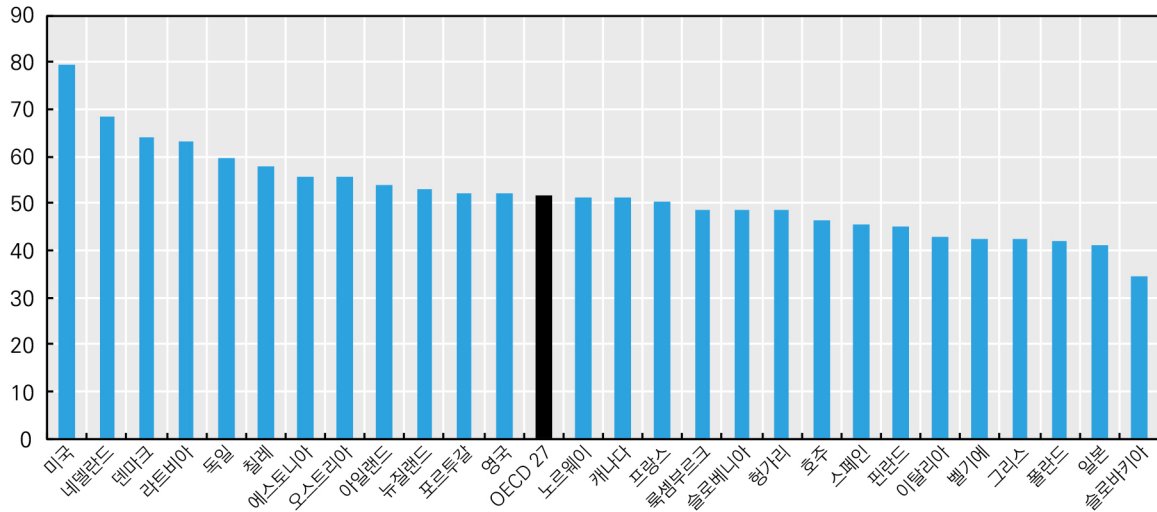
출처: OECD 부의 분포(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941>

가구 자산의 분포는 가구 소득보다 훨씬 더 집중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부유한 가구 10%가 전체 가구 순자산의 52%를 소유하고 있다(그림 2.7). 이 범위는 슬로바키아 34%부터 미국 80%까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가구조사를 이용할 때 특히 측정하기가 어려운 분포의 가장 높은 부분에 대한 척도의 정확성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한편(Balestra 및 Tonkin, 2018^[2]), 대안적(세금 기반) 출처는 또한 부의 불평등이 유럽보다 미국에서 훨씬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Alvaredo 외, 2017^[3]).

그림 2.7. 평균적으로 가장 부유한 10%가 전체 가구의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다.

상위 10%가 소유한 부의 비율, 퍼센트, 2016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주: 캐나다와 미국의 최신 가용 연도는 2016년이고,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2015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및 포르투갈은 2013년, 캐나다와 스페인은 2012년,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는 2014년이다. 영국에 대한 데이터는 그레이트브리튼으로 제한된다.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OECD 평균은 콜롬비아, 체코,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리투아니아, 멕시코, 스웨덴, 스위스 및 터키를 제외한다.

출처: OECD 부의 분포(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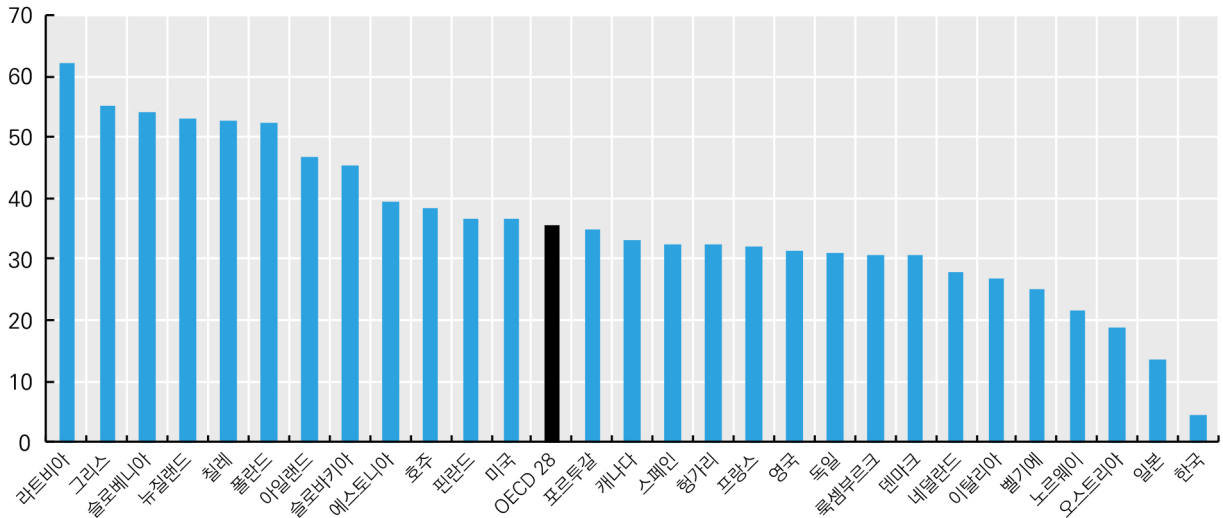
재정적 불안

가용 데이터가 있는 OECD 28개 국가 전체에 걸쳐 36%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불안하다(그림 2.8).

즉, 현재 소득 빈곤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예: 실업, 가족 붕괴 또는 장애)의 경우 이러한 상태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소득이 갑자기 중단될 경우 3개월 이상 빈곤선 위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유동성 자산이 없을 것이다(추가 세부 사항은 상자 2.1과 아래 그림의 주 참조). 라트비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칠레 및 폴란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재정적 불안의 정의를 충족시킨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불과 4%의 사람들이, 그리고 일본에서는 15% 미만의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불안하다.

그림 2.8. OECD에서 1/3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에 처할 위험에 놓여 있다.

재정적으로 불안한 개인의 비율, 퍼센트, 2016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주: 최신 가용 연도는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 2016년이며, 덴마크, 한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및 영국은 2015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는 2014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2013년, 그리고 스페인은 2012년이다. 재정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소득 빈곤은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소득 빈곤선 수준에서 자신을 지원하기에 불충분한 유동적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즉, 국가 중위 소득 25% 미만의 균등화된 유동적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음). 유동적 금융 자산은 현금, 상장 주식, 뮤추얼 펀드 및 비법인 가계 기업의 부채 채권으로 정의된다. 사용된 소득 정의는 가능한 한 소득 빈곤을 보고하는 데 사용된 정의(가계 가처분 소득)를 따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가계 가처분 소득에 대한 정보는 부의 통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출처에서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사용된 소득 개념은 총 소득(모두 세금 납부 전 기록된 임금과 급여의 총액, 자영업자 소득, 재산소득 및 수취한 경상이전)의 개념이다. 영국에 대한 데이터는 그레이트브리튼으로 제한된다.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OECD 평균은 콜롬비아, 체코,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멕시코, 스웨덴, 스위스 및 터키를 제외한다.

출처: OECD 부의 분포(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979>

소득과 부의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엄밀히 말하자면, 다양한 인구 집단의 소득과 부 프로필(성별, 연령 또는 교육 수준에 따라 정의)은 데이터를 가구 수준에서 수집했기 때문에 이 장에서 고려한 지표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 조사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가구의 구성에 대한 정보(예: 성별, 연령별)를 제공하지만 그 가구 구성원 전체에 분포된 소득과 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가구 수준의 데이터를 기록할 때 했던 암묵적 가정은 모든 세대 구성원에 대한 자원의 완전하고 평등한 공유이다. 그러한 데이터를 연구할 때 얻을 수 있는 불평등에 대한 유일한 통찰력은 가구의 다양한 평균 특성(즉, 65세 이상의 사람을 포함하는 가구와 포함하지 않은 가구에 대한 평균), 또는 다양한 개인이 부양하는 가구(남성과 여성, 젊은 사람과 노인, 다양한 교육 수준의 사람 등)와 관련된다. 이는 이러한 다양한 집단 간 격차의 규모를 상당히 과소 평가하거나 과대 평가할 위험이 있다. 결과는 또한 국가의 인구통계학 구조 같은 복잡한 요소와, 보다 만연한 가정 유형에 의해 형태가 만들어진다(예: 일반적으로 한부모가 부양하는 가정은 다른 유형의 가정보다 경제적으로 불리하며 이들의 만연함은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다양하다). 어떤 소득과 부의 구성요소는 전체 가구에 속하는 한편(예: 고려한 가정의 유형(예: 자녀의 수)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불되거나 수취되는 사회적 이전과 세금) 다른 요소는 개별적으로 보유되기 때문에 즉각적 측정 과제를 넘어서는 “개인”

소득 또는 부의 개념은 정의하기가 단순하지 않다. 아래에서 묘사하는 소득 불평등은 연령으로 나눈 개인을 나타내는 한편(그들이 속한 가정이 무엇이든), 부의 불평등은 기준가구원의 연령과 교육 수준을 나타낸다.

더 젊은 사람들이 더 낮은 소득과 부의 가정에서 살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

중년인 사람(26~50세)은 아동 및 젊은 사람(26세 미만)과 비교할 때, 그리고 더 나이 든 성인(51세 이상)과 비교할 때 더 높게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의 가구에서 생활하며 소득 빈곤이 될 가능성이 더 낮다.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아동 및 젊은 사람과 더 나이 든 성인 둘 다 중년층 평균 가구의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보다 각각 10%와 4% 더 낮은 균등화된 가처분 소득 가구에서 생활한다. 젊은 사람들과 더 나이 든 성인들은 또한 소득 빈곤 가구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각각 35%와 20% 더 높다.

부의 측면에서 55세 이상인 사람이 부양하는 가정은 중위 가구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고 재정적으로 불안할 가능성(3개월 동안 소득이 없을 경우 빈곤에 처할 위험)이 더 낮다. 55세 이상인 사람이 부양하는 가정의 중위 부는 중년층(이 경우 35~54세)이 부양하는 가정보다 53% 더 높은 한편, 35세 미만의 개인이 부양하는 가정의 중위 부는 중년의 개인이 부양하는 가정의 중위 부의 1/3 정도이다. 또한 더 나이 든 사람들이 부양하는 가정은 중년 개인이 부양하는 가정에 비해 재정적으로 불안할 가능성이 25% 더 낮은 한편, 35세 미만이 부양하는 가정은 재정적으로 불안할 가능성이 7% 더 높다.

부는 대학 교육을 받은 개인이 부양하는 가정이 두 배 더 높다.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개인이 부양하는 가정의 중위 부는 평균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부양하는 가정의 중위 부의 절반 정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OECD에 대한 중위 부의 값은 평균적으로 중학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부양하는 가정의 경우 USD 91,000를 나타내고, 고등학교 교육만 이수한 사람이 부양하는 가정은 USD 130,000, 그리고 대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부양하는 가정은 USD 203,000를 나타낸다.

재정적 불안의 비율 또한 가구주의 가장 높은 교육 수준에 따라 다양하다. 평균적으로 28개 OECD 국가에 걸쳐 재정적으로 불안한 가정의 비율은 고등학교 교육 미만인 사람이 부양하는 가정의 경우 36%, 고등학교 교육만을 이수한 사람이 부양하는 가정의 경우 37%,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부양하는 가정의 경우 26%이다.

상자 2.1. 앞선 측정 및 통계 의제

소득과 부는 가계의 소비 가능성을 형성한다. 세후소득과 이전은 가구가 쓸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한편, 가계소비지출의 직접적 측정은 “실현된” 물질적 조건(가능성이 아닌)에 대해 알린다. 한편 부는 소비를 원활하게 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보다 장기적인 투자(주택 등)를 할 수 있게 한다. 더 넓은 개념의 경제적 불안은 재정적 취약성 개념에 관련되어 있는 한편 웰빙 측정을 위한 우선사항으로 식별되었다(Stiglitz, Fitoussi 및 Durand, 2018^[4]). 경제적 불안은 객관적 방법을 통해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는 한편,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는 유용한 보완 수단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소득, 소비 및 부의 결합 분포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장에서 사용된 측정 중 어떠한 것도 단독으로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전체적 그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 빈곤인 가구는 소득만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높은 소비와 저축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지표(표 2.1)는 소득과 부 영역의 모든 요소가 아닌 일부 요소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표 2.1. 이 장에서 고려한 소득과 부 지표

	평균	수직적 불평등(분포의 상층과 하층 간 격차)	수평적 불평등(성별,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박탈
가구 소득	평균 가계 순조정 가처분 소득, 일인당(SNA 기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가계 가처분 소득, 균등화됨(조사 출처와 행정 기록의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가계 가처분 소득의 S80/S20 비율	제한적 정보만, 개인별 특성에 기반(가정 내 불평등 무시)	상대적 소득 빈곤(가계 가처분 소득이 상대적 소득 빈곤선 미만인 개인의 비율, 국가 중위의 50%로 설정)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것의 어려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것이 어렵거나 대단히 어렵다고 분명히 말하는 개인의 비율
가구 자산	가구당 중위 가구 순 부(마이크로데이터 기반)	가장 부유한 가구 10%가 보유한 가구 부의 비율	중위 가구 순 부의 격차, 그리고 기준가구원의 특성에 기반한 재정적 불안의 격차	재정적 불안(3개월 미만의 연간 상대적 국민 소득 빈곤선의 균등화된 유동적 금융 자산이 있는 개인의 비율)

평균 가계 조정 가처분 소득은 (SNA) 가구 부문에 지불한 모든 (총) 소득 흐름(소득, 자영업자 및 자본 소득, 다른 부문에서 수취한 경상이전)을 합한 다음 가구가 경제의 다른 부문에 지불한 경상이전(소득과 부에 대한 세금 등)을 빼서 얻는다. 국가 계정 용어에서 “조정”이라는 용어는 가구가 정부로부터 수취한 사회적 현물 이전(교육 및 건강관리 서비스 등)의 포함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가계의 자본 자산(즉, 주택과 비법인 기업의 설비)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도 고려하며 이 금액은 소득에서 공제된다. 가계 조정 가처분 소득은 1인당 조건으로 알려지며 실제 개별 소비에 대해 2017 구매력 평가지수(PPP)를 사용해서 미국 달러(USD)로 표시된다. 출처는 OECD 국가 계정 통계 데이터베이스이다.

소득 불평등은 분포의 상위 및 하위 20%의 가계 가처분 소득 비율 대 다양한 인구 집단(예: 연령별)의 평균 소득 간 격차 비를 나타낸다. **상대적 소득 빈곤**은 가계 가처분 소득의 비율이 국가 중위의 50% 미만(즉, 상대적 소득 빈곤)인 사람들의 비율과 다양한 인구 집단 전체에 걸친 이 척도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들 지표는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측정된 것과 같은 가계 가처분 소득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즉, 모든 세대 구성원이 수취한 시장 소득(총 소득, 자영업자 소득, 자본 소득)에 수취한 현금 경상이전, 순 소득세와 부유세, 근로자가 지불한 사회보험부담, 그리고 다른 가구에 지불한 순 경상이전을 더한 것이다. 가계 가처분 소득은 가계 요구에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기 위해 가계 규모의 제공근으로 가구 소득을 나누는 균등화 지수에 의해 “조정된다”(즉, 특정 복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가구 구성원은 가구 소득의 비례적 증가보다 더 적게 요구한다는 개념). 데이터는 통계청과 다른 공식 통계의 생산자가 제공한 추정치(가구조사 또는 세금 및 행정 기록에 기반한)에 의존한 OECD 소득 분포 데이터베이스에서 얻거나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의 공공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OECD가 만들어낸다. 데이터는 가능한 한 2011 캔버라 핸드북(Canberra Handbook)(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11^[6])을 준수한다. 음의 가구 소득 값은 OECD 소득 분포 데이터베이스(OECD, 2017^[6]) 위임사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특별 처리를 통해 0으로 설정한다. 조사 데이터는 분포 양쪽 끝의 부족한 보상범위와 과소 보고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것의 어려움은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것이 어렵거나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질문은 기준가구원을 대상으로 하며, 정보는 가구 수준에서만 제공된다. 데이터는

16세 이상 개인 가정의 모든 구성원을 망라하는 대규모 표본(최소 회원국의 개인 약 4,000명부터 최대 회원국 약 16,000명까지)의 국가를 대표하는 조사인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에서 비롯되며, EU 국가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와 스위스에 대해 이용할 수 있다.

가구의 부는, 마이크로데이터(가구조사와, 보다 드물게, 행정 기록)에서 측정된 바와 같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개인 가정이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자산(예: 주택)과 금융 자산(예: 예금, 주식), 순 금융 채무(예: 대출)의 합계를 나타낸다. 가구의 부는 분포의 최상위(대부분의 부가 집중되는)에서 측정할 때 국가 간 차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중위 가구(모든 가구 전체에 걸친 평균이 아닌)에 대해 기록한다. 불평등은 가장 부유한 가구 10%가 보유한 가구 부의 비율과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이 부양하는 가구 전체의 중위 부의 격차에 의해 측정된다. 값은 가계 민간 소비에 대한 구매력 평가지수(PPP)를 사용해서 USD로 표시하며,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분석할 때 이러한 값은 소비자 물가 지수(CPI)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사용된 가구의 부 개념은 *OECD 가구 부에 대한 마이크로 통계 지침(Guidelines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OECD, 2013^{[7])}에 제시되어 있는 개념에 부합하며 규모와 분포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에 따라 국가 간 뚜렷하게 다른 개인 연금 및 직업 연금을 제외한다. 데이터는 가구당(일인당 또는 성인당이 아닌) 표시되며 가구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은 하지 않는다. 데이터는 통계청과 다른 공식 통계 생산자가 제공하거나 (네덜란드를 제외한 17개 유럽 국가에 대한)유로시스템 가구 재정 및 소비 조사(Euro-System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의 공공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OECD가 생산한 추정치를 포함한 *OECD 부의 분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얻은 것이다. 다양한 국가에서 부유한 가구 표본을 과대수집한 정도에서의 차이(표본 과대수집이 없는 호주와 오스트리아부터 대규모 표본 과대수집을 한 미국과 스페인까지)는 가구당 평균 부(및 불평등)에서 국가 간 차이에 영향을 준다.

부의 탁발 척도인 **재정적 불안**은 현재 소득 빈곤이 아니지만 연간 국민 상대적 소득 빈곤선 3개월 미만의 유동적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유동적 금융 자산은 현금, 상장 주식, 뮤추얼 펀드 및 부채 채권을 포함한다. 이들은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간주되며, 충격 발생 시 소득 빈곤선 수준에서 3개월 이상 이들을 뒷받침하기에는 유동적 금융 자산이 불충분할 것이다. 지표는 *OECD 가구 부에 대한 마이크로 통계 지침*(OECD, 2013^{[7])}에 따라 OECD가 편집한다. 데이터는 *OECD 부의 분포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것이다. 사용된 소득 개념은 이 지표가 가능한 한 소득 빈곤을 보고하는 데 사용된 정의(가계 가처분 소득)를 따르도록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계 가처분 소득에 대한 정보는 부의 통계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 출처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했던 선택은 가처분 소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없었을 때 총 소득(모두 세금 납부 전 기록된 임금과 급여의 총액, 자영업자 소득, 재산소득 및 수취한 경상이전)의 개념을 기반으로 했다. 따라서 빈곤선은 호주, 캐나다, 칠레, 덴마크, 핀란드, 일본, 한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의 가계 가처분 소득, 그리고 나머지 국가의 가계 총소득을 기반으로 한다.

소득과 부 지표 간 상관관계

OECD 국가 전체에서 소득과 부 지표 간 상관관계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향에 있다. 즉, 높은 평균 소득의 OECD 국가는 상대적 소득 빈곤 비율도 더 낮고,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것의 어려움을 보고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낮으며, 중위 부는 높고 재정적 불안은 덜하다. 하지만 이러한 상관관계는 강력한 경우가 드물고 각각의 지표가 전반적인 그림에 뭔가를 추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표 2.2).

표 2.2. 소득과 부 지표는 유의미하게 연관성이 있지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한다.

소득과 부 지표 간 이변량 상관 계수

	일인당 평균 조정 가계 가처분 소득	상대적 소득 빈곤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것의 어려움	중위 부, 가구당	재정적 불안
일인당 평균 조정 가계 가처분 소득					
상대적 소득 빈곤	-0.36** (35)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것의 어려움	-0.67*** (23)	0.42** (25)			
중위 부, 가구당	0.33* (28)	0.08 (29)	-0.13 (20)		
재정적 불안	-0.43** (28)	0.02 (29)	0.53** (20)	-0.28 (29)	

주: 표는 피어슨 이변량 상관 계수를 보여준다. 괄호 안의 값은 관찰(국가) 수를 나타낸다.

*는 $p < 0.10$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는 $p < 0.05$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 ***는 $p < 0.01$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앞선 통계 의제

이 장에서 사용된 지표는 몇 가지 방법으로 강화될 수 있다.

- 가계 순조정 가처분 소득의 SNA 기반 척도는 가구 부문에서 수취한 총 값을 나타낸다. 이 합계의 분포에서 불평등에 대한 실험적 척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 현재 OECD에서 진행되고 있다.
- 소득과 부 데이터는 현재 가구 수준에서 수집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자원에서 가정 내 차이(예: 서로 다른 성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차이)를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누가 자산을 소유하거나 수익 흐름을 얻는지, 이 흐름의 일부를 다른 세대 구성원과 공유하는지 여부, 그리고 누가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응답자에게 묻는 조사 질문을 포함하는 것은 세대 구성원 간에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모으고 공유하는가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OECD, 2017^[8])
-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 조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예: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것의 어려움)는 현재 유럽의 OECD 국가들로 제한되어 있다. 지리적 범위를 유럽을 넘어 확대하는 통일된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 국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 더 나은 경제 안보 척도 개발. 부분적 경제 안보 척도 세 가지가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재정적 불안, 겨우 먹고 살 만큼 버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일과 일자리의 질에 관한 장에 있는 노동 시장 불안이 그것이다. Stiglitz, Fitoussi 및 Durand(2018^[4])는 기존의 척도를 개선하고 소수의 경제 안보 핵심 척도에 합의하기 위해 국가 통계기관과 주요 국제 조직이 협력할 것을 권장한다.
- 미시적 수준에서 가구 소득, 소비 및 부의 결합 분포에 대한 추가 정보는 가구의 경제적 웰빙과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개선할 것이다. 이 방향의 실험적 연구는 현재 OECD와 유럽통계청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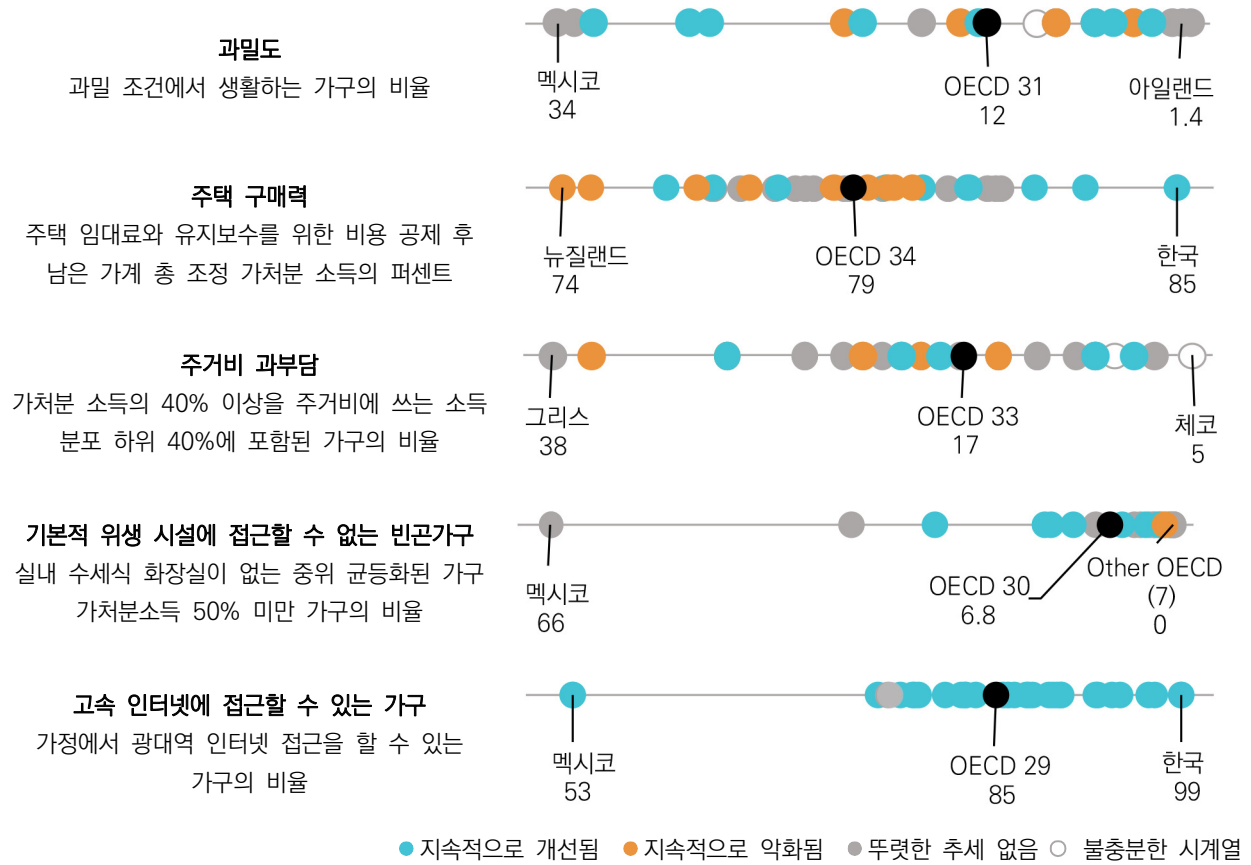
참고문헌

- Alvaredo, F. et al. (2017),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World Inequality Lab, Paris, [3]
<https://wir2018.wid.world/files/download/wir2018-full-report-english.pdf> (accessed on 9 October 2019)
- Balestra, C. and R. Tonkin (2018), “Inequalities in household wealth across OECD [2]
 countries: Evidence from the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8/0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7e1bf673-en>.
-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8]
https://dx.doi.org/10.1787/how_life-2017-en.
- OECD (2017),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TERMS OF REFERENCE*, <http://oe.cd/idd> (accessed [6]
 on 22 November 2019).
-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1]
<https://dx.doi.org/10.1787/9789264235120-en>.
- OECD (2013), *OECD Guidelines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 OECD Publishing, Paris, [7]
<https://dx.doi.org/10.1787/9789264194878-en>.
- Stiglitz, J., J. Fitoussi and M. Durand (eds.) (2018), *For Good Measure: Advancing Research on [4]
 Well-being Metrics Beyond GDP*,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7278-en>.
-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2011), *Handbook on Household Income Statistics [5]
 Second Edition*, United Nations,
http://unece.org/fileadmin/DAM/stats/publications/Canberra_Group_Handbook_2nd_edition.pdf
 (accessed on 19 July 2019).

3 주거

주거는 주거지, 안전, 프라이버시 및 개인 공간을 제공한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여러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좌우한다. 2010년 이후 OECD 평균 주거 조건이 일부 개선되었다. 국가 간 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과밀 정도와 기본 위생 시설이 부족한 빈곤 가구의 비율 둘 다 감소했다. 2017년 멕시코, 라트비아, 폴란드에서는 과밀주거 조건에서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30% 이상이었으나, 아일랜드와 일본에서는 2% 이하였다. OECD 국가에서 기본적인 위생 시설에의 접근이 부족한 빈곤 가구의 비율이 25% 이상에서부터 0%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OECD 가구는 평균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약 21%를 주거비에 사용하지만 소득이 더 낮은 가구의 경우에는 5가구 중 하나 꼴로 40% 이상을 소비하고 있다. 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은 2010년 이후 63%에서 85%로 뚜렷하게 증가했다.

그림 3.1. 주거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하거나 일관된 변화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 OECD 평균과 함께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방법론에 대한 세부 항목 정보는 독자를 위한 가이드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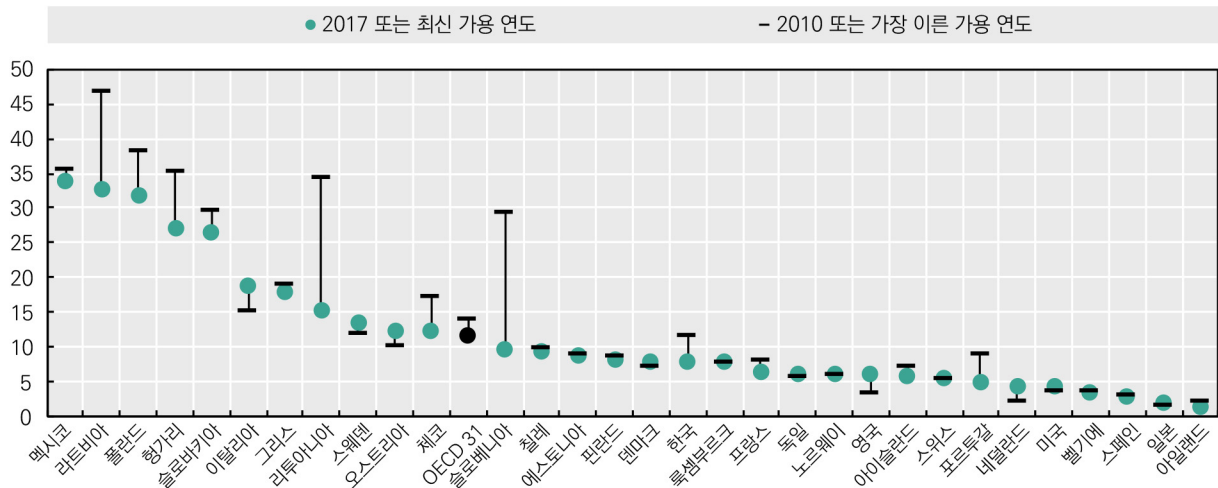
출처: OECD(2019), *OECD 부담 가능한 주택 데이터베이스*, <http://oecd.org/social/affordable-housing-database>, *OECD 국가 계정*(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 및 *OECD 가구 및 개인별 ICT 접근과 활용*(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CT_HH2.

과밀도

사람들은 프라이버시와 건강을 위해, 그리고 집이 제공해야 하는 모든 기능(공부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등)을 다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의 집이 필요하다(OECD, 2011^[11]). 2017년, 11.6%의 OECD 가구가 평균적으로 과밀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그림 3.2) 이는 다양한 세대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정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상자 3.1 참조). 과밀도는 멕시코, 라트비아, 폴란드에서 30%를 초과하며, 아일랜드와 일본에서는 2% 이하로 내려간다.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과밀도는 1/3 정도의 OECD 국가에서 1% 포인트 이상 감소했고 OECD 평균은 2.6% 포인트 감소했다. 가장 큰 폭의 감소는 슬로베니아(-19.8% 포인트), 리투아니아(-19.1) 및 라트비아(-14.2)에서 발생했다. 그에 반해 과밀 상태는 이탈리아(3.4% 포인트), 영국(2.6), 네덜란드(2.2) 및 오스트리아(2.0)에서 1%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그림 3.2. 과밀도 범위는 OECD 국가 전체에서 2% 미만부터 30% 이상까지 있다.

과밀 조건에서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 퍼센트



주: 가정에서 각 커플, 18세 이상의 개인당, 12~17세 사이의 같은 성별의 두 사람당, 전술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12~17세 사이의 개인당, 12세 미만인 아동 두 명당 제공되는 방이 하나 미만인 경우 그 집은 과밀로 간주된다 (유럽통계청, 2019^[2]). 최신 가용 연도는 아이슬란드, 일본, 멕시코, 스위스, 영국 및 미국의 경우 2016년이며 독일은 2014년, 칠레는 2013년이다. 칠레와 에스토니아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1년이다.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 때문에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및 터키를 제외한다.

출처: OECD 부담 가능한 주택 데이터베이스(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oecd.org/social/affordable-housing-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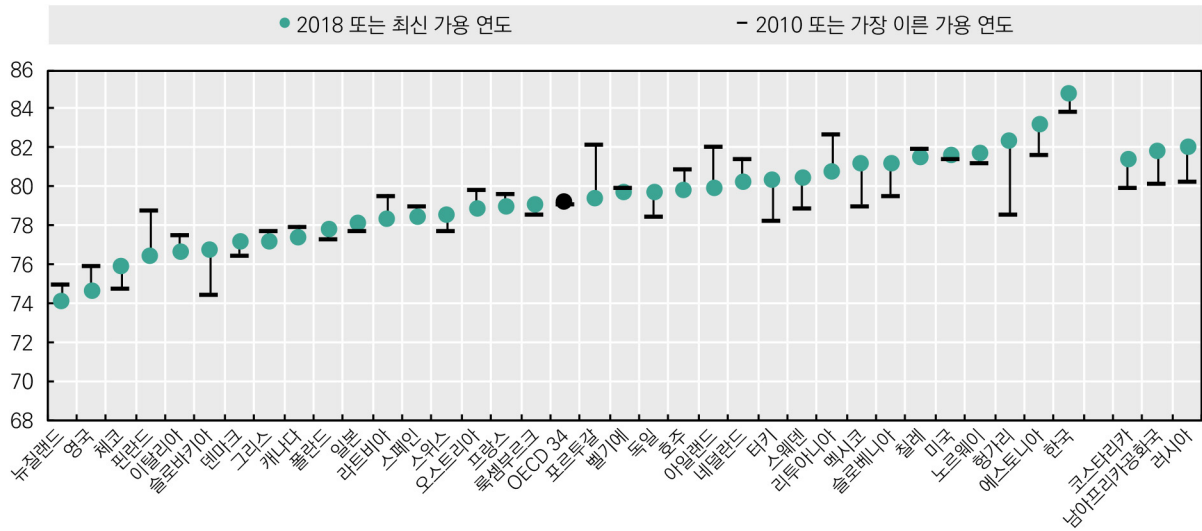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0998>

주택 구매력

가처분 소득 중 높은 비율을 주거에 사용할 때 이는 가구가 소비할 수 있고 웰빙의 다른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감소시킨다. 2018년, 34개 OECD 국가의 가구는 평균적으로 주거비에 사용한 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가처분 소득의 79.2%였다(그림 3.3). 이는 뉴질랜드, 영국, 체코에서는 76% 미만이지만 한국, 에스토니아, 헝가리에서는 82% 이상이다. 2010년 이후 OECD 평균의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이는 다양한 국가 추세를 가리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주택 구매력은 포르투갈(-2.7% 포인트)과 핀란드(-2.3)에서는 감소했지만 헝가리(3.8% 포인트 상승)와 슬로바키아(2.3)에서는 개선되었다.

그림 3.3. 평균 OECD 가구는 주거비 지출 후 남은 가처분 소득이 79%이다.

집세와 유지보수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가계 총 조정 가처분 소득의 비율, 퍼센트



주: 최신 가용 연도는 덴마크와 노르웨이의 경우 2018년, 코스타리카와 스위스의 경우 2016년, 뉴질랜드, 러시아 연방 및 터키는 201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4년이다.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칠레의 경우 2013년, 코스타리카는 2012년, 러시아 연방은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0년이다.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 때문에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및 이스라엘을 제외한다.

출처: OECD 국가 계정 통계(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5. 가계의 최종 소비 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of household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5 “14A. 부문별 비금융 계정(Non-financial accounts by sectors)”,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1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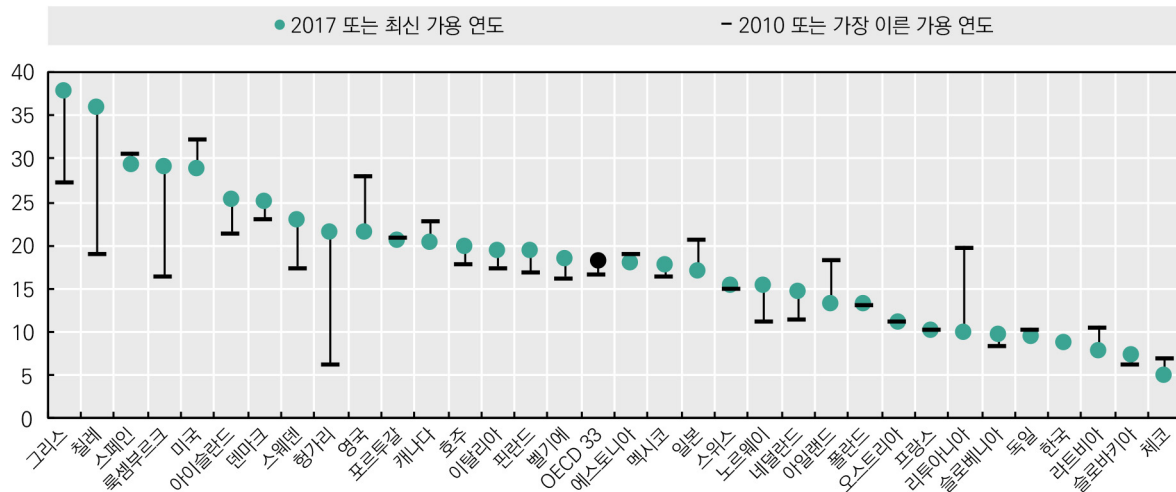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017>

주거비 과부담

저소득 가구는 소득에서 높은 비율을 주거비에 전적으로 사용할 때 식량, 건강 관리 및 교육 등 다른 필수적 부분에 대한 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특히 취약하다. 아래 표시된 주거비 과부담의 척도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즉, 집세 및 용자금)에 쓰는 소득 분포 하위 40% 가구의 비율에 초점을 맞춘다. 평균의 OECD 국가에서 저소득 가구의 18.2%는 2017년에 과중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었다(그림 3.4). 그리스, 칠레, 스페인 및 룩셈부르크는 가장 높은 과부담률(29% 이상)을 겪었던 반면, 한국,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및 스위스(9% 미만)는 가장 낮았다.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OECD 평균 과부담률은 널리 공고한 상태였다. 하지만 변화는 국가 간에 다양했다. 과부담률의 최대 증가는 칠레(17.0% 포인트), 헝가리(15.3), 룩셈부르크(12.7) 및 그리스(10.5)에서 발생했고, 반면에 리투아니아, 영국 및 아일랜드는 최대 감소(5% 포인트 이상)를 경험했다.

그림 3.4. OECD 국가에서 저소득 가구 5개 중 하나는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에 지출한다.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에 쓰는 소득 분포 하위 40%에 포함된 가구의 비율, 퍼센트



주: 최신 가용 연도는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스위스 및 미국의 경우 2016년, 슬로바키아의 경우 2015년, 멕시코는 2014년, 한국은 2012년이다.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체코의 경우 2016, 프랑스는 2015년, 벨기에,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는 2012년이며, 한국은 데이터가 없다.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 때문에 콜롬비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및 터키를 제외한다.

출처: OECD 부담 가능한 주택 데이터베이스(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oecd.org/social/affordable-housing-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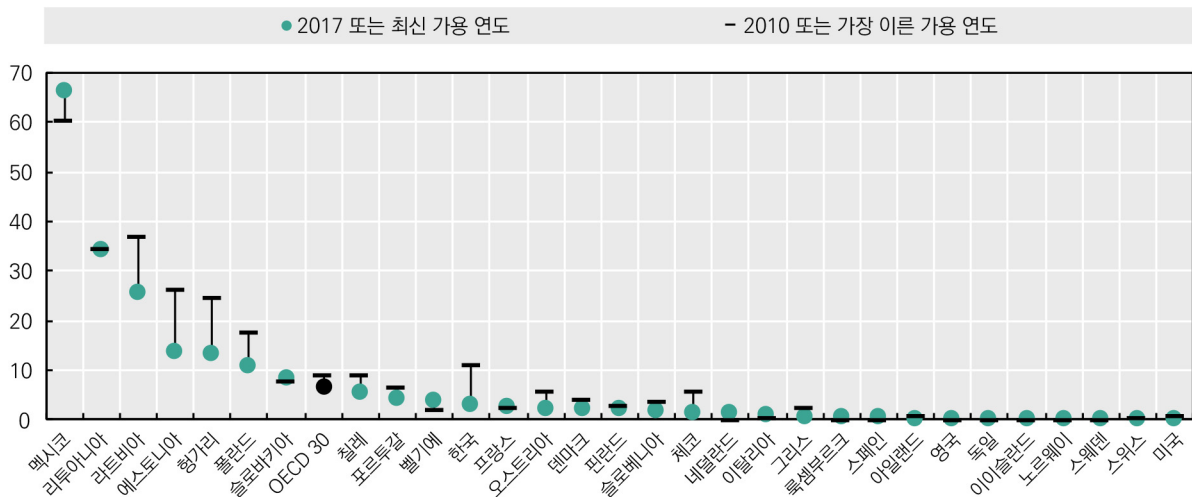
기본적 위생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빈곤가구

실내 수세식 화장실 같은 기본적 위생 시설의 부족은 열악한 주거의 질에 대한 명확한 증거이며 건강상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Eurofound, 2016^[3]). OECD 국가 가구의 대다수(95.6%)가 단독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OECD, 2019^[4]), 아래 표시된 지표는 해당 국가의 중위 균등화된 가구 가처분소득 50%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로 정의되는 더 빈곤한 가구에 초점을 맞췄다. 2017년, 약 2/3의 OECD 국가에서 3% 이하의 빈곤 가정이 기본 위생 시설이 부족했다(그림 3.5). 하지만 멕시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에서는 25% 이상의 빈곤 가구가 실내 수세식 화장실 없이 생활했다. 그에 반해, 독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및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빈곤 가구는 그들의 집에 그러한 시설이 있었다.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빈곤 가구의 기본적 시설에 대한 접근이 개선되었다.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부족한 빈곤 가구의 OECD 평균 비율은 2010년 8.8%에서 2017년 6.8%로 감소했다. 최대 개선은 에스토니아(12.5% 포인트 감소), 라트비아(-11.4), 헝가리(-11.3) 및 한국(-8.0)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멕시코와 벨기에에는 단독 사용을 위한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부족한 빈곤 가구의 비율이 1.5%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그림 3.5. OECD 국가에서 기본 위생 시설이 부족한 빈곤 가구의 비율은 1% 미만부터 60% 이상이다.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균등화된 중위 가구 가처분소득 50% 미만 가구의 비율, 퍼센트



주: 아이슬란드, 멕시코, 스위스와 미국의 최신 가용 연도는 2016년이다. 칠레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1년이다.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 때문에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및 터키를 제외한다.

출처: OECD 부담 가능한 주택 데이터베이스(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oecd.org/social/affordable-housing-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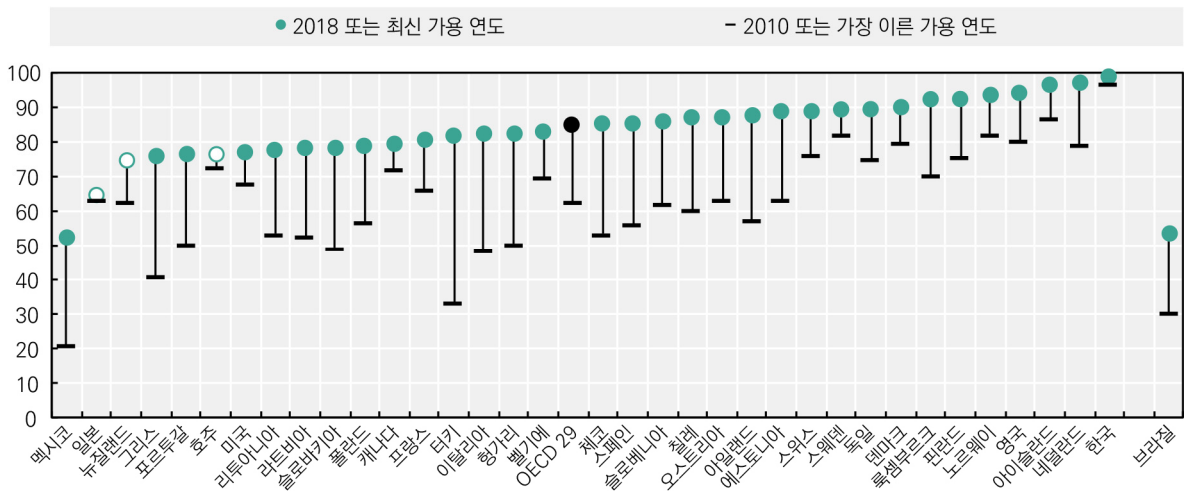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055>

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근은 사회적 연계를 지원할 수 있고,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접근과 공공 및 민간 재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세대 구성원 간 인적 자본 개발을 지원한다. 2018년, 평균적으로 29개 OECD 국가 내 가구의 80% 이상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했다(그림 3.6). 전체적으로, 60% 미만인 멕시코부터 95% 이상인 한국,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까지의 범위였다.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거의 모든 OECD 국가가 인터넷 접근에서 상당한 증가를 경험했다. OECD 평균은 2010년 63.1%에서 2018년 85.2%까지 20%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최대 증가는 터키(49% 포인트)와 그리스(35)에서 발생했다. 그에 반해, 한국과 스웨덴은 2010년에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에서 시작했으며 그 결과 소폭의 증가만 경험했다(각각 2.6 및 7.3% 포인트).

그림 3.6. OECD 국가 내 가구의 80% 이상이 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

가정에서 광대역 인터넷 접근을 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 퍼센트



주: 최신 가용 연도는 칠레, 스위스, 미국의 경우 2017년, 캐나다의 경우 2013년, 호주와 뉴질랜드는 2012년, 일본은 2011년이다.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칠레의 경우 2012년, 영국은 2011년,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2009년이다.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 때문에 콜롬비아와 이스라엘을 제외한다. 호주, 일본 및 뉴질랜드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방법론의 차이와 불일치 때문에 제외하고(그림에서 흰색으로 표시됨), 룩셈부르크, 스위스 및 미국은 시계열의 중단 때문에 제외한다.

출처: OECD 가구 및 개인별 ICT 접근과 활용(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CT_HH2.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074>

주거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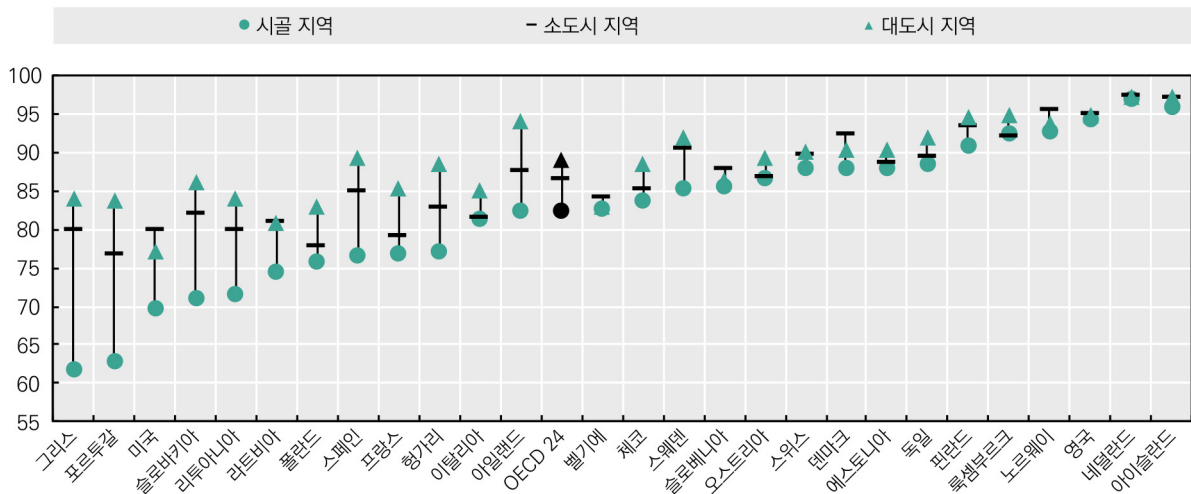
도시 가구는 시골 지역보다 고속 인터넷 접근성이 훨씬 우수하다.

이 장에서 탐색한 척도 중 몇 가지(주거비 과부담과 기본적 위생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빈곤 가구)는 박탈 척도이다. 이들은 가구 수준에서 측정되기 때문에 인구 집단 간(남성과 여성, 젊은 사람과 노인, 다른 교육 수준의 사람들 등) 박탈률의 차이를 계산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데이터에 충분한 공간 해상도가 있는 경우 주거 조건의 지역 차이를 평가할 수 있다.

대다수 OECD 국가에서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 간 고속 인터넷 접근성은 차이가 크다(그림 3.7).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리투아니아, 헝가리 및 아일랜드에서 대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 간 고속 인터넷 접근의 격차는 11% 포인트를 넘어선다. 이와 반대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및 영국에서는 최소 차이(1% 포인트 미만)가 있었다. 소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며, 이러한 격차는 대도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보다 덜 두드러진 경향이 있다.

그림 3.7. 대다수 OECD 국가에서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 간 고속 인터넷 접근성은 격차가 크다.

가정에서 광대역 인터넷 접근을 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 퍼센트, 2018



주: 시골, 소도시 및 대도시 지역의 정의는 상자 3.1을 참조한다. 데이터는 스위스와 미국에 대한 2017년 자료를 나타낸다.

출처: OECD 가구 및 개인별 ICT 접근과 활용(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CT_HH2.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093>

상자 3.1. 앞선 측정 및 통계 의제

주거는 주거지, 안전, 프라이버시 및 개인 공간을 제공한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또한 여러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결정한다. 주거 조건에 대한 이상적 척도 세트는 주거의 질(예: 생활 공간, 습기, 곰팡이, 누설 등의 존재, 위생 상태, 전기와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 주택 구매력, 근처 편의시설과 특징(예: 전기 및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 소음 노출, 인터넷 접근, 교통, 병원, 학교 등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장에서 고려한 지표(표 3.1)는 이러한 요소 전부가 아닌 일부를 포착한다.

표 3.1. 이 장에서 고려한 주거 지표

	평균	수직적 불평등 (분포의 분포의 상층과 하층 간 격차)	수평적 불평등(성별,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박탈
과밀도	과밀 조건에서 생활하는 가구의 비율(EU 정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 지표는 박탈 척도이다.
주택 구매력	남은 가계 총 조정 가처분 소득의 비율, 주택 임대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제 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주거비 과부담 참조
주거비 과부담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에 쓰는 소득 분포 하위 40%에 포함된 가구의 비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 지표는 박탈 척도이다.
기본적 위생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빈곤가구	단독 사용을 위한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중위 균등화된 가구 가처분소득 50% 미만 가구의 비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이 지표는 박탈 척도이다.
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	가정에서 광대역 인터넷 접근을 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과밀도는 가구의 연령 및 성별 구성에 따른 생활 공간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EU 합의 정의를 채택한다(유럽통계청, 2019^[2]). 각각의 가구에 각 커플, 18세 이상의 개인당, 12~17세 사이의 같은 성별의 두 사람당, 전술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12~17세 사이의 개인당, 12세 미만인 아동 두 명당 제공되는 방이 하나 미만인 경우 그 가구는 과밀 조건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유럽통계청, 2019^[2]). 데이터 출처는 가구조사 데이터를 사용하는 OECD 부담 가능한 주택 데이터베이스(Affordable Housing Database)이다.

주택 구매력은 주거비 공제 후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가계 총 조정 가처분 소득의 비율을 나타낸다. 주거비는 집세(자가 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귀속 임대료 포함)와 유지보수(잡다한 수리, 수도,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를 포함한 집 수리에 대한 지출, 가구, 비품, 가전제품, 일상적 집 유지보수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한다. 데이터의 출처는 OECD 국가 계정 데이터베이스이며 가계와 가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 둘 다 나타낸다.

주거비 과부담은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소득 분포 하위 40%에 있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며, 이때 40% 임계치는 유럽통계청이 EU 회원국에 대해 사용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다 (유럽통계청, 2019^[5]). 주거비는 실제 집세와 용자금(원금 상환 및 대출 이자 둘 다)을 포함한다. 국가 계정이 출처인 주택 구매력 척도와는 달리 자가 거주자 주택에 대한 귀속 임대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덴마크에 대해 제공되는 용자금 원금 상환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칠레, 멕시코, 한국 및 미국의 경우 가처분 소득 대신 총 소득이 사용된다. 데이터는 가구조사 데이터를 출처로 하는 OECD 부담 가능한 주택 데이터베이스 (Affordable Housing Database)로부터 얻는다.

기본적 위생 시설 접근이 부족한 빈곤 가구는 가구 단독 사용을 위한 실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국가 중 위 50% 미만의 균등화된 가구 가처분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수세식 화장실은 집 외부에 있는 화장실은 제외하지만 샤워 설비나 욕조도 같이 있는 수세식 화장실은 포함한다. 칠레, 멕시코, 한국 및 미국의 경우 가처분 소득 대신 총 소득이 사용된다. 한국에 대한 데이터는 화장실 유형(아시아 또는 유럽 방식)에 관계없이 수세식 화장실을 나타낸다. 데이터는 가구조사 데이터를 출처로 하는 OECD 부담 가능한 주택 데이터 베이스(Affordable Housing Database)로부터 얻는다.

집에서 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는 집에서 광대역 인터넷 접근을 할 수 있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광대역 인터넷은 다운로드 속도 최소 256Kbit/s에 대한 가입으로 정의된다. 시골 및 도시 지역에 대한 정의는 아래에 제공되어 있다. 데이터 출처는 가구 및 개인별 ICT 접근과 활용에 대한 OECD 데이터 베이스이다.

	EU 국가	비 EU 국가
시골 지역	인구의 50% 이상이 시골의 그리드 셀에 살고 있다.	정의는 국가별로 다르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i>OECD 가구 및 개인별 ICT 접근과 활용</i> (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CT_HH2 를 참조한다.
소도시 지역	- 인구의 50% 미만이 시골의 그리드 셀에 살고 있고 - 50% 미만이 고밀도 클러스터에 살고 있다.	
대도시 지역	적어도 50%가 고밀도 클러스터에 살고 있다.	

주: 시골의 그리드 셀은 도시 클러스터 외부의 그리드 셀로 정의된다. 도시 클러스터는 km²당 최소 300명의 주민과 최소 5,000명의 인구가 있는 밀도의 1km² 인접 그리드 셀 클러스터로 정의된다. 고밀도 클러스터는 km²당 최소 1,500명의 주민과 최소 50,000명의 인구가 있는 밀도의 1km² 인접 그리드 셀로 정의된다.

주거 지표 간 상관관계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이 장에서 사용된 주거 지표 간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는 오직 세 가지가 있는데 (표 3.2), 이는 지표가 영역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밀도가 더 높은 국가는 기본적 위생 시설 접근이 부족한 빈곤 가구도 더 많고 고속 인터넷 접근이 가능한 가구는 더 적다. 주택 구매력과 주거비 과부담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각자 주거비에 대한 서로 다른 정보에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2. 위생 시설, 과밀도 및 인터넷 접근은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서로 관련되어 있다.
주거 지표 간 이변량 상관 계수

	주택 구매력	과밀도	주거비 과부담	기본적 위생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빈곤가구	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
주택 구매력					
과밀도	-0.07 (30)				
주거비 과부담	-0.02 (32)	-0.19 (31)			
기본적 위생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빈곤가구	0.22 (29)	0.66*** (30)	-0.18 (30)		
고속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가구	0.12 (34)	-0.50*** (31)	-0.01 (33)	-0.75*** (30)	

주: 표는 피어슨 이변량 상관 계수를 보여준다. 괄호 안의 값은 관찰(국가) 수를 나타낸다.

*는 $p < 0.10$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는 $p < 0.05$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 ***는 $p < 0.01$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앞선 통계 의제

주택 과밀도를 계산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일이 필요하다. 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특히 부엌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소 공간 제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한다. 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 및 미국에서는 부엌을 방으로 간주한다. 그에 반해, 모든 유럽 국가에서는 조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엌을 방에서 제외한다(“부엌 겸 식당” 포함). 유럽의 국가는 4평방미터 미만의 공간을 제외하며, 독일은 6평방미터 미만의 공간을 제외한다. 미국은 방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적어도 6인치 길이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과밀도가 칠레, 일본, 한국, 멕시코 및 미국의 자료에 비해 유럽 자료에서 상향 편향되었을 것임을 시사한다(더 적은 가구 공간이 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거비 과부담 계산의 경우, 용자금 상환의 경우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덴마크와 아이슬란드의 데이터는 없다. 감소한 집세에 대한 호주,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 및 네덜란드의 이용 가능한 정보는 없다. 따라서 추가적인 방법론적 통일이 필요하다.

생활 공간의 제공과 습기, 곰팡이, 누설의 존재 같은 주택 품질의 몇 가지 측면은 국제적 데이터 출처 전체에서 일관된 방식에서 포착되지 않는다. 서비스와 편의시설(교통, 병원, 학교 등) 접근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데이터를 개발하는 중이지만 아직은 전체 OECD 기반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집 없음(극단적 주거 박탈의 척도)에 대한 국제적으로 비교할 만한 데이터와 자신의 주거 조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부족하다.

다양한 인구 집단(성별, 연령 또는 교육 수준 등에 따른) 간 주거 불평등 포착은 까다로운 일인데, 이러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가구 수준에서 기록되기 때문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소득과 부 영역에 대해 했던 것처럼 가구주의 상태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제2장 참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결정할 때 위치의 중요성을 특히 고려했을 때 주거 영역에서 지역적 불평등은 특히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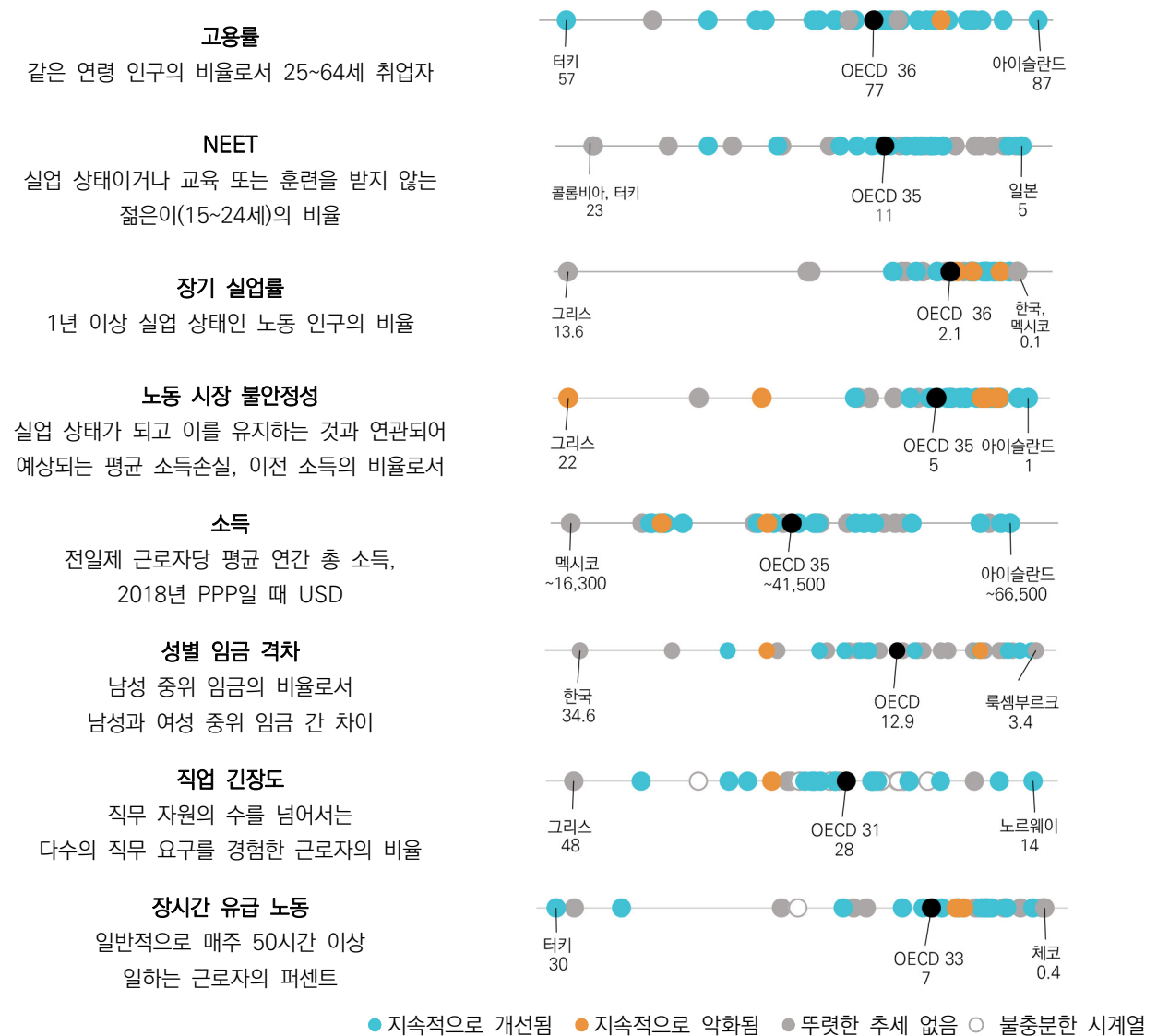
참고문헌

- Eurofound (2016), “Inadequate housing in Europe: Costs and consequences”, [3]
<http://dx.doi.org/10.2806/810142>.
- Eurostat (2019), *Statistics Explained: Housing cost overburden rate*,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Glossary:Housing_cost_overburden_rate (accessed on 23 December 2019). [5]
- Eurostat (2019), *Statistics Explained: Overcrowding rate*, [2]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Glossary:Overcrowding_rate (accessed on 23 December 2019).
- OECD (2019), *Better Life Index*,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housing/>. [4]
-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1]
<https://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4 일과 일자리의 질

이 장은 일자리의 양과 질(노동 조건에서 물질 및 비물질 측면)을 다룬다. 2010년 이후 일과 일자리의 질은 OECD 국가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성인의 고용률은 5% 포인트 상승했으며 실제 소득은 점진적으로 평균 7% 증가했다. 장기 실업, 실업 상태이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NEET) 젊은이의 비율, 노동 시장 불안, 장시간 노동하는 근로자의 수 및 직업 긴장도는(모든 국가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OECD에서 평균적으로 개선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고용될 가능성이 좀 더 낮고 장기 실업 또는 NEET일 가능성이 더 높다. 남성이 여성보다 13% 더 많이 벌지만 직업 긴장도가 더 높고 정규직으로 장시간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젊은 성인과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교육을 더 받은 연장자보다 더 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림 4.1. 일과 일자리의 질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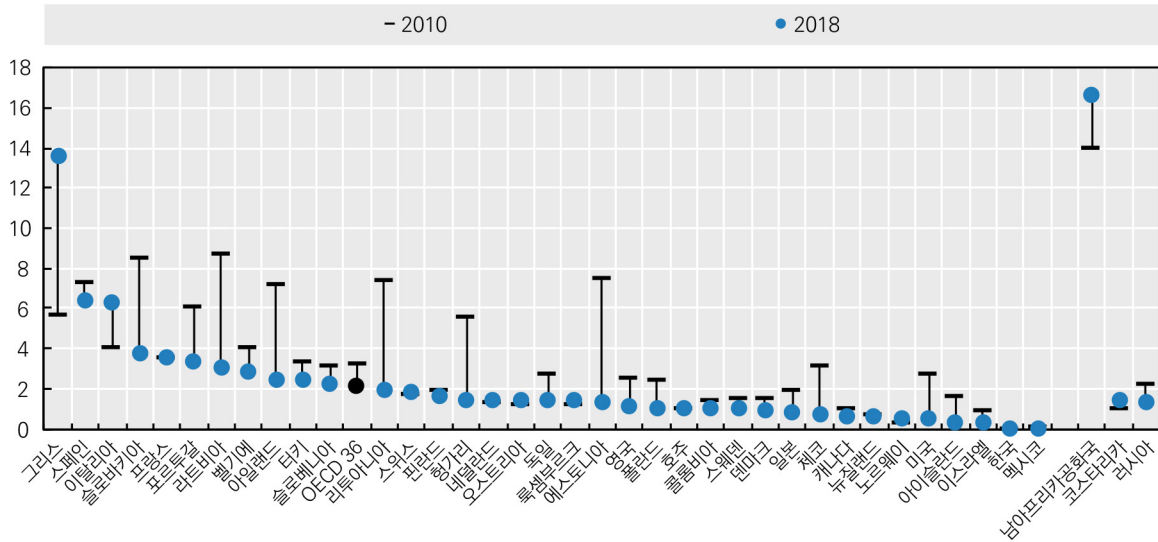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하거나 일관된 변화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 OECD 평균과 함께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방법론에 대한 세부 항목 정보는 독자를 위한 가이드를 참조한다.

출처: OECD 성별 및 연령별 노동 인구 통계 - 지표(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SEXAGE_I_R; OECD 학교-직업세계 이행(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TRANS, OECD 기간별 실업(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UR_I, OECD 평균 연간 임금(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V_AN_WAGE, OECD 고용에서 성별 평등 지표(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GENDER_EMP 및 OECD 일자리의 질(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JOBQ>에 기반한 OECD 계산

그림 4.4. 장기 실업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2010년 이후 감소했다.

1년 이상 실업 상태인 노동 인구의 비율,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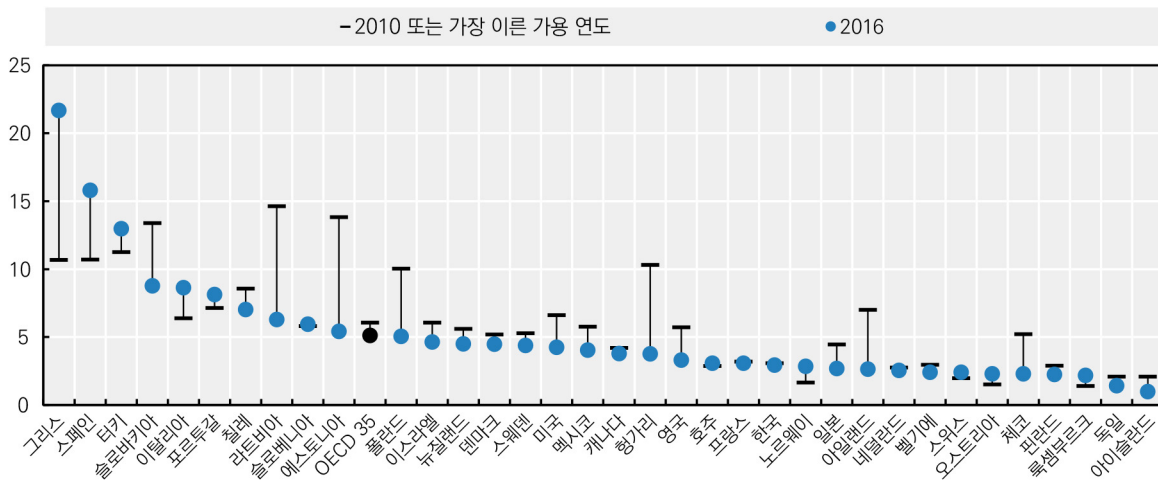
주: 독일, 포르투갈 및 브라질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1년이다. OECD 평균은 칠레를 제외한다(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출처: OECD 성별 및 연령별 노동 인구 통계 - 지표(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SEXAGE_I_R.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150>

그림 4.5. 소폭의 노동 시장 불안정성 감소는 OECD 국가 전체에 걸친 큰 차이를 가리는 경향이 있다.

실업 상태가 되고 이를 유지하는 것과 연관되어 예상되는 금전적 손실 평균, 이전 소득의 비율로서



주: 칠레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1년이다.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OECD 평균은 콜롬비아와 리투아니아를 제외한다.

출처: OECD 일자리의 질(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JOB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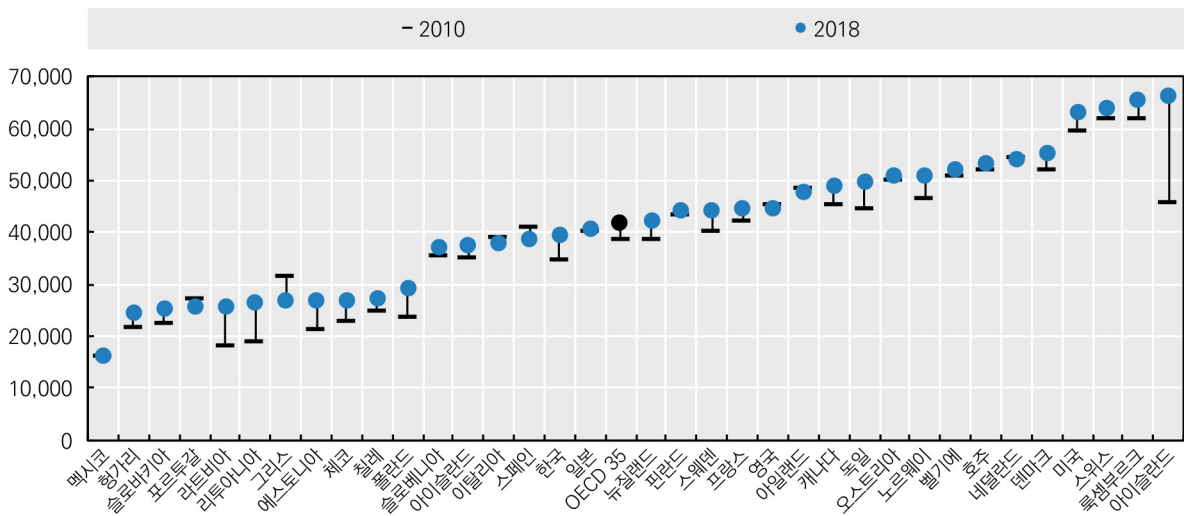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169>

소득

소득은 일자리의 질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OECD에서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연간 총 소득은 USD 41,500이며 (그림 4.6) 멕시코 USD 20,000부터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및 미국 USD 60,000 이상까지 있다. 이 소득은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실질적 점진적으로 OECD 국가 전체에서 평균 7%(약 USD 2,700) 증가했다. 최대 증가는 아이슬란드(45%)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발트해 국가와 폴란드(23%~41%)인 한편,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그리스(-15%)이고 그 뒤를 다른 남부 유럽 국가인 스페인, 포르투갈(-6%) 및 이탈리아(-3%)가 잇고 있다.

그림 4.6. 최고 임금 OECD 국가에서 전일제 근로자는 최저 임금 근로자보다 평균 4배 더 많이 번다.

전일제 근로자당 평균 연간 총 소득, 2018년 PPP일 때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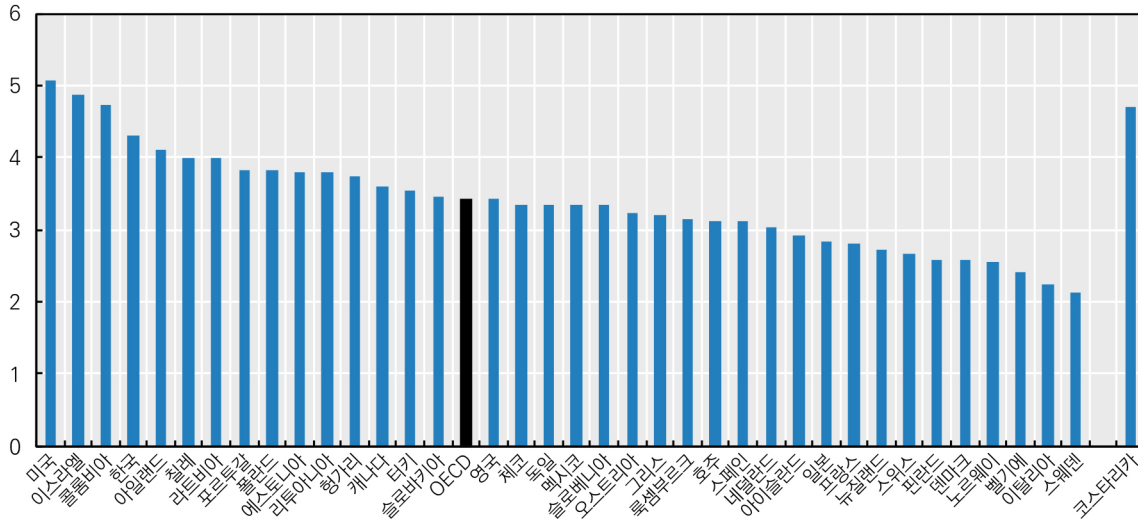
주: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OECD 평균은 콜롬비아와 터키를 제외한다.
출처: OECD 평균 연간 임금(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V_AN_W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188>

국가 내에서 소득 분포는 90번째 백분위수의 소득(상위 10%의 초반)과 10번째 백분위수의 소득(하위 10%의 초반) 간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OECD 국가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90번째 백분위수의 소득자는 10번째 백분위수의 소득자보다 3배 더 많이 번다(그림 4.7). 이 비율은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5배이고 스웨덴과 이탈리아에서는 2배이다.

그림 4.7.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평균적으로 90번째 백분위수의 소득자는 10번째 백분위수의 소득자보다 3배 더 많이 번다.

90번째 백분위수의 소득 대 10번째 백분위수 소득의 비율, 전일제 근로자, 2018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주: 최신 가용 연도는 호주, 콜롬비아, 체코,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 및 코스타리카의 경우 2018년이고, 벨기에,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폴란드, 스위스는 2016년, 노르웨이는 2015년, 에스토니아, 프랑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는 2014년,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는 2017년이다.

출처: OECD 총 소득의 10분위수 비율(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EC_I.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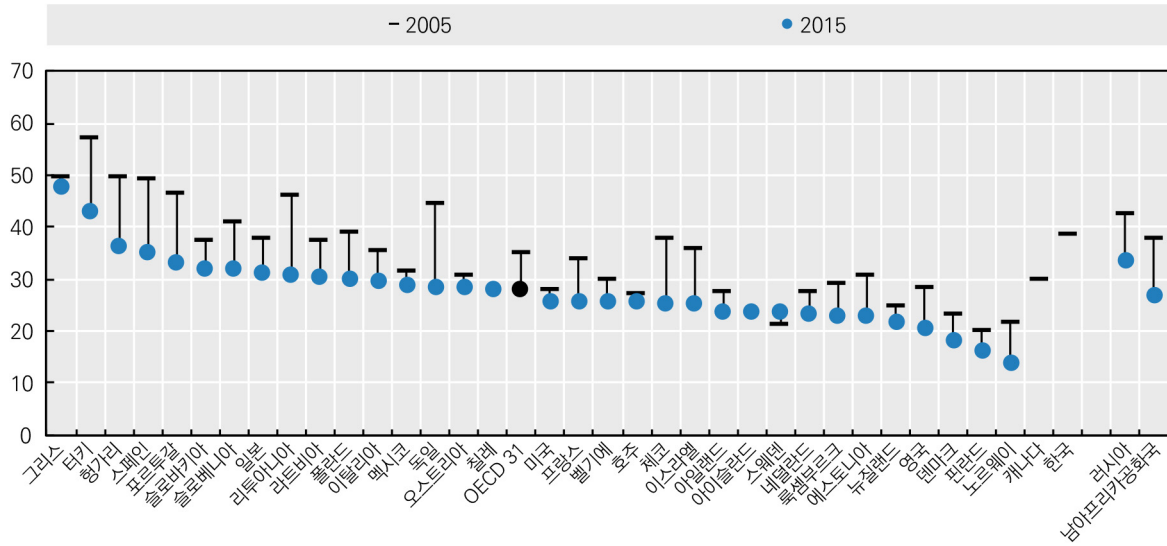
모든 전일제 근로자에 대한 총 중위 소득의 2/3 이하를 벌고 있는 전일제 근로자는 저임금을 경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OECD 국가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전일제 근로자의 15%는 저임금을 경험하며, 범위는 라트비아와 미국 25%, 벨기에와 터키 5% 이하 등이다.

직업 긴장도

직업 긴장도는 노동 환경의 질에 대한 것이다. 근로자가 자신에게 제공되는 자원(즉, 작업 재량, 교육, 승진)을 넘어서는 직무 요구(즉, 신체적 요구, 업무 강도, 업무 시간 경직성)를 경험하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2015년에 평균적으로 OECD 국가 근로자의 약 1/3이 직업 긴장도를 경험했다(그림 4.8). 이 비율은 중부 및 남부 유럽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더 높은 한편(그리스에서는 약 50%), 북부 유럽과 뉴질랜드에서는 근로자의 약 20%에게 영향을 미친다. 2005년과 2015년 사이에 직업 긴장도를 경험하는 근로자의 수는 OECD 국가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8% 포인트 가까이 감소했으며, 최대 감소(-15~-16% 포인트)는 북부 및 중부 유럽에서 있었다.

그림 4.8. 직업 긴장도는 OECD 국가에서 근로자 3명 중 거의 1명에게 영향을 준다.

직무 자원의 수를 넘어서는 다수의 직무 요구를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 퍼센트



주: OECD 평균은 불완전한 시계열 때문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한국 및 스위스를 제외한다. 한국과 캐나다의 데이터는 2005년만 나타낸다.

출처: OECD 일자리의 질(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JOB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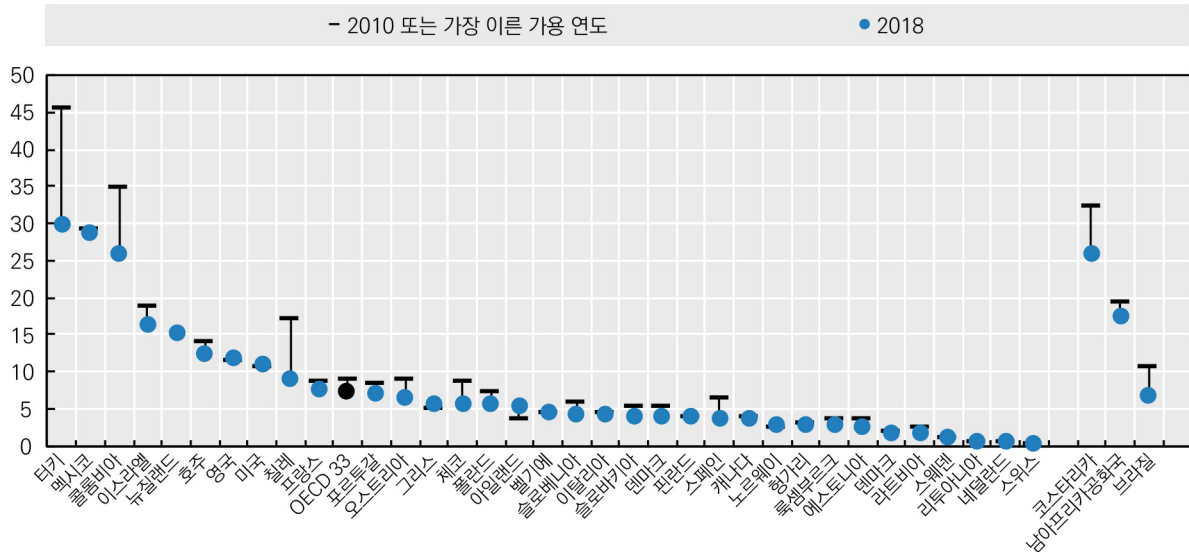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226>

장시간 유급 노동

유급 노동에 긴 시간을 쓰는 것은 여가 시간, 자기 돌봄 및 가정 내에서의 무급 노동(집안일, 가족 돌보기)에 기여할 개인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의 근로자 가운데 약 7%는 일상적으로 매주 50시간 이상 일한다(그림 4.9). 이는 터키, 멕시코, 콜롬비아에서 25% 이상 상승하지만 스위스, 네덜란드, 리투아니아에서는 거의 0%이다. 2010년에 비해 유급 노동에 긴 시간을 쓰는 근로자의 비율은 평균적으로 1.7% 포인트 감소했으며 터키(-16% 포인트), 콜롬비아(-9) 및 칠레(-8)에서는 훨씬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몇몇 국가에서는 약간 증가했는데 아일랜드에서 가장 크게 증가했다(2% 포인트).

그림 4.9. 2010년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매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 퍼센트



주: 포르투갈, 독일 및 브라질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1년이다. OECD 평균은 시계열 중단 또는 불완전한 시계열 때문에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및 뉴질랜드를 제외한다.

출처: OECD 성별 및 연령별 노동 인구 통계 - 지표(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SEXAGE_I_R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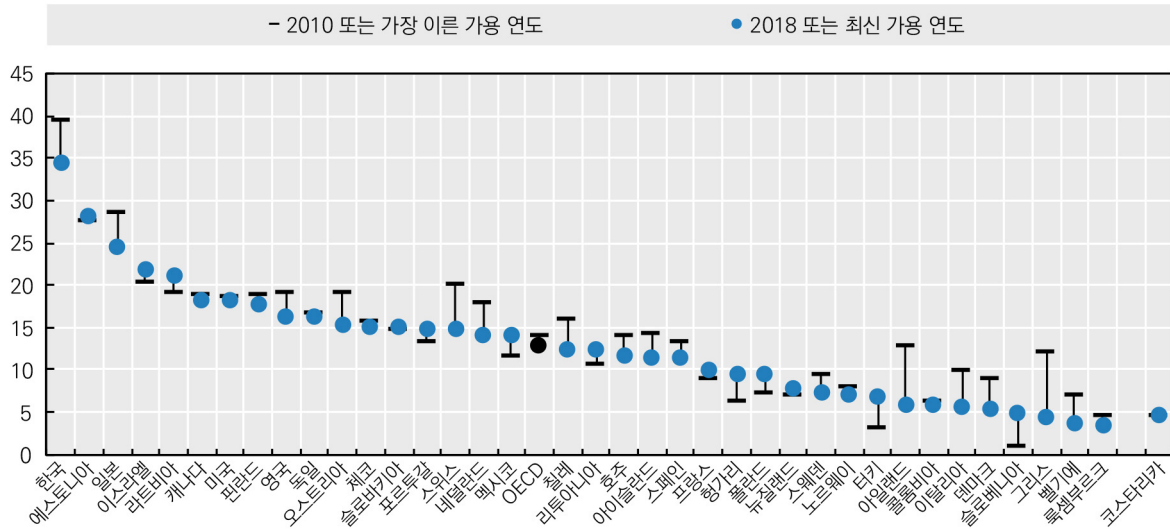
일과 일자리의 질의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일과 일자리의 질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에게 더 좋다

OECD 국가 전체에서 25~64세 남성은 같은 연령의 여성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각각 83% 대 70%, 평균적으로). 장기 실업에서 성별 차이는 훨씬 작지만 여전히 남성이 선호된다(2%, 여성 2.2%와 비교). 15~24세 일 때 젊은 남성은 젊은 여성보다 NEET(실업 상태이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일 가능성이 더 낮다(10% 대 12%). 또한 남성의 시간당 소득은 여성의 소득보다 13% 더 높다(그림 4.10). 노동 시간, 고용률 및 성별 임금 격차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남성의 전반적 노동 소득은 여성보다 40% 더 높다(OECD, 2018^{[11])}. 하지만 남성은 직업 긴장도를 경험할 가능성이 여성보다 20% 더 높고, 유급 고용에서 더 긴 시간을 보낼 가능성도 더 높다(남성 근로자의 10%가 일반적으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며, 이에 비해 그렇게 일하는 여성 근로자는 4%에 불과함). 이는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하루 25분 더 일하는 OECD 국가의 여성을 보여주는, 유급 및 무급 노동 시간을 결합할 때 드러나는 패턴과 대조를 이룬다(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제10장 참고문헌 참조).

그림 4.10.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여전히 남성은 여성보다 13% 더 많이 번다.

남성과 여성 중위 임금 간 차이, 남성 중위 임금의 비율로서



주: 최신 가용 연도는 호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멕시코, 뉴질랜드 및 영국의 경우 2018년이고, 벨기에,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위스는 2016년, 에스토니아, 프랑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는 2014년이다. 칠레와 코스타리카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1년이다.

출처: 고용에서 성별 평등에 대한 OECD 지표(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GENDER_EMP.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265>

중년 성인은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나은 일자리를 누린다.

OECD 국가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젊은 성인(15~24세)은 중년의 성인(25~54세)보다 고용될 가능성이 50% 더 낮다. 이들은 또한 중년 성인에 비해 장기 실업 상태가 될 가능성은 20% 더 높고, 직업 긴장도를 경험할 가능성은 20% 더 높으며, 시간당 소득은 30% 더 낮다. 하지만 젊은 성인의 5%만이 주당 50시간 이상 일한다 (중년 성인의 경우 8%). 연령 범위의 다른 한편으로, 나이 든 성인(55~64세)은 중년 성인보다 고용될 가능성이 20% 더 낮고 장기 실업 상태가 될 가능성은 30% 더 높다. 하지만 고용되었을 때 이들의 시간당 수입은 4% 더 높다. 중년 근로자와 비슷하게, 나이 든 근로자의 27%가 직업 긴장도를 경험하고 이들 중 8%는 일반적으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한다.

대학 교육을 받은 성인은 일반적으로 더 나은 일과 일자리의 질을 누린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 전체에서 고등학교 미만 교육을 이수한 25~64세 성인은 대학 교육을 받은 성인보다 고용될 가능성이 30% 더 낮다. 고용되었을 때 이들의 시간당 소득은 40% 더 낮다. 직업 긴장도 경험 비율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간 비율의 두 배 이상이며, 장기 실업 상태가 될 가능성은 세 배 이상이다. 이와 반대로,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성인은 고용될 가능성이 대학 교육을 받은 성인과 거의 비슷하지만, 시간당 소득은 30% 더 낮고 직업 긴장도의 발생 정도는 4배 더 높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성인은 대학 교육을 받은 성인에 비해 장기 실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70% 더 높다.

상자 4.1. 앞선 측정 및 통계 의제

일은 생산적 활동(유급 또는 무급)을 나타내며, 일자리의 질은 사람들의 노동 조건의 물질 및 비물질 측면 둘 다에 대한 것이다. 이 장은 유급 노동에 초점을 맞추며, 무급 노동도 고려하는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제10장 참고문헌에 의해 보완된다. 노동 조건의 물질 측면은 보수(예: 급여), 일자리 가용성, 그리고 일자리 상실 위험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 비물질 측면은 노동 환경의 질과 관련이 있으며 신체적 안전, 작업 내용, 이것이 그들의 역량 및 능력과 얼마나 잘 맞는지, 허용된 자율성, 학습 기회, 노동 시간 배열(노동 시간과 유연한 노동의 가능성 포함), 그리고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직장에서 사회적 지원의 수준 등)에 대한 근로자의 자기 보고를 통해 측정된다. 이러한 일과 일자리의 질 측면 중 일부는 이 장에서 사용된 지표에 반영된다 (표 4.1).

표 4.1. 이 장에서 고려한 일과 일자리의 질 지표

	평균	수직적 불평등 (분포의 상층과 하층 간 격차)	수평적 불평등 (성별,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박탈
일의 양	고용률(25~64세)	해당 없음	집단별 고용률 격차, 집단별 장기 실업률의 격차, 집단별 실업 상태이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젊은이의 비율 격차	장기 실업률, NEET(실업 상태이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15~24세 사람들의 비율)
	실업 상태가 될 위험으로 인한 노동 시장 불안(취업자의 경우)	해당 없음	[이용 가능하지만 사용되지 않음]	해당 없음
일자리의 질	전일제 상당 직원의 평균 연소득	전일제 상당 직원의 P90/P10 소득률	전일제 상당 직원의 시간당 소득 격차	모든 전일제 근로자에 대한 총 중위 소득의 2/3 이하를 벌고 있는 전일제 근로자
	직업 긴장도 - 노동 환경의 질에 대한 복합 척도	해당 없음	집단별 직업 긴장도에 직면하는 근로자 비율의 격차	직업 긴장도의 발생 정도(즉, 조사 기준 주에 제공되는 작업 자원보다 높은 직무 요구에 직면하는 근로자의 비율)
	장시간 유급 노동	해당 없음	집단별 일반적으로 매우 긴 시간 노동하는 근로자의 비율	장시간 유급 노동(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매주 50시간 이상의 유급 노동을 함)

고용률은 지난 주에 적어도 한 시간 동안 돈벌이가 되는 일자리에서 일했다고 보고한 성인 인구(25~64세의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또한, 자신의 일자리에 공식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한편 조사 기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결근(예: 육아휴직, 병가 또는 연차휴가로 인해)하고 있으며 현재의 일자리에서 이미 일하고 있던 사람도 포함한다. 데이터는 *OECD 연례 노동력 통계(Annual Labour Force Statistics, ALFS)* 데이터베이스로 편집된 국가 노동력 조사(LFS)에서 구한 것이며 국제노동통계인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가 설정한 표준과 일치한다.

장기 실업률은 노동 인구의 비율로서(즉, 취업자와 실업자의 총합) 1년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의 수를 나타낸다. 실업자는 조사 기준 주에 어떤 유급 노동도 수행하지 않았지만 지난 4주 내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했으며 향후 2주 내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다. 데이터는 *OECD 고용 전망 데이터베이스(Employment Outlook Database)*에 제공되어 있는 국가 노동력 조사에서 구한 것이며 국제노동통계인총회가

설정한 표준과 일치한다.

실업 상태이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NEET) 젊은이는 같은 연령의 인구 비율로서 실업 상태이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 젊은이(즉, 15~24세)의 수를 나타낸다. 더 젊은 개인이 교육에서 직업 생활로 이행하는 것은 교육 기회와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 저소득 국가에서 노동 시장에서 젊은 사람들의 소외를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를 취약한 비공식 일자리에 있는 젊은이의 비율과 결합하여 분석해야 한다(ILO, 2015^[2]). 교육과 훈련은 이전 4주 또는 더 짧은 기간 동안 현재 출석하고 있는 정규 교육 제도의 과정을 나타낸다. 일부 OECD 국가는 정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취업 또는 대학 입학 시험을 위해 훈련 또는 교육을 받고 있는 일부 사람을 포함할 것이다(OECD, 2017^[3]). 연례 설문조사이기도 하지만, 데이터는 OECD 노동 시장과 학습 네트워크의 사회적 성과(Labour Market and Social Outcomes of Learning Network) 국가 노동력 조사에서 편집한 것이다.

노동 시장 불안은 취업자가 실업 상태가 되고 이를 유지할 때 발생하는 예상되는 금전적 손실을 나타내며 이전 소득의 비율로 표현된다. 이 손실은 실업 상태가 될 위험, 예상되는 실업 기간, 그리고 이러한 손실에 대해 실업급여(효과적 보험)가 제공하는 완화 수단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 기간에 대한 데이터는 실업 상태로 접어들 확률(실업 상태가 된 지 1개월 이하라고 보고한 사람들은 지난달에는 고용 상태였던 것으로 가정) 뿐만 아니라 완전한 실업 기간의 평균 예상 기간(월)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실업보조금 범위(실업급여 수령을 신고한 실업자의 비율)와 (실업급여 수령인이 받은 공적 이전과 이전 소득의 비율인) 대체율(의 모델 기반 추정치)의 결과물로 계산한다. 이러한 대체율은 고용보험과 실업보조금의 급여는 포함하지만 사회부조급부는 제외한다. 이들은 소득 수준 및 가족 유형의 다양한 구성에 대한 대체율을 평균화하여 계산한다. 지표는 *OECD 실업 기간 데이터베이스*, *OECD 급부 수령인 데이터베이스*, *OECD 노동 시장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OECD 세금과 급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결합한다.

소득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모든 유형의 종속 고용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평균 연소득을 나타내며, 전일제 상당 및 1년 상당 기준으로 표시한다. 사용된 소득 개념은 국가 계정에서 가져왔으며, 세금, 사회보장제도 부담분, 연금제도, 생명보험료, 조합비 및 다른 근로자 의무에 관해서 고용주가 어떤 공제를 하기 전 근로자의 총 보수를 포함한다(즉, 고용주의 사회보험부담분 포함). 이 값("임금과 급여")은 경제에서 전일제 상당 근로자의 수로 나눈다(만연한 시간제 노동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근로자가 일한 시간의 비율과 전일제로 일한 시간의 비율에 따라 근로자 수에 대한 데이터를 곱하여 얻음). 그러므로 이 지표는 *OECD 국가 계정 데이터베이스*, *OECD 소득 분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국가 계정, 노동력 조사, 기관/고용주 조사, 가구 소득 조사, 납세 파일의 행정등록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OECD 전일제 상당 및 1년 상당 종속 근로자당 평균 연소득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결합한다. 전일제 근로자에 대해 성별 임금 격차와 저임금 위험 지표(박탈)를 계산한다(1년 상당 조건이 아닌, 다른 모든 지표와 같이). 소득은 민간 소비에 대해 구매력 평가지수(PPP)를 사용해서 미국 달러(USD)로 표시한다.

직업 긴장도는 근로자 가운데 직업 긴장도의 발생 정도를 고려한다. 직업 긴장도는 근로자가 보고하는 직무 요구(예: 시간 압력, 신체적 건강 위험에 대한 노출)가 그들의 직무 자원(예: 노동 자율성, 학습 기회 및 좋은 직장 관계)을 넘어서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이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는 세 가지 유형의 직무 요구(즉, a) 무거운 하중을 나르고 옮기는 등 힘든 육체적 노동과 관련된 *신체적 요구*, b) 평균보다 긴 작업 시간과 관련된 *업무 강도*, c) *노동 시간 경직성*)와 세 가지 유형의 직무 리소스(즉, 1) 업무와 방법을 선택하고 변경할 근로자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 자율성*, 2) 직장에서의 교육과 비공식 학습 기회를 포함한 *교육 및 학습 기회*, 3)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동기 부여에 관련된 *인지된 승진 기회*)를 나타낸다. 직업 긴장도는 근로자가 직무

자원보다 더 많은 직무 요구를 받았다고 보고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모든 OECD 국가를 망라하는 단일 데이터 출처는 없기 때문에 직업 긴장도 지수는 유럽 근로환경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EWCS)와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노동 지향(Work Orientations) 모듈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얻는다.

장시간 유급 노동은 통상적 노동 시간이 주당 50시간 이상인 근로자(모든 연령)의 비율을 나타낸다. 임계치는 50시간으로 설정되는데, 통근, 무급 노동 및 기본적 욕구(수면, 식사 등)를 고려한 후에, 일상적으로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은 다른 활동을 위한 시간이 거의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하루에 1~2시간). 게다가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최대 노동 시간이 주당 48시간이다. 데이터는 국가 노동력 조사에서 구한 것이며 국가 전체에서 널리 비교할 만하다.

일과 일자리의 질 지표 간 상관관계

다수의 일과 일자리의 질 지표 사이에는 중간-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표 4.2). 주된 예외는 오직 NEET 비율(0.7)과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고용과는 음의 상관관계(-0.5)가 있는 장시간 유급 노동이다. 일자리의 양과 일자리의 질 사이의 균형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일자리의 양에서 더 나은 성과(고용, 장기 실업, NEET)를 거둔 국가가 일자리의 질에서도 더 나은 성과(소득, 노동 시장 불안, 긴 노동 시간, 직업 긴장도)를 거두는 경향이 있다.

표 4.2. 일과 일자리의 질 지표는 예상대로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일과 일자리의 질 지표 간 이변량 상관 계수

	고용률	NEET	장기 실업률	노동 시장 불안정성	소득	직업 긴장도	장시간 유급 노동
고용률							
NEET	-0.84*** (41)						
장기 실업률	-0.70*** (40)	0.58*** (39)					
노동 시장 불안정성	-0.70*** (36)	0.61*** (35)	0.84*** (35)				
소득	0.35** (36)	-0.48*** (35)	-0.28 (35)	-0.45*** (36)			
직업 긴장도	-0.52*** (38)	0.36** (37)	0.37** (37)	0.69*** (35)	-0.50*** (35)		
장시간 유급 노동	-0.51*** (38)	0.66*** (38)	0.01 (36)	0.16 (33)	-0.23 (33)	0.20 (34)	

주: 표는 피어슨 이변량 상관 계수를 보여준다. 괄호 안의 값은 관찰(국가) 수를 나타낸다.

*는 $p < 0.10$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는 $p < 0.05$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는 $p < 0.01$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앞선 통계 의제

현재의 지표 집합은 “일다운 일”(ILO, 2013^[4])과 “일자리의 질”(OECD, 2018^[11])의 국제적 개념과 일치한다. 하지만 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화할 수 있다.

- 노동 환경의 특징과 다른 영역을 포괄하기 위해 일자리의 질 데이터의 범위와 빈도, 적시성을 넓힌다. 노동 환경의 질 측정에 대한 OECD 지침(OECD, 2017^[5])에 정의된 것처럼, 누락 요소는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예: 직장에서 사회적 지원), 조직 문화 및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포함한다.
- 자영업자(또는 더 넓게, 비공식 취업자)를 보다 잘 고려하기 위해 일자리의 질 범위를 넓힌다. 자영업자에 대한 직업 긴장도 지표를 맞춤화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Cazes, Hijzen 및 Saint-Martin, 2015^[6]).
- 직업 만족도의 척도 포함: 일부 국가의 웰빙 프레임워크는 직업 만족도의 척도를 포함하지만(호주,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영국, 웨일스) 척도가 모든 국가에서 통일된 것은 아니다.
- 디지털 혁신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예: 플랫폼 노동)에 대한 고려를 개선한다. 플랫폼 노동 측정에 대한 ILO-EU-OECD 기술 전문가 그룹(Technical Expert Group)은 개념 및 측정 접근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9월에 탄생했다. 기술 전문가 그룹의 개념 작업은 유럽통계청 노동시장 통계실무 그룹(Labour Market Statistics Task Force)의 맥락에서 몇몇 유럽 통계청이 계획한 파일럿 테스트를 알릴 것이다.
- 여기에서 사용된 장기적 실업 지표는 비교적 좁은 정의를 따른다(즉, 지난 4주 내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했으며 2주 내에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 따라서 일을 하기를 바라지만 최근에 일을 구하지 않았던(예: 적절한 일자리 기회의 부족을 인지했기 때문에) 장기적 실직자는 제외한다. 이들 “구직단념자”는 인적 자본에 대한 제15장 참고문헌에 포함된 노동 저활용 지표의 구성요소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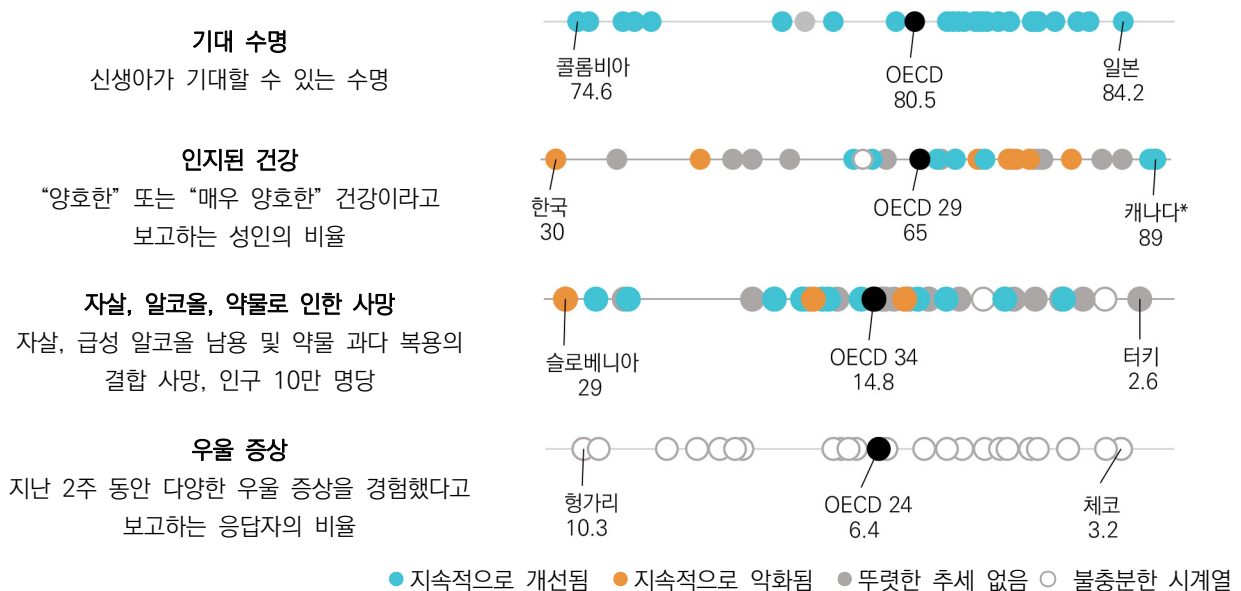
참고문헌

- Cazes, S., A. Hijzen and A. Saint-Martin (2015), “Measuring and Assessing Job Quality: The OECD Job Quality Framework”,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7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5jrp02kjl1mr-en>. [6]
- ILO (2015), “What does NEETs mean and why is the concept so easily misinterpreted?”, ILO, Youth Employment Programme,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publication/wcms_343153.pdf (accessed on 4 October 2019). [2]
- ILO (2013), *Decent Work Indicators: Guidelines for Producers and Users of Statistical and Legal Framework Indicators*, ILO Manual,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integration/documents/publication/wcms_229374.pdf (accessed on 23 August 2019). [4]
- OECD (2018), *Good Jobs for All in a Changing World of Work: The OECD Jobs Strateg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8817-en>. [1]
- OECD (2017),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he Quality of the Working Environ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78240-en>. [5]
- OECD (2017), *OECD Handbook for Internationally Comparative Education Statistics: concepts, standards,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279889-en>(accessed on 4 October 2019). [3]

5 건강

건강은 몸과 기분이 좋은 상태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병으로 지장을 받지 않고 장수하며,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OECD 국가에서 출생 시 평균 기대 수명은 80.5세이며 성인의 2/3가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고한다. 자살, 급성 알코올 남용 및 약물 과다 복용은 전체 사망원인의 2%이다. 유럽 OECD 국가에서 6%의 성인이 최근에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 2010년 이후 기대 수명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증가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정체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인지된 건강, 자살 및 약물 남용 사망의 추세는 국가들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더 오래 살지만 건강상태가 더 나쁘고 우울증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비록 자살과 약물 남용으로 사망한 여성이 OECD 국가에서 2010년 이후 1/3 이상 증가했지만 여성보다 네 배나 더 많은 남성이 자살과 약물 남용으로 사망한다. 교육과 소득관련 불평등이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5.1. 건강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7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지속적인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지속적인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한 추세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 검정색으로 된 OECD 평균과 함께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방법론에 대한 세부 항목 정보는 독자를 위한 가이드를 참조한다. * 인지된 건강은 기록된 추정치에서 상향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보고 척도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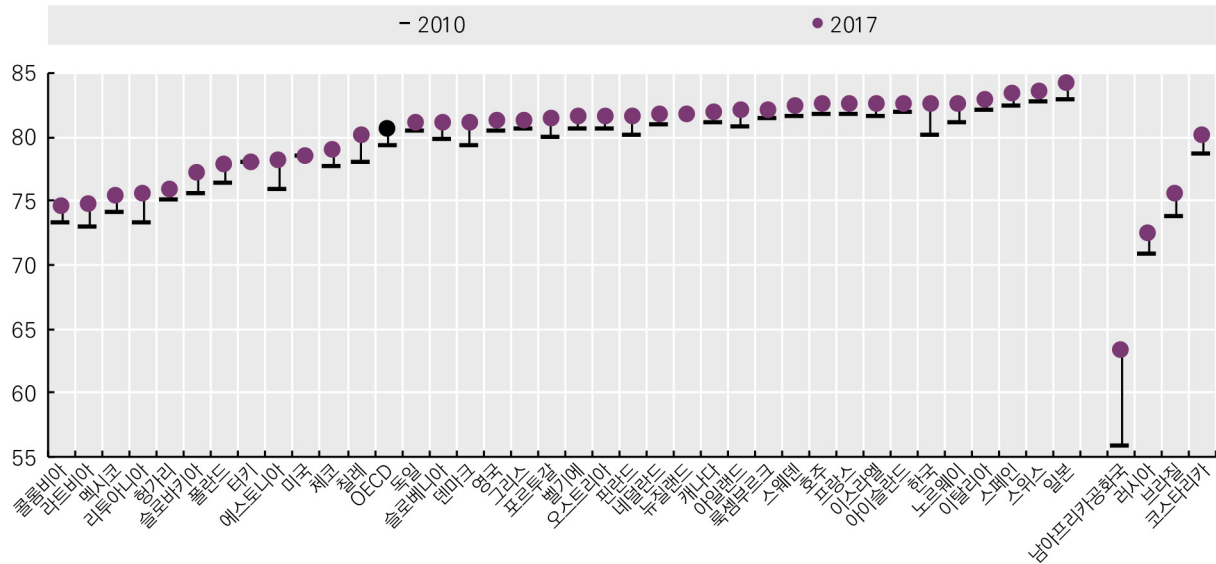
출처: OECD 건강 상태(Health Status)(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유럽통계청의 유럽건강면접조사(European Health Interview Survey)(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microdata/european-health-interview-survey>.

출생 시 기대 수명

OECD 국가 2/3 이상의 신생아가 80년 이상의 수명을 기대할 수 있으며(전체 OECD의 평균은 80.5년) 일본은 최대 84.2년이다(그림 5.2). 지난 몇 십 년 동안 기대 수명은 모든 OECD 국가에서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1970년보다 10년 이상 증가했다(OECD, 2019^[1]). 2010년에 비해 평균 기대 수명은 약 1년 2개월 증가했다(1.5%). 그렇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성장이 느려졌다. 아이슬란드, 독일, 그리스, 영국의 경우 기대 수명이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9개월 이하로 증가하면서 정체되었다. 미국에서는 78.6세로 이미 OECD 평균 미만이며, 2014~17년의 일시적 감소 후에 이 기간 동안(2010~2017년) 기대 수명의 순 증가는 영(0)이었다. 기대 수명 증가 둔화의 원인은 다면적이다. 인구 연령과 비만도 및 당뇨병이 상승하면서 심장병과 뇌졸중의 개선은 둔화되었고, 최근 십 년간 비교적 많은 수의 사람들이 독감과 폐렴으로 사망했으며, 오피오이드 위기(opioid crisis)의 맥락에서 몇몇 국가에서는 약물 관련 우발적 중독이 증가했다(OECD, 2019^[1], Raleigh, 2019^[2]).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는데, 기대 수명 수준이 비교적 낮은 많은 국가들이 OECD 평균을 향해 수렴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이후 칠레, 에스토니아, 한국, 리투아니아에서는 기대 수명이 2년 이상 상승했다.

그림 5.2. 2010년 이후 수명 증가는 일부 국가에서 느려졌고 OECD 평균 수준 미만의 국가에서 더 큰 경우가 많다.

출생 시 기대 수명, 년



주: 칠레의 최신 가용 연도는 2016년이다.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벨기에와 스위스의 경우 2011년이고, 헝가리와 룩셈부르크의 경우 2012년, 터키는 2013년, 러시아 연방은 2014년이다.

출처: OECD 건강 상태(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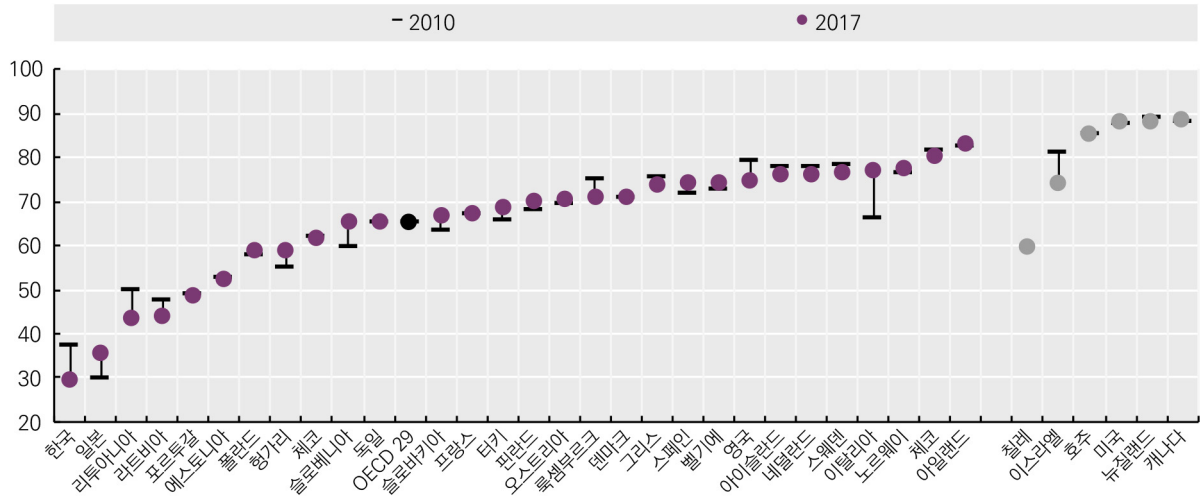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283>

인지된 건강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10명 중 6~7명은 자신의 건강이 좋은 상태라고 말한다(그림 5.3). 하지만 눈에 띄는 국가 차이가 있다. 아시아와 동부 유럽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포르투갈도 60% 미만의 성인이 자신의 건강을 양호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반해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위스 및 미국에서는 8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한다(조사 질문의 표현 방식의 차이가 결과를 상향 편향시켰을 수 있기는 하지만). OECD 평균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남아있는 한편, 추세는 2010년 이후 국가 간에 다양해졌다. 인지된 건강은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개선되었으며(5.7% 포인트), 리투아니아(-6.5)와 한국(-8.1)에서 가장 감소했다.

그림 5.3. OECD 국가 국민의 약 2/3는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말한다.

“양호한” 또는 “매우 양호한” 건강이라고 보고하는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 퍼센트



주: 아이슬란드와 일본의 최신 가용 연도는 2016년이다. 호주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1년이고, 뉴질랜드는 2012년이다. 유럽 OECD 국가의 응답자는 일반적으로 16세 이상이며, 호주, 캐나다, 코스타리카, 칠레, 일본, 한국,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터키 및 미국의 응답자는 15세 이상, 그리고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이다.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뉴질랜드 및 미국(회색으로 표시)은 결과에서 상향 편향으로 이어지는 다른 보고 척도를 사용한다.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멕시코를 제외하고, 시계열 중단 때문에 칠레를 제외하며,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및 미국을 제외한다.

출처: OECD 건강 상태(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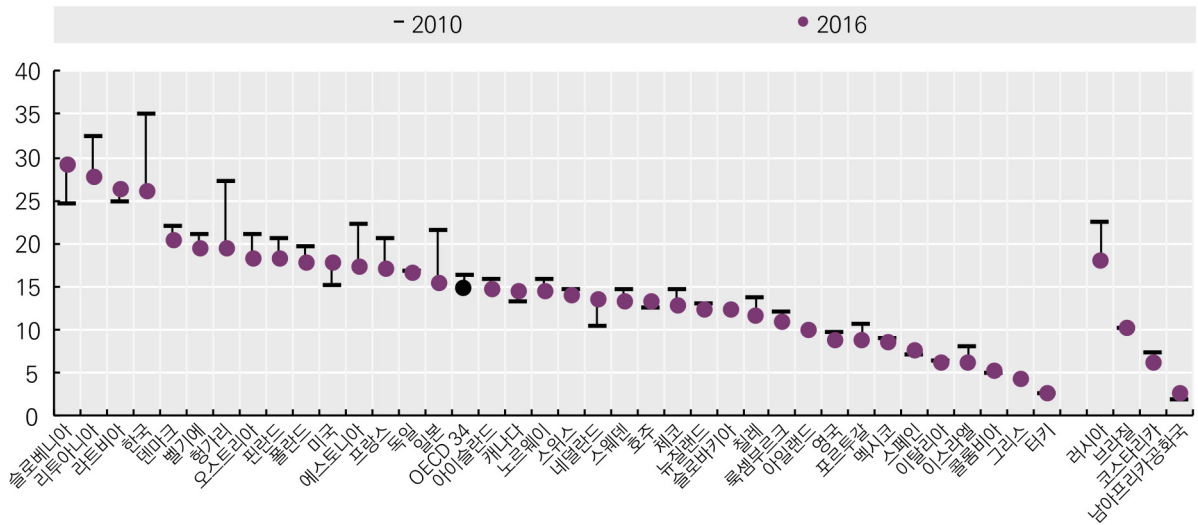
자살, 급성 알코올 남용 및 약물 과다 복용의 사망

자살, 급성 알코올 남용 및 약물 과다 복용의 사망자에 대해 최근에 “절망사”라는 표현이 만들어졌다(Case 및 Deaton, 2017_[3]).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10만 명당 14.8명의 사람들이 그러한 원인으로 사망하며, 이는 전체 사망에서 작은 비율(1.8%)에 불과하다(그림 5.4). 그럼에도, 이러한 사망은 인구 가운데 심각한 정신 질환과 중독의 중요한 척도를 나타낸다(OECD, 2019_[4]).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한국 및 덴마크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과 약물 남용에 따른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20명 이상)을 기록한다. 이들 중에서 절망사는 주로 한국과 리투아니아의 경우 자살에서 비롯된 것인 반면, 라트비아, 덴마크, 슬로베니아의 경우 급성 알코올 남용 사망자가 전체 절망사의 1/3 이상을 차지한다(그림 5.4). 그에 반해, 터키(2.6), 그리스(4.2) 및 콜롬비아(5.2)에서는 전반적 비율이 매우 낮다. 하지만 사망 기록부는 다양한 신고 관행과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상을 실제보다 적게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치는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상자 5.1).

2010년 이후 자살(절망사의 가장 일반적 형태, 그림 5.5)과 약물 남용 사망은 OECD 국가의 1/3에서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자살 감소로 인한 것이다. 최대 과제가 있는 국가들 중 일부가 최대의 진전을 이뤘다. 헝가리, 일본 및 한국은 이러한 사망자가 25% 이상 감소했으며 에스토니아는 23%, 리투아니아는 15%가 감소했다. 상황은 다른 곳에서 악화되었다. 2010년 이후 절망사는 미국에서 16%, 슬로베니아에서 18%(OECD에서 최고 수준),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30% 증가했다. 이들 세 국가에서는 급성 알코올 남용과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사망이 크게 증가했다.

그림 5.4. 절망사는 비율이 가장 높은 OECD 국가 일부에서 감소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증가했다.

자살, 급성 알코올 및 약물 남용으로 인한 결합 사망, 인구 10만 명당(연령 표준화)



주: 각각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2016년과 2010년에 대한 가장 가까운 가용 데이터 포인트는 별도로 고려된다. 최신 가용 연도는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모든 유형의 사망), 슬로베니아(자살과 급성 알코올 남용), 콜롬비아(급성 알코올과 약물 남용), 브라질,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이슬란드와 일본(약물 남용)의 경우 2015년, 코스타리카, 슬로바키아, 뉴질랜드(모든 유형의 죽음), 브라질(급성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러시아 연방(자살)의 경우 2014년, 한국과 슬로베니아(약물 남용)은 2013년이다.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아일랜드(급성 알코올 남용)와 에스토니아(약물 남용)의 경우 2011년, 아이슬란드는 2009년(약물 남용), 슬로베니아(약물 남용)는 2008년, 룩셈부르크(약물 남용)는 2006년이다. OECD 평균은 가장 이른 가용 연도에 대한 급성 알코올과 약물 남용 데이터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리스, 아일랜드, 슬로바키아를 제외한다. 러시아 연방의 데이터는 자살만을 나타낸다.

출처: OECD 건강 상태(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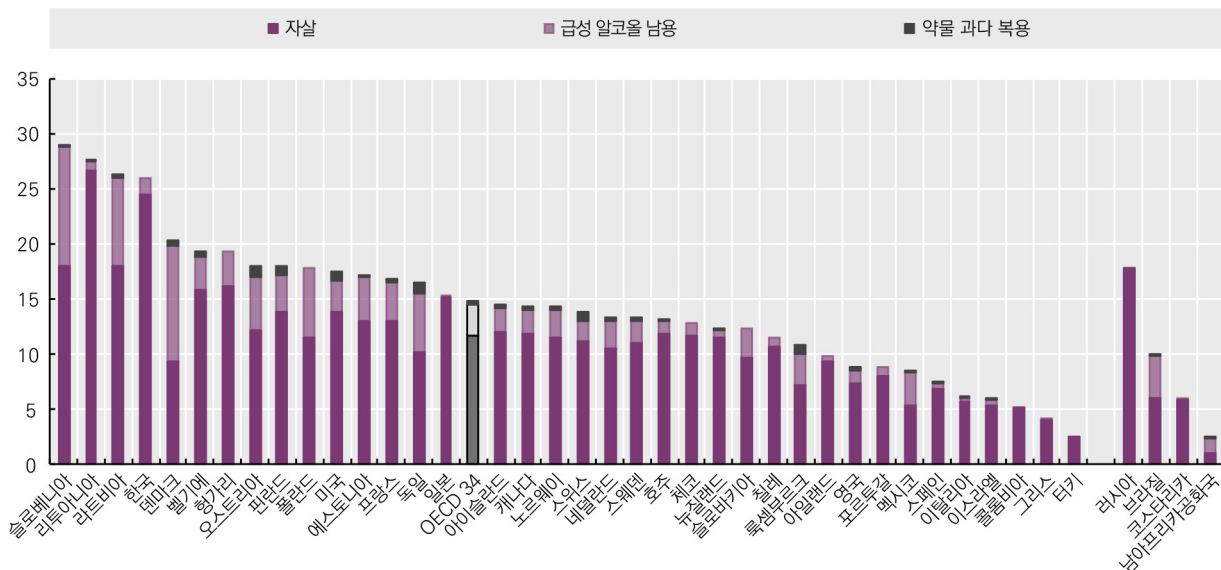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321>

우울 증상

자기 보고된 우울 증상에 대한 데이터는 평균적으로 성인의 6%가 지난 2주 동안 다양한 우울 증상(예: 뭔가를 하는 데 거의 흥미가 없고, 피곤함을 느끼며, 과식을 하거나 입맛이 전혀 없음)을 경험한 유럽 OECD 국가에 대해서만 제공된다(그림 5.6). 약간 더 많은 사람(평균 8%)들이 지난해에 만성적인 우울(EU에서 불안 장애 다음으로 가장 흔한 정신 질환)에 시달렸다고 자기 보고를 했다(OECD/EU, 2018_[5]).

그림 5.5. 자살은 가장 일반적인 절망사이며 그 다음이 알코올 관련 사망이다.

자살, 급성 알코올 남용 및 약물 과다 복용의 사망, 인구 10만 명,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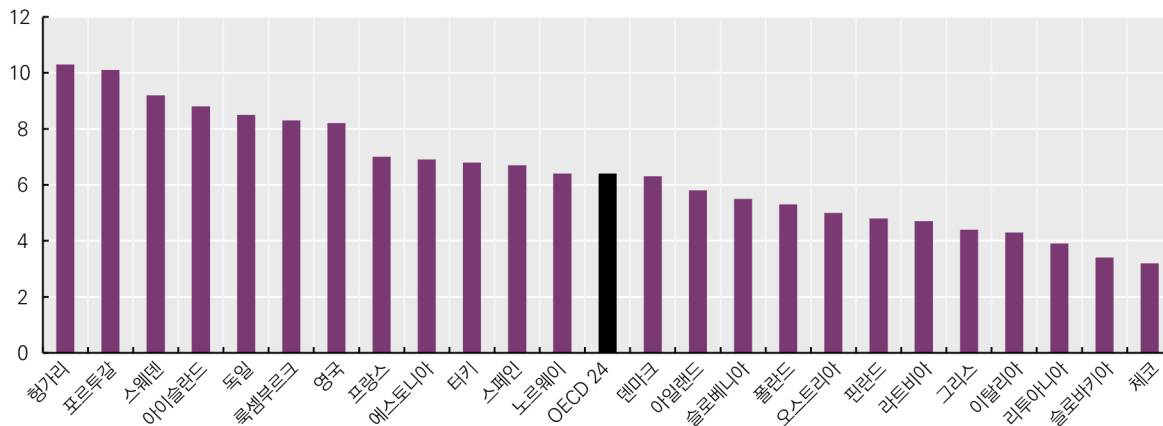


주: 기준 연도와 추가 세부 사항은 그림 5.4의 주를 참조한다. 러시아 연방의 데이터는 자살만을 나타낸다.
출처: OECD 건강 상태(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340>

그림 5.6. 유럽 OECD 국가의 성인 6%가 최근에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

지난 2주 동안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 퍼센트, 2014



출처: 유럽통계청의 유럽건강면접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microdata/european-health-interview-surve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359>

건강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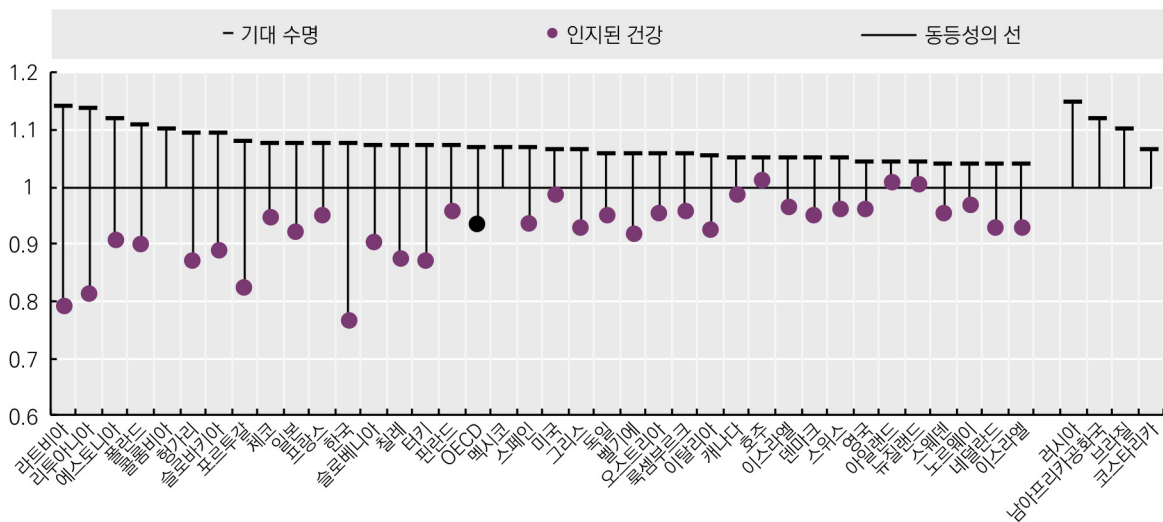
남성은 여성보다 수명이 짧고 더 많은 절망사로 고통을 받지만 더 나은 건강과 더 적은 우울 증상을 보고한다.

출생 시 기대 수명은 모든 OECD 국가에서 남성(77.9세)보다 여성(평균 83.2세)이 더 높다. 반대로, 평균적으로 남성의 70%는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보고하지만 여성은 66%만이 그렇게 보고한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국가에 따라 크기가 다르지만 방향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그림 5.7). 동부 유럽 국가는 두 척도 모두에서 성별 동등성과 가장 거리가 멀다.

그림 5.7.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살지만 전반적 건강은 더 나쁘다고 인지한다.

출생 시 기대 수명 및 “양호한” 또는 “매우 양호한” 건강을 보고하는 성인의 퍼센트에 대한 성비, 2017



주: 성비는 여성에 대한 평균 값을 남성에 대한 평균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1 위의 값은 항상 여성에게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내며 1 아래의 값은 항상 남성에게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낸다. 기준 연도와 추가 세부 사항은 그림 5.2와 그림 5.3의 주를 참조한다. 인지된 건강에 대한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 부족 때문에 멕시코를 제외한다.

출처: OECD 건강 상태(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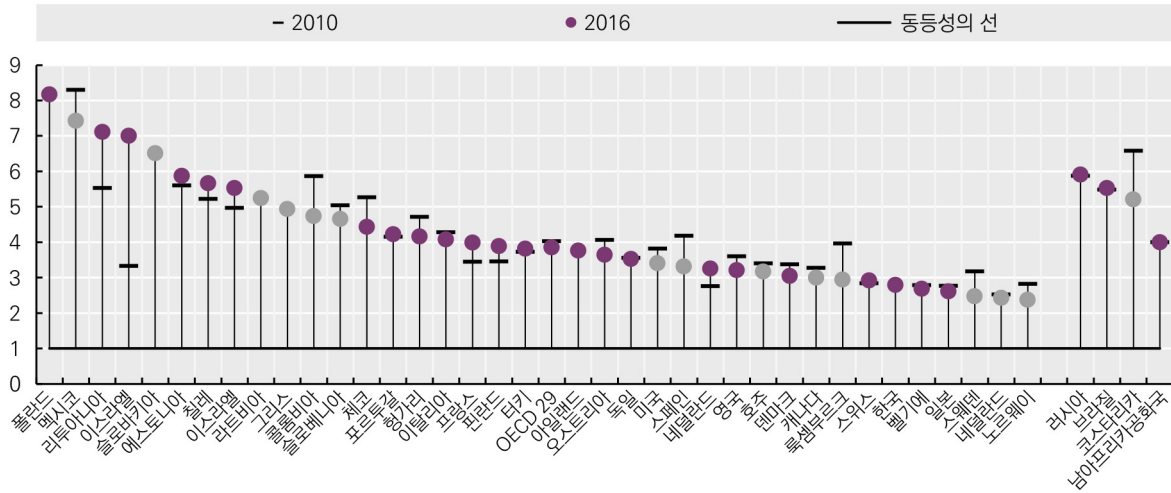
OECD 국가 전체에서 남성은 자살, 급성 알코올 남용 또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평균적으로 여성 1명당 약 4명의 남성)(그림 5.8). 이 성별 격차는 8.2인 폴란드에서 가장 크다. 성별 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룩셈부르크)에서도 남성들 가운데 사망률은 여성들 가운데 사망률의 두 배이다.

절망사에서 성별 격차의 크기는 2010년 이후 20개 OECD 국가에서 좁아졌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이 추세는 감소한 남성 사망과 함께 더 높거나 정체된 여성 사망률이 주도한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자살 또는 약물 남용으로 인한 여성 사망은 2010년 이후 OECD 국가의 1/3(14) 이상에서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가운데 사망이 남성들 가운데 사망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기 때문에 가장 불평등한 국가 두 곳(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에서 성별 간 격차는 더 넓어졌다.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유럽 OECD 국가에서는 남성(5%)보다 더 많은 여성(8%)이 최근에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OECD/EU, 2018_[5]).

그림 5.8. 절망사에서 성별 격차는 좁아졌지만 계속해서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남성이 자살과 급성 약물 남용으로 사망한다.

자살, 급성 알코올 남용 및 약물 과다 복용의 결합 사망의 성비, 인구 10만 명당



주: 성비는 남성에 대한 평균 값을 여성에 대한 평균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1 위의 값은 남성에 대한 더 높은 상대적 절망사 비율을 나타내며 1 아래의 값은 여성에 대한 더 높은 상대적 절망사 비율을 나타낸다. 기준 연도와 추가 세부 사항은 그림 5.4의 주를 참조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 최신 가용 연도는 콜롬비아와 일본은 2014년, 포르투갈과 터키는 2015년이다. 여성에 대한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이스라엘, 일본, 포르투갈 및 터키의 경우 2011년이다. OECD 평균은 하나 이상의 시점에 대한 성별 가용 데이터 부족 때문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한국, 라트비아, 폴란드 및 슬로바키아를 제외한다. 코스타리카와 러시아 연방의 데이터는 자살만을 나타낸다. 여성의 사망이 증가한 국가는 회색으로 표시한다.

출처: OECD 건강 상태(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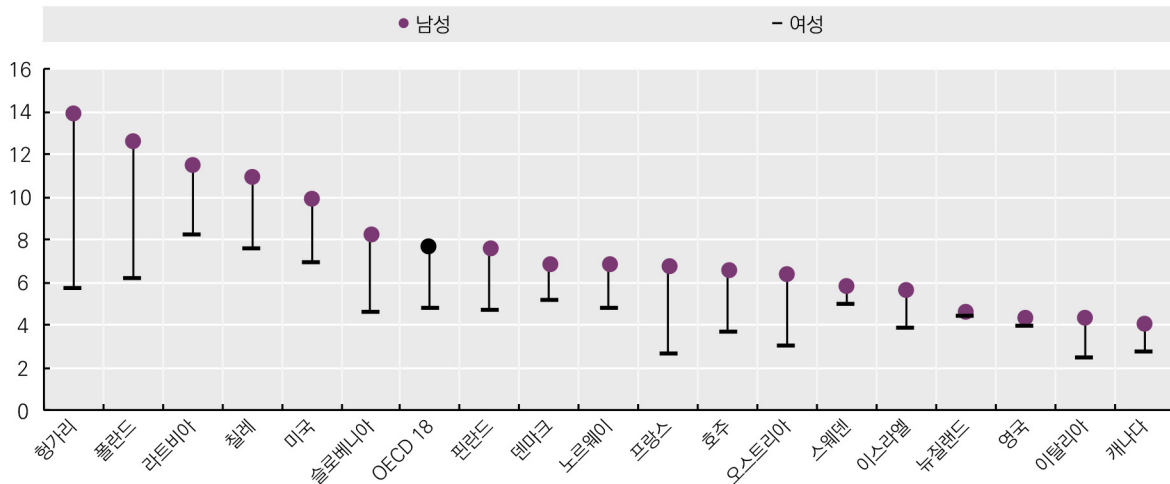
저학력 및 저소득인 사람들은 건강이 더 좋지 않다.

교육과 소득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기대 수명과 자기 보고 건강에 뚜렷한 불평등이 있다. 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18개 OECD 국가에서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에 25세일 때 기대 수명의 평균 격차는 남성의 경우 7.6년 및 여성의 경우 4.8년이다(그림 5.9). 이 격차는 65세일 때 각각 3.6년과 2.6년이다(Murtin 외, 2017^[6]). 마찬가지로, 모든 OECD 국가에서 교육을 더 잘 받은 사람들은 더 나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경험한다. 평균적으로 대학 교육 이수자의 78%가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말한 것에 비해 중등 교육 이수자는 65%가 그렇게 말한다(OECD 건강 상태 데이터베이스). 유럽 OECD 국가에서 대학 교육 이수자 4%에 비해 중등 교육 이수자 6%가 최근에 우울 증상을 겪었다(OECD/EU, 2018^[5]).

예외 없이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건강도 더 양호함을 보고한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최상위 소득 5분위수의 79%가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말하며, 이에 비해 하위 5분위수는 60%만이 양호하다고 말한다(그림 5.10). 동부 유럽 국가는 25% 포인트를 넘는 인지된 건강의 격차와 함께 소득 관련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준다. 체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에서는 2010년 이후 자기 보고 건강의 소득 관련 차이 또한 10% 포인트 이상 넓어졌다.

그림 5.9.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

25세일 때 저학력자와 고학력자 간 기대 수명의 격차, 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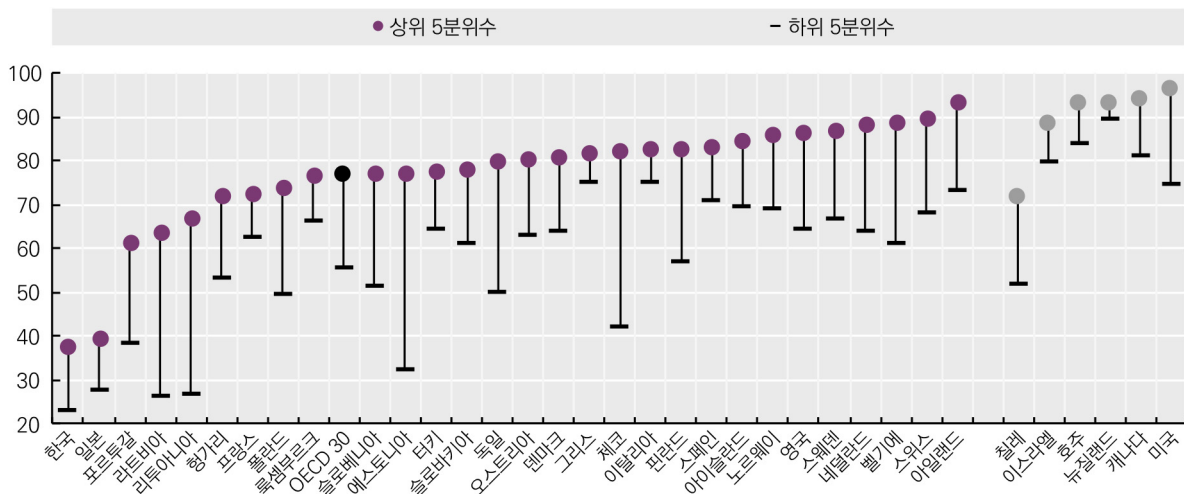
주: 영국에 대한 데이터는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나타낸다. 저학력은 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초등 및 중등 교육 학력인 사람을 나타낸다. 고등 교육은 대학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나타낸다.

출처: (Murtin 외, 2017^[6]), “OECD 국가에서 교육 수준에 따른 수명 불평등: 새로운 OECD 추산의 통찰력(Inequalities in longevity by education in OECD countries: Insights from new OECD estimates)”, *OECD 통계 조사 보고서*, No. 2017/2, OECD 출판 파리, <https://dx.doi.org/10.1787/6b64d9cf-en>.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416>

그림 5.10. 더 높은 소득의 사람들은 그들의 건강이 더 낫다고 말한다.

“양호한” 또는 “매우 양호한” 건강이라고 보고하는 성인들의 비율, 소득 5분위별, 퍼센트, 2017



주: 기준 연도와 추가 세부 사항은 그림 5.3의 주를 참조한다.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뉴질랜드 및 미국(회색으로 표시)에 대한 데이터는 보고된 추산에서 상향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보고 척도를 사용한다. OECD 평균은 방법론의 차이 때문에 이들 국가를 제외하고, 데이터 부족 때문에 멕시코를 제외한다.

출처: *OECD 건강 상태*(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435>

상자 5.1. 앞선 측정 및 통계 의제

건강은 몸과 기분이 좋은 상태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병으로 지장을 받지 않고 장수하며,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건강의 이상적 성과 지표 세트는 허약한 건강 상태, 장애 또는 죽음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 및 질병(유병률, 만성 및 강도 포함)과 함께 양호한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기분이 좋음, 신체 기능 상태가 양호함). 건강 성과의 신체적 정신적 측면 둘 다 포착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후자는 측정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이 증명되기는 했지만(특히 국제적 맥락에서) 정책입안자, 의료 커뮤니티 및 재계에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Patel 외, 2018^[7], OECD, 2019^[8]). 현재의 장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네 가지 지표(표 3.1)와 OECD 국가 인구 전체에 걸친 분포를 고려한다.

표 5.1. 이 장에서 고려한 건강 지표

	평균	수직적 불평등(분포의 상층과 하층 간 격차)	수평적 불평등(성별,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박탈
기대 수명	신생아가 기대할 수 있는 수명	사망 시 연령의 표준 편차	기대 수명의 격차	해당 없음
인지된 건강	“양호한” 또는 “매우 양호한” 건강이라고 보고하는 16세 이상 인구의 비율	해당 없음	인지된 건강의 격차	“나쁨” 또는 “매우 나쁨” 건강이라고 보고하는 성인의 비율
자살, 알코올, 약물로 인한 사망	자살, 급성 알코올 남용 및 약물 과다 복용의 결합 사망, 인구 10만 명당(2010 OECD 인구 구조를 기반으로 연령 표준화됨)	해당 없음	자살, 급성 알코올 남용 및 약물 과다 복용의 사망률의 격차	해당 없음
우울 증상	지난 2주 동안 다양한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	해당 없음	우울 증상의 격차	해당 없음

출생 시 기대 수명은 사망률의 요약 척도이며 오늘 태어난 신생아가 현재 우세한 연령별 사망률을 기반으로 생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연수를 나타낸다. 특정 출생 코호트의 연령별 사망률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주어진 코호트의 예상 수명 추정치에 불과하다. OECD는 남성과 여성의 기대 수명에 대한 비가중 평균을 계산한다. 인구 조사 및 사망 기록부 데이터와 일치시켜 만들어 낸 국가의 부분 집합에 수명에서 교육 수준 관련 불평등이 존재한다(Murtin 외, 2017^[6]).

인지된 건강은 자기 보고된 사람들의 전반적 건강 상태를 나타낸다. 데이터는 일반적 가구조사 또는 보다 상세한 건강 면접을 기반으로 한다. 지표는 일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양호한”, “매우 좋지 않음” 및 “허약한”으로 분류되는 응답을 포함한 “당신의 건강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같은 질문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일부 비유럽 국가(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뉴질랜드, 미국)는 다른 응답 척도가 사용되고 이는 추산에서 상향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OECD 건강 상태*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양한 조사의 응답 범주는 “양호한/매우 양호한”(모든 긍정적 응답 범주), “보통”(양호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음), “나쁨/매우 나쁨”(모든 부정적 응답 범주) 등 세 가지 폭넓은 범주에 맞도록 점수를 다시 부여한다. 응답자는 일반적으로 16세 이상이지만 구체적 연령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자살, 급성 알코올 남용 및 약물 과다 복용의 사망은 심각한 정신질환과 중독의 객관적 척도이다. 여기에서 보고된 지표는 공식 사망 기록부에서 얻은 것이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 급성 알코올 남용 및 약물 과다 복용의 결합 사망(ICD-10 코드 X60- X84,Y87.0, F10, F11-16, F18-19)(2010까지 표준화됨)을 나타낸다.

자기 보고된 우울 증상은 정신적(좋지 않은) 건강의 척도이다. 지난 2주 동안 뭔가를 하는 데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음, 울적함, 우울감 또는 절망감을 느낌, 잠이 들거나 잠든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거나 너무 많이 잠, 피곤함을 느끼거나 활기가 거의 없음, 식욕이 없거나 과식함, 자신에 대해 나쁘게 느끼거나 자신이 낙오자 이거나 자신 또는 가족을 실망시킨다고 느낌,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는 등 뭔가에 집중하기가 어려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을 만큼 느리게 움직이거나 말함, 가만히 있지 못하거나 안전부절하여 평소보다 훨씬 많이 움직이고 있음 등의 다양한 우울 증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15세 이상의 비율을 나타낸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IV)**의 기준에 따라, 응답자는 적어도 절반의 기준 기간 동안 처음 두 항목(뭔가를 하는 데 흥미나 즐거움이 거의 없음, 울적함, 우울감 또는 절망감을 느낌) 중 하나와 전체 목록 중 5개 이상(주요 우울증) 또는 처음 두 항목 중 하나와 전체 목록 중 2~4개(기타 우울 증상)가 보고된 경우 우울 증상이 있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측정은 유럽 OECD 국가로 제한되며 유럽건강면접조사에서 구한 것이다.

건강 지표 간 상관관계

건강의 몇 가지 객관적 및 주관적 측면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표 5.2).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양호하다고 인지하는 국가는 기대 수명 수준이 다소 높은(0.35) 경향이 있고 자살과 약물 남용의 사망률은 더 낮은(-0.46) 경향이 있다. 우울 증상은 이 지표가 다른 지표를 통해 포착되지 않은 정신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여기에서 다른 다른 건강 성과와 중요한 상관관계가 없다.

표 5.2. 건강의 객관적 및 주관적 측정은 국가 수준과 관련이 있다.

건강 지표 간 이변량 상관 계수

	기대 수명	인지된 건강	자살, 알코올, 약물로 인한 사망	우울 증상
기대 수명				
인지된 건강	0.35** (35)			
자살, 알코올, 약물로 인한 사망	0.09 (41)	-0.46*** (35)		
우울 증상	0.07 (24)	0.26 (24)	-0.15 (24)	

주: 괄호 안의 값은 관찰 횟수를 나타낸다. * p<0.10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는 p<0.05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 ***는 p<0.01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앞선 통계 의제

특정 질병(예: 암, 당뇨병, 순환계 질병)에 대한 관리 데이터가 제공되는 한편, 이들은 사람들의 건강 관련 삶의 질, 그리고 인구 전체에 걸친 우세한 질병 발생률(예: 심각한 건강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의

이해에도 중요한 동반질환(즉, 같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질병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기대 수명은 삶의 길이만을 나타내며 그러한 시간들을 건강하게 보내는지 여부를 나타내지 않는다. “건강한” 기대 수명의 대안 척도(다양한 건강 상태와 관련된 장애 가중치 기반, 신생아가 생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강한 연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됨)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만하지 않으며(유럽 제외), 장애 가중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전히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OECD 다수 국가에 대해 인지된 건강 척도가 존재하지만 통일시켜야 할 상당한 범위의 질문 표현과 응답 척도가 있다.

정신 건강 성과의 비교할 만한 측정은 유럽건강면접조사를 통해 오직 유럽 OECD 국가만 이용할 수 있으며 5년마다 진행된다. 인구 수준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할 만한 정신 건강 성과 척도를 식별하는 것은 여전히 까다로운 일이다(의료 전문가의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 후자에 초점을 맞추는 척도는 사람들이 치료를 구할 가능성이 더 높은 좋은 의료 시스템과 인식 프로그램이 있는 국가에 불리할 수 있다. 정신 건강에 결부된 부정적 인식은 과소 보고를 초래할 수 있고 국가 간 비교 가능성과 유병률 변화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살에 대한 데이터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현상의 규모를 보다 적게 나타내기 쉽고 (훨씬 높은) 자살 시도 비율을 설명하지 않는다.

Washington Group 등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능 측정(즉, 사람들이 자기 돌봄을 포함해 일상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을 오랫동안 권장해 왔다(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 2016^[9]). 국제 지침(예: 건강 상태 측정에 대한 UNECE/WHO/유럽통계청 공동 실무그룹이 마련한 건강 상태 측정을 위한 부다페스트 이니셔티브(Budapest Initiative) 조사 모듈)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측정은 아직 제공되지 않는다(유엔, 2005^[10]).

보다 사람 중심적인 건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2017년 OECD는 PaRIS(Patient-reported Indicator Surveys)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환자가 직접 보고하는 경험과 성과를 벤치마킹하는 야심찬 실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OECD, 2019^[11]). 향후 그러한 활동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분집합을 뛰어넘어 전체 인구까지 확장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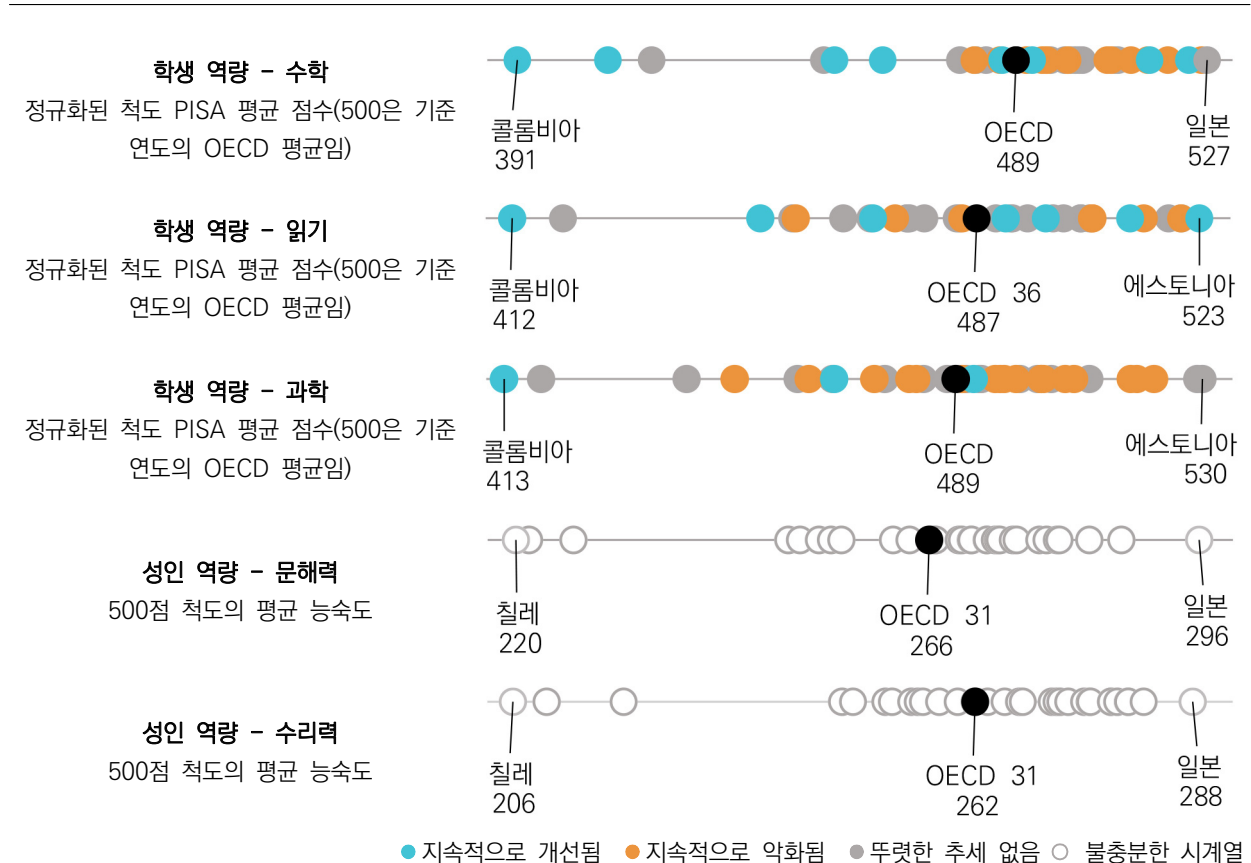
참고문헌

- Case, A. and A. Deaton (2017), “Mortality and Morbidity in the 21st Century”,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http://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7/08/casetextsp17bpea.pdf>(accessed on 26 September 2019). [3]
- Murtin, F. et al. (2017), “Inequalities in longevity by education in OECD countries: Insights from new OECD estimat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7/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6b64d9cf-en>. [6]
- OECD (2019), *Addressing Problematic Opioid Use in OECD Countries*, OECD Health Policy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a18286f0-en>. [4]
- OECD (2019), *Health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4dd50c09-en>. [1]
- OECD (2019), *OECD Mental Health Performance Framework*, <http://oecd.org/health/health-systems/OECD-Mental-Health-Performance-Framework-2019.pdf> (accessed on 14 January 2020). [8]
- OECD/EU (2018), *Health at a Glance: Europe 2018: State of Health in the EU Cycle*, OECD Publishing, Paris/European Union, Brussels, https://dx.doi.org/10.1787/health_glance_eur-2018-en. [5]
- Patel, V. et al. (2018), “The Lancet Commission on global mental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Lancet Commissions*, Vol. 392/10157, pp. 1553-1598, [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18\)31612-X/fulltext](https://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18)31612-X/fulltext). [7]
- Raleigh, V. (2019), “Trends in life expectancy in EU and other OECD countries : Why are improvements slowing?”,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10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223159ab-en>. [2]
- United Nations (2005), *Budapest Initiative Task Force on Measurement of Health Status: Survey module for measuring health state*,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747214> (accessed on 16 September 2019). [10]
- 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 (2016), *The Washington Group Short Set on Functioning (WG-SS)*, <http://washingtongroup-disability.com> (accessed on 16 September 2019). [9]

6 지식과 역량

지식과 역량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장은 OECD의 PIAAC 연구를 통해 평가한 15세의 수학, 읽기, 과학, 성인의 수리력과 문해력에 대한 OECD의 PISA 인지 역량 테스트 결과를 설명한다. 지난 10여 년간 15세 학생의 수학, 읽기, 과학의 평균 점수는 1/4의 OECD 국가에서 저하되었다. 학생 8명 중에서 한 명은 PISA 과목 세 개 모두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고, 성인의 약 16%는 문해력과 수리력 둘 다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다. 청소년과 성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수학은 남성이 여성보다 잘 하는 반면, 읽기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경제적 배경 차이로 인해 15세일 때 역량에서 큰 불평등이 있다. 나이가 더 많은 성인(45~65세)은 문해력과 수리력 테스트에서 더 젊은 연령층(16~44세)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

그림 6.1. 지식과 역량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변화의 방향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하거나 일관된 변화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 OECD 평균과 함께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방법론에 대한 세부 항목 정보는 독자를 위한 가이드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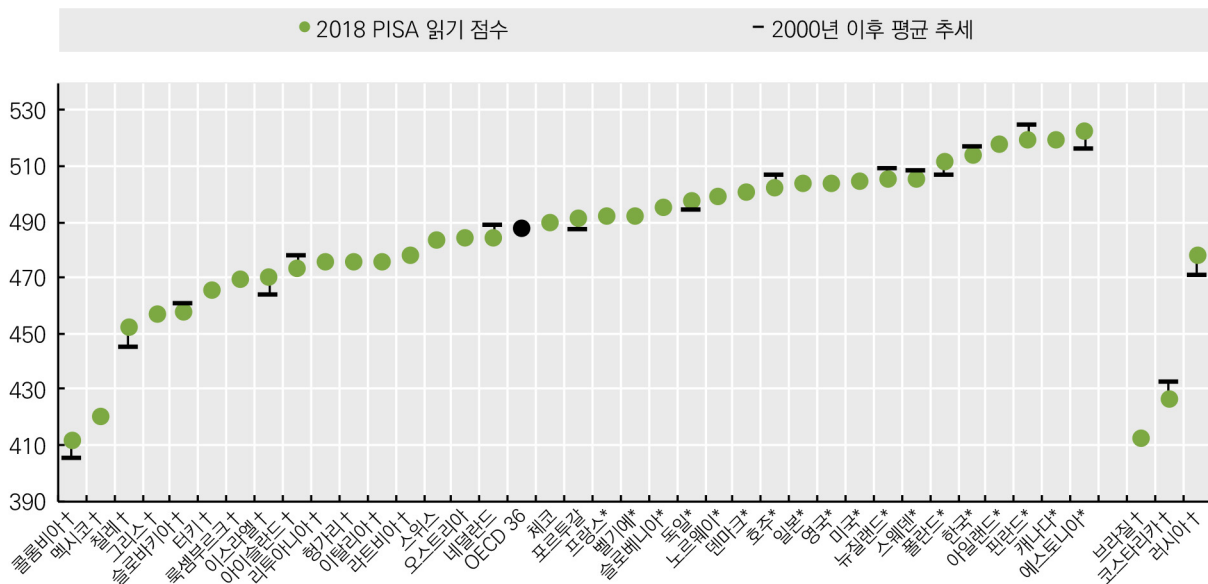
출처: 읽기, 수학 및 과학에 대한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와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OECD 국제성인역량 조사(Program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PIAAC) 평가에서 얻은 데이터

PISA 읽기 점수

에스토니아, 캐나다, 핀란드 및 아일랜드의 15세 학생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의 평균 PISA 읽기 점수를 받았고, 한국과 폴란드가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다(그림 6.3). 수학의 경우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가 최저 평균 점수를 받았다. 2000년 이후 학생들의 평균 읽기 점수는 8개 OECD 국가에서 크게 저하되었지만 7개 국가에서는 상승했다. 최대 상승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러시아 연방)뿐만 아니라 평균 이상의 성적을 보여준 에스토니아와 독일에서도 발생했다. 읽기 성적의 중요한 저하는 이미 비교적 잘 해오고 있는 국가(예: 핀란드, 호주 및 네덜란드)에서 주로 발생했다.

그림 6.3. 15세 학생들의 읽기 역량은 2000년 이후 1/4 이상의 OECD 국가에서 저하되었다.

PISA 읽기 평균 점수, 15세 학생



주: †는 OECD 평균 이하의 국가를 나타내며, *는 평균 이상의 국가를 나타낸다. 표시가 첨부되지 않은 국가는 통계적으로 OECD 평균과 다르지 않다. PISA 읽기 점수는 OECD 평균에 대해 500으로 정규화된 척도로 측정한다. 정규화는 전년 대비 비교 가능성을 감안해서 과목이 주요 테스트 영역으로 도입되는 첫 해에 확립된다(읽기는 2000). 이런 이유 때문에 OECD 평균은 어떤 연도에든 정확히 500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락 데이터 때문에 OECD 평균은 스페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추세는 2000년 이후 상당한 개선 또는 악화를 기록했던 국가에 대해서만 보고된다. 즉, 테스트 점수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출발점이 표시되지 않는다. 평균 추세의 계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자 6.1을 참조한다.

출처: (OECD, 2019^[11]), *PISA 2018 결과(1권):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학생들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 PISA, OECD 출판, 파리, <https://doi.org/10.1787/5f07c754-en>.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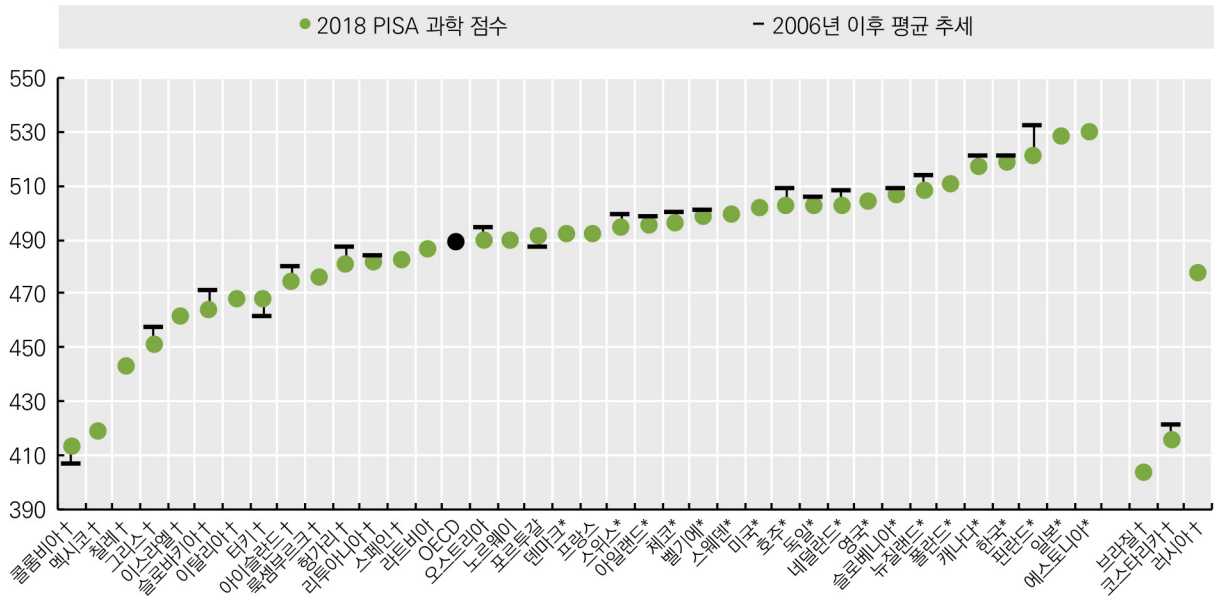
PISA 과학 점수

과학의 경우 평균 PISA 점수는 에스토니아, 일본, 핀란드, 한국 및 캐나다에서 가장 높고 콜롬비아, 멕시코 및 칠레에서 가장 낮다(그림 6.4). 2006년 이후 과학 점수는 세 개의 OECD 국가(콜롬비아, 포르투갈, 터키)에서만 상승했고, 한편 이들은 대략 반 정도 떨어진 수학과 읽기에서 관찰된 추세를 (더 강한 강도로)반영하는 패턴이다.

전체적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오직 두 개의 OECD 국가(콜롬비아와 포르투갈)만 세 과목 모두에서 점수가 개선되었다. 추가적인 네 개 국가(에스토니아, 이스라엘, 폴란드 및 러시아 연방)는 읽기와 수학 점수가 개선되었다. 세 개 과목 모두에서 점수가 하락한 7개 국가는 호주, 핀란드, 아이슬란드,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등이다.

그림 6.4. 2006년 이후 15세 학생들의 과학 역량은 18개 OECD 국가에서 하락했고 세 개 국가에서 개선되었다.

PISA 과학 평균 점수, 15세 학생



주: +는 OECD 평균 이하의 국가를 나타내며, *는 평균 이상의 국가를 나타낸다. 표시가 첨부되지 않은 국가는 통계적으로 OECD 평균과 다르지 않다. PISA 과학 점수는 OECD 평균에 대해 500으로 정규화된 척도로 측정한다. 정규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목이 주요 테스트 영역으로 도입되는 첫 해에 확립된다(과학은 2006). 이런 이유 때문에 OECD 평균은 어떤 연도에도 정확히 500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추세는 2006년 이후 상당한 개선 또는 악화를 기록했던 국가에 대해서만 보고된다. 즉, 테스트 점수의 변화가 대수롭지 않은 국가에 대한 출발점이 표시되지 않는다. 평균 추세의 계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상자 6.1을 참조한다.

출처: (OECD, 2019^[1]), PISA 2018 결과(1권):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학생들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 PISA, OECD 출판, 파리, <https://doi.org/10.1787/5f07c754-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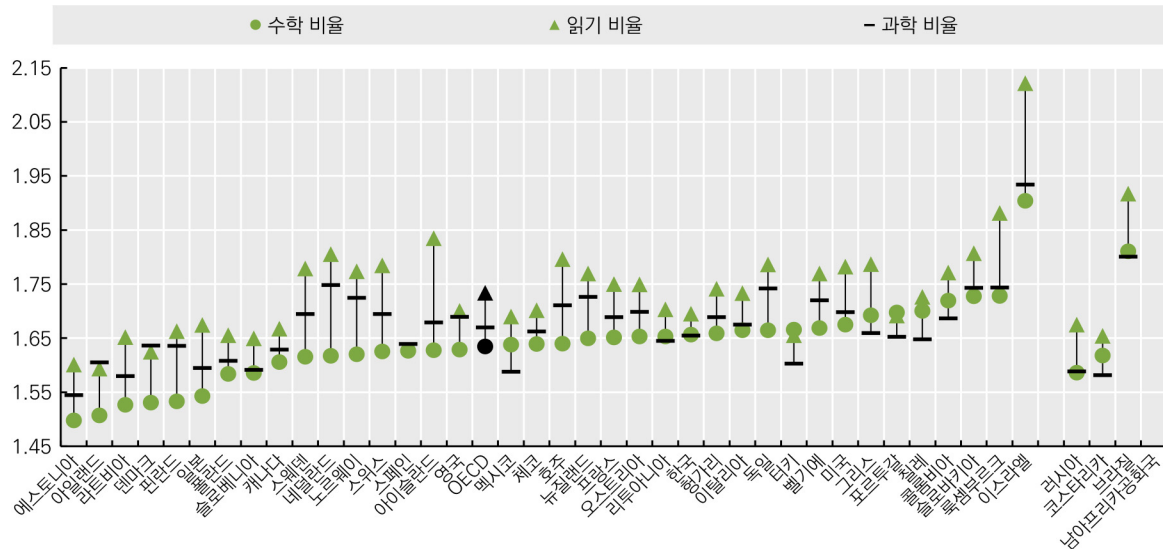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492>

15세 학생들 가운데 인지 역량의 분포

평균적으로 전 OECD 국가에 걸쳐 최고 성적 학생(90번째 백분위수 점수의 학생)은 최저 성적 학생(10번째 백분위수의 학생)보다 60% 더 높은 PISA 점수를 받았다(그림 6.5). 불평등은 모든 과목 분야에서 비교적 좋지 않은 평균 성적의 OECD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더 크다. 읽기, 수학 및 과학 테스트를 결합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높은 성취도의 학생과 낮은 성취도의 학생 간 불평등이 OECD에서 가장 높았던 한편(그 다음은 룩셈부르크와 슬로바키아), 평균 역량의 성적이 우수한 몇 개의 국가(예: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일본, 폴란드, 캐나다)는 모두 평균 이하의 불평등을 나타냈다. 우수한 평균 성적을 기록했지만 그러한 수준의 성적을 보인 다른 국가들보다 더 큰 불평등이 있는 한국은 예외이다(그림 6.6). 콜롬비아와 멕시코는 30% 이상의 학생들이 모든 분야에서 점수가 낮은 반면, 에스토니아는 4.2%의 학생들만이 그렇다.

그림 6.5. 평균적으로, 90번째 백분위수의 15세 학생은 인지 역량이 10번째 백분위수 학생들보다 약 65% 더 높다.

10번째 백분위수에 대비 90번째 백분위수의 평균 점수 비, PISA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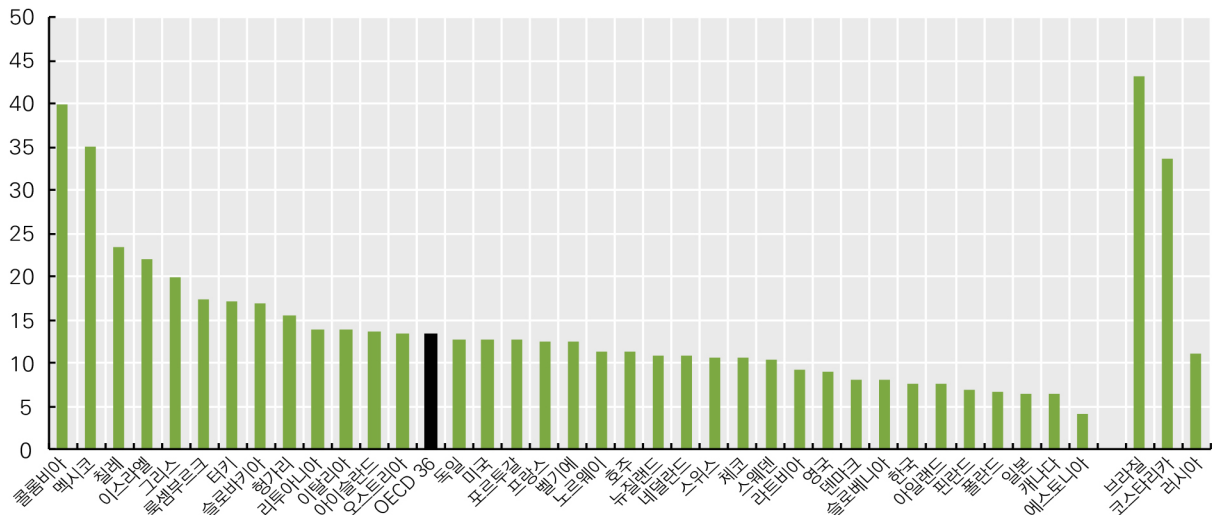
주: 수직적 불평등은 세 개의 PISA 과목 분야 각각에 대해 고성과자(90번째 백분위수 초과 학생)와 저성과자(10번째 백분위수 미만 학생) 간 인지 역량의 비로 측정한다. 비가 1에 더 가까울수록 상위 학생과 하위 학생 간 격차는 더 낮다. 읽기에 대한 OECD 평균은 데이터 누락 때문에 스페인을 제외하며, 수학과 과학에 대한 OECD 평균은 37개 OECD 국가를 모두 포함한다.

출처: (OECD, 2019^[11]), *PISA 2018 결과(1권):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학생들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 PISA, OECD 출판, 파리, <https://doi.org/10.1787/5f07c754-en>.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511>

그림 6.6. 평균의 OECD 국가에서 학생 8명 중 1명이 PISA 과목 세 개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

수학, 읽기 및 과학에서 점수가 낮은 15세의 비율, 퍼센트, 2018



주: 낮은 성취도의 학생은 세 과목 모두에서 레벨 2 미만의 인지 역량이 있는 학생들이다. 읽기 점수 데이터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OECD 평균은 스페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OECD, 2019^[11]), *PISA 2018 결과(1권):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학생들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것)*, PISA, OECD 출판, 파리, <https://doi.org/10.1787/5f07c754-en>.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530>

성인의 인지 역량: 문해력과 수리력의 PIAAC 평균 점수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수리력, 문해력 및 문제해결에서 성인의 인지 역량을 평가한다. PISA와 달리, PIAAC 결과는 고정된 OECD 평균 수준으로 표준화되지 않지만 0~500의 척도로 측정한다.

성인 문해력과 수리력

OECD 성인역량조사의 첫 번째(및 최신 가용) 차수는 2012년 즈음에 처리되었다. 성인 간 수리력 점수는 일본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핀란드, 벨기에(플랑드르), 네덜란드였다. 칠레, 멕시코, 터키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OECD 국가 전체에서 문해력 점수의 국가 간 차이는 일반적으로 수리력의 차이를 반영한다(그림 6.7).

학생들의 인지 역량의 경우에서 그러는 것처럼, 성인 간 수리력 점수 평균이 높은 OECD 국가는 점수 분포 또한 보다 균등하다. 즉, 고성과자(90번째 백분위수)와 저성과자(10번째 백분위수) 간 격차가 더 작다. 예를 들어 일본은 성인 간 가장 높은 수리력 점수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간 최저 격차 둘 다 가지고 있다. 반대로, 평균 점수가 낮은 국가(칠레와 터키 등)는 불평등 수준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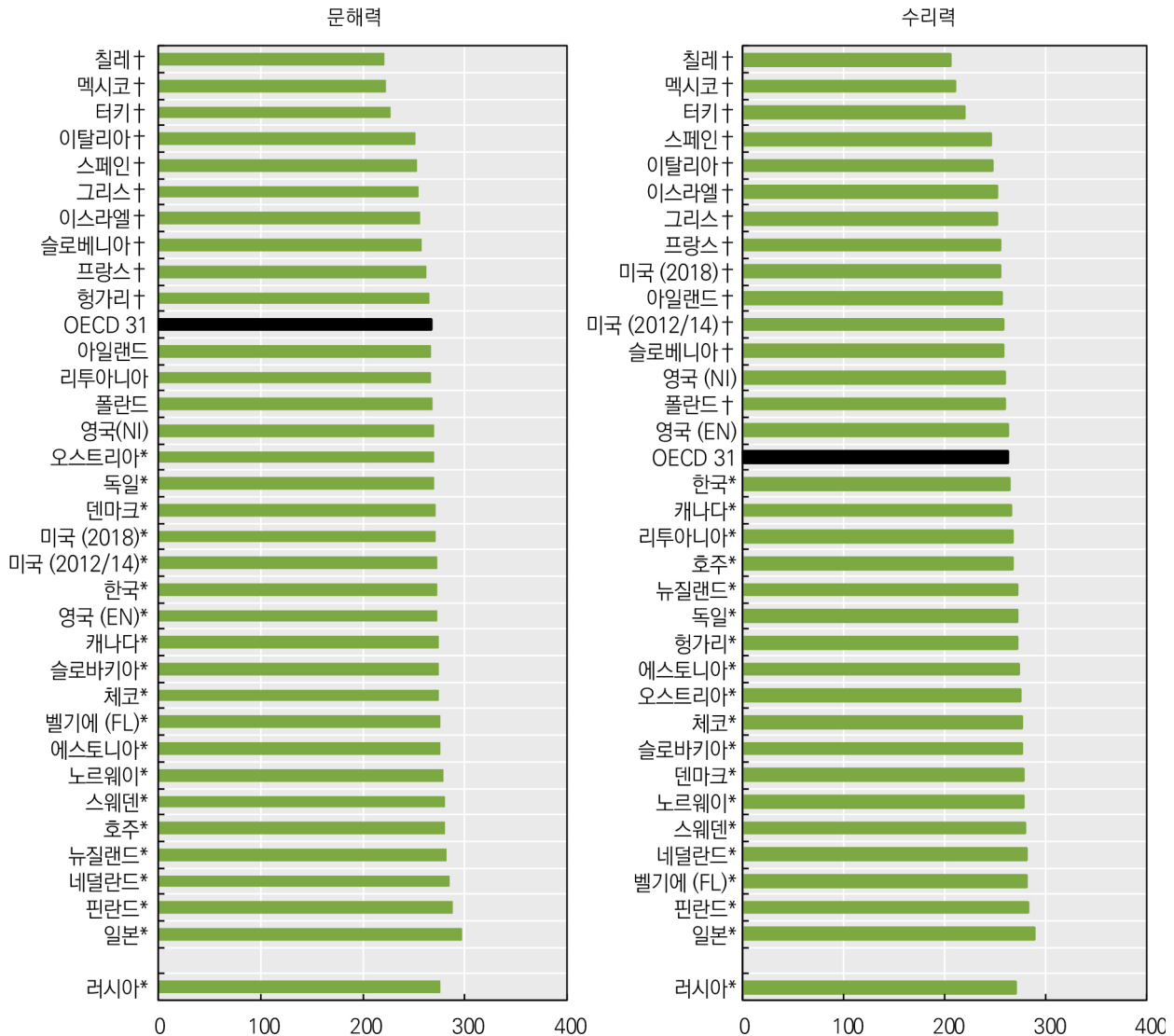
고성과자(90번째 백분위수)와 저성과자(10번째 백분위수) 간 격차는 수리력보다 문해력에서 더 작지만 일반적인 국가 간 패턴을 보유하고 있고, 더 낮은 평균 문해력 점수의 국가는 칠레, 멕시코, 터키의 경우에서처럼 높은 성취자와 낮은 성취자 간 점수에 더 큰 격차가 있다. 이스라엘은 칠레와 터키에 이어 성인 역량에서 불평등이 세 번째로 높다. 일본은 가장 높은 평균 문해력 점수와 가장 낮은 불평등 수준 둘 다 가지고 있다.

성인 문해력과 수리력의 박탈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성인 인구의 16%가 문해력과 수리력의 수준이 매우 낮고 문해력과 수리력 평가에서 둘 다 레벨 1 이하의 점수로 정의된다(그림 6.8). 높은 실력의 국가는 박탈 수준이 더 낮은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성인은 문해력과 수리력이 OECD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이며 저성과자의 비율이 가장 적다(3.9%에 불과함). 마찬가지로, 칠레, 멕시코 및 터키는 OECD 국가 가운데 평균 테스트 점수가 가장 낮고 저성과자 비율은 가장 크다(48.2%, 46.1% 및 39%).

그림 6.7. OECD 국가 전체에서 문해력 점수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수리력의 차이를 반영한다.

수리력과 문해력의 평균 능숙도, 0~500 척도, 2012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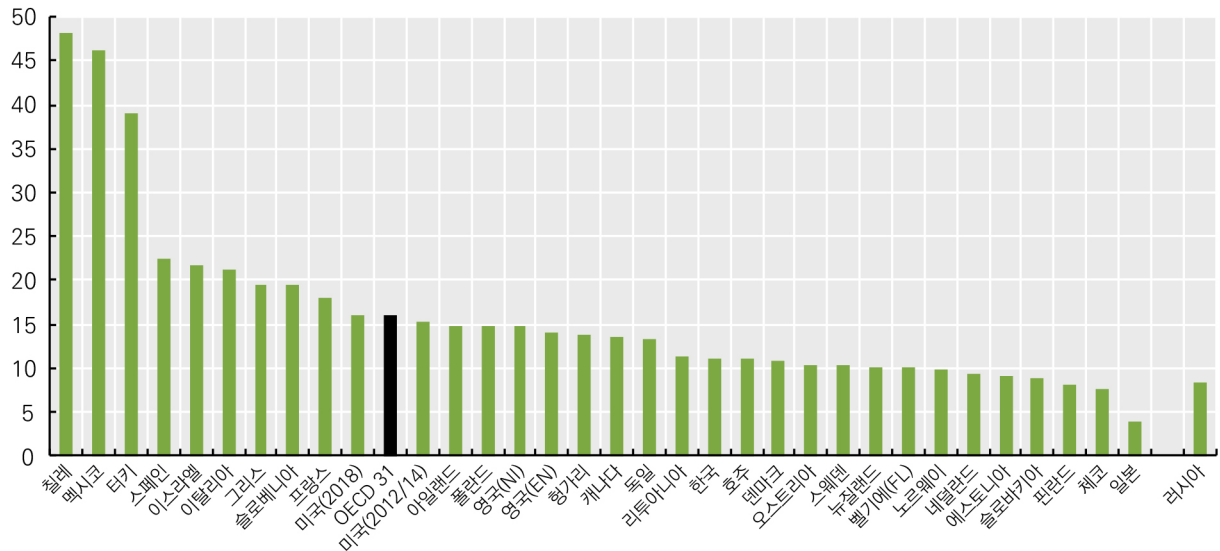
주: *는 PIAAC 점수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는 PIAAC 점수가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시가 없는 국가는 통계적으로 OECD 평균과 다르지 않다. 데이터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연방,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경우 2011~12년을 나타내며, 프랑스는 2012년,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터키는 2014~15년이다. 벨기에에 대한 데이터는 플랑드르를 나타내며, 영국에 대한 데이터는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구분하고, 러시아 연방에 대한 데이터는 모스크바 도시 지역을 제외한다.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 때문에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를 제외한다.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둘 다 OECD 평균에 포함되며, 미국 시계열의 단순 평균(2012/14 및 2018)도 마찬가지로이다.

출처: (OECD, 2016_[2]), *Skills Matter: Further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역량이 중요: 성인역량조사의 추가 결과)*, OECD 역량 조사, OECD 출판, 파리, <https://dx.doi.org/10.1787/9789264258051-en>.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549>

그림 6.8. 최저 성적 OECD 국가에서는 성인 인구의 약 50%가 레벨 1 이하의 성적을 보인다.

PIAAC 문해력과 수리력 평가 둘 다에서 레벨 1 이하의 점수를 받은 성인의 비율, 퍼센트, 2012년 경



주: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 때문에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를 제외한다.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둘 다 OECD 평균에 포함되며, 미국 시계열의 단순 평균(2012/14 및 2018)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OECD, 2016^[2]), *Skills Matter: Further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역량이 중요: 성인역량조사의 추가 결과)*, OECD 역량 조사, OECD 출판, 파리, <https://dx.doi.org/10.1787/9789264258051-en>.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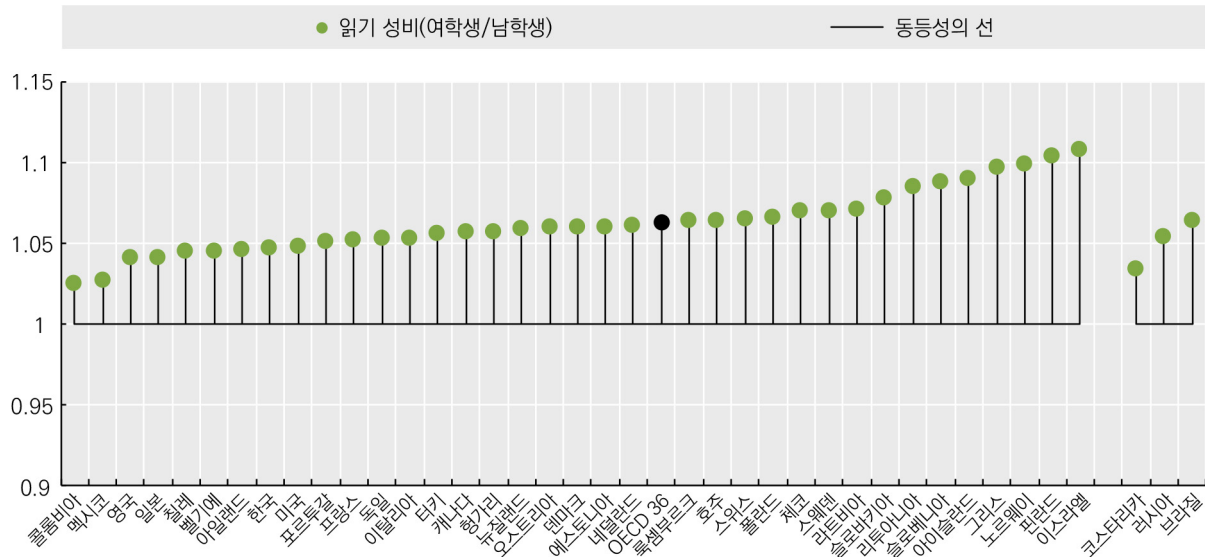
지식과 역량의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지식과 역량에 지속적인 성별 차이가 있다.

대다수 OECD 국가에서 평균 PISA 수학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 이 차이는 여러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특히 최저 성적 국가 전체에서, 수학 고성취 학생 가운데 여학생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Breda, Jouini 및 Napp, 2018^[3]). 반대로, 평균 읽기 점수는 여학생이 일관되게 남학생보다 더 높다(그림 6.9). 하지만 이 격차는 남학생의 평균 점수 개선이 아닌 여학생의 평균 점수 저하로 인해 시간이 흐르며 좁아지고 있다(OECD, 2019^[4]).

그림 6.9. 모든 OECD 국가에서 읽기능력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수하다.

평균 읽기 점수에서 성비, PISA 2018



주: 값이 1보다 높은 성비는 여학생이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낸다. 누락 데이터 때문에 OECD 평균은 스페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OECD, 2019^[4]), *PISA 2018 결과(II권): Where All Students Can Succeed(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는 곳)*, PISA, OECD 출판, 파리, <https://doi.org/10.1787/b5fd1b8f-en>.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587>

성인 가운데 인지 역량의 성별 차이는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점을 말해준다. 남성의 수리력 점수(268)는 모든 OECD 국가에서 여성의 수리력 점수(256)를 능가한다. 성별 격차는 일반적으로 15세 학생의 격차보다 훨씬 더 크다. 성인 문해력의 불평등은 좀 더 다양하다. 남성과 여성의 OECD 평균 점수는 매우 비슷하다(각각 267점과 265점). 폴란드에서만 여성의 점수가 남성의 점수를 5점 이상 앞서는 한편, 7개 국가에서 남성의 점수는 여성의 점수를 5점 이상 앞선다.

더 나이가 많은 성인은 문해력과 수리력 테스트에서 더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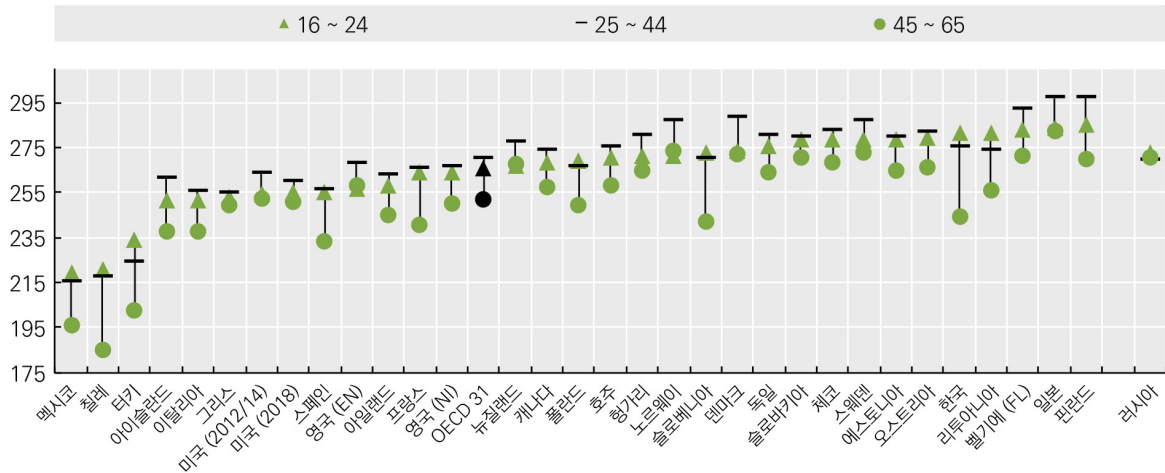
더 나이가 많은 성인(45~65세)은 수리력 평가(OECD 평균 251점)에서 중년(25~44세) 또는 젊은(16~24세) 연령층(각각 270점과 266점)보다 점수가 떨어진다(그림 6.10). 비슷한 패턴은 문해력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모의 교육 수준은 15세의 인지 역량과 관련이 있다.

부모가 초등 수준의 교육만 달성한 15세 학생은 부모가 중등(463점) 또는 대학(489점) 교육을 받은 급우들과 비교했을 때 PISA 읽기(OECD 평균 417점)에서 성적이 더 낮다(그림 6.11). 이 결과 패턴은 수학과 과학 성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6.10. 모든 OECD 국가에서 더 나이가 많은 성인은 더 젊은 성인보다 수리력 점수가 더 낮다.

PIAAC 수리력 평가, 2012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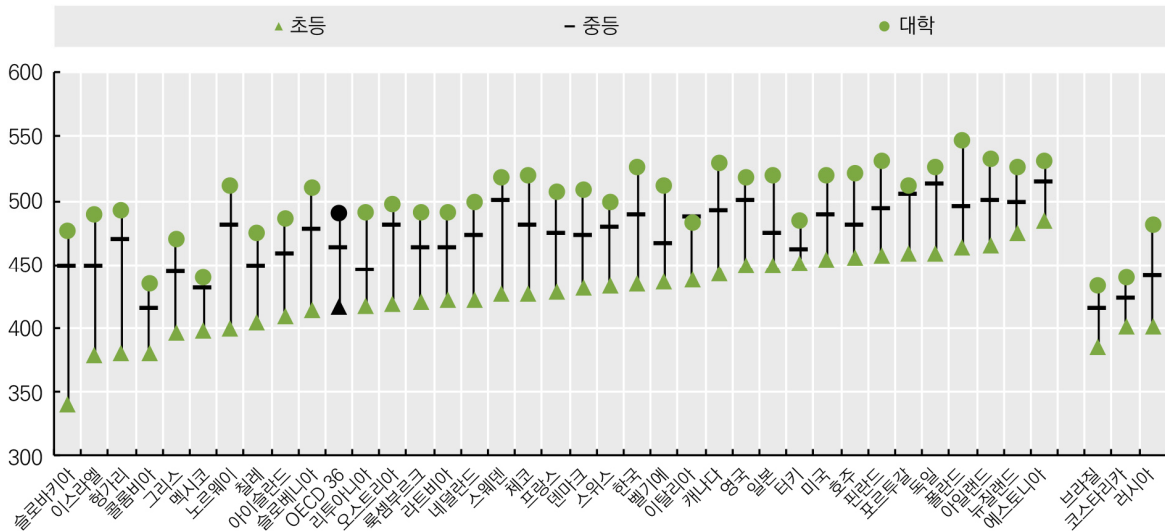


주: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 때문에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를 제외한다.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 둘 다 OECD 평균에 포함되며, 미국 시계열의 단순 평균(2012/14 및 2018)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OECD, 2016^[2]), *Skills Matter: Further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역량이 중요: 성인역량조사의 추가 결과), OECD 역량 조사, OECD 출판, 파리, <http://dx.doi.org/10.1787/9789264258051-en>.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606>

그림 6.11. 부모가 초등 교육을 받은 15세 학생은 부모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급우들보다 성적이 더 낮다.

평균 읽기 점수, 부모 교육 수준별, PISA 2018



주: 부모의 교육 수준은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 프레임 워크에 따라 분류된다. 초등 교육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ISCED 1 및 ISCED 2를 포함하며, 중등 교육은 ISCED 3B와 ISCED 3A, 4를 포함하고, 대학 교육은 ISCED 5B와 ISCED 5A/6을 포함한다. 누락 데이터 때문에 OECD 평균은 스페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OECD, 2019^[4]), *PISA 2018 결과(II권): Where All Students Can Succeed*(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는 곳), PISA, OECD 출판, 파리, <https://doi.org/10.1787/b5fd1b8f-en>.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625>

상자 6.1. 앞선 측정 및 통계 의제

지식과 역량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문해력과 수리력은 일과 여가 같은 일상적 활동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기초적 역량이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포함되기 위해 과학 및 디지털 기술 같은 다른 역량이 점점 더 기본 요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핵심 구성 요소를 넘어 웰빙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의 범위는 직무별 역량부터 육아까지 광범위하다. 사회 정서 역량 같은 비인지 능력(자원활용성, 인내, 적응성, 팀워크 포함) 또한 필수 역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장에서 사용된 지표(표 6.1)는 인지 역량으로 제한된다. 향후 통계 작업에 대한 중요한 우선사항은 사람들의 지식과 역량에 대한 추가적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다(아래).

표 6.1. 이 장에서 고려한 지식과 역량 지표

	평균	수직적 불평등(분포의 상층과 하층 간 격차)	수평적 불평등(성별, 연령, 교육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박탈
학생 역량	수학, 읽기 및 과학에서 PISA 평균 점수 (별도로 제시)	수학, 읽기 및 과학에서 PISA 점수의 P90/P10 비율(별도로 제시)	수학, 읽기 및 과학에서 평균 PISA 점수의 격차	수학, 읽기 및 과학에서 레벨 2 미만 점수를 받은 15세 학생의 비율(즉, 모든 과목 조합)
성인 역량	수리력과 문해력에서 PIAAC 평균 점수 (별도로 제시)	수리력과 문해력에서 PIAAC 비율의 P90/P10 비율(별도로 제시)	수리력과 문해력에서 평균 PIAAC 점수의 격차	문해력과 수리력 둘 다에서 레벨 1 이하의 점수를 받은 성인의 비율(둘 다의 조합)

학생 인지 역량은 2018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테스트 점수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PISA 평가는 수학, 읽기 및 과학 간 초점 과목 순환을 통해 3년에 한번 수행된다. 가장 최근의 PISA 라운드인 읽기에 초점을 맞췄다. 2018년 PISA는 79개 국가 3,200만 명의 학생들을 대표하는 약 60만 명의 15세 학생들을 테스트했다. PISA 평가는 표준 편차 100포인트에 OECD 평균을 500포인트로 해서 정규화된다. 정규화는 과목이 초점 과목이 되는 첫 해에 수행되며, 주어진 어떤 연도에서든 OECD 평균의 가치가 500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시간 흐름에 따른 PISA 추세는 특정 과목이 현재의 평가에 대한 초점 과목이 되었을 때부터 각 3년 기간의 평균으로 측정한다(평가가 3년 마다 시행되는 것을 고려할 때). 그렇기 때문에 PISA 2018의 경우 시간 흐름에 따른 추세는 수학의 경우 2003년의 평균 추세로 계산하고 과학은 2006년의 추세, 읽기는 2000년의 추세로 계산한다. PISA 평가는 학교 내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현재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15세 학생의 인지 역량만 포착한다. 따라서 이러한 테스트는 중퇴자 또는 홈스쿨링 학생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성인 인지 역량은 문해력과 수리력에 대한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평가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PIAAC의 첫 번째 사이클은 2011~2017년에 수행되고, 38개 국가 220,000명 이상의 성인을 망라하는 세 개의 라운드로 구성되었다. 성인은 수리력, 문해력 및 문제해결 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가능한 점수는 0~500점이다(PISA와 달리, PIAAC 결과는 정규화되지 않으며, 즉 가능한 최고 점수는 500임). 현재 성인 역량에 대해 제공되는 시계열은 없다. PIAAC의 사이클 2는 2021~22년에 대한 계획이며 결과는 2023년에 예상된다. 벨기에에 대한 데이터는 플랑드르로 제한되며, 영국에 대한 데이터는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로 제한된다.

지식과 역량 지표 간 상관관계

지식과 역량은 과목 전체에 걸쳐, 그리고 연령 집단 전체에 걸쳐 상관관계가 밀접하다. 15세 학생의 수학, 읽기 및 과학 수준이 높은 국가는 성인 간 문해력과 수리력도 높다(표 6.2). 상관관계는 15세의 수학, 과학 및 읽기 역량 간, 그리고 성년기의 수리력과 문해력 간에 특히 높다(0.94 이상). 가장 약한 연계(0.64)는 15세의 읽기 역량과 성인의 수리력 간이다.

표 6.2. 지식과 역량 지표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

지식과 역량 지표 간 이변량 상관 계수

	학생 역량 - 수학	학생 역량 - 읽기	학생 역량 - 과학	성인 역량 - 수리력	성인 역량 - 문해력
학생 역량 - 수학					
학생 역량 - 읽기	0.91*** (36)				
학생 역량 - 과학	0.95*** (37)	0.96*** (36)			
성인 역량 - 수리력	0.83*** (29)	0.64*** (28)	0.72*** (29)		
성인 역량 - 문해력	0.85*** (29)	0.72*** (28)	0.79*** (29)	0.96*** (29)	

주: 표는 피어슨 이변량 상관 계수를 보여준다. 괄호 안의 값은 관찰(국가) 수를 나타낸다.

*는 $p < 0.10$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는 $p < 0.05$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 ***는 $p < 0.01$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앞선 통계 의제

현재 지표 세트에서 15세 학생과 성인의 지식과 역량은 주로 문해력과 수리력 척도를 통해 측정된다. 하지만 이 장에서 사용되는 지표로 포착되지 않는 지식과 역량을 포착하는 다른 여러 방안(문제해결 능력, 논리적 추론 능력, 비인지 능력 포함)이 있다. PIAAC는 곧 있을 라운드에 포함될 평가의 적응형 문제해결 구성요소를 공개했다. OECD 사회 정서 역량에 대한 연구(Study on Social and Emotional Skills, SSES)의 목적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비인지 능력을 포착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2017년 중반에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아직은 데이터를 이 출판물에 사용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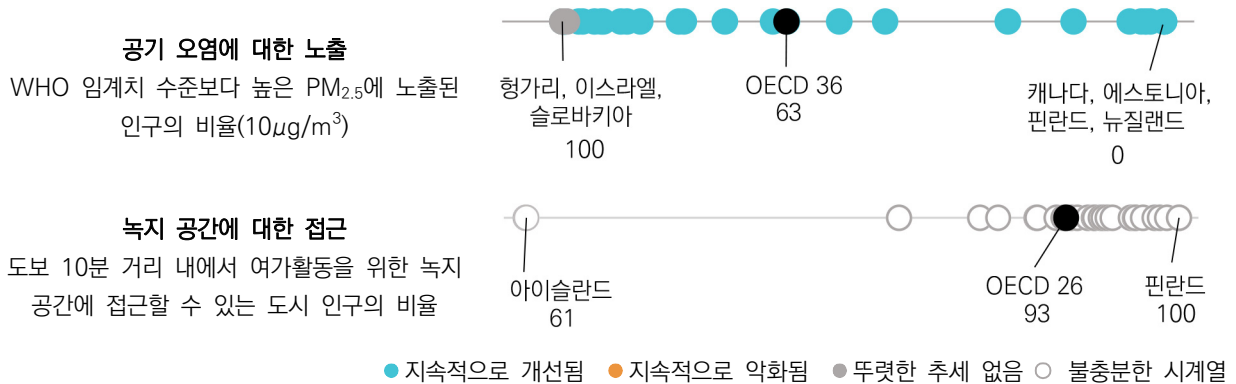
참고문헌

- Breda, T., E. Jouini and C. Napp (2018), “Societal inequalities amplify gender gaps in math”, *Science*, [3]
Vol. 359/6381, pp. 1219-1220, <http://dx.doi.org/10.1126/science.aar2307>.
- OECD (2019), *PISA 2018 Results (Volume I):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PISA, OECD [1]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5f07c754-en>.
- OECD (2019), *PISA 2018 Results (Volume II): Where All Students Can Succeed*, PISA, OECD [4]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b5fd1b8f-en>.
- OECD (2016), *Skills Matter: Further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OECD Skills Studies, [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58051-en>.

7 환경의 질

환경의 질은 환경 오염과 편의시설에 대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공기의 질과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을 기준으로 환경의 질을 설명한다. OECD 국가 사람들의 약 2/3가 위험한 수준의 초미세먼지(PM_{2.5}) 공기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2005년 이후 오염 수준이 대체로 개선되었지만 상황이 가장 위태로웠던 곳에서 항상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OECD 국가 1/4에서 모든(또는 거의 모든) 인구가 위험한 수준의 PM_{2.5}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한 국가 안에서의 차이가 국가 간 차이만큼 클 수도 있다. PM_{2.5} 노출 위험 수준이 동일한 국가의 특정 지역 안에서는 1% 미만의 인구에게만 노출되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지역에서는 100%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도시거주자의 약 7%는 근처에서 녹지 공간에 접근할 수 없다. 다른 OECD 국가의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그림 7.1. 환경의 질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7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하거나 일관된 변화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 OECD 평균과 함께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방법론에 대한 세부 항목 정보는 독자를 위한 가이드를 참조한다.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에서 도시 지역은 주민 50,000명 이상의 도시를 나타낸다. 이는 아이슬란드에 대한 데이터는 수도만 나타낸다는 뜻이다.

출처: OECD 국가와 지역의 PM_{2.5} 노출(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EXP_PM2_5 및 (Poelman, 2018^[11]), “A walk to the park? Assessing access to green areas in Europe’s cities, update using completed Copernicus urban atlas data(공원까지 걷기? 유럽 도시의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성 평가, 코페르니쿠스 도시 아틀라스 완료 데이터를 이용한 업데이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역 및 도시 정책,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gener/work/2018_01_green_urban_area.pdf.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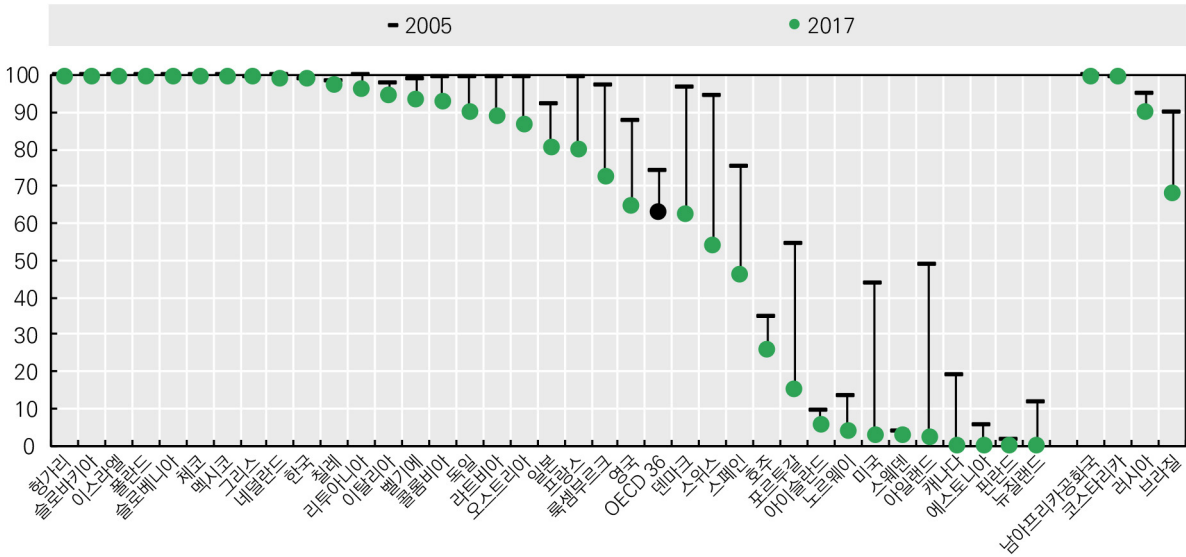
초미세먼지(PM_{2.5})는 흡입할 수 있고 호흡기 질환과 심장혈관계 질병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공기 오염물질이다. OECD 국가 전체 인구의 약 2/3(63%)가 사람의 건강에 위협한 것으로 여겨지는 WHO 임계치 수준(세계공기질지수 10 μ g) 이상의 PM_{2.5} 공기 오염 수준에 노출되어 있다(그림 7.2). 캐나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뉴질랜드에서는 1% 미만의 사람들이 임계치 이상의 평균 연간 노출을 겪고 있는 반면,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는 모든(또는 거의 모든) 인구가 위험한 수준의 공기 오염에 노출된다. OECD 파트너 국가 가운데 코스타리카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같은 상황이다.

2005~2017년에 10 μ g/m³를 초과하는 PM_{2.5}에 노출되는 인구의 비율은 OECD 국가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12% 포인트 감소했다(그림 7.2). 최대 개선은 아일랜드, 미국, 포르투갈, 스위스에서 발생했으며 비율이 40% 포인트 이상 줄었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또는 슬로베니아에서는 개선이 전혀 없었다. 모든(또는 거의 모든) 인구가 10 μ g/m³를 초과하는 PM_{2.5}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이는 코스타리카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수준의 공기 오염 심각도를 살펴보기 위해 다른 임계치 측정을 사용할 수 있다(그림 7.3). 이들은 단일 임계치보다 더 미묘한 차이의 그림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10~15 μ g/m³의 매우 높은 노출률의 일부 국가(예: 헝가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는 더 심각한 20 μ g/m³ 임계치에 노출된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다. 이에 반해, 칠레와 한국은 인구의 40% 이상이 더 심각한 임계치 수준에도 노출된다.

그림 7.2. 2005년과 비교했을 때 WHO 임계치 수준을 초과하는 PM_{2.5}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했다.

10 $\mu\text{g}/\text{m}^3$ 보다 높은 PM_{2.5}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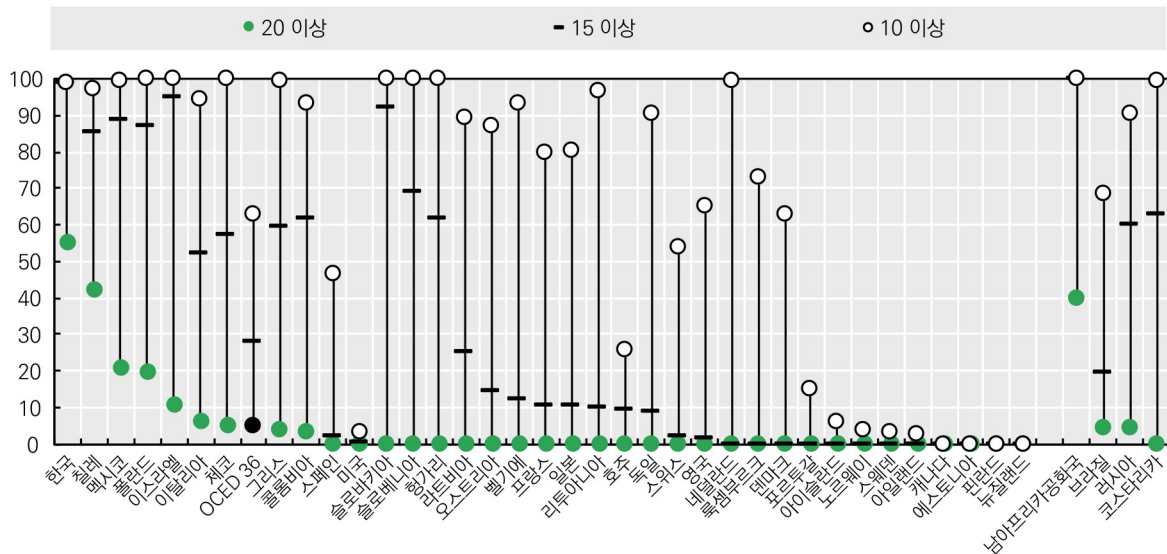
주: OECD 평균은 터키를 제외한다(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이 지표에 대해서만 2010년 대신 2005년 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의 기준점으로 사용된다. 이용 가능한 지상 감시소와 위성 관측의 이질적인 지리적 시간적 범위는 더 짧은 기간의 국소적 추세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도 추정 방법론에 대한 추가 정보는 (Shaddick 외, 2018^[2])를 참조한다.

출처: OECD 국가와 지역의 PM_{2.5} 노출(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EXP_PM2_5.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644>

그림 7.3. 일부 OECD 국가에서는 20% 이상의 사람들이 심각한 공기 오염에 노출된다.

10, 15 및 20 $\mu\text{g}/\text{m}^3$ 보다 높은 PM_{2.5}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 퍼센트, 2017



주: 국가들은 나중에 20 $\mu\text{g}/\text{m}^3$ 이상, 15 $\mu\text{g}/\text{m}^3$ 이상 및 10 $\mu\text{g}/\text{m}^3$ 이상 PM_{2.5}에 노출되는 인구 비율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다. OECD 평균은 터키를 제외한다(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출처: OECD 국가와 지역의 PM_{2.5} 노출(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EXP_PM2_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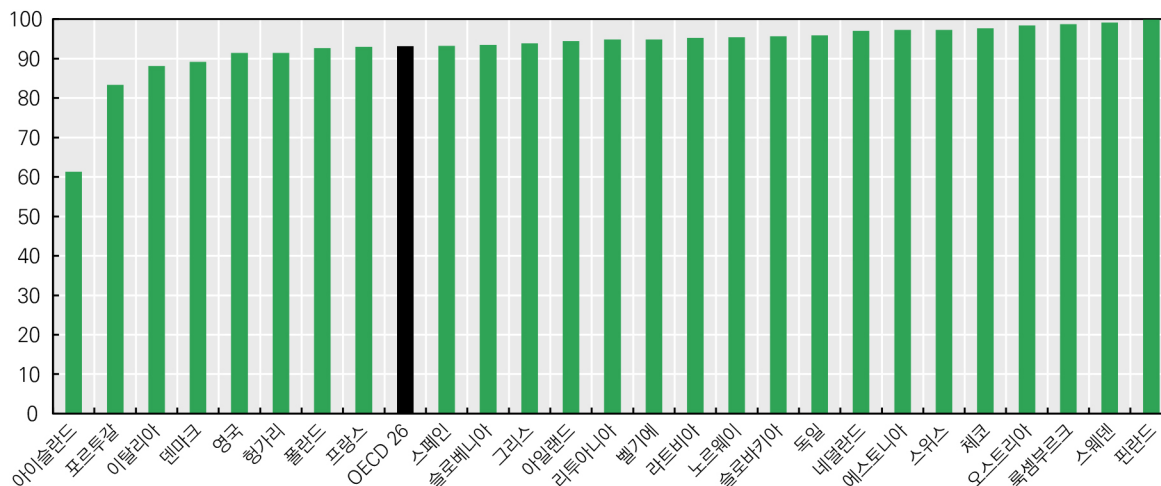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663>

도시 지역에서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

유럽 도시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93%의 사람들이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에 있는 공원, 삼림 또는 다른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 공간에 접근할 수 있다(그림 7.4). 호주, 핀란드, 룩셈부르크 및 스웨덴에서는 이 비율이 도시 인구의 98%를 넘은 반면, 아이슬란드에서는 2/3에 불과하다.

그림 7.4. 유럽에서 도시 인구의 대다수는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 공간에 접근할 수 있다.

도보 10분 거리 내에서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인구의 비율, 퍼센트, 2012



주: 녹지 공간은 0.25헥타르의 최소 작도 단위 녹지 공간을 나타낸다. 이들은 대부분 정원, 동물원, 공원, 성 공원, 그리고 도시 공원이 되어 관리되는 교외 자연 지역 같은 여가활동 용도를 위한 공간이다. 도시 주변에 있는 삼림도 포함된다. 도시 지역은 최소 50,000명의 주민이 있는 도심을 포함한 (더 큰) 도시로 정의되며, 이는 많은 녹지 공간이 이 방법론에서 적용된 여가활동 용도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는 아이슬란드에 대한 데이터는 오직 수도만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OECD 평균은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및 미국을 제외한다.

출처: (Poelman, 2018^[11]), "A walk to the park? Assessing access to green areas in Europe's cities, update using completed Copernicus urban atlas data(공원까지 걷기? 유럽 도시의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성 평가, 코페르니쿠스 도시 아틀라스 완료 데이터를 이용한 업데이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역 및 도시 정책,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gener/work/2018_01_green_urban_area.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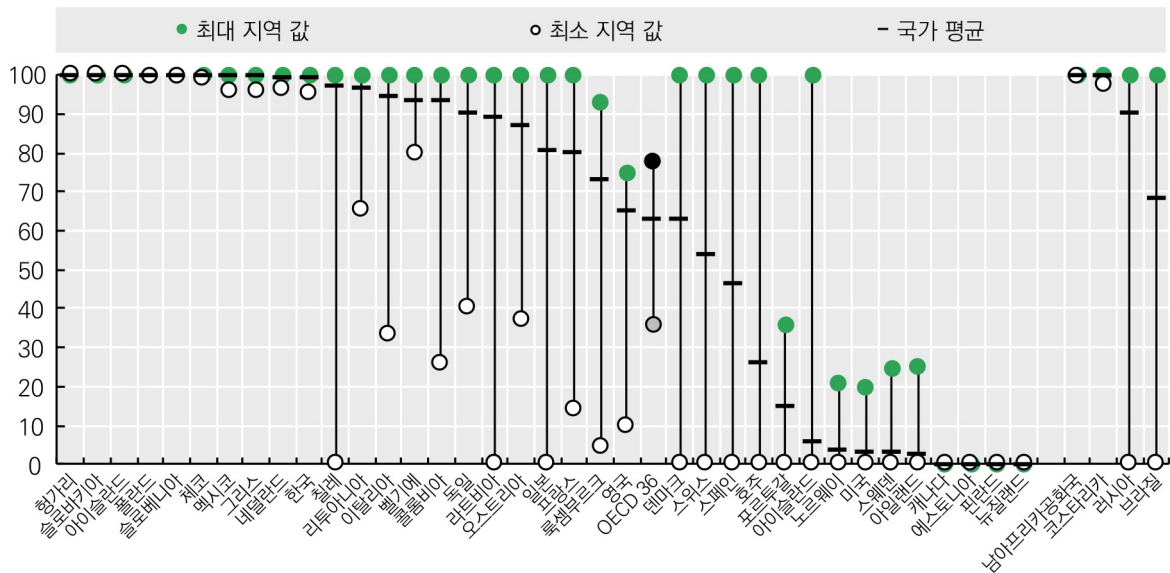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682>

환경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환경의 질과 관련해서 연령별, 교육 수준별, 남성과 여성 간 차이 같은 수평적 불평등을 측정하는 것은 여전히 까다로운 일이다. 하지만 공기 오염 노출에 대한 정보는 국가 내에서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지역(지방) 수준에서 제공된다. 예를 들어 호주, 칠레, 덴마크, 아이슬란드, 일본, 스페인 및 스위스에서 가장 덜 오염된 지역은 PM_{2.5}의 위험한 수준에 노출된 인구가 1% 미만인 반면, 가장 오염된 지역은 인구 100%가 노출되었다. OECD 파트너 국가 가운데 브라질과 러시아 연방도 이러한 경우이다(그림 7.5).

그림 7.5. 공기 오염에 대한 노출에서 지역적 차이는 국가 차이만큼 클 수 있다.

10 $\mu\text{g}/\text{m}^3$ 보다 높은 PM_{2.5}에 노출된 인구의 비율, 2017



주: OECD 평균은 터키를 제외한다(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출처: OECD 국가와 지역의 PM_{2.5} 노출(데이터베이스), http://dotstat.oecd.org/Index.aspx?DataSetCode=EXP_PM2_5.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701>

상자 7.1. 앞선 측정 및 통계 의제

환경의 질은 유해 물질의 존재와 밀도에 관련된 공기, 물, 토양의 질을 통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 환경의 질은 또한 생활의 선택(예: 생활할 장소)에 영향을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편의시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Balestra와 Dottori. Davide, 2012^[3]).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환경 서비스와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예를 들어,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은 심리적 안정, 스트레스 해소, 향상된 신체 활동, 공기 오염, 과도한 열과 소음에 대한 노출 완화, 개선된 사회 자본 및 친환경 행동을 포함한 수많은 건강 및 웰빙 이점과 관련되어 있다(WHO 유럽지사(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6^[4]) (Engemann 외, 2019^[5]). 이 장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표 7.1)는 제14장 참고문헌의 더 폭넓은 자연 자본 지표로 보완한다.

표 7.1. 이 장에서 고려한 환경의 질 지표

	평균	수직적 불평등(분포의 상층과 하층 간 격차)	수평적 불평등(성별, 연령 및 교육 수준별)	박탈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 (WHO 임계치 이상)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	해당 없음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의 격차(오직 매크로 지역별)	해당 없음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은 직경 2.5미크론 미만 초미세먼지(PM_{2.5}라고 함)의 연간 농도가 WHO 공기 품질 가이드라인(Air Quality Guideline) 값인 세계공기터당 10 μg (WHO, 2006^[6])을 초과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초미세먼지는 흡입되어 아동과 노인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호흡기 질환과 심장혈관계 질병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공기 오염물질이다. 여기에 표시된 PM_{2.5} 농도 추정치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2017 프로젝트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추정치는 위성 관측, 화학 수송 모델 및 지상 감시소 네트워크의 측정을 통합하여 얻는다. 농도 추정치는 EU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 글로벌 인간 정주(Global Human Settlement) 프로젝트의 그리드형 인구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인구 가중된다. 이들은 시가지 구역의 밀도와 분포에 따라 NASA 사회경제 데이터 응용 센터(Socioeconomic Data and Applications Center) 그리드형 세계인구분포(Gridded Population of the World) 버전 4의 인구조사 유래 추정치를 배포하여 만들어낸다. 기본 경계 구조는 UN FAO가 개발한 글로벌 행정 단위 계층(Global Administrative Unit Layer),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OECD 영토 분류(Territorial Classification)에서 가져왔다. 이러한 노출 추정치의 정확도는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감시소 네트워크가 조밀한 지역(가장 발전한 국가 등)에서 우수한 반면, 감시소가 거의 없는 지역과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아프리카, 중동, 남부 아시아 등)에서 특히 열악하다(Shaddick 외, 2018^[2]). 지배적 토지 피복의 반사성이 심한 지역에서는 위성 기반 에어로졸 광학 깊이 측정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역, 특히 눈으로 덮인 지역, 소형 섬 및 해안 지역의 경우, 그 지역에 대한 PM_{2.5} 농도 추정치가 없다(Mackie, Hašičič 및 Cárdenas Rodríguez, 2016^[7]).

도시 지역의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은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에서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 공간에 접근할 수 없는 도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도시 지역은 최소 50,000명의 주민이 있는 도심을 포함(더 큰) 도시로 정의된다(Dijkstra 및 Poelman, 2012^[8]). 녹지 공간은 0.25헥타르의 최소 작도 단위 녹지 공간을 나타낸다. 이들은 대부분 정원, 동물원, 공원, 성 공원, 그리고 도시 공원이 되어 관리되는 교외 자연 지역 같은 여가활동 용도를 위한 공간이다. 도시 주변에 있는 삼림도 포함된다. 기본 방법은 거주하는 Urban Atlas 다각형 주위의 편하게 걸어갈 만한

거리(도보로 약 10분(평균 속도 시간당 5km))에 있는 지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데이터는 유럽(코페르니쿠스) 도시 아틀라스 다각형(즉, 위성 데이터)을 이용해서 폴만(폴만, 2018^[1], 폴만, 2016^[9])이 계산했다.

현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녹지 공간의 정의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WHO 유럽지사는 EU에서 가장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도시 녹지 공간 데이터의 국제적 원천으로서 유럽 Urban Atlas에 기반한 녹지 공간 접근성의 근접성 기반 지표를 권장한다(WHO 유럽지사, 2016^[4]). 이 지표는 현재 예정된 정기적 업데이트가 없다.

환경의 질 지표 간 상관관계

공기 오염과 녹지 환경 접근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26개 OECD 국가는 이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표 7.2). 이는 이 장에서 설명한 각 지표가 환경의 질의 서로 다른 단면을 포착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표 7.2. 공기 오염과 녹지 환경에 대한 접근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환경의 질 지표 간 이변량 상관 계수

	공기 오염(PM _{2.5})	도시 지역에서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
공기 오염(PM _{2.5})		
도시 지역에서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 공간에 대한 접근	0.22(27)	

주: 표는 피어슨 이변량 상관 계수를 보여준다. 괄호 안의 값은 관찰(국가) 수를 나타낸다.
 *는 p<0.10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는 p<0.05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 ***는 p<0.01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앞선 통계 의제

환경의 질에 대한 이상적 지표 세트는 사람의 건강에 대한 환경 오염의 영향, 환경 서비스와 편의시설에 대한 사람의 접근, 그리고 자신의 환경 조건 및 편의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과 평가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제적으로 비교할 만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How's Life?* 측정 세트는 다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데이터를 정의하고 개발하여 더욱 강화할 수 있다.

- 사람들의 환경 서비스와 편의시설 접근에 대한 지표 - 특히 수질과 여가활동을 위한 녹지 공간(후자는 현재 유럽 OECD 국가의 도심지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더 나은 데이터가 제공될 때까지 “플레이스홀더”로 간주할 수 있다).
- 자신의 환경 조건 및 편의시설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과 평가를 반영하는 지표. 환경의 질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환경의 건강함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이 가치있게 생각한다(Balestra 및 Dottori, Davide, 2012_[3]). 환경적 편의시설(및 혐오시설) 개념은 사람들이 생활할 장소를 선택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때에도 영향을 준다(Stiglitz, Sen 및 Fitoussi, 2009_[10]).
- 지역과 다른 공간적 불평등을 넘어서는 수평적 불평등(예: 성별, 연령 및 교육 수준별). 증거는 현재 고르지 못하다. 2018년, OECD 환경국(Environment Directorate)은 국가 간 통일된 매트릭스를 사용하고 이 방향의 첫 단계로 간주할 수 있는 사회경제학적 상태별로 집계된 환경 위험 노출에 대한 포괄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웰빙의 지형도(The Geography of Well-Being)”를 개시했다.
- 환경의 질과 개념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환경 재난으로 인한 피해(Stiglitz, Sen 및 Fitoussi, 2009_[10]).
- 일련의 환경 위험(공기 오염, 납, 주거 라돈, 안전하지 않은 물, 위생 시설, 손씻기) 노출에 따른 사망과 질병률에 대한 정보(즉, 장애보정생존연수(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미래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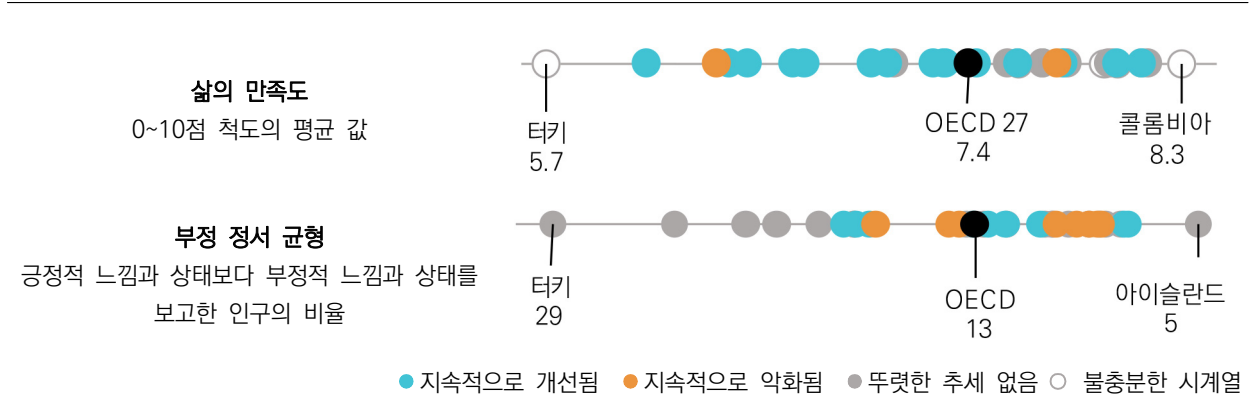
- Balestra, C. and Dottori, Davide (2012), “Aging society, health and the environment”,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 25/3. [3]
- Dijkstra, L. and H. Poelman (2012), “Cities in Europe, the new OECD-EC definition”, *Regional and Urban Policy*,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gener/focus/2012_01_city.pdf (accessed on 9 September 2019). [8]
- Engemann, K. et al. (2019), “Residential green space in childhood is associated with lower risk of psychiatric disorders from adolescence into adulthood”,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ol. 116/11, pp. 5188-5193, <http://dx.doi.org/10.1073/pnas.1807504116>. [5]
- Mackie, A., I. Hašičić and M. Cárdenas Rodríguez (2016), “Population Exposure to Fine Particles: Methodology and Results for OECD and G20 Countries”, *OECD Green Growth Papers*, No. 2016/02, OECD, Paris, <http://oecd.org/greengrowth> (accessed on 18 July 2019). [7]

- Poelman, H. (2018), “A walk to the park? Assessing access to green areas in Europe’s cities, update using completed Copernicus urban atlas data”, No. 01/2018,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and urban policy,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gener/work/2018_01_green_urban_area.pdf (accessed on 18 July 2019). [1]
- Poelman, H. (2016), “A walk to the park? Assessing access to green areas in Europe’s cities”, No. 01/2016, European Commission, Regional and Urban Policy,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sources/docgener/work/2016_03_green_urban_area.pdf (accessed on 18 July 2019). [9]
- Shaddick, G. et al. (2018), “Data Integration for the Assessment of Population Exposure to Ambient Air Pollution for Global Burden of Disease Assessment”,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Vol. 52/16, pp. 9069-9078, <http://dx.doi.org/10.1021/acs.est.8b02864>. [2]
- Stiglitz, J., A. Sen and J. Fitoussi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http://stiglitz-sen-fitoussi.fr> (accessed on 18 July 2019). [10]
- WHO (2006), *WHO Air quality guidelines for particulate matter, ozone, nitrogen dioxide and sulfur dioxide*, https://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69477/WHO_SDE_PHE_OEH_06.02_eng.pdf?sequence=1 (accessed on 18 July 2019). [6]
-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6), *Urban green spaces and health*, http://euro.who.int/data/assets/pdf_file/0005/321971/Urban-green-spaces-and-health-review-evidence.pdf?ua=1 (accessed on 18 July 2019). [4]

8 주관적 웰빙

주관적 웰빙은 양호한 정신 상태,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평균 삶의 만족도(0~10의 척도로 측정)는 OECD 국가 전체에서 6 미만부터 8 이상까지의 범위이다. 2013~2018년 사이에 평균 삶의 만족도 수준은 7.2에서 7.4로 상승했다(27개 OECD 국가의 데이터 기반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율의 인구(평균 약 7%)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8명 중 1명 정도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긍정적 느낌보다 부정적 느낌을 더 많이 경험한다.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는 남성과 여성이 매우 비슷하지만 OECD 국가 중 절반 정도는 긍정적 느낌보다 부정적 느낌을 더 느끼는 여성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더 높다. 주관적 웰빙에는 연령 및 교육 수준 관련 불평등이 있으며 불평등이 더 높은 국가들은 또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그림 8.1. 주관적 웰빙 스냅샷: 2010년 이후 현재 수준과 변화의 방향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하거나 일관된 변화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 OECD 평균과 함께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방법론에 대한 세부 항목 정보는 독자를 위한 가이드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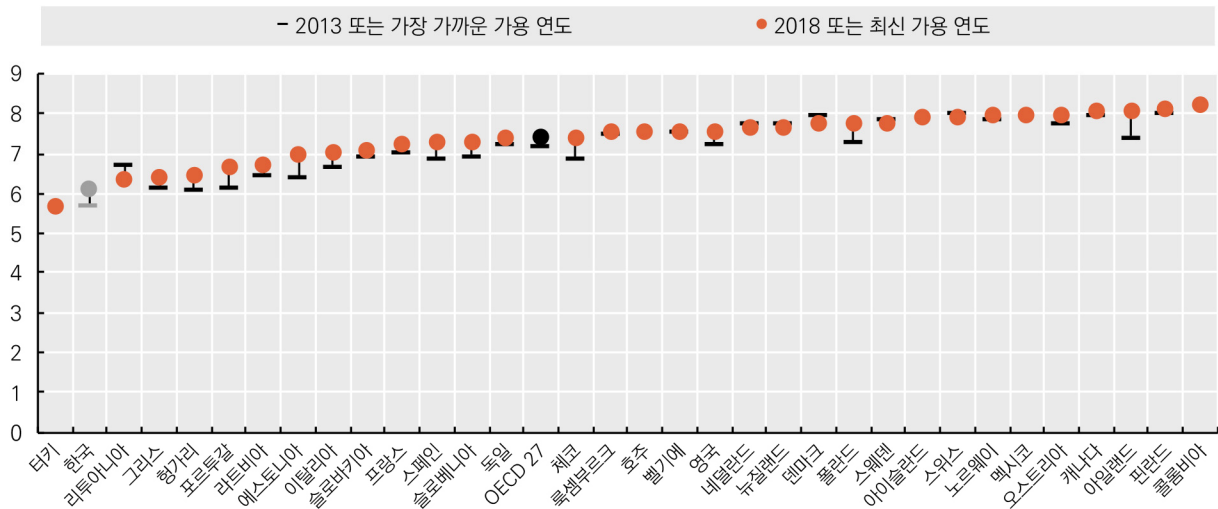
출처: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호주 종합 사회 조사, 캐나다 지역건강조사, 콜롬비아의 삶의 질 전국조사, 한국 사회통합실태조사, 멕시코 가계지출 전국조사(사회경제적 조건 모듈), 뉴질랜드 종합 사회 조사 및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를 기반으로 하는 OECD와 통계청 계산.

삶의 만족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0(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10(완전히 만족함)의 척도로 평가할 것을 요청하면, OECD 국가 전체에서 평균 평가의 범위는 터키, 한국, 리투아니아, 그리스의 6.5 미만부터 캐나다, 아일랜드, 핀란드, 콜롬비아의 8 이상까지 있다(그림 8.2). 2013년 이후, 삶의 만족도는 가용 데이터가 있는 27개 OECD 국가 중 대부분에서 안정된 상태로 남아있거나 증가했으며 OECD 평균은 7.2에서 7.4로 상승했다. 10개 국가(아일랜드,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체코, 한국,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슬로베니아)는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5% 이상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 삶의 만족도의 최대 하락은 리투아니아(-5%)와 덴마크(-3%)에서 발생했다.

그림 8.2. OECD 평균 삶의 만족도는 2013년 이후 약간 상승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 값은 0 “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10 “완전히 만족함”까지의 척도로 기록된다.



주: 최신 가용 연도는 호주와 멕시코는 2014년, 아이슬란드와 터키는 2013년을 참조한다. 뉴질랜드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4년을 참조한다.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칠레, 이스라엘, 일본, 미국을 제외하며, 방법론적 차이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다. 호주,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멕시코, 터키는 오직 한 번의 관찰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 데이터는 한국의 19~69세 인구, 멕시코의 18세 이상 인구,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의 15세 이상 인구, 그리고 다른 모든 경우에는 16세 이상 인구를 나타낸다. 한국에 대한 데이터(회색으로 표시)는 고려한 연령 범위와 사용된 응답 형식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제한적이다(상자 8.1 참조). 아일랜드와 영국은 2018 데이터를 임시로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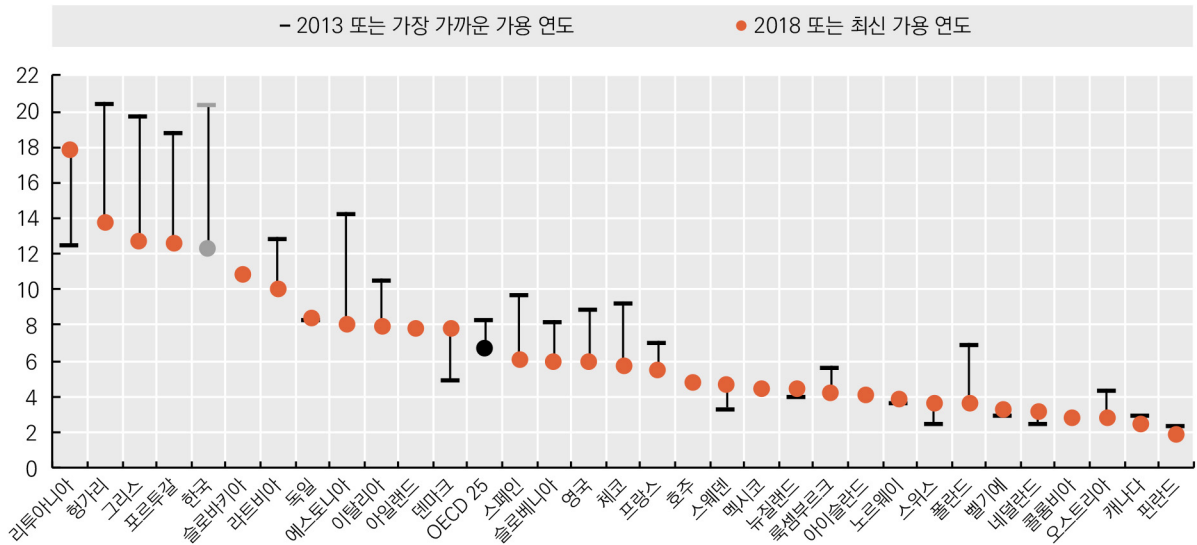
출처: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호주 종합 사회 조사, 캐나다 지역건강조사, 콜롬비아의 삶의 질 전국조사, 한국 사회통합실태조사, 멕시코 가계소득지출 전국조사(사회경제적 조건 모듈) 및 뉴질랜드 종합 사회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OECD와 통계청 계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720>

평균적으로 OECD 국가 인구의 6.7%가 매우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10점 중 4점 이하)를 보고한다(그림 8.3). 이 비율의 범위는 리투아니아, 헝가리, 그리스, 포르투갈의 12.5% 이상부터 핀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콜롬비아의 3% 미만까지 있다. 매우 낮은 삶의 만족도 발생 정도는 2013년 이후 가용 데이터가 있는 25개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8.3%에서 6.7%로 1.6% 포인트 감소했다. 대체로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OECD 국가는 2013년에 박탈 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역으로, 2013년에 낮은 박탈률로 시작했고 평균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은 소수의 국가(스위스, 스웨덴, 덴마크)는 박탈률이 1%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리투아니아는 2013년에 박탈률이 높았고 2018년에는 더 올라갔다.

그림 8.3.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매우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고하는 사람의 비율이 2013년 이후 1.6% 포인트 감소했다.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4점 이하로 평가하는 인구의 비율(0~10점 척도), 퍼센트



주: 호주와 멕시코의 최신 가용 연도는 2014년이고,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슬로바키아는 2013년이다. 뉴질랜드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4년이다.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칠레, 이스라엘, 일본, 터키, 미국을 제외하며, 데이터 수집의 방법론적 차이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다. 호주, 콜롬비아, 멕시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는 오직 한번의 관찰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 데이터는 한국의 19~69세 인구, 멕시코의 18세 이상 인구,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의 15세 이상 인구, 그리고 다른 모든 경우에는 16세 이상 인구를 나타낸다. 한국에 대한 데이터(회색으로 표시)는 고려한 연령 범위와 사용된 응답 형식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제한적이다(상자 8.1 참조).

출처: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호주 종합 사회조사, 캐나다 지역건강조사, 콜롬비아의 삶의 질 전국조사, 한국 사회통합실태조사, 멕시코 가계소득지출 전국조사(사회경제적 조건 모듈) 및 뉴질랜드 종합 사회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OECD와 통계청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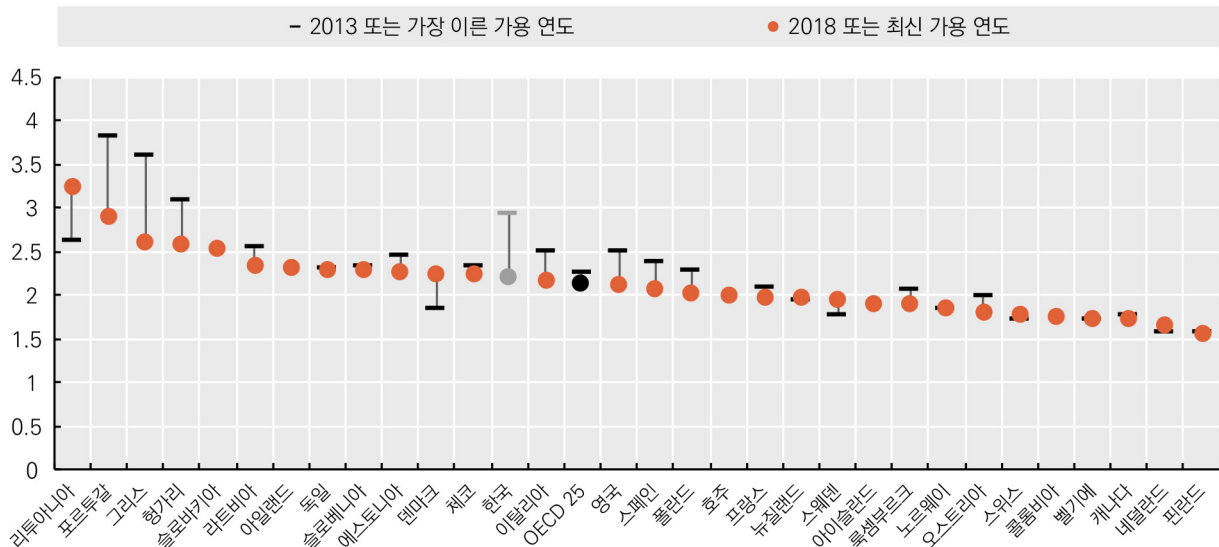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739>

삶의 만족도의 전반적 분산(즉, “수직적 불평등”)은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상당히 다양하다.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분포에서 상위 20%의 사람들에게 대한 평균 점수가 하위 20%의 사람들에게 대한 평균 점수보다 2.5배 이상 높다(그림 8.4). 그에 반해, 가장 평등한 분포는 상위 20%의 평균 점수가 하위 20%의 평균 점수보다 약 1.5~1.8% 더 높은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벨기에, 콜롬비아,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 관찰된다.

박탈에 대한 그림과 일치해서(그림 8.3), 전반적 데이터는 평균 수준의 삶의 만족도가 더 나은 OECD 국가는 인구 집단 간 격차가 더 좁은 경향이 있는 반면 낮은 평균 점수의 국가는 더 큰 불평등을 겪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몇몇 OECD 국가에서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는 2013년 이후 좁아졌다. 불평등의 가장 큰 감소는 그리스, 포르투갈, 한국, 헝가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투아니아, 덴마크, 스웨덴에서 상위와 하위 간 격차는 2013년 이후 넓어졌으며, 모든 경우에서 이는 상위 20% 간 증가가 아닌 하위 20%에 대한 평균 점수의 하락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림 8.4. 가장 불평등한 OECD 국가에서 상위 20% 사람들의 평균 삶의 만족도가 하위 20% 사람들보다 2.5배 이상 높다.

삶의 만족도 S80/S20 비율



주: S80/S20 비율은 분산도 또는 “수직적 불평등”이며, 삶의 만족도 전체 분포의 상위 20%에 대한 평균 점수를 하위 20%에 대한 평균 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호주와 멕시코의 최신 가용 연도는 2014년이고,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슬로바키아는 2013년이다. 뉴질랜드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4년이다.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칠레, 이스라엘, 일본, 터키, 미국을 제외하며, 데이터 수집의 방법론적 차이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다. 호주, 콜롬비아, 멕시코,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는 오직 한번의 관찰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 데이터는 한국의 19~69세 인구, 멕시코의 18세 이상 인구,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의 15세 이상 인구, 그리고 다른 모든 경우에는 16세 이상 인구를 나타낸다. 한국에 대한 데이터(회색으로 표시)는 고려한 연령 범위와 사용된 응답 형식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제한적이다(상자 8.1 참조).

출처: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호주 종합 사회 조사, 캐나다 지역건강조사, 콜롬비아의 삶의 질 전국조사, 한국 사회통합실태조사, 멕시코 가계소득지출 전국조사(사회경제적 조건 모듈) 및 뉴질랜드 종합 사회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OECD와 통계청 계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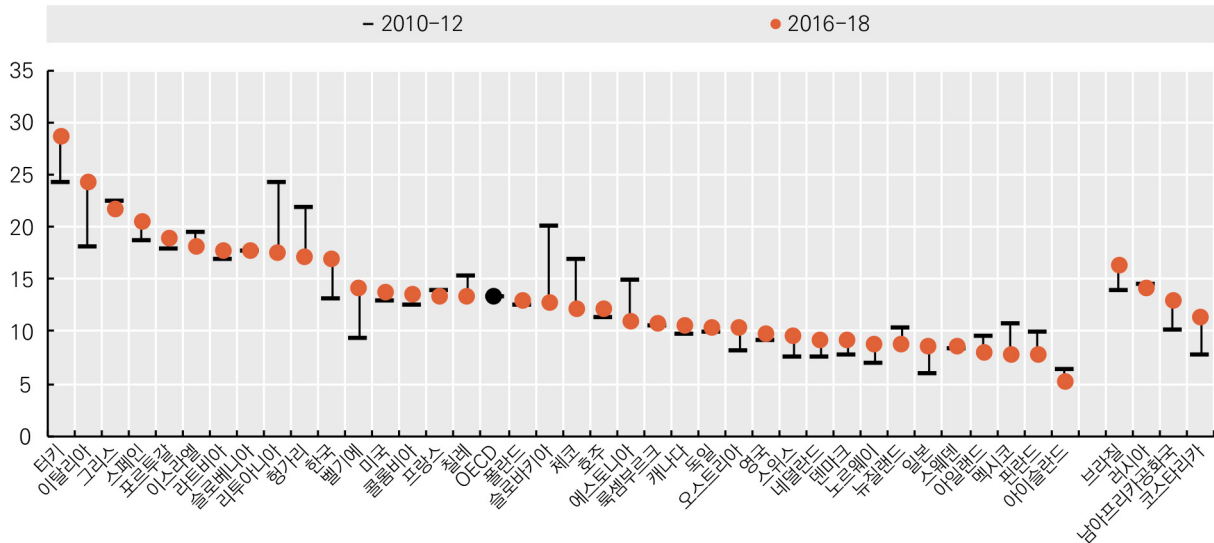
부정 정서 균형

OECD에서 평균적으로 13%를 약간 넘는 사람들이 긍정적 감정(즐거움, 많이 웃거나 미소를 짓는 것, 잘 쉬는 것)보다 부정적인 감정(분노, 슬픔, 걱정)을 느낀다. 여기에서는 이를 부정 정서 균형으로 설명한다. 이 비율의 범위는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의 20% 이상부터 아일랜드, 멕시코, 핀란드의 8% 이하, 그리고 불과 5%인 아이슬란드까지 있다(그림 8.5).

2010년 이후 부정 정서 균형은 일부 국가에서 악화되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개선되었다. 부정 정서 균형의 발생 정도는 증가했으며(상황의 악화 암시) 주로 이탈리아(최대 6% 포인트), 벨기에(약 5% 포인트), 터키, 한국, 코스타리카(모두 3.5% 이상)에서 증가했다. 그에 반해,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체코 및 에스토니아에서는 부정 정서 균형의 비율이 적어도 4% 포인트 줄었다(상황의 개선 암시).

그림 8.5. 약 13%의 사람들이 긍정적 감정보다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다.

전날에 부정 정서 균형을 경험한 인구의 비율



주: 부정적 상태는, 분노, 슬픔 또는 걱정을 경험하는 것을 나타내며, 긍정적 상태는 어제 잘 쉬었고, 즐거움을 느꼈거나 많이 웃거나 미소를 지었음을 나타낸다. 부정 정서 균형은 응답자가 전날에 긍정적 느낌이나 상태보다는 부정적 느낌이나 상태였음을 보고할 때 기록된다.

출처: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777>

주관적 웰빙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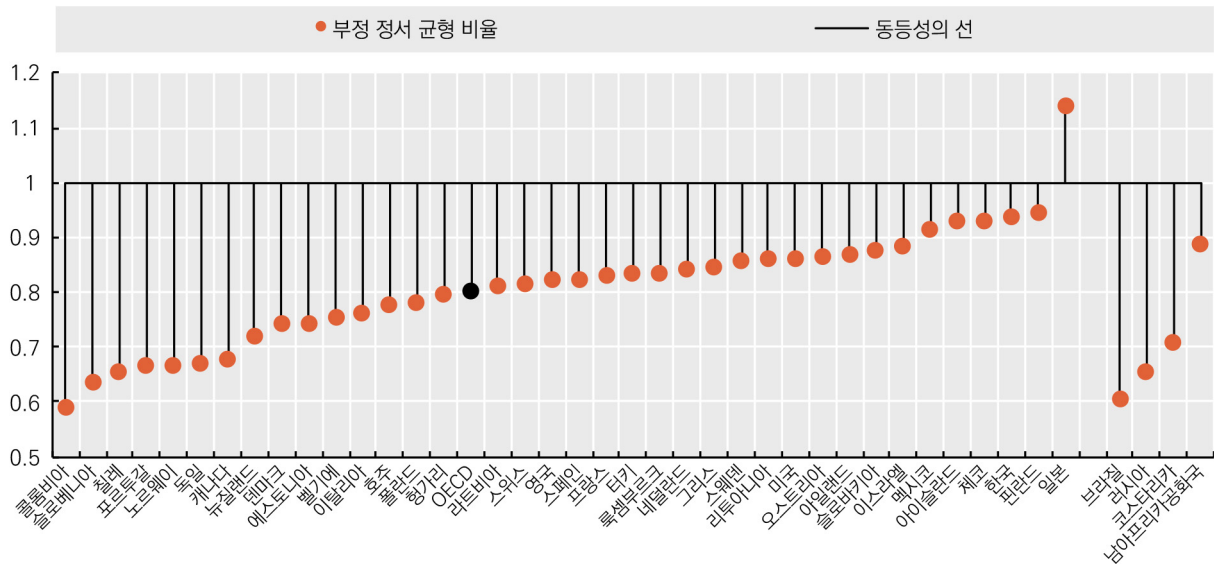
삶의 만족도에서 성별 격차는 대수롭지 않은 정도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의 부정 정서 균형을 경험한다.

가용 데이터가 있는 32개 OECD 국가는 삶의 만족도에서 성별 격차가 대수롭지 않다. 2018년, OECD 평균 삶의 만족도 점수는 남성과 여성 둘 다 7.4였다(0~10 척도로 측정). 성별 격차는 에스토니아와 한국(여성들이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남성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와 포르투갈(남성들이 자신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여성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에서도 불과 0.2점만 초과했다.

부정 정서 균형에 관한 한 남성에게 유리한 더 명확한 성별 격차가 있다(그림 8.6).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15%의 여성이 긍정적 느낌보다 부정적 느낌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반면, 남성은 12%만이 그렇게 보고했으며 이는 약 0.80의 성별비를 암시한다. 부정 정서 균형의 비율은 OECD 국가의 거의 절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어도 3% 포인트 더 높다. 일본은 남성(7.9%)이 여성(6.9%)보다 더 높은 비율의 부정 정서 균형을 경험하는 유일한 국가이지만 이 경우 양쪽 성 모두 OECD 국가 평균(13%)보다 훨씬 낮다.

그림 8.6.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의 부정 정서 균형을 경험한다.

부정 정서 균형에 대한 성별 비율, 2010~18 종합 데이터



주: 성비는 남성에 대한 평균 값을 여성에 대한 평균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1 위의 값은 항상 여성에게 비교적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내며 1 아래의 값은 항상 남성에게 비교적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낸다.

출처: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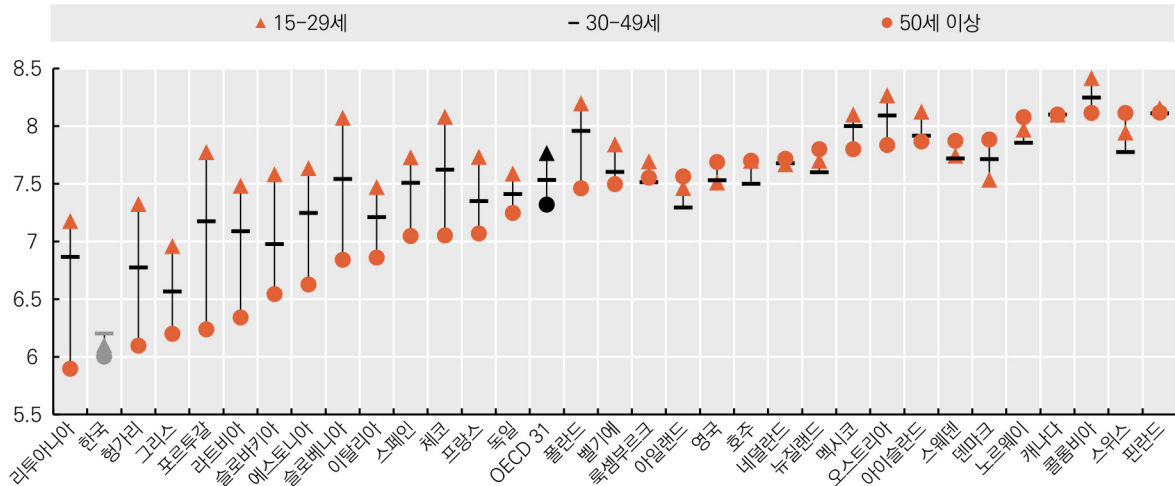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796>

30세 미만의 사람은 더 나이 든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더 높고 정서 균형이 더 좋다.

더 젊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나이 든 사람보다 높은 삶의 만족도(그림 8.7)와 낮은 부정 정서 균형(그림 8.8)을 보고한다. OECD 국가 가운데 평균 삶의 만족도는 15~29세의 경우 7.8, 30~49세는 7.5, 50세 이상은 7.3이다. 이들 세 개의 연령 집단에 대한 부정 정서 균형의 우세도는 각각 9.2%, 14.3% 및 15.4%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균 패턴의 예외가 널리 퍼져 있다. 북유럽, 뉴질랜드, 호주 및 캐나다에서는 삶의 만족도와 부정 정서 균형의 비율은 모든 연령 집단에서 상당히 양호하고 소수의 연령 관련 차이가 존재하며, 그런 경우 흔히 50대 이상에게 유리하다. 더 나이 든 사람들은 남부 및 동부 유럽(예: 리투아니아, 헝가리, 그리스, 포르투갈, 라트비아)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 OECD 국가에서도 비교적 힘들게 살아간다. 다수의 더 부유한 OECD 국가에서 중년층은 부정 정서 균형의 우세도가 가장 높다.

그림 8.7. 연령 관련 불평등이 낮은 국가는 전반적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높다.

0~10점 척도의 삶의 만족도 평균 값, 연령별, 2018 또는 최신 가용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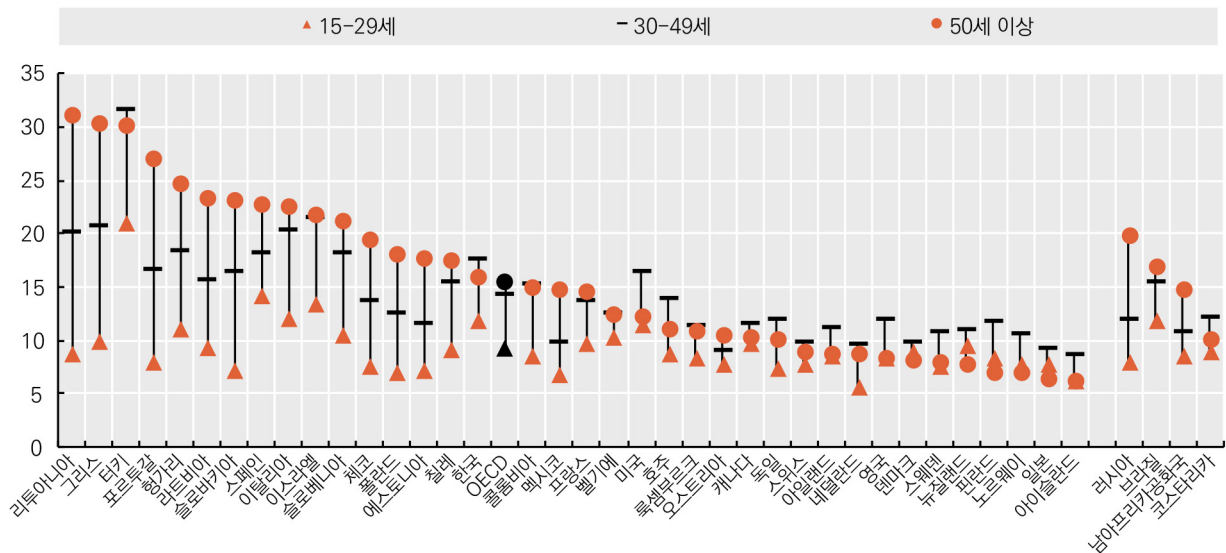
주: 호주와 멕시코의 최신 가용 연도는 2014년이고,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슬로바키아는 2013년이다.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칠레, 이스라엘, 일본, 터키, 미국을 제외하며, 방법론적 차이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다. 데이터는 한국의 19~69세 인구, 멕시코의 18세 이상 인구,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의 15세 이상 인구, 그리고 다른 모든 경우에는 16세 이상 인구를 나타낸다. 한국에 대한 데이터(회색으로 표시)는 고려한 연령 범위와 사용된 응답 형식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제한적이다(상자 8.1 참조).

출처: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호주 종합 사회 조사, 캐나다 지역건강조사, 콜롬비아의 삶의 질 전국조사, 한국 사회통합실태조사, 멕시코 가계소득지출 전국 조사(사회경제적 조건 모듈) 및 뉴질랜드 종합 사회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OECD와 통계청 계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815>

그림 8.8. 북부 유럽에서 부정 정서 균형은 30세 후 악화되지만 50세 후 다시 회복된다.

어제 부정 정서 균형을 경험한 인구의 비율, 연령별, 2010~18 종합 데이터



출처: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OECD 계산,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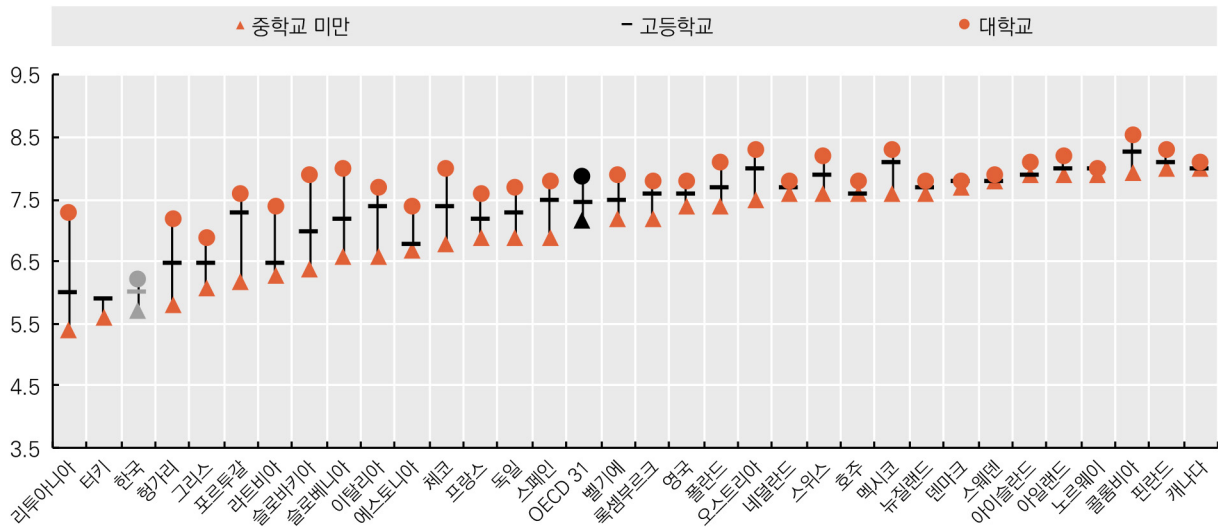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834>

교육 수준 관련 격차는 주관적 웰빙이 전반적으로 낮은 국가에서 더 크다.

더 높은 교육 수준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삶의 만족도(그림 8.9) 및 더 낮은 부정 정서 균형의 우세도(그림 8.10)와 관련이 있다. OECD 평균 삶의 만족도는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7.1%, 고등학교 교육을 완료한 사람은 7.5%,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7.8%이다. 같은 교육 범주 전체에 걸친 부정 정서 균형의 우세도는 각각 17.6%, 13.3% 및 10.3%이다. 하지만 교육 수준 관련 불평등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척도의 전체 점수가 낮은 국가에서 더 크다. 대체로 주관적 웰빙에서 좋은 점수를 보이는 국가들 가운데 교육 수준별 차이는 훨씬 더 작은 경향이 있다.

그림 8.9. 평균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OECD 국가는 교육 수준 관련 격차가 더 작다.

0~10점 척도의 평균 값,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이수별, 2018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주: 최신 가용 연도는 호주와 멕시코는 2014년, 아이슬란드와 터키는 2013년이다. OECD 평균은 대학 교육에 대한 데이터 누락 때문에 터키를 제외하며, 방법론적 차이 때문에 한국을 제외하고, 칠레, 이스라엘, 일본, 미국은 가용 데이터 부족 때문에 제외한다. 아일랜드와 영국에 대한 데이터는 잠정적이다.

출처: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호주 종합 사회조사, 캐나다 지역건강조사, 콜롬비아의 삶의 질 전국조사, 한국 사회통합실태조사, 멕시코 가계소득지출 전국조사(사회경제적 조건 모듈) 및 뉴질랜드 종합 사회 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OECD와 통계청 계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853>

삶의 만족도는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0~10점 척도)와 관련된 조사 질문을 통해 측정한다. OECD 주관적 웰빙 측정에 대한 지침(OECD, 2013^[11])과 일치해서, OECD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질문 형식은 “대체로, 요즘 전체적으로 볼 때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이고, 0(“전혀 만족하지 않음”)과 10(“완전히 만족함”)을 기준으로 0~10의 척도로 응답한다.

통일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적 차이는 OECD 국가 전체에 걸친 삶의 만족도 데이터의 비교 가능성을 계속 저해한다. 여기에는 질문 표현의 사소한 차이도 포함되는데, 사용된 기준 척도(예: 캐나다에서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뉴질랜드에서는 “완전히 불만족”과 “완전히 만족”) 또는 보다 본질적 차이(예: 척도 중간 지점 5의 식별, 한국에서는 “중립”)가 있다. 표본으로 뽑은 인구의 차이 또한 비교 가능성을 제한한다.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데이터는 16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며,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여기에서는 데이터가 15세 이상 인구를 참조)와 멕시코(18세 이상 인구)는 약간의 변형이 있다. 한국에서는 상당히 더 좁은 연령 범위(19~69세)를 고려한다.

부정 정서 균형은 응답자가 전날 많이 느꼈던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 “예” 또는 “아니요”로 나타내는 일련의 항목을 통해 측정한다. 여기에서 고려된 부정적 항목은 분노, 슬픔, 걱정이며, 긍정 정서 항목은 즐거움, 잘 쉬었다는 느낌, 웃음 또는 미소 등이다. 부정 정서 균형은 응답자가 전날의 긍정적 느낌이나 상태보다는 부정적 느낌이나 상태를 보고하는 것을 참조한다.

국가 평균의 경우, 데이터는 추정치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3년의 기간(예: 2016~18)에 대한 모든 가용 연도에 대해 종합한다. 불평등 보고의 경우 더 긴 기간(2010~18)의 데이터를 종합한다. 데이터는 매년 국가당 약 1,000명을 표본으로 하는 *갤럽 세계 조사*에서 구한다. 표본은 15세 이상 인구(시골 지역 포함)를 국가적으로 대표하도록 설계된 사전적인 것이며, 표본 데이터는 갤럽이 제공한 가중치를 이용해서 가중한다.

주관적 웰빙 지표 간 상관관계

삶의 만족도와 부정 정서 균형의 우세도 간에는 강력한 부정적 상관관계(-0.79)가 있다. 두 척도에 대한 가용 데이터가 있는 33개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부정 정서 균형이 낮은 국가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면 부정 정서 균형도 낮다(표 8.2).

표 8.2. 삶의 만족도와 부정 정서 균형은 관련이 있지만 다르다.

주관적 웰빙 지표 간 이변량 상관 계수

	삶의 만족도	부정 정서 균형
삶의 만족도		
부정 정서 균형	-0.79*** (33)	

주: 표는 피어슨 이변량 상관 계수를 보여준다. 괄호 안의 값은 관찰(국가) 수를 나타낸다.

*는 .10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는 p<0.05 수준, ***는 p<0.01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앞선 통계 의제

OECD 통계청의 다수는 이제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삶의 만족도 척도를 수집하고 있지만 일부 방법론적 차이는 계속되고 있다(위 참조). 일본과 미국에서는 이용 가능한 공식 삶의 만족도 데이터가 없으며, 칠레와 이스라엘은 삶의 만족도 데이터를 통계청이 수집하고 있지만 다른 OECD 국가에서 사용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응답 척도 형식을 사용한다.

통일을 향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의 삶의 만족도 데이터 수집은 드문 경향이 있고(예: EU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 데이터 수집 간 5년 경과) 긴 시계열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여전히 부족하다.

이 장에서 보고된 부정 정서 균형 데이터는 OECD 국가 전체 통계청의 통일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벌 세계 조사*에서 구한 것이다(Stiglitz, Fitoussi 및 Durand, 2018^[2]). 세계 조사는 모든 OECD 국가를 망라하는 표준화된 측정 접근법을 제안하고, 2005/6년 이후 대다수 OECD 국가에서 매년 수집되는 일관된 시계열을 제공한다. 소급적 회상 편향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세계 조사 척도는 장기간이 아닌 “어제”의 사람들의 느낌과 정서 상태를 기반으로 한다. 매우 큰 표본 크기와 함께 채택했을 때 “어제”의 프레이밍은 일반적인 하루의 경험을 확립하는 데 충분해야 하지만, 추정치는 인구 집단 전체에 걸쳐 더 작은 표본 또는 분류에 대해 더 변동성이 클 수 있다. 이 장에 표시된 데이터는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몇 년의 조사를 종합한 것이다. (몇몇 유럽 국가에서 채택한) 조사 질문의 대안 프레이밍은 몇 주 동안의 느낌과 상태에 대해 응답자에게 질문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비일상적인 사건의 영향은 줄었지만 소급적 회상 편향의 위험과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 경향의 역할은 증가하였다. 생활시간조사(Time Use Survey)를 통해 수집한 정서 경험에 대한 데이터는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만(OECD, 2013^[1]) 현재 극소수의 OECD 국가에서만 제공되며(예: 캐나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폴란드, 영국 및 미국) 이러한 조사 전체에 걸쳐 현재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수집된 국제적으로 통일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행복 척도는 이 장에 없다. EU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 데이터 수집의 2013 임시 모듈은 유럽 외부에서 사용되는 대략 비슷했던 행복의 척도(즉, 삶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는 것이라는 느낌)를 포함했고 2015년 호 *How's Life?* (OECD, 2015^[3])에 넣었다. 하지만 이들 데이터는 그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며 이용 가능한 시계열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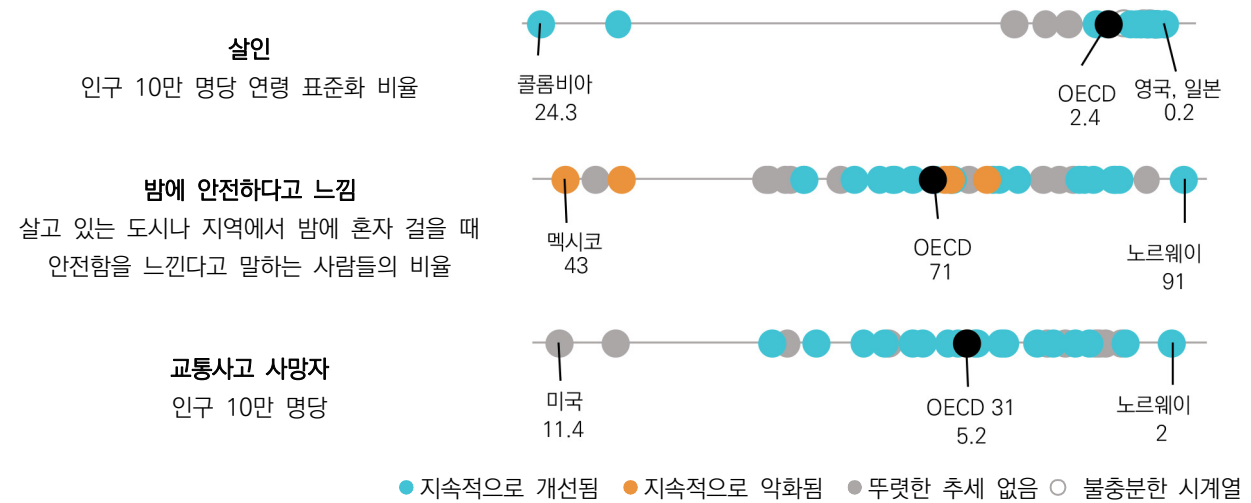
참고문헌

- OECD (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3]
https://dx.doi.org/10.1787/how_life-2015-en.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1]
<https://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 Stiglitz, J., J. Fitoussi and M. Durand (eds.) (2018), *For Good Measure: Advancing Research on Well-being Metrics Beyond GDP*, OECD Publishing, Paris, [2]
<https://dx.doi.org/10.1787/9789264307278-en>.

9 안전

안전은 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며, 그 해로움은 범죄일 수도 있고 분쟁, 폭력, 테러, 사고 또는 자연 재해일 수도 있다. 2010년 이후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살인율은 1/3이 감소해서 10만 명당 2명을 약간 넘는다. OECD 국가 사람들의 71%가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함을 느낀다고 보고했다(2010~12년에는 67%). 2010년 이후 가용 데이터가 있는 31개 OECD 국가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은 평균 20% 이상 감소했다. 79%의 남성이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 반면, 여성은 62%만이 그렇게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 간 격차는 2006~12년 이후 좁아졌다. 대학 교육을 받은 중년층들은 다른 연령 및 교육 집단보다 평균적으로 더 안전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네 개의 OECD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OECD 회원국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살인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다.

그림 9.1. 안전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하거나 일관된 변화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 OECD 평균과 함께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방법론에 대한 세부 항목 정보는 독자를 위한 가이드를 참조한다.

출처: OECD 건강 상태(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및 국제 교통 안전 데이터 및 분석 그룹(International Traffic Safety Data and Analysis Group, IRTAD) 데이터베이스, <https://itf-oecd.org/irtad-road-safety-database>.

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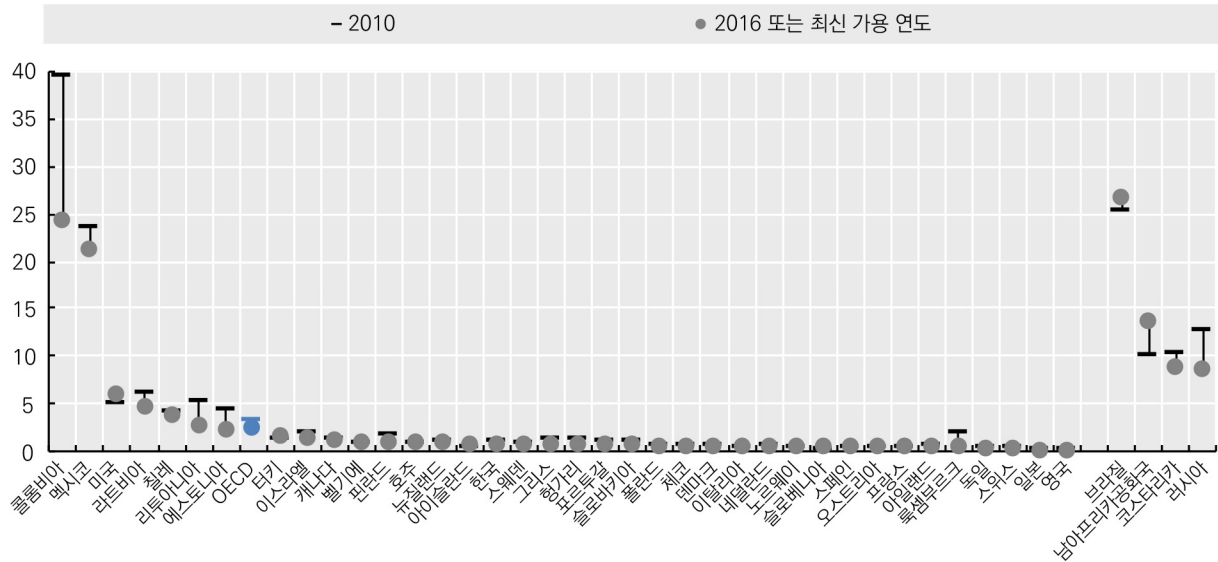
거의 2/3의 OECD 국가에서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이다(그림 9.2). 하지만 이 비율은 미국의 경우 세 배 이상이며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20배 이상이다. 2010년 이후 살인율은 1/3 이상의 OECD 국가에서 적어도 33% 감소했고 OECD 평균은 1/3 정도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터키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의) 아이슬란드와 슬로베니아에서도 15% 이상 상승했다.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함에 대한 느낌

핀란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및 노르웨이에서는 85%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함을 느끼지만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에서는 50% 미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그림 9.3). OECD 국가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0년 이후 67%에서 71%로 평균 4% 포인트 증가했다. 최대 개선은 리투아니아(20% 포인트), 체코와 포르투갈(15% 포인트), 에스토니아(13), 슬로바키아(11)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7% 포인트), 독일(-6), 칠레(-5) 및 스웨덴(-3)에서는 안전함을 느끼는 비율이 내려갔다.

그림 9.2. 2010년 이후 OECD 평균 살인율은 약 1/3까지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당 연령 표준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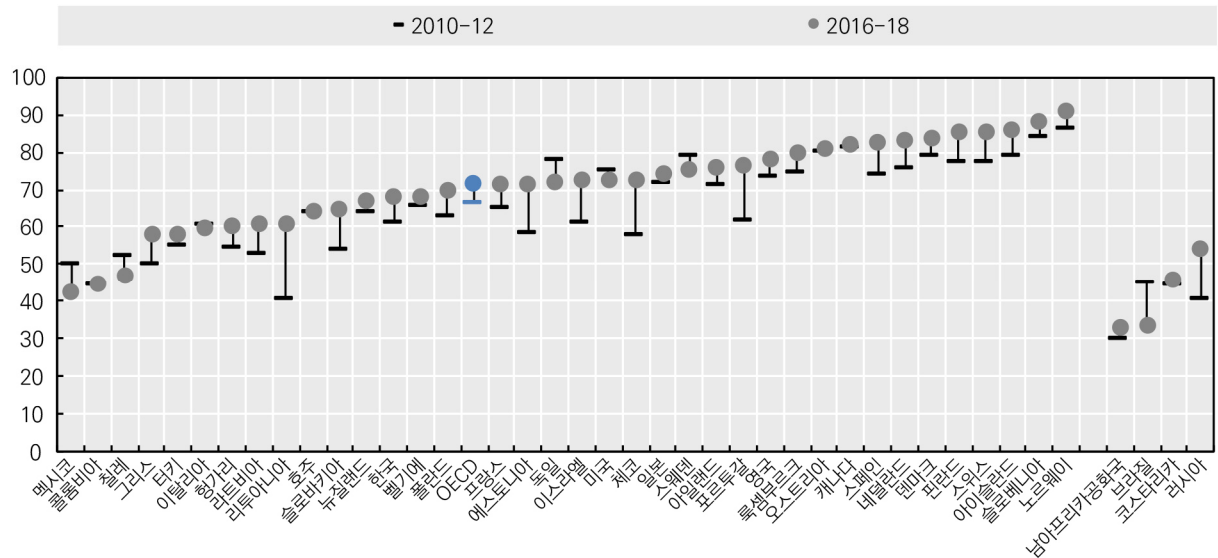
주: 최신 가용 연도는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의 경우 2017년,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5년,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러시아 연방은 2014년,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는 2016년이다.

출처: OECD 건강 상태: 사망 원인(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891>

그림 9.3. 절반 이상의 OECD 국가에서 2010~12년 이후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했다.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 퍼센트



출처: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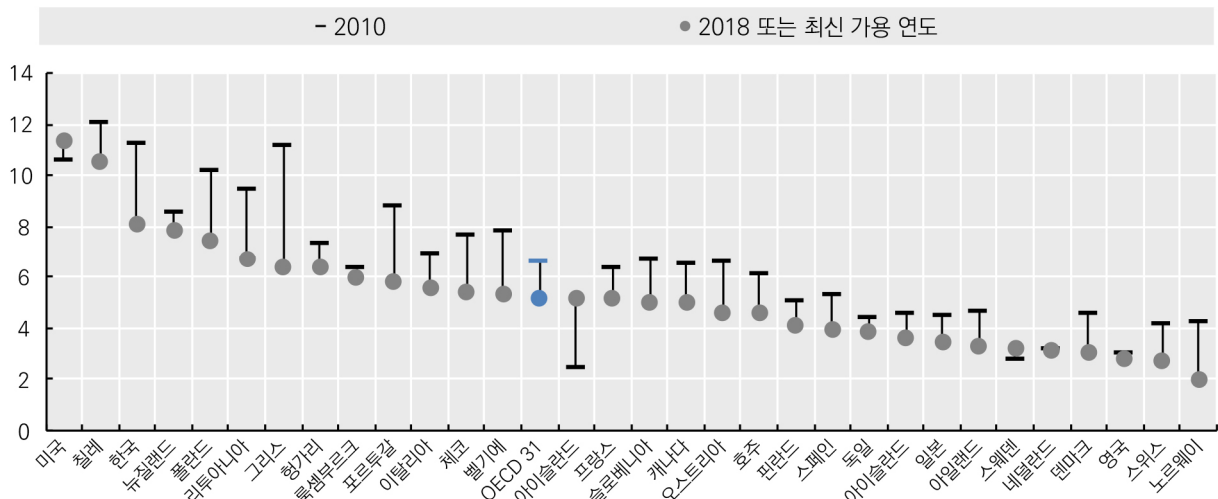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910>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사망은 10만 명당 3명 미만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에서 가장 낮다(그림 9.4). 이와 반대로, 한국, 칠레, 미국에서는 사망이 3~4배 더 높다. 유엔 총회는 2030 의제(세부목표 3.6, 2020년까지 전 세계 교통사고 사망 반으로 줄이기) 교통사고 세부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국가의 노력을 집중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11~2020년을 “도로안전 촉진을 위한 10년(Decade of Action for Road Safety)”(WHO, 2010^{[11])}으로 선언했다(OECD, 2019^[2]). 2010년 이후 가용 데이터가 있는 31개 OECD 국가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은 평균 20% 이상 감소했다. 5개 국가(노르웨이, 그리스, 스위스, 포르투갈, 덴마크)는 교통사고 사망이 1/3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진전은 세부목표 3.6 충족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그림 9.4. 교통사고 사망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2010년 이후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당



주: 최신 가용 연도는, 2018년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2017년이다.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 부족 때문에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멕시코, 슬로바키아 및 터키를 제외한다.

출처: 국제 교통안전 데이터 및 분석 그룹(International Traffic Safety Data and Analysis Group, IRTAD) 데이터베이스, <https://itf-oecd.org/irtad-road-safety-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929>

안전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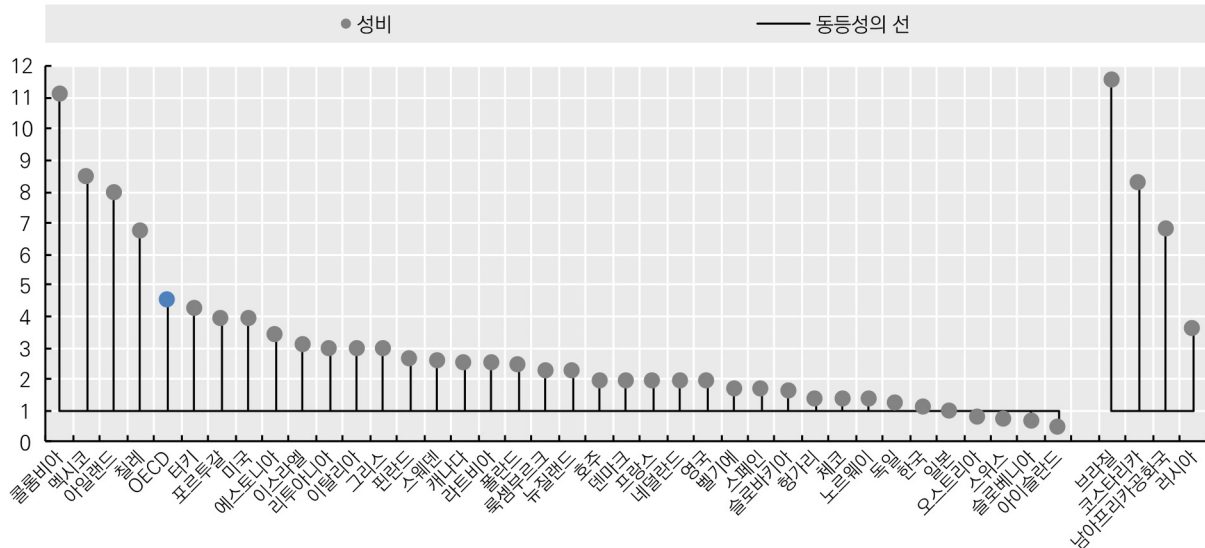
성별 격차는 대부분의 안전 지표 전체에서 높다.

네 개의 OECD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살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높다. OECD 평균 남성 살인율은 인구 10만 명당 4명이 사망하며 이에 비해 여성은 0.9명이다(그림 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에서는 여성이 살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남성과 같거나 더 높다.

모든 OECD 국가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 격차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특히 높는데, 약 80%의 남성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한편, 여성은 불과 50%만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기존의 증거는 몇몇 OECD 국가, 특히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슬로바키아 국가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성별 격차가 2006~12년과 2013~18년 사이에 약간 좁아졌음을 시사한다(그림 9.6). 두 가지 경우에서, 이는 양쪽 성, 특히 여성(스페인, 슬로바키아)의 경우 전체적으로 안전한 느낌이 개선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다른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강력한 개선과 남성에게 대한 약간의 감소가 결합되었기 때문이었다(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림 9.5. 극소수의 예외는 있지만, 살인율은 여성보다 남성에 대해 더 높다.

살인율 성비, 2017 또는 최신 가용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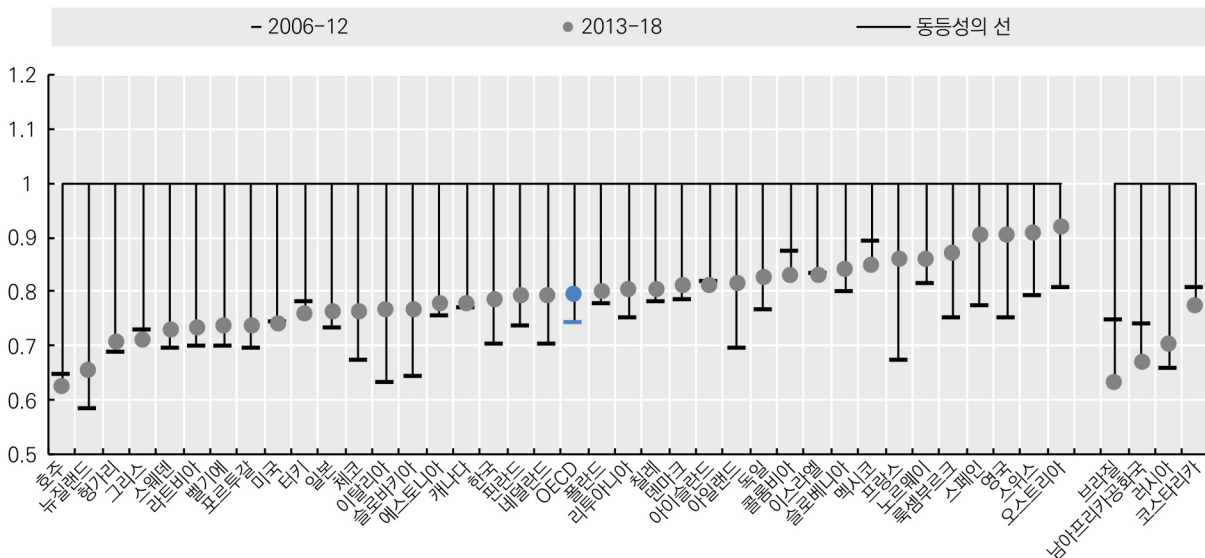
주: 성비는 남성에 대한 살인율을 여성에 대한 살인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1.0 위의 값은 남성에 대한 더 높은 상대적 살인율을 나타내며 1.0 아래의 값은 여성에 대한 더 높은 상대적 살인율을 나타낸다. 데이터는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의 경우 2017년을 나타내며, 캐나다, 폴란드,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5년을,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러시아 연방은 2014년을,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는 2016년을 나타낸다.

출처: OECD 건강 상태: 사망 원인(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948>

그림 9.6. 안전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큰 성별 격차는 2006~12년 이후 약간 좁아졌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의 성비



주: 성비는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함을 느끼는 여성의 비율을 안전함을 느끼는 남성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1.0 위의 값은 여성의 더 높은 상대적 안전한 느낌을 나타내며 1.0 아래의 값은 남성의 더 높은 상대적 안전한 느낌을 나타낸다. 출처: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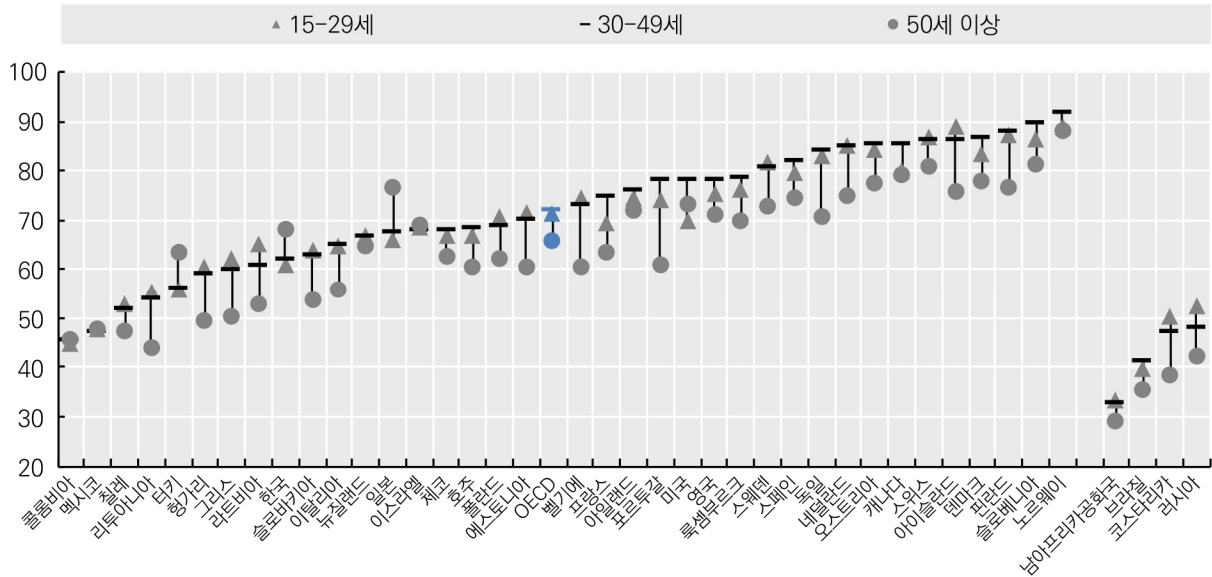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967>

중년이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함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다.

30~49세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젊은 성인과 50세 이상의 사람들보다 안전함을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기록된다(그림 9.7). 예외는 일본, 한국, 터키이며 여기에서는 더 나이 든 사람들(50세 이상)이 다른 모든 연령 집단보다 더 안전함을 느낀다.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코스타리카, 러시아 연방은 15~29세가 안전함을 느끼는 비율이 30~49세 집단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그림 9.7.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밤에 혼자 걸을 때 덜 안전하다고 느낀다.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서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 연령별, 퍼센트, 2010~18 종합 데이터



출처: Gallup World Poll (database),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1986>

또한 안전감은 교육 수준에 따라 다양하다.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초등 교육만 받은 사람 64%,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 69%,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 73%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상자 9.1. 앞선 측정 및 통계 의제

안전은 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며, 그 해로움은 범죄일 수도 있고 분쟁, 폭력, 테러, 억압, 사고 또는 자연 재해일 수도 있다. 이상적인 안전 지표 세트는 재산에 대한 범죄(예: 차량 절도, 빈집털이), 접촉 범죄(예: 폭행, 강도, 가정 폭력), 비전통적 범죄(예: 증오 범죄, 정서적 학대, 부패, 돈세탁, 테러)를 포함해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범죄와 범법 행위에 대해 알린다. 사이버 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 및 온라인 소비자 사기는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범죄 활동을 제시한다(OECD, 2019^[3]).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기타 위협은 교통사고, 자연 재해, 전쟁 등의 분쟁을 포함한다. 두려움 없이 개인적, 정치적, 사회적 목표를 표현할 자유는 또 다른 개인 안전의 요소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국가의 범죄 법률에서 사용된 데이터 출처와 접근법의 차이는 다양한 범죄 행위의 일관되고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의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복잡하게 한다. 따라서 현재의 장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 안전의 세 가지 주요 측면을 고려한다(표 9.1).

표 9.1. 이 장에서 고려한 안전 지표

	평균	수직적 불평등(분포의 상층과 하층 간 격차)	수평적 불평등(성별,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박탈
살인	폭행으로 인한 사망, 인구 10만 명당	해당 없음	성별	해당 없음
안전감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때 안전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	해당 없음	성별, 연령 및 교육 수준별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때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
교통사고 사망	인구 10만 명당	해당 없음	연령별	해당 없음

살인: 사망 원인 통계는 신분 등록 시스템에서 비롯되고, 국가 기관이 편집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수집/분석한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망 원인만 포함한다.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는 OECD 사망 원인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되어 있다.

안전감: 이 지표는 다음 조사 질문을 기반으로 한다.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서 밤에 혼자 길을 때 안전함을 느끼니까?”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한 모든 응답자의 비율을 반영하며 3년의 기간에 대해 평균화된다. 데이터는 매년 국가당 약 1,000명을 표본으로 하는 갤럽 세계 조사에서 구한다. 국가 평균의 경우, 데이터는 추정치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3년의 기간(예: 2016~18)에 대한 모든 가용 연도에 대해 종합한다. 불평등 보고의 경우 더 긴 기간(예: 2010~18)의 데이터를 종합한다. 표본은 15세 이상 인구(시골 지역 포함)를 국가적으로 대표하도록 설계된 사전적인 것이며, 표본 데이터는 갤럽이 제공한 가중치를 이용해서 가중한다(OECD, 2017^[4]).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사망자는 자살을 제외한 교통사고 때문에 즉시 사망하거나 30일 내에 사망한 모든 사람이다.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는 국제교통사고데이터베이스(International Road Traffic and Accident Database, IRTAD)에서 구한 것이다. 모든 데이터는 IRTAD 참여 국가의 관련 국가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직접 수집한다. IRTAD 그룹이 개발하고 합의한 정의를 토대로 일반적인 형식으로 제공된다. OECD 통계 포털을 통해 접근해서 이용한다(ITF/OECD, 2019^[5]).

안전 지표 간 상관관계

이 장에 포함된 안전의 객관적 척도와 주관적 척도 간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 더 높은 살인율의 국가는 교통사고 사망이 더 많고 사람들은 밤에 혼자 걸을 때 덜 안전하다고 느낀다(표 9.2).

표 9.2. 안전에 대한 객관적 척도와 주관적 척도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

안전 지표 간 이변량 상관 계수

	살인	안전감	교통사고 사망
살인			
안전감	-0.75*** (41)		
교통사고 사망	0.75*** (31)	-0.60*** (31)	

주: 표는 피어슨 이변량 상관 계수를 보여준다. 괄호 안의 값은 관찰(국가) 수를 나타낸다.

*는 $p < 0.10$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는 $p < 0.05$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 ***는 $p < 0.01$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앞선 통계 의제

살인율은 흔히 강력 범죄의 핵심 지표로 간주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을 나타낸다. 재산에 대한 범죄(예: 절도, 빈집털이), 접촉 범죄(예: 폭행, 강도) 및 비전통적 범죄(예: 증오 범죄, 사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경험을 망라하기 위해 경찰 등록부와 범죄 피해 조사의 데이터로 보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등록부와 조사 데이터의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현재 존재하는 국제 데이터의 중앙 저장소는 없다.

안전감은 사람들의 웰빙과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갤럽 세계 조사에서 구한 현재 지표의 한계 중 하나는 비교적 좁은 범위이다(밤에 혼자 걸을 때 안전에 대한 느낌). 또한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위협 유형에 대한 지표는 없다. 이는 잠재적 정책 수단 식별의 관점을 특히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표는 공식 출처에서 더 나은 질과 더 통일된 데이터를 제공할 때까지 플레이스홀더로 간주된다.

가정 폭력은 지속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세부목표 5.2.1은 가까운 파트너의 폭력의 대상이 되는 여성과 소녀 참조)와 국가의 웰빙 프레임워크(호주, 이탈리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양쪽에서 강조되는 안전의 중요한 측면이다. 하지만 기존 데이터는 드물게 수행되고 주로 여성(전체 인구가 아닌)에 초점을 맞춘 전문화된 조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UN DESA, 2019^[6]). 가정 폭력에 대한 이해 개선에 기여한 국가 조사는 캐나다의 피해에 대한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on Victimization)(5년마다 수행됨), 멕시코의 Encuesta Nacional de Victimización y Percepción sobre Seguridad Pública (ENVIPE),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범죄 조사(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 CSEW)를 포함한다.

교통안전 지표의 범위는 (비치명적) 교통사고 부상까지 확대하여 개선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교통사고 사망과 일반적인 충돌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다. 분쟁으로 인한 사망 또한 현재 데이터 세트에서 누락된 중요한 부분이다.

진행 중인 디지털 혁신 또한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암시한다. 효과적 규제, 법적 윤리적 프레임워크가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사용자와 조직은 상당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및 신체적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사이버 보안 위협 측정은 까다로운 일이지만 온라인 범죄 활동은 인터넷 사용자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며 소규모 보안 사고에 대한 중앙집중식 보고 메커니즘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사이버 범죄의 자기 신고가 가장 현실적인 기법으로 남아있지만, 정정 또한 인구 집단과 OECD 국가 전체에 걸친 다양한

인터넷 사용률에 대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사건의 더 높은 우세도가 단순히 더 높은 노출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OECD, 2019^[3]). 따라서 보다 일반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사이버 보안 위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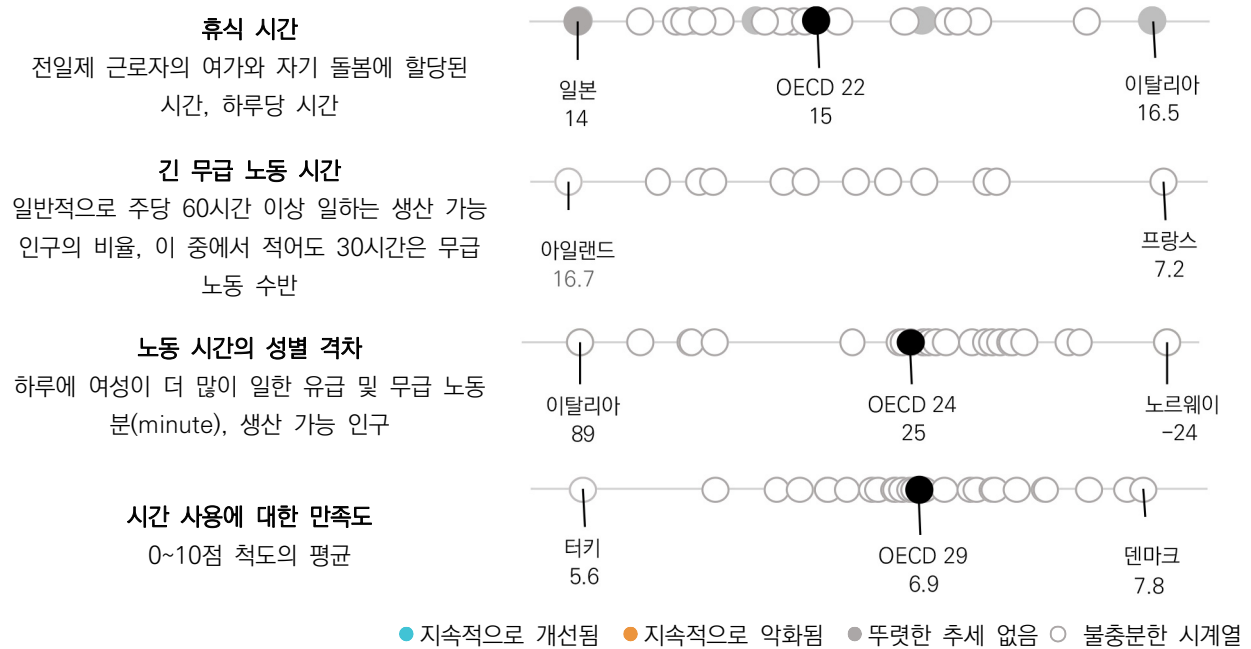
참고문헌

- ITF/OECD (2019), *IRTAD Road Safety Annual Report 2019*, ITF/OECD, Paris, <http://itf-oecd.org/sites/default/files/docs/irtad-road-safety-annual-report-2019.pdf> (accessed on 16 January 2020). [5]
- OECD (2019), *How's Life in the Digital Age?: Opportunities and Risk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People's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11800-en>. [3]
- OECD (2019), *Measuring Distance to the SDG Targets 2019: An Assessment of Where OECD Countries Stand*,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a8caf3fa-en>. [2]
- OECD (2017), *How's Life? 2017*, <https://doi.org/10.1787/23089679>. [4]
- UN DESA (2019), *Global SDG Indicator Database*, <http://unstats-undesa.opendata.arcgis.com/datasets> (accessed on 28 October 2019). [6]
- WHO (2010), *Global Plan for the Decade of Action for Road*, http://who.int/roadsafety/decade_of_action/plan/global_plan_decade.pdf (accessed on 23 December 2019). [1]

10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균형은 가족에 대한 헌신, 여가와 일(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 둘 다 포함)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이다.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전일제 근로자가 여가와 자기 돌봄에 쓰는 평균 시간은 하루 약 14~16.5시간이다. 전일제 남성 근로자는 여성에 비해 여가와 자기 돌봄 시간을 30분 정도 더 누릴 수 있는 한편, 젊은이와 노인은 중년층보다 각각 50분과 20분을 더 사용한다. 가용 데이터가 있는 13개 OECD 국가에서 무급 노동에 긴 시간을 쓰는 인구의 비율은 7%~17%이다. 유급 및 무급 노동 시간을 모두 고려했을 때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하루에 25분 더 오래 일한다. 시간 사용의 평균 만족도는, 0~10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8점을 초과한 적이 없고 5.6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중년층은 자신의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0.1. 일과 삶의 균형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하거나 일관된 변화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 OECD 평균과 함께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방법론에 대한 세부 항목 정보는 독자를 위한 가이드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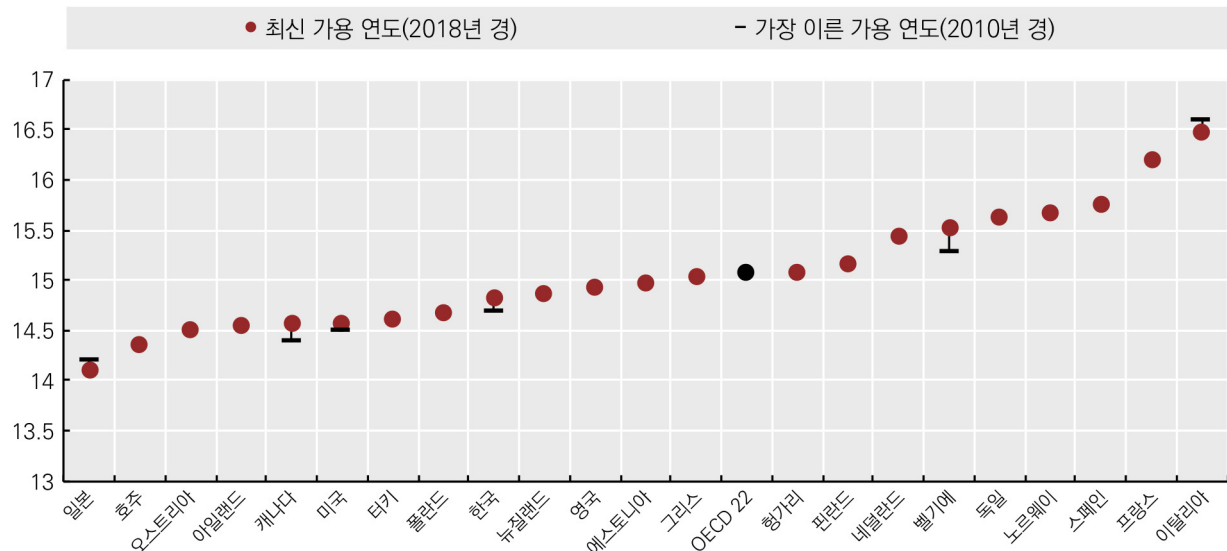
출처: 공격사용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이용 가능한 경우), 유럽통계청의 통일된 유럽 생활시간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time-use-surveys>와 통계청,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의 표,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 터키에 대한 유럽통계청 데이터베이스(ilc_pw01), 캐나다 통계청, 종합 사회 조사 2016, <https://doi.org/10.25318/1310010601-eng> 및 INEGI, 멕시코의 주관적 웰빙, <https://sinegi.page.link/p1SS>에 기반한 OECD 계산

휴식 시간

직업적 의무와 무급 노동은 개인에게 자기 자신, 가족 및 친구들을 위한 시간을 거의 남겨주지 않을 수 있다. 시간 부족은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한편, 이 지표는 국가 간 일관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들에게 초점을 맞춘다(상자 10.1 참조). OECD 국가 전일제 근로자들의 평균 휴식(즉, 여가와 수면을 포함한 자기 돌봄에 쓰는 시간)은 하루 약 15시간이며, 일본은 14시간을 약간 넘고 이탈리아는 16.5 시간이다(그림 10.2). 유럽 국가에서 전일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휴식 시간이 더 많다. 지난 10년 동안 시간 사용의 변화는 단 6개의 OECD 국가: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 휴식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비교적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다.

그림 10.2. OECD 국가에서 전일제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여가와 자기 돌봄에 하루 15시간을 보낸다.

전일제 근로자의 휴식, 하루당 시간



주: 데이터는 전일제 근로자를 나타낸다. 전일제/시간제 상태를 직접 묻지 않았던 조사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는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로 식별했다. OECD 평균은 최신 가용 연도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칠레,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는 최신 데이터(2005년 이후) 부족, 데이터 수집에서 방법론적 차이, 또는 통계청의 표가 전일제 근로자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다. 최신 가용 연도는 미국의 경우 2018년을 참조하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2016년을 참조하며, 캐나다는 2015년, 터키와 영국은 2014~15년, 한국은 2014년,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2013~14년, 벨기에, 독일 및 폴란드는 2012~13년, 노르웨이는 2010~11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뉴질랜드와 스페인은 2009~10년, 오스트리아는 2008~09년, 호주는 2006년, 아일랜드는 2005년이다. 이전 가용 연도는 일본의 경우 2011년을 참조하며, 캐나다와 미국은 2010년, 한국은 2009년, 이탈리아는 2008~09년, 벨기에에는 2005~06년이다. 데이터는 하루 1,440분으로 정규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일 시간 사용이 총 1,440분이 되지 않았던 국가의 경우 누락되거나 추가된 분(보통 약 30~40분)을 모든 활동에 동일하게 분산시켰다.

출처: 공적사용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이용 가능한 경우), 유럽통계청의 통일된 유럽 생활시간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time-use-surveys>와 통계청의 표에 기반한 OECD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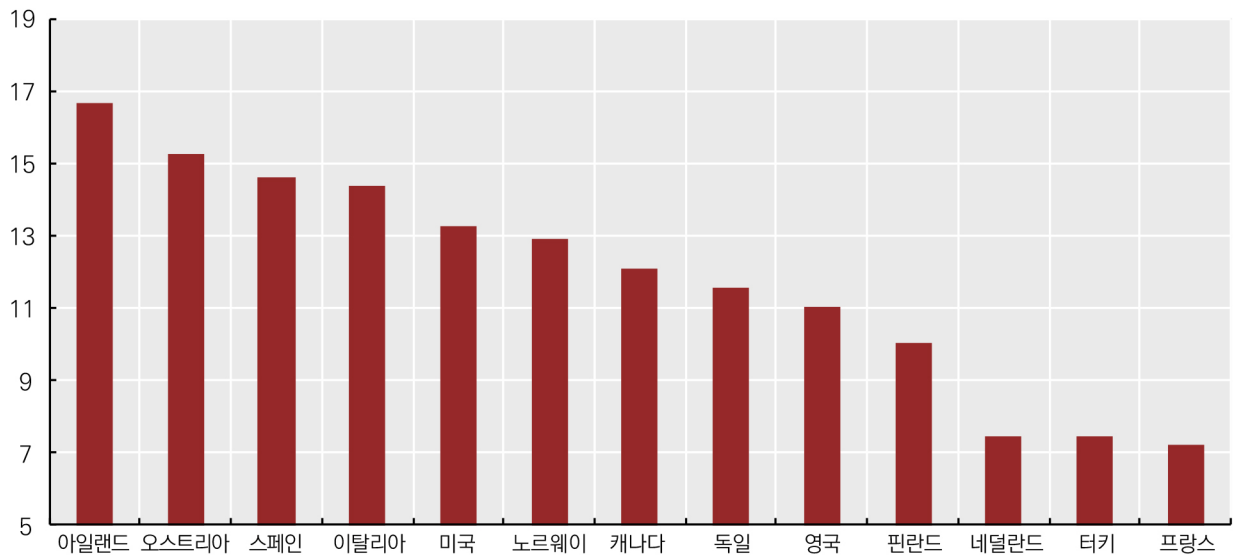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005>

긴 무급 노동 시간

긴 노동 시간은 그것이 유급 노동(예: 봉급을 받는 노동)을 수반하거나 무급 노동(예: 돌봄 책임, 요리, 집안 청소)을 수반하거나 관계없이 웰빙에 중요하다. 긴 유급 노동 시간은 일과 일자리의 질 참고 문헌에서 설명했던 한편, 긴 무급 노동 시간은 그림 10.3에서 고려했다. 이 지표는 일차적 활동이 국내 생산인 사람과 유급 노동과 장시간 무급 노동의 “하루 두 번”의 부담에 직면하는 사람의 긴 무급 노동 시간을 포착한다(자세한 사항은 상자 10.1 참조). 긴 무급 시간은 프랑스, 네덜란드 및 터키에서는 10% 미만의 생산 가능 인구에 영향을 주지만 아일랜드와 오스트리아에서는 15% 이상에 영향을 준다.

그림 10.3. OECD 국가에서 7~17%의 사람들이 긴 시간 무급으로 일한다.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15~64세 인구의 비율, 이 중에서 적어도 30시간은 무급 노동, 퍼센트, 최신 가용 연도



주: 국가 범위는 시간 사용 마이크로데이터 파일이 제공되었고(2005년 이후)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 방법론이 사용되었던 국가들로 제한된다. 최신 가용 연도는 미국의 경우 2018년이며, 네덜란드는 2016년, 캐나다는 2015년, 터키와 영국은 2014~15년, 이탈리아는 2013~14년, 독일은 2012~13년, 노르웨이는 2010~11년, 핀란드, 프랑스 및 스페인은 2009~10년, 오스트리아는 2008~09년, 아일랜드는 2005년이다. 데이터는 하루 1,440분으로 정규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일 시간 사용이 총 1,440분이 되지 않았던 국가의 경우 누락되거나 추가된 분(보통 약 30~40분)을 모든 활동에 동일하게 분산시켰다.

출처: 공적사용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이용 가능한 경우), 유럽통계청의 통일된 유럽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time-use-surveys>를 기반으로 한 OECD 계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024>

총 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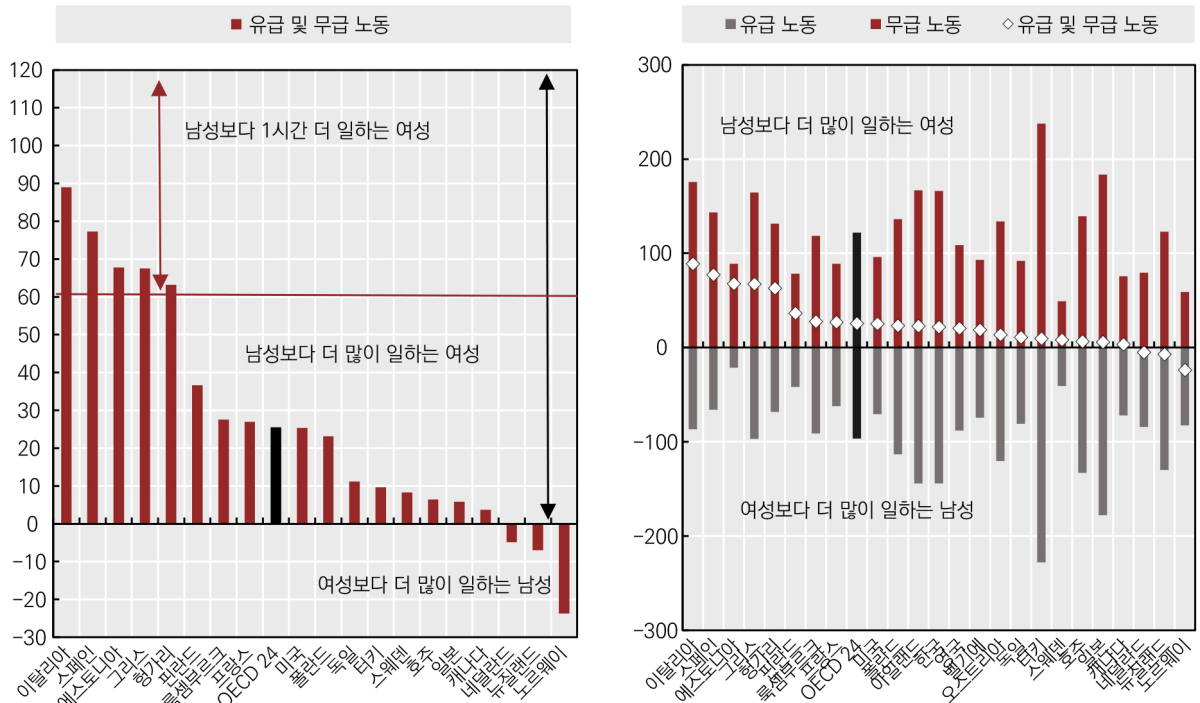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 둘 다 고려했을 때 여성은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남성보다 더 긴 시간 일한다 (그림 10.4, 패널 A). 평균 OECD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에 25분 더 일한다. 성별 격차는 총일량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1시간 이상 더 쏟는 이탈리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에서 가장 크다. 이와 반대로,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의 남성들은 총일량에서 여성보다 약간 더 시간을 쏟는다(하루 5~24분).

총 업무 시간에서 대부분의 성별 차이는 여성이 무급 노동에 쏟은 긴 시간, 즉 일상적 집안일, 돌봄 노동 (아동과 어른), 가정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 가게 활동에 관련된 이동에 쏟은 시간(그림 10.4, 패널 B)이 견인한다. OECD 전체에 걸쳐 남성은 여성보다 유급 노동에 더 긴 시간을 쏟는 반면(거의 하루 1시간 40분 정도), 여성은 무급 노동에 더 긴 시간을 보낸다(평균적으로 OECD에서 하루 약 2시간 정도). 에스토니아 같은 유급 노동에 쓰는 시간에서 성별 격차가 작은 국가에서도 여성은 여전히 가장 많은 몫의 무급 노동을 하고 있다.

그림 10.4. 평균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에 25분 더 일한다.

패널 A: 노동(유급 또는 무급)에 쓰는 총 시간, 15~64세 여성과 남성 간 차이, 하루당 분, 최신 가용 연도

패널 B: 여성이 남성보다 무급 노동에 더 많이 쓰는 시간, 그리고 유급 노동에 덜 쓰는 시간, 하루당 분, 최신 가용 연도



주: 양쪽 패널에서 국가는 유급 및 무급 노동 결합에 쓰는 시간의 성별 격차의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매겼다. 최신 가용 연도는 미국의 경우 2018년을 참조하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2016년을 나타내며, 캐나다는 2015년, 룩셈부르크, 터키와 영국은 2014~15년, 한국은 2014년,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2013~14년, 벨기에, 독일 및 폴란드는 2012~13년, 노르웨이는 2010~11년, 스웨덴은 2010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뉴질랜드와 스페인은 2009~10년, 오스트리아는 2008~09년, 호주는 2006년, 아일랜드는 2005년이다. 데이터는 하루 1,440분으로 정규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일 시간 사용이 총 1,440분이 되지 않았던 국가의 경우 누락되거나 추가된 분 (보통 약 30~40분)을 모든 활동에 비례해서 분산시켰다. 데이터는 호주(15세 이상)와 뉴질랜드(12세 이상)를 제외하고 15~64세 인구를 나타낸다. OECD 평균에 대한 데이터는 최근 데이터 부족(2005년 이후), 또는 데이터 수집에서 방법론적 차이 때문에 칠레,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를 제외한다.

출처: OECD 시간 사용(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TIME_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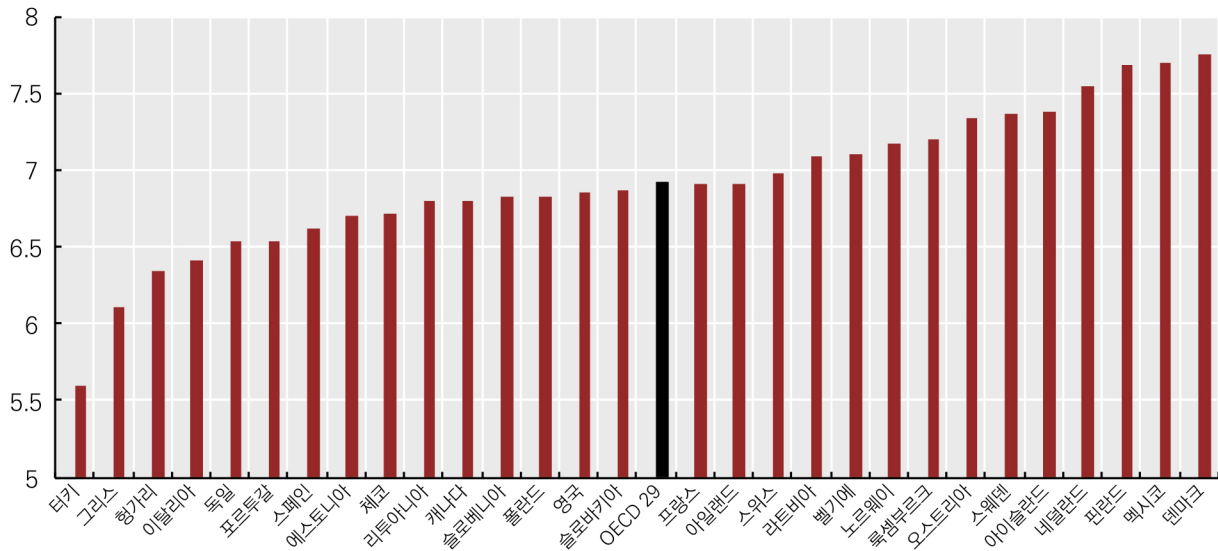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043>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사람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는 활동의 균형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가용 데이터가 있는 29개 OECD 국가에서 시간 사용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0~10 척도에서 6.9이다. 가장 높은 등급은 덴마크(7.8), 핀란드와 멕시코(각각 7.7), 네덜란드(7.5)에서 확인되었고 가장 낮은 등급은 헝가리(6.3), 그리스(6.1) 및 터키(5.6)였다(그림 10.5).

그림 10.5. 시간 사용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데이터가 있는 모든 OECD 국가에서 10점 중 8점 미만이다.

0~10 척도의 시간 사용에 대한 평균 값, 2013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주: 데이터는, 각각 2016년과 2014년에 데이터가 수집되었던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2013년을 나타낸다.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 부족 때문에 호주,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및 미국을 제외한다. 데이터는 캐나다(15세 이상)와 멕시코(18세 이상)를 제외하고, 16세 이상을 나타낸다.

출처: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 터키에 대한 유럽통계청 데이터베이스(ilc_pw01), 캐나다 통계청, 종합 사회 조사 2016, <https://doi.org/10.25318/1310010601-eng> 및 INEGI, 멕시코의 주관적 웰빙 2014, <https://sinegi.page.link/p1SS>를 기반으로 한 OECD 계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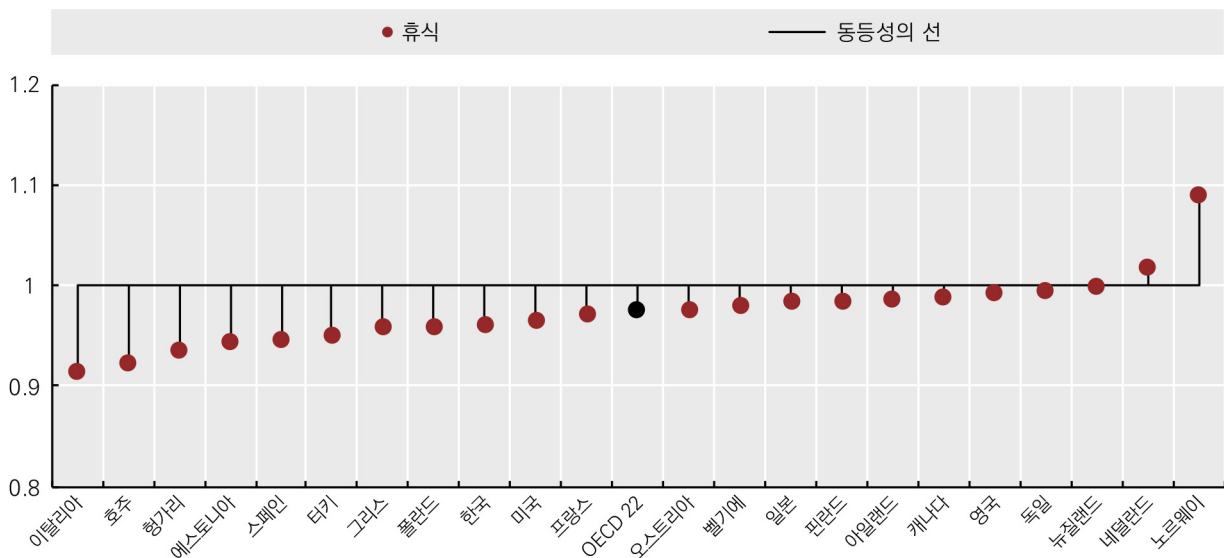
일과 삶의 균형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남성은 여성보다 휴식이 더 많고 무급 노동을 긴 시간 하는 경우가 더 적다.

전일제 근로자 가운데 남성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그러는 것보다 여가와 자기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그림 10.6).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휴식에서 평균 성별 격차는 약 45분이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1시간 30분까지 상승한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전일제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여가와 자기 돌봄에 더 긴 시간을 쏟는 유일한 국가들이다. 게다가 생산 가능 여성은 생산 가능 남성에 비해 체계적으로 무급 노동에 긴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더 높다(그림 10.7). 노르웨이에서 여성은 오래 무급으로 일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1.7배 더 높지만, 터키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17배 더 높다. 반면에, 시간 사용에 대한 전 인구집단(16세 이상 연령)의 만족도 척도는 성별 차이를 거의 보여주지 않으며 이들의 방향은 OECD 국가 간에 일관적이지 않다.

그림 10.6. 전일제 근로자 가운데 남성은 여성보다 휴식 시간이 더 많다.

성비, 최신 가용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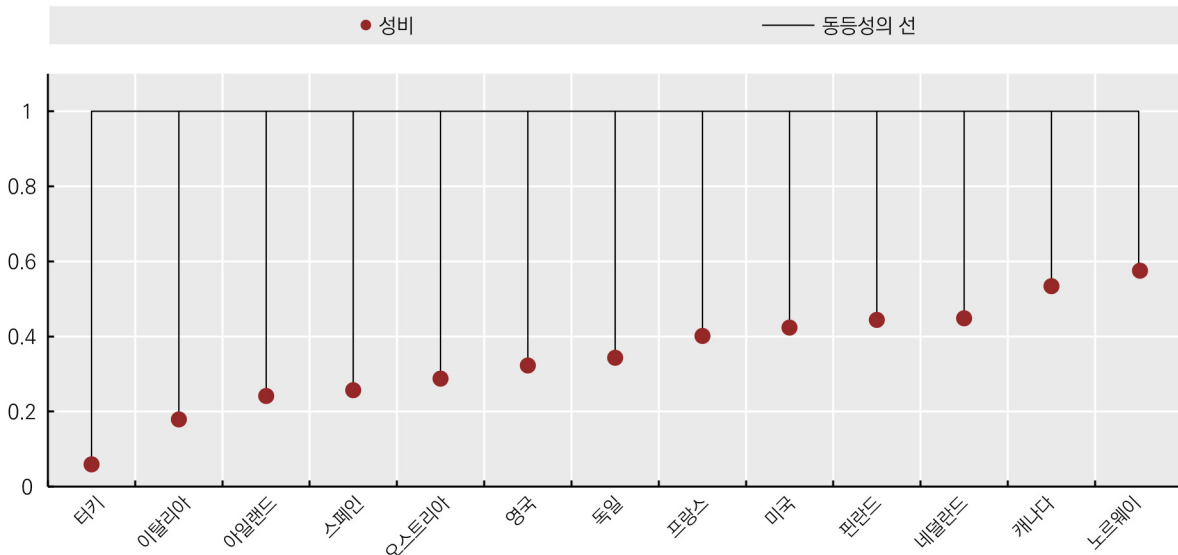
주: 성비는 여성에 대한 평균 값을 남성에 대한 평균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1.0 위의 값은 항상 여성에게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내며 1.0 아래의 값은 항상 남성에게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낸다. 전일제/시간제 상태를 직접 묻지 않았던 조사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는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로 식별했다. 최신 가용 연도는 미국의 경우 2018년을 참조하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2016년을 참조하며, 캐나다는 2015년, 터키와 영국은 2014~15년, 한국은 2014년,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2013~14년, 벨기에, 독일 및 폴란드는 2012~13년, 노르웨이는 2010~11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뉴질랜드와 스페인은 2009~10년, 오스트리아는 2008~09년, 호주는 2006년, 아일랜드는 2005년이다. OECD 평균은 최신 데이터 부족(2005년 이후), 데이터 수집에서 방법론적 차이, 또는 통계청의 표가 전일제 근로자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을 만큼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칠레,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를 제외한다. 시간 사용에 대한 데이터는 하루 1,440분으로 정규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일 시간 사용이 총 1,440분이 되지 않았던 국가의 경우 누락되거나 추가된 분(보통 약 30~40분)을 모든 활동에 동일하게 분산시켰다.

출처: 공적사용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데이터(이용 가능한 경우), 유럽통계청의 통일된 유럽 생활시간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time-use-surveys>와 통계청의 표에 기반한 OECD 계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081>

그림 10.7. 여성은 무급 노동에서 일관되게 남성보다 더 길게 일한다.

성비, 최신 가용 연도



주: 성비(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남성 대 여성의 퍼센트 비율의 비, 이중 적어도 30시간은 무급 노동)는 남성에 대한 평균 값을 여성에 대한 평균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1.0 위의 값은 항상 여성에게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내며 1.0 아래의 값은 항상 남성에게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낸다. 국가 범위는 시간 사용 마이크로데이터 파일이 제공되었고(2005년 이후)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 방법론이 사용되었던 국가들로 제한된다. 데이터는 15~64세의 개인으로 제한된다. 최신 가용 연도는 미국의 경우 2018년을 참조하고, 네덜란드는 2016년, 캐나다는 2015년, 터키와 영국은 2014~15년, 이탈리아는 2013~14년, 독일은 2012~13년, 노르웨이는 2010~11년,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은 2009~10년, 오스트리아는 2008~09년, 아일랜드는 2005년을 참조한다. 데이터는 하루 1,440분으로 정규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일 시간 사용이 총 1,440분이 되지 않았던 국가의 경우 누락되거나 추가된 분(보통 약 30~40분)을 모든 활동에 동일하게 분산시켰다.

출처: 공적사용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유럽통계청의 통일된 유럽생활시간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time-use-surveys>를 기반으로 한 OECD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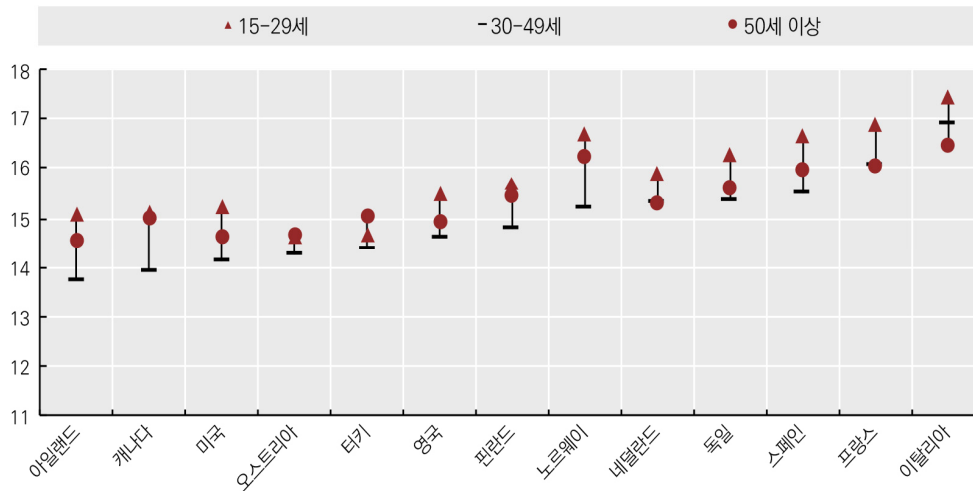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100>

중년 전일제 근로자는 여가 시간이 가장 적고 자신의 시간 사용에 가장 덜 만족한다.

휴식 시간은 중년 연령대에서 가장 적다(그림 10.8). 통일된 가용 데이터가 있는 13개 OECD 국가의 경우, 젊은 전일제 근로자와 나이 많은 전일제 근로자가 30~49세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각각 하루 약 50분 및 25분의 휴식을 더 누린다. 연령 집단 전체에 걸쳐 30~49세는 또한 자신의 시간 사용에 가장 덜 만족하고 있다(그림 10.9). 시간 사용에 대한 OECD 평균 만족도는 16~29세의 경우 7, 50세 이상의 경우 7.4이며 이에 비해 30~49세는 6.4이다.

그림 10.8. 중년 전일제 근로자는 휴식 시간이 가장 적다.

전일제 근로자의 휴식 시간, 연령별, 하루당 시간, 최신 가용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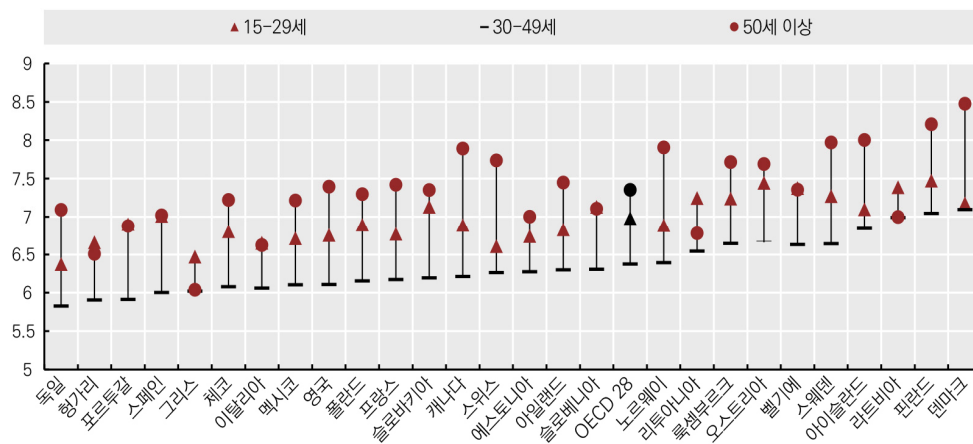
주: 중년 전일제 근로자가 여가 및 자기 돌봄에 보내는 시간의 오름차순으로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전일제/시간제 상태를 직접 묻지 않았던 조사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는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로 식별했다. 국가 범위는 시간 사용 마이크로데이터 파일이 제공되었고(2005년 이후)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 방법론이 사용되었던 국가들로 제한된다. 최신 가용 연도는 미국의 경우 2018년을 참조하고, 네덜란드는 2016년, 캐나다는 2015년, 터키와 영국은 2014~15년, 이탈리아는 2013~14년, 독일은 2012~13년, 노르웨이는 2010~11년,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은 2009~10년, 오스트리아는 2008~09년, 아일랜드는 2005년을 참조한다. 데이터는 하루 1,440분으로 정규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일 시간 사용이 총 1,440분이 되지 않았던 국가의 경우 누락되거나 추가된 분(보통 약 30~40분)을 모든 활동에 동일하게 분산시켰다.

출처: 공적사용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기반한 OECD 계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119>

그림 10.9. 중년층은 자신의 시간 사용에 대해 가장 덜 만족한다

0~10점 척도의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연령별, 2013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주: 중년층 가운데 시간 사용의 평균 만족도에 대해 오름차순으로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데이터는, 각각 2016년과 2014년에 데이터가 수집되었던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2013년을 나타낸다.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 부족 때문에 호주,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터키 및 미국을 제외한다. 데이터는, 캐나다(15세 이상)와 멕시코(18세 이상)를 제외하고, 16세 이상을 나타낸다.

출처: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 캐나다 통계청, 종합 사회 조사 2016, <https://doi.org/10.25318/1310010601-eng> 및 INEGI, 멕시코의 주관적 웰빙 2014, <https://inegi.page.link/p1SS>를 기반으로 한 OECD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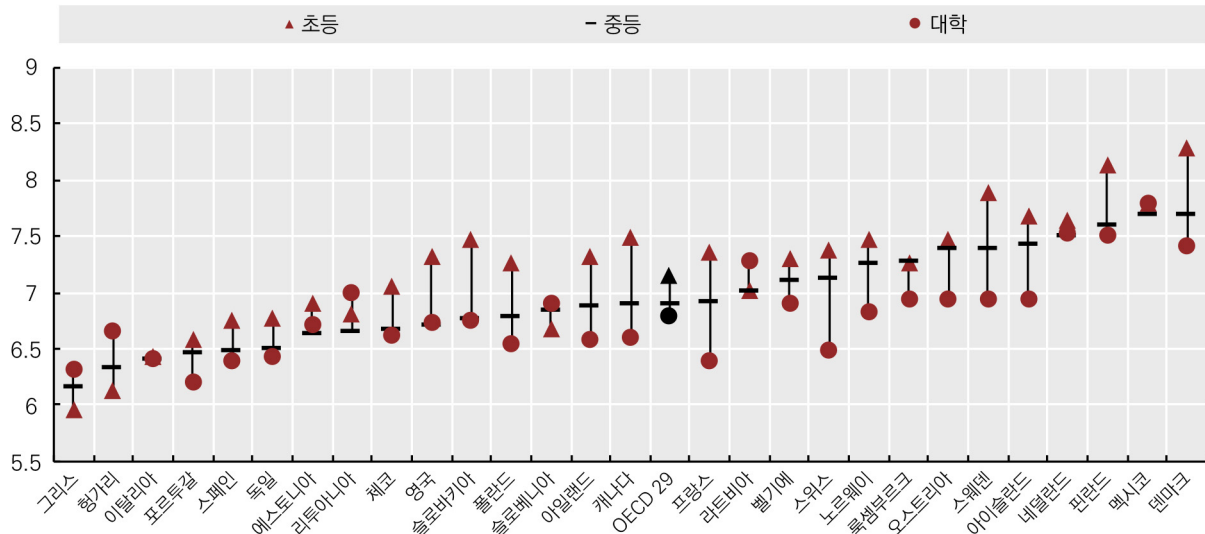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138>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시간 사용에 덜 만족한다.

평균 OECD 국가에서 시간 사용 만족도는 교육 수준 상승에 따라 약간 내려간다. 시간 사용 만족도는 평균적으로 초등 교육 이수자의 경우 10점 중 7.1점, 중등 교육 이수자는 6.9점, 대학 교육 이수자는 6.8점이다(그림 10.10). 시간 사용에 대한 평균 만족도의 교육 수준 변화도는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에서 더 가파른 한편, 이탈리아와 멕시코에서는 거의 평평하다.

그림 10.10. 시간 사용 만족도는 교육 수준과 함께 감소한다.

0~10 척도의 시간 사용에 대한 평균 값, 교육 수준별, 2013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주: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시간 사용의 평균 만족도에 대해 오름차순으로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데이터는, 각각 2016년과 2014년에 데이터가 수집되었던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해 2013년을 나타낸다.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 부족 때문에 호주,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및 미국을 제외한다. 데이터는, 캐나다(15세 이상)와 멕시코(18세 이상)를 제외하고, 16세 이상을 나타낸다.

출처: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 터키에 대한 유럽통계청 데이터베이스(ilc_pw01), 캐나다 통계청, 종합 사회 조사 2016, <https://doi.org/10.25318/1310010601-eng> 및 INEGI, 멕시코의 주관적 웰빙 2014, <https://sinegi.page.link/p1SS>에 기반한 OECD 계산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157>

상자 10.1. 앞선 측정 및 통계 의제

일과 삶의 균형은 가족에 대한 헌신, 여가와 일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이 영역의 범위에 여가와 자기 돌봄에 전념한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 사용에 관한 사람들의 만족도, 유급 및 무급 노동 간 균형 감각 같은 측면도 포함시키는 것이다(표 10.1). 다른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통근하는 데 드는 시간 같은 웰빙과 부정적으로 관련된 시간 사용 또한 범위에 속한다. 이 영역은 일과 일자리의 질 참고 문헌에 현재 포함되어 있는 일자리의 질 측면과 겹친다(예: 유급 노동에서 일상적으로 장시간 일하는(주당 50시간 이상) 사람들의 비율). 사회적 연계에 대한 장 참고 문헌은 또한 여가 시간의 구체적인 한 가지 측면을 고려하는데,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내는 시간이다.

표 10.1. 이 장에서 고려한 여가와 문화 지표

	평균	수직적 불평등 (분포의 상층과 하층 간 격차)	수평적 불평등 (성별, 연령 또는 교육 수준에 따른 그룹 간 차이)	박탈
휴식 시간	전일제 근로자가 여가 및 자기 돌봄에 할당하는 하루당 시간	해당 없음	평균 휴식 시간의 격차	해당 없음
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	유급 및 무급 노동에 대한 주당 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시간 사용에 대한 평균 만족도, 0~10 척도	해당 없음	시간 사용에 대한 평균 만족도의 격차	0~10점 척도에서 5 이하의 점수를 보고하는 사람들의 비율(유럽통계청이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사람들로 정의함).
긴 무급 노동 시간	일반적으로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총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 이중 적어도 30시간은 무급 노동 수반	해당 없음	긴 무급 노동 시간에서 성별 격차	해당 없음

휴식 시간은 자기 돌봄 시간(자고 먹고 마시고, 다른 자기 돌봄 활동 및 자기 돌봄에 관련된 이동을 하는 데 쓰는 시간)과 여가 시간(스포츠를 하고, 친구 및 친척과 상호작용하고, 행사에 참석하거나 참여하고,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다른 여가 활동을 하고, 여가에 관련된 이동을 하는 데 쓰는 시간)의 합계이다. 주요 활동 또는 일차적 활동에 쓰는 시간만 포함되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작업과 함께 수행되는 경우가 많은 여가 활동(예: 요리를 하면서 친구와 전화로 잡담하기)에 쓰는 시간은 특히 과소평가되기 쉽다. 휴식 시간은 참가자들이 24시간 동안 자신이 수행한 활동의 특성과 기간을 일기에 기록하는 생활시간조사(TUS)를 통해 측정한다.

일부 국가(예: 콜롬비아, 멕시코)는 시간 사용 일기를 단순화한 변형을 사용하며, 이는 다른 국가보다 덜 정확한 추정치를 낳는다. 또한 멕시코의 생활시간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인터뷰 전 7일 동안의 시간 사용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활동과 인터뷰 간 큰 시차를 고려했을 때 응답은 실제 시간 사용의 더욱 개략적인 추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콜롬비아와 멕시코에 대한 시간 사용 추정치는 이 장에서 표시되지 않는다.

이상적인 것은,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1년 전체에 걸쳐 펼쳐져서 평일과 주말의 대표적 비율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공휴일과 학교 방학도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정도를 달리 하기 위해 주 또는 년의 특정 기간만 포함하며 호주, 아일랜드, 일본 및 한국이 이런 경우이다. 활동 부호화의 차이는 비교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추가적 문제이다. 지표는 자신의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을 변경할 여지가 거의 없는 전일제 근로자로만 제한되며 잘 정의된 인구 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국가 간 비교 가능성도 촉진한다. 전일제/시간제 상태를 직접 묻지 않았던 조사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는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로 식별했다.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는 통일된 유럽생활시간조사, 유럽통계청 시간 사용 데이터베이스, 공적사용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그리고 통계청의 표를 이용해서 사후에 OECD가 통일시켰다. 이들 출처는 OECD 성별 데이터베이스(Gender Database)에 제공되어 있다. 일일 시간 사용이 총 1,440분이 되지 않았던 국가는 누락되거나 추가된 분(보통 약 30~40분)을 모든 활동에 동일하게 분산시켰다.

긴 무급 노동 시간은 주당 총 60시간 이상(유급 및 무급 노동) 일하는 생산 가능(15~64) 인구의 비율에 부합하며, 이 중에서 적어도 30시간은 무급 노동이다. 주당 60시간은 전일제 고용의 하한 정의(주당 30시간)를 고려했을 때 두 개의 전일제 일자리와 맞먹는 시간이다. 이 지표는 일차적 활동이 국내 생산인 사람과 유급 노동과 장시간 무급 노동의 “하루 두 번”의 부담에 직면하는 사람의 긴 무급 노동 시간을 포착한다. 무급 노동은 일상적 집안일, 재화 및 서비스 쇼핑(주로 식품, 의류 및 거처와 관련된 물품), 세대 구성원(자녀와 어른)과 비세대 구성원 돌보기, 자원봉사, 가게 활동과 관련된 이동 및 기타 무급 노동을 포함한다. 반면에, 유급 노동은 모든 일과 모든 통근 시간에 쓰는 시간을 포함한다. 직장에 오고 가거나 학교에 오고 가기 위해 통근에 쓰는 시간은 여러 국가에서 분리할 수 없으며, 따라서 통근에 쓰는 시간은 일 관련 및 학교 관련 통근 둘 다 포함한다. 이 정보는 국가의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수집한다(위 참조).

노동한 총 시간의 성별 격차는 유급 및 무급 노동(위에 정의된 대로) 둘 다 포함해 하루 노동한 총 시간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단위: 분)를 참조한다. 이 정보는 국가의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수집한다(위 참조). 이 지표에 대한 데이터는 노동 가능 인구(15~64)로 제한되었다.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11점 척도(0(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10(완전히 만족함)까지)로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척도이다. 응답자에게 자신의 시간 사용의 모든 영역을 반영하는 폭넓은 평가를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이 질문은 2013 EU-SILC 조사에서 27개의 유럽 OECD 국가(아이슬란드와 터키 포함)의 16세 이상인 사람들과 멕시코의 18세 이상인 사람들(INEGI, 멕시코의 주관적 웰빙)에게 했다. 캐나다의 1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했다(2016 종합 사회 조사). 하지만 캐나다의 질문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 지표 간 상관관계

총 노동 시간에서 성별 격차는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와 합리적으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0.6)가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전체적으로 훨씬 더 오래 일하는(유급 및 무급 노동 둘 다 고려할 때) 국가에서는 전체 인구 간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다(표 10.2). 개별 데이터는 이것이 여성에 대해 사실인 것처럼 남성에게 대해서도 사실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즉, 남성과 여성 간 격차가 더 큰 국가에서 남성과 여성 둘 다 덜 만족한다. 반대로, 둘 다에 대한 가용 데이터가 있는 15개 OECD 국가 가운데 여가와 자기 돌봄(전일제 근로자의)은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16세 이상의 총 인구의)와 관련이 없다.

표 10.2.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오래 일하는 경우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일과 삶의 균형 지표 간 이변량 상관 계수

	여가 시간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총 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	긴 무급 노동 시간
여가 시간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0.11 (15)			
총 노동 시간의 성별 격차	0.31 (21)	-0.59*** (23)		
긴 무급 노동 시간	-0.21 (11)	-0.09 (10)	0.31 (11)	

주: 표는 피어슨 이변량 상관 계수를 보여준다. 괄호 안의 값은 관찰(국가) 수를 나타낸다.

*는 $p < 0.10$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는 $p < 0.05$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는 $p < 0.01$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앞선 통계 의제

최근 몇 해 동안 시간 사용 데이터에 대한 국가 간 이니셔티브(예: 다국적 시간 연구(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와 통일된 유럽생활시간조사(HETUS)), 가이드라인(예: UNECE(2013^[1]), UNSD(2005^[2])) 및 국제 분류(예: UN 시간사용 통계를 위한 국제행동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Activities for Time-Use Statistics, ICATUS))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 시간대의 길이, 그리고 일기를 작성한 일수를 포함해 데이터 수집 방법 전체에 걸쳐 보다 큰 통일이 필요하다. 주중과 주말 간 큰 평균 차이가 있을 경우 여가와 자기 돌봄 같은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주중/주말 처리에 대한 보다 일관된 접근법이 특히 중요하다. 게다가 TUS의 비교적 자원 집약적인 특성 때문에 이들 조사는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 간격으로 수행된다(미국 제외). 중간 연도 또는 구현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시간 사용에 대한 데이터는 수집 및 응답 부담이 낮은 조사 수단을 통해 수집할 수 있다(예: 사전 부호화된 시간 사용 범주의 “가벼운” 일기(UNECE, 2013^[1])).

TUS는 여가 시간의 양에 대한 정보의 일차적 출처인 한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유 시간이나 일과 삶의 균형 등에 대한 평가도 요청한다. 하지만 그러한 질문은 TUS에서 통일되지 않는다(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자유 시간 및 일-시간 균형은 완전히 유사한 개념이 아님). 유럽 국가, 멕시코 및 캐나다에 제한된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질문은 EU-SILC 2013의 임시 모듈, 멕시코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2014 조사 및 2016 캐나다 종합 사회 조사에 포함되지만 다른 OECD 국가에 대해 제공되는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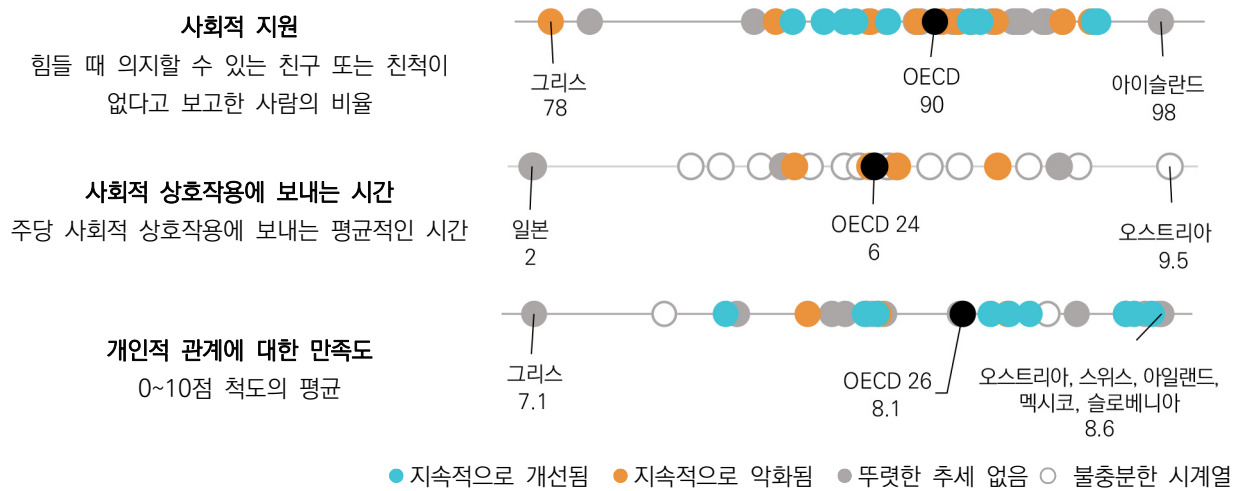
참고문헌

- UNECE (2013), *Guidelines for Harmonizing Time-Use Surveys*,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Geneva, <http://unece.org/index.php?id=34496>. [1]
- UNSD (2005), *Guide to Producing Statistics on Time Use: Measuring Paid and Unpaid Work*,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New York, <http://unstats.un.org/unsd/pubs/gesgrid.asp?id=347> (accessed on 12 December 2019). [2]

11 사회적 연계

사회적 연계는 다른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의 양과 질,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포함한다. 사교에 보내는 시간의 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연계에 대한 사람들의 자체 평가는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주로 긍정적이며 상당히 비슷하다. 평균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0~10 척도에서 8.1) 90%는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균적으로 사회적 연계를 위한 시간을 남성이 여성보다 주당 40분 덜 쓰지만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성별 차이는 무시할 정도로 작다. 나이 든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시간을 덜 쓰고 사회적 지원이 더 적지만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들의 만족도는 젊은 사람들보다 크게 낮지 않다. 교육 수준이 더 낮은 사람들이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지원의 부족에 처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림 11.1. 사회적 연계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하거나 일관된 변화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 OECD 평균과 함께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방법론에 대한 세부 항목 정보는 독자를 위한 가이드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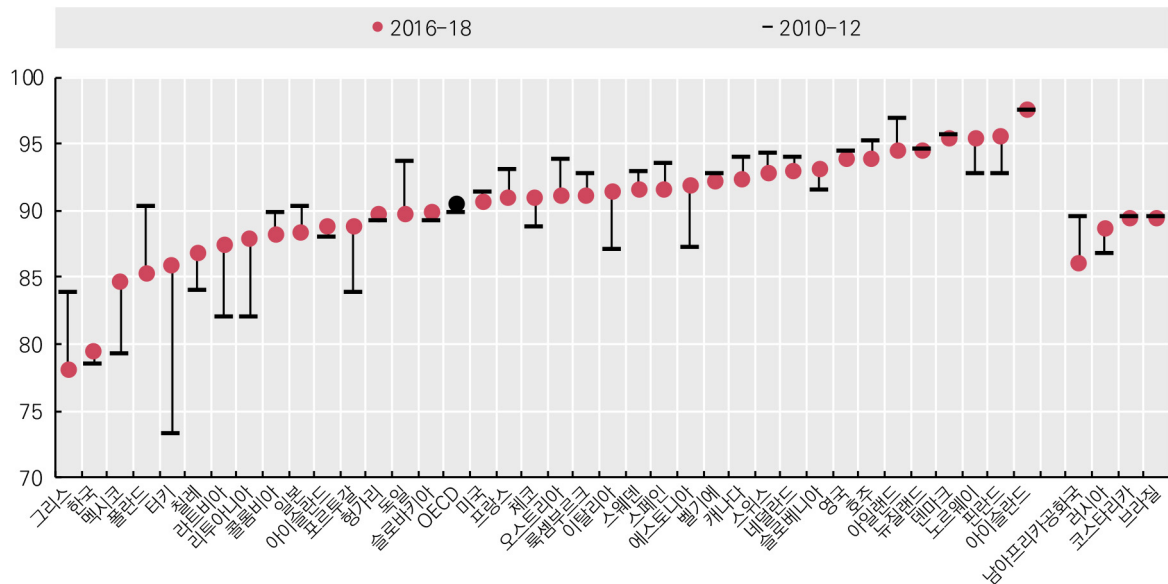
출처: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유럽통계청의 통일된 유럽 생활 시간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time-use-surveys>, 통계청,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의 표,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 독일,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및 영국에 대한 유럽통계청 데이터베이스(ilc_pw01),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종합 사회 조사 2016, <https://doi.org/10.25318/1310010601-eng>, 그리고 INEGI, 멕시코의 주관적 웰빙, <https://sinegi.page.link/p1SS>에 기반한 OECD 계산.

사회적 지원

OECD 국가에서 10명 중 9명 정도의 개인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 한다(그리스 78%부터 아이슬란드 98%까지)(그림 11.2). 2016~18년의 OECD 평균 수준은 2010~12년에서 거의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을 받는다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은 그리스(거의 6% 포인트), 폴란드(-5) 및 독일(-4)에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이탈리아와 에스토니아는 4% 포인트, 포르투갈, 멕시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터키에서는 5%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그림 11.2. 평균적으로 OECD의 국가 국민들의 90%는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어려울 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의 비율, 퍼센트



출처: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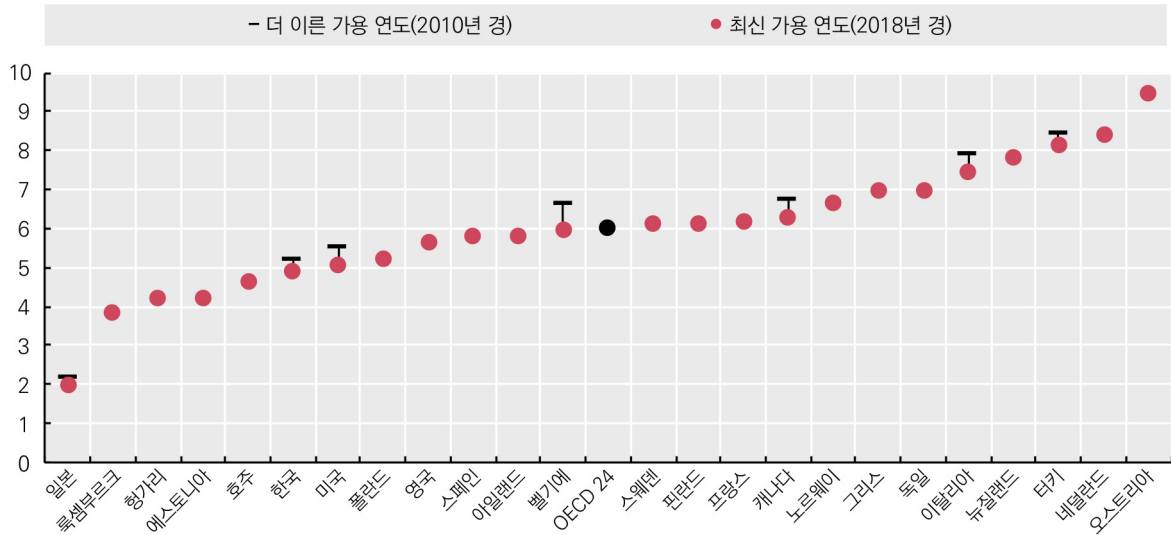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176>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내는 시간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내는 시간은 일차적 활동으로 가족 및 친구와 상호작용하며 보내는 주당 시간을 고려한다(즉, 유급 노동, 돌봄 또는 공부 같은 다른 중심 활동과 나란히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제외함). OECD 전체에 걸쳐 15세 이상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6시간을 가족 및 친구와 상호작용하면서 보낸다(그림 11.3). 이 시간의 범위는 일본이 주당 2시간이고, 룩셈부르크, 헝가리, 에스토니아는 약 4시간이며, 이탈리아, 뉴질랜드, 터키 및 네덜란드는 7시간이 넘고, 오스트리아는 9시간 이상이다. 2005년 이후 시간 사용의 변화는 단 7개의 OECD 국가: 벨기에,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한국, 터키, 미국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내는 평균 주당 시간의 양은 캐나다, 이탈리아 및 미국에서 약 30분 줄었고 벨기에에서는 40분 조금 넘게 줄었다.

그림 11.3. OECD 국가에서 사교에 쓰는 시간은 주당 2시간부터 9시간 이상까지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할당된 평균 시간, 주당 시간



주: 주요 활동 또는 일차적 활동으로 가족 및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데 보내는 시간만 고려한다. 따라서 이차적 활동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쓴 시간은 제외된다. 데이터 수집의 방법론적 차이 때문에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데이터는 제시되지 않는다. OECD 평균은 또한 최근 데이터(2005년 이후)의 부족 때문에 칠레, 체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에 대한 데이터는 제외한다. 최신 가용 연도는 미국의 경우 2018년을 참조하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2016년을 참조하며, 캐나다는 2015년, 룩셈부르크, 터키, 영국은 2014~15년, 한국은 2014년,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2013~14년, 벨기에, 독일 및 폴란드는 2012~13년, 노르웨이는 2010~11년, 스웨덴은 2010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뉴질랜드, 스페인은 2009~10년, 오스트리아는 2008~09년, 호주는 2006년, 아일랜드는 2005년이다. 이용 가능한 경우, 이른 기간에 대한 데이터는 일본의 경우 2011년을 나타내고, 캐나다와 미국은 2010년, 한국은 2009년, 이탈리아는 2008~09년, 터키는 2006년, 벨기에에는 2005~06년이다. 한국(2014)과 스웨덴을 제외하고(데이터가 15~64세의 사람들 참조) 데이터는 15세 이상을 나타내는 한편, 뉴질랜드는 12세 이상의 사람들을 나타낸다. 데이터는 하루 1,440분으로 정규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일 시간 사용이 총 1,440분이 되지 않았던 국가의 경우 누락되거나 추가된 분(보통 약 30~40분)을 모든 활동에 동일하게 분산시켰다.

출처: OECD 계산, 이용 가능한 경우 유럽통계청의 통일된 유럽생활시간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time-use-surveys> 통계청의 표를 기반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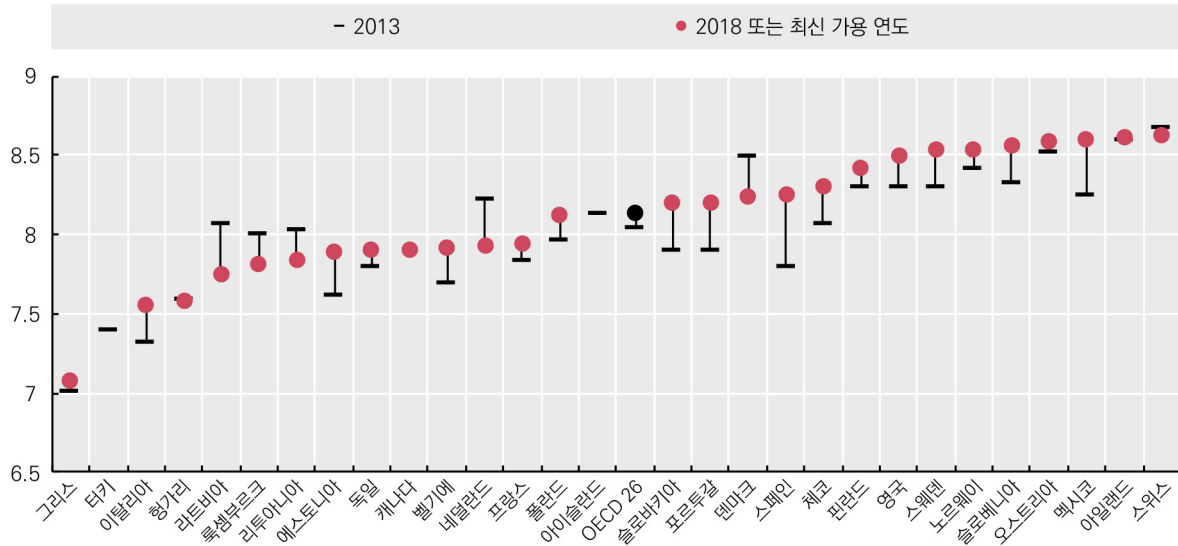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195>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적 연계의 인지된 질의 척도를 제공한다. 가용 데이터가 있는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사람들은 8.1의 평균 점수(0~10 척도에서)를 기록하면서 개인적 관계의 질에 일반적으로 만족한다. 국가 간 차이는 상당히 제한적 범위로 펼쳐지는데, 그리스는 7을 약간 넘고 스위스, 아일랜드, 멕시코, 오스트리아 및 슬로베니아는 8.6이다(그림 11.4).

그림 11.4.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OECD 국가에서 좁은 범위로 펼쳐져 있다.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값, 0~10 척도



주: 데이터는, 캐나다(15세 이상)와 멕시코(18세 이상)를 제외하고, 16세 이상 개인을 나타낸다. 최신 가용 연도는 캐나다의 경우 2016년, 아이슬란드와 터키는 2013년이다.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 부족 때문에 호주,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및 미국을 제외하며, 캐나다, 아이슬란드, 터키는 한 번의 관찰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 아일랜드와 영국에 대한 2018 데이터는 잠정적이다.

출처: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 독일(2018), 아일랜드(2018), 슬로바키아(2018), 터키(2013) 및 영국(2018)에 대한 유럽통계청 데이터베이스(ilc_pw01), 캐나다 통계청, 종합 사회 조사 2016, <https://doi.org/10.25318/1310010601-eng>, INEGI, 멕시코의 주관적 웰빙, <https://sinegi.page.link/pI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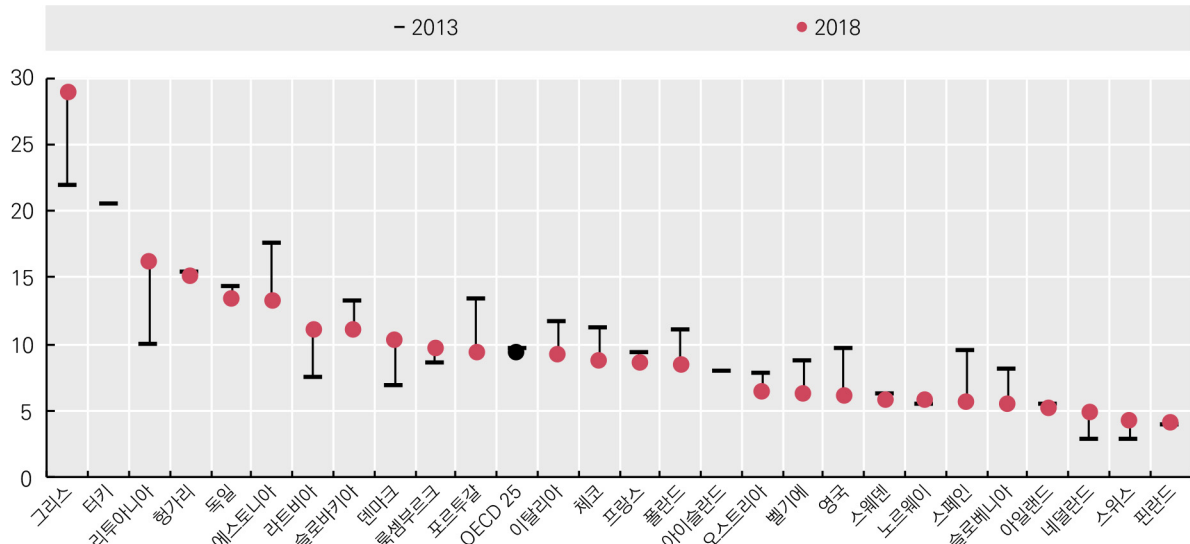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214>

2013년 이후 관계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약간 증가했지만 이는 국가 간 다양한 패턴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 (예: 스페인,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에서는 0.3점 상승, 라트비아, 네덜란드, 덴마크에서는 0.3점 감소).

OECD 국가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비교적 높은 수준의 평균에도 불구하고 약 10%의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도 점수를 5점 이하로 준다(0~10 척도에서). 이 비율의 범위는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및 아일랜드의 약 5%에서부터 헝가리, 리투아니아, 터키의 15% 이상, 거의 30%인 그리스 등이다(그림 11.5).

그림 11.5.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10%의 사람들은 자신의 관계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고한다.

자신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 낮은 만족도(0~10 척도에서 5점 이하)를 보고하는 16세 이상 사람들의 비율, 퍼센트



주: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 부족 때문에 호주,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및 미국을 제외하며, 아이슬란드, 터키는 한번의 관찰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통계청의 표가 분포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만큼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제시되지 않는다. 아일랜드와 영국에 대한 2018 데이터는 잠정적이다.

출처: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 독일(2018), 아일랜드(2018), 슬로바키아(2018), 터키(2013) 및 영국(2018)에 대한 유럽통계청 데이터베이스 (ilc_pw05).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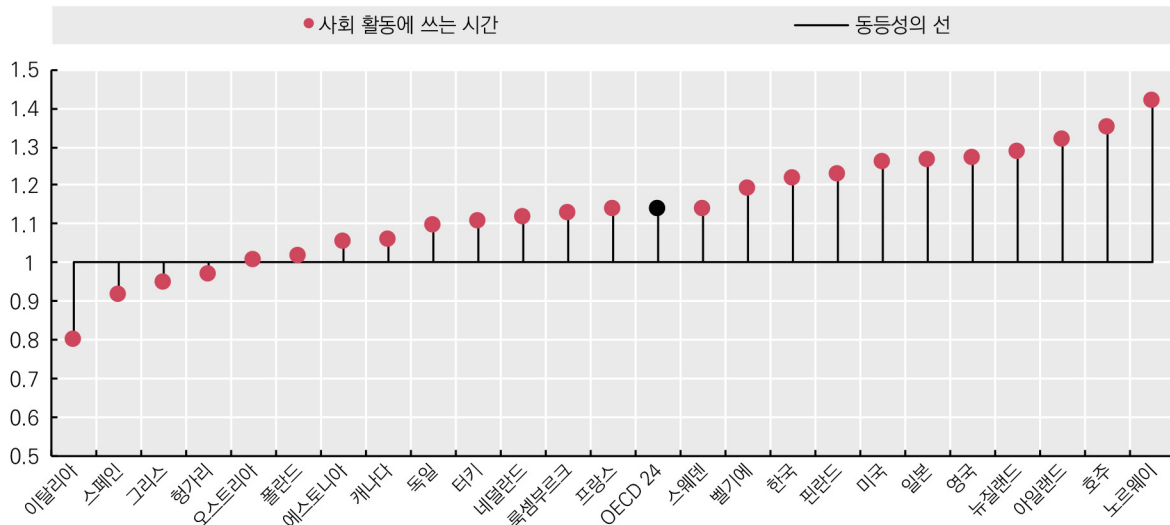
사회적 연계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을 쓰지만 지원이나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는 없다.

사회적 지원이나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 상당한 성별 차이는 없다. 하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내는 시간에서 큰 성별 불평등이 드러난다(그림 11.6). 평균 OECD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주당 40분을 더 쓴다(여성 6시간 20분 대 남성 5시간 40분). 여성에게 유리한 격차는 특히 노르웨이(주당 약 2시간 20분),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및 영국(모두 1시간 이상)에서 크다. 반대로, 이탈리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사교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남성 주당 8시간 20분 대 여성 6시간 40분)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도 더 적은 차이로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림 11.6.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성비, 최신 가용 연도



주: 성비는 여성에 대한 평균 값을 남성에게 대한 평균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1.0 위의 값은 항상 여성에게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내며 1.0 아래의 값은 항상 남성에게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낸다. 주요 활동 또는 일차적 활동으로 가족 및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데 보내는 시간만 고려한다. 따라서 이차적 활동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쓴 시간은 제외된다. 데이터 수집의 방법론적 차이 때문에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데이터는 제시되지 않는다. OECD 평균은 최근 데이터(2005년 이후)의 부족 때문에 칠레, 체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에 대한 데이터는 제외한다. 데이터는 미국의 경우 2018년을 나타내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2016년을 나타내며, 캐나다는 2015년, 룩셈부르크, 터키, 영국은 2014~15년, 한국은 2014년,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2013~14년, 벨기에, 독일 및 폴란드는 2012~13년, 노르웨이는 2010~11년, 스웨덴은 2010년,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뉴질랜드, 스페인은 2009~10년, 오스트리아는 2008~09년, 호주는 2006년, 아일랜드는 2005년이다. 데이터가 15~64세의 사람들 참조하는 한국과 스웨덴, 12세 이상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데이터는 15세 이상을 나타낸다. 데이터는 하루 1,440분으로 정규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일 시간 사용이 총 1,440분이 되지 않았던 국가의 경우 누락되거나 추가된 분(보통 약 30~40분)을 모든 활동에 동일하게 분산시켰다.

출처: 유럽통계청의 통일된 유럽생활시간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time-use-surveys>와 통계청의 표에 기반한 OECD 계산(이용 가능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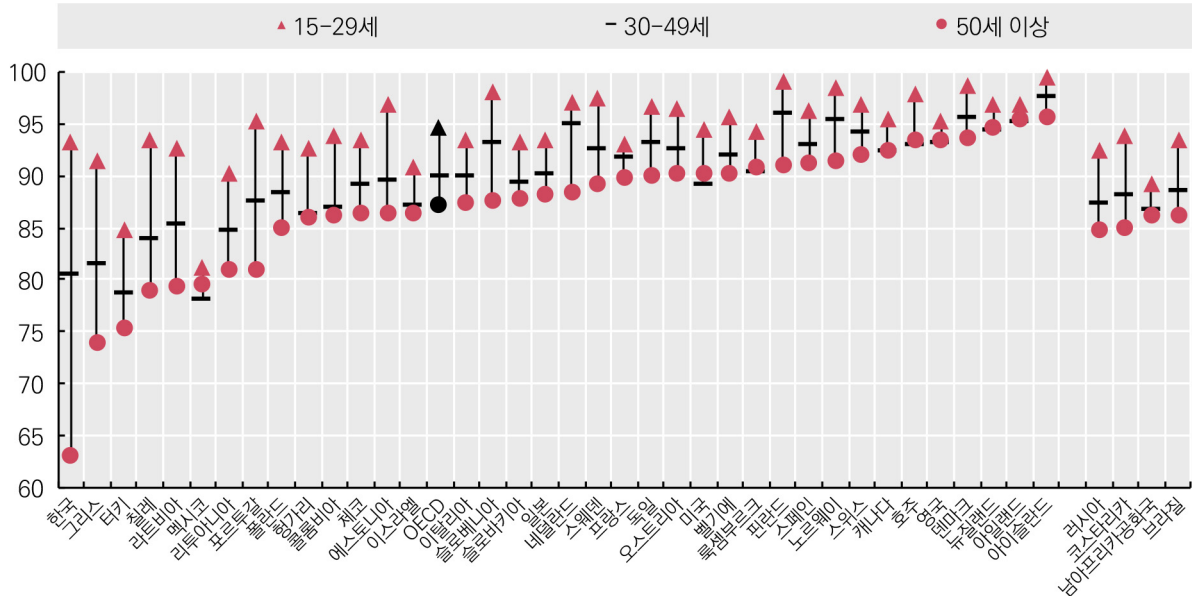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252>

더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연령 집단보다 지원을 덜 받는다고 느끼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시간을 덜 쓰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인지된 사회적 지원은 연령에 따라 감소한다. 한국, 그리스, 칠레, 라트비아, 포르투갈에서 사회적 지원의 연령 기울기는 특히 급격하다(그림 11.7). 예를 들어, 한국에서 15~29세 사람 중 93%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것에 비해, 50세 이상에서는 63%만이 그렇게 보고한다. 이와 반대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및 영국에서는 연령 집단 전체에서 사회적 지원의 격차가 작다.

그림 11.7. 더 나이 든 사람들은 사회적 지원이 더 적다.

어려울 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의 비율, 연령별, 퍼센트, 2010~18 종합 데이터



주: 50세 이상인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 지원에 대해 오름차순으로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출처: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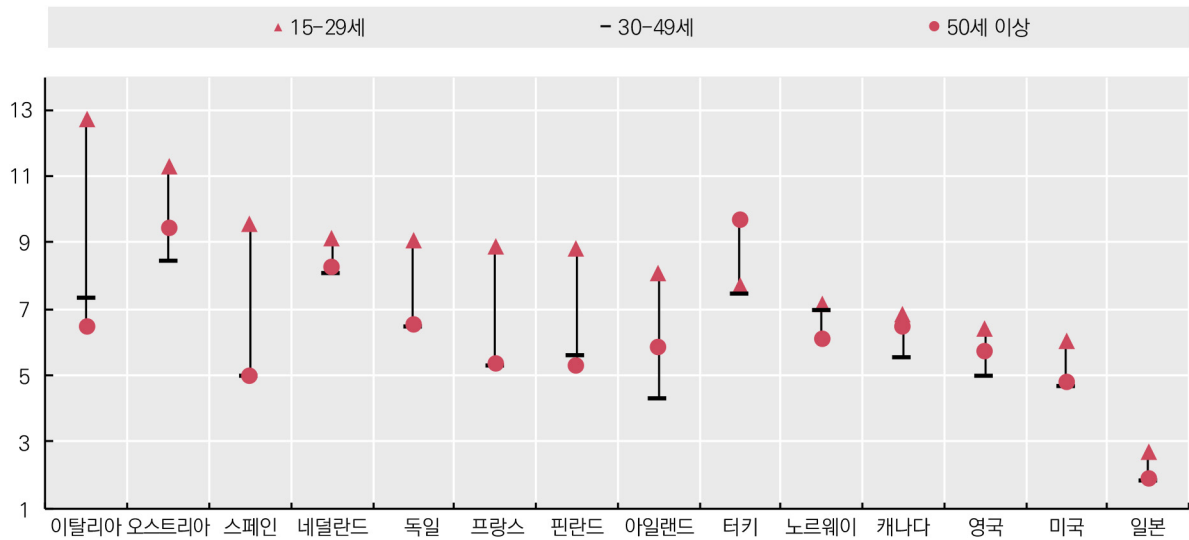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271>

가용 데이터가 있는 14개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젊은 사람들(15~29세)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년층(30~49세)보다 주당 2시간 20분 가까이 시간을 더 쓴다(그림 11.8). 격차는 노르웨이와 터키에서는 작지만 젊은 사람들이 중년층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3시간 50분~5시간 20분 더 쓰는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에서는 넓다. 다양한 국가 간 패턴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가용 데이터가 있는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중년층(30~49세)과 더 나이 든 사람들(50세 이상)이 사교에 비슷한 시간을 쓰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30~49세의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사람들은 50세 이상의 사람들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한다. 반대로, 아일랜드의 나이 든 사람들은 30~49세의 사람들보다 사교에 주당 거의 1시간 40분의 시간들 더 쓰며, 이 차이가 터키에서는 2시간 20분이 된다.

사회적 지원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쓰는 시간의 큰 연령 격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의 연령 차이는 비교적 작다. 평균 OECD 국가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16~29세 사람들의 경우 8.3(그리스 7.4부터 슬로베니아 8.9까지), 30~49세 연령 집단의 경우 8(그리스 7.1부터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8.5까지), 50세 이상의 경우 8(그리스 7부터 스웨덴 8.8까지)이다.

그림 11.8. 더 젊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쓰는 평균 시간, 주당 시간, 연령별, 최신 가용 연도



주: 15~29세인 사람들 가운데 사교에 쓰는 시간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주요 활동 또는 일차적 활동으로 가족 및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데 보내는 시간만 고려한다. 따라서 이차적 활동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쓴 시간은 제외된다. 데이터 수집의 방법론적 차이 때문에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데이터는 제시되지 않는다. 통계청의 표가 연령 구분을 계산하기에 충분할 만큼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호주, 벨기에,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한국,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폴란드 및 스웨덴도 제외된다. 최근 데이터(2005년 이후)의 부족 때문에 칠레, 체코,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에 대한 데이터는 표시되지 않는다. 최신 가용 연도는 미국의 경우 2018년을 참조하고, 일본과 네덜란드는 2016년을, 캐나다는 2015년, 터키와 영국은 2014~15년, 이탈리아는 2013~14년, 독일은 2012~13년, 노르웨이는 2010~11년, 핀란드, 프랑스, 스페인은 2009~10년, 오스트리아는 2008~09년, 아일랜드는 2005년이다. 데이터는 하루 1,440분으로 정규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일 시간 사용이 총 1,440분이 되지 않았던 국가의 경우 누락되거나 추가된 분(보통 약 30~40분)을 모든 활동에 동일하게 분산시켰다.

출처: 유럽통계청의 통일된 유럽생활시간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time-use-survey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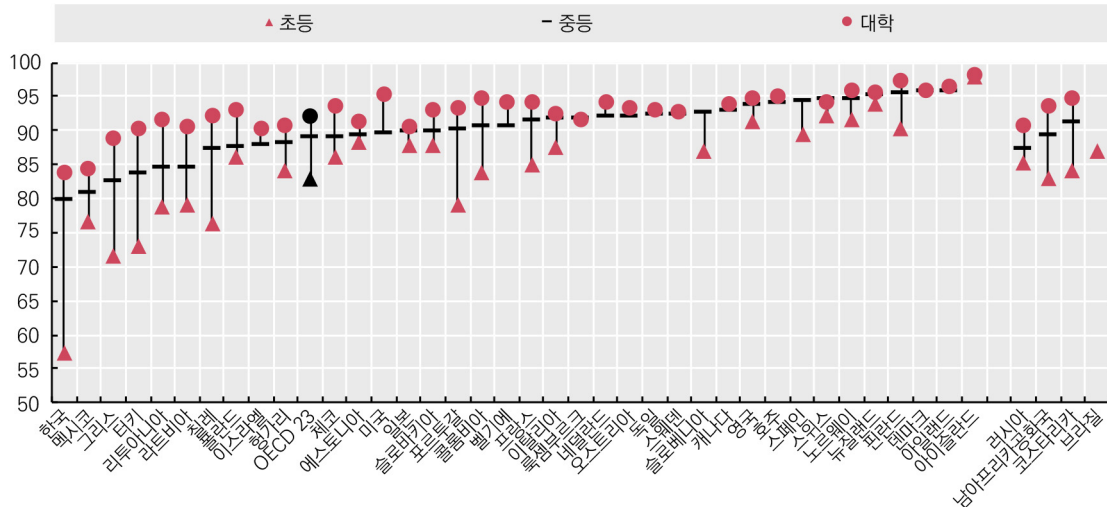
교육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원에 접근하기가 더 쉽다고 보고한다.

평균 OECD 국가의 경우,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보고하는 초등 교육만 받은 사람들의 비율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9% 포인트 낮다(그림 11.9). 스위스, 뉴질랜드, 아이슬란드에서는 격차가 2% 포인트 미만이지만 한국, 그리스, 터키, 칠레에서는 15% 포인트를 넘어선다.

마찬가지로, 평균 OECD 국가에서 초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교육을 더 받은 사람들에 비해 대체로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덜하다(그림 11.10). 평균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과 초등 교육을 받은 사람 간 차이는 약 0.5점(0~10 척도)이며,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은 국가(예: 리투아니아, 헝가리 및 이탈리아)의 경우 이 격차가 더 크다. 이와 반대로, 개인적 관계에 대한 평균 만족도가 높은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에서는 교육 수준별 격차가 작다.

그림 11.9. 교육 수준이 더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 지원을 덜 받는다.

어려울 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의 비율, 교육 수준별, 퍼센트, 2010~18 종합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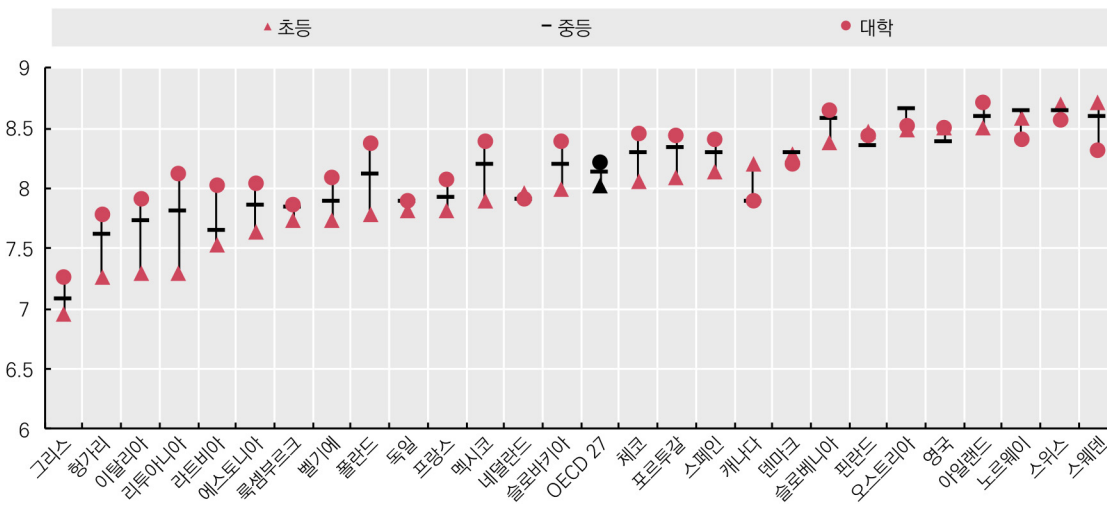
주: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 지원에 대해 으뜸차순으로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주어진 범주의 표본 크기가 500회 관찰 미만인 국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다. OECD 평균은 세 가지 교육 수준을 관찰한 국가만 포함한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미국은 OECD 평균에서 제외된다.

출처: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309>

그림 11.10. 더 낮은 교육 수준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관계에 대해 덜 만족한다.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교육 수준별, 최신 가용 연도



주: 초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개인적 관계 만족도에 대해 으뜸차순으로 국가의 순위를 매겼다. 데이터는, 캐나다(15세 이상)와 멕시코(18세 이상)를 제외하고, 16세 이상 개인을 나타낸다.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 부족 때문에 호주, 칠레,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터키 및 미국을 제외한다. 최신 가용 연도는 캐나다(2016)와 멕시코(2014)를 제외하고 2018년을 나타낸다. 아일랜드와 영국에 대한 데이터는 잠정적이다.

출처: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 독일,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및 영국에 대한 유럽통계청 데이터베이스(ilc_pw05), 캐나다 통계청, 종합 사회 조사 2016, <https://doi.org/10.25318/1310010601-eng>, INEGI, 멕시코 2014의 주관적 웰빙, <https://sinegi.page.link/p1S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328>

상자 11.1. 앞선 측정 및 통계 의제

사회적 연계에 대한 이상적 지표 세트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예: 개인이 세대 구성원, 가족, 친구, 동료 및 다른 아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빈도), 질(예: 사회적 상호작용의 만족도, 인지된 외로움), 그리고 이러한 연계가 제공하는 지원(예: 정서적 및 재정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적 연계의 양과 질 둘 다 측정하는 것은 특히 의의가 있는데 이들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은 현상을 포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쓰는 것이 반드시 외로움이나 지원의 부족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각각의 개념을 이 장에 포함된 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포착한다(표 11.1).

표 11.1. 이 장에서 고려한 사회적 연계 지표

	평균	수직적 불평등(분포의 분포의 상층과 하층 간 격차)	수평적 불평등 (성별, 연령 및 또는 교육 수준에 따른 그룹 간 차이)	박탈
사회적 지원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친척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해당 없음	사회적 지원의 격차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또는 친척이 없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내는 시간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내는 주당 평균 시간	해당 없음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내는 주당 평균 시간의 격차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개인적 관계에 대한 평균 만족도, 0~10 척도로 측정	개인적 관계에 대한 평균 만족도의 S80/S20 비율	개인적 관계에 대한 평균 만족도의 격차	0~10점 척도에서 5점 이하의 점수를 보고하는 사람들의 비율(유럽통계청이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정의함)

사회적 지원은 (예/아니요) 질문에 대해 “예”로 답한 사람의 비율을 참조한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든 당신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국가 평균의 경우, 3년 기간(예: 2016~2018)의 모든 가용 연도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하여 추정치의 정확도를 개선한다. 불평등 기록의 경우 더 긴 기간(2010~2018)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다. 이들 데이터의 출처는 매년 국가당 약 1,000명의 표본을 수집하는 갤럽 세계 조사이다. 표본은 15세 이상 인구의 국가적 대표가 되도록 사전 설계된다(시골 지역 포함).

사회적 상호작용에 쓰는 시간은 일반적인 날(이 장에서의 평균은 주당 추정치로 전환되었음)에 일차적 활동(예: 가족과 대화를 하거나 친구와 함께 외출)으로 친구 또는 친척과 상호작용하는 데 할당한 시간을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 평균은 조사일 동안 사회적 상호작용에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사람들을 제외하지 않는다. 가족 및 친구와 상호작용하는 데 보내는 시간만을 주요 활동 또는 일차 활동으로 간주하고 일차적 활동과 함께 발생하는 상호작용(예: 저녁 식사 중 대화를 하거나 무급 노동을 수행하는 동안 전화로 잡담 나누기 등)은 제외하기 때문에 이 장에서 제시되는 시간 추정치는 사회적 활동에 보내는 총 시간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일상 활동에 할당한 시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생활시간조사(TUS)에서 구한 것이다. 응답자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활동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24시간 일기를 1일 이상 쓴다.

일부 국가(예: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고 더 작은 정도까지, 아일랜드)는 시간 사용 일기를 단순화한 변형을 사용하며, 이는 다른 국가보다 덜 정확한 추정치를 낳는다. 또한 멕시코의 생활시간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인터뷰 전 7일 동안의 시간 사용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활동과 인터뷰 간 큰 시차를 고려했을 때 응답은 실제 시간 사용의 더욱 개략적인 추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콜롬비아와 멕시코에 대한 시간 사용 추정치는 이 장에서 표시되지 않는다.

이상적인 것은,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1년 전체에 걸쳐 펼쳐져서 평일과 주말의 대표적 비율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공휴일과 학교 방학도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정도를 달리 하기 위해 주 또는 년의 특정 기간만 포함하며 호주, 아일랜드, 일본, 한국 및 멕시코가 이런 경우이다. 또한, 활동 부호화의 차이는 특히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을 때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 한정될 수 있는데, 통계 기관이 매우 세부적인 활동을 국가들 간에 어느 정도 다를 수 있는 더 넓은 범주로 종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생활시간조사는 경기 순환 단계가 다른 국가들에 대해 서로 다른 연도에 집행되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가 간 관찰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표시된 데이터는 통일된 유럽생활시간조사, 유럽통계청 시간 사용 데이터베이스, 공적사용 생활시간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그리고 통계청의 표를 이용해서 사후에 OECD가 통일시켰다. 이들 출처는 OECD 성별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되어 있다. 일일 시간 사용이 총 1,440분이 되지 않았던 국가는 누락되거나 추가된 분(보통 약 30~40분)을 모든 활동에 동일하게 분산시켰다.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응답자는 자신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0(전혀 만족하지 않음)부터 10(완전히 만족함)까지 11점 척도로 평가했다. 변수는 자신의 개인적 관계의 만족도 정도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느낌을 나타낸다. 응답자는 특정 시점(요즘) 자신의 개인적 관계(예: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의 모든 영역을 반영하는 폭넓은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 지표에 대한 출처는 캐나다 통계청(종합 사회 조사 2016), INEGI(멕시코의 주관적 웰빙) 및 유럽통계청(EU-SILC, 2018 및 2013)이다. 이 지표는, 캐나다(15세 이상)와 멕시코(18세 이상)를 제외하고, 16세 이상 개인을 참조한다.

사회적 연계 지표 간 상관관계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지원과 개인적 관계 만족도 간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상관관계(0.5)가 있다 (표 11.2). 사회적 지원이 더 높은 이들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개인적 관계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에 반해, 사회적 상호작용에 쓰는 시간은 개인적 관계 만족도 또는 사회적 지원 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으며 각각의 지표가 사회적 연계의 다른 측면을 포착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표 11.2. 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적 지원은 상관관계가 없다.

사회적 연계 지표 간 이변량 상관 계수

	사회적 지원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내는 시간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지원			
사회적 상호작용에 보내는 시간	0.09 (26)		
개인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0.51*** (29)	-0.00 (20)	

주: 표는 피어슨 이변량 상관 계수를 보여준다. 괄호 안의 값은 관찰(국가) 수를 나타낸다.

*는 $p < 0.10$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는 $p < 0.05$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는 $p < 0.01$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앞선 통계 의제

여기에 포함된 사회적 지원의 척도는 여러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다. 단순한 예/아니오 질문으로는 받는 지원의 빈도, 강도 또는 질에 대해서나 지원의 유형(예: 재정적 또는 정서적 지원)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예/아니오 질문으로는 수직적 불평등(즉, 분포의 상위와 하위 간 격차)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몇몇 OECD 국가에서는 척도가 최대 한계에 닿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예: 95% 이상의 인구가 지원을 보고) 이는 집단의 차이를 평가하는 섬세함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갤럽 세계 조사의 작은 표본 크기는 특히 연령 집단 간 불평등과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탐색할 때 측정 오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수십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회적 지원 척도에 대한 방대한 심리학 문헌이 존재하며, 통계청(NSO)은 그러한 척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유럽 외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척도 수집에서 NSO 관행 전반에 걸친 일관성이 거의 없다(Fleischer, Smith 및 Viac, 2016^[1]).

생활시간조사(TUS)는 사회적 활동에 보낸 시간의 질에 대한 정보의 주요 출처이다. 생활시간조사의 통일을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간 이니셔티브(다국적 시간 연구(MTUS)와 통일된 유럽생활시간조사(HETUS)), 가이드라인(예: UNECE(2013^[2]), UNSD(2005^[3])) 및 국제 분류(예: UN 시간사용 통계를 위한 국제행동분류(ICATUS))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현안 문제가 여전히 완전한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막고 있다. 일기 시간대의 길이, 그리고 일기를 작성한 일수를 포함해 데이터 수집 방법 전체에 걸쳐 보다 큰 통일이 필요하다. 게다가 TUS의 비교적 자원 집약적인 특성 때문에 이들 조사는 일반적으로 5년 또는 10년의 간격으로 수행된다(미국 제외). 중간 연도 또는 구현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시간 사용에 대한 데이터는 수집 및 응답 부담이 낮은 조사 수단을 통해 수집할 수 있다(예: 사전 부호화된 시간 사용 범주의 “가벼운” 일기(UNECE, 2013^[2])).

개인적 관계 만족도에 대한 통일된 조사 또한 드물게 임시로 수행되고 있다. 더구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희박하다. 하지만 후자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화의 증가와 함께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기술은 강력한 유대의 소규모 네트워크보다는 약한 유대의 더 넓은 네트워크를 촉진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은 상당할 것이다(OECD, 2019^[4]). 가장 최근의 생활시간조사는 응답자에게 기술 사용을 기록하도록 요청하지만 당분간은 이 지표를 제한적인 수의 국가에 대해서만 계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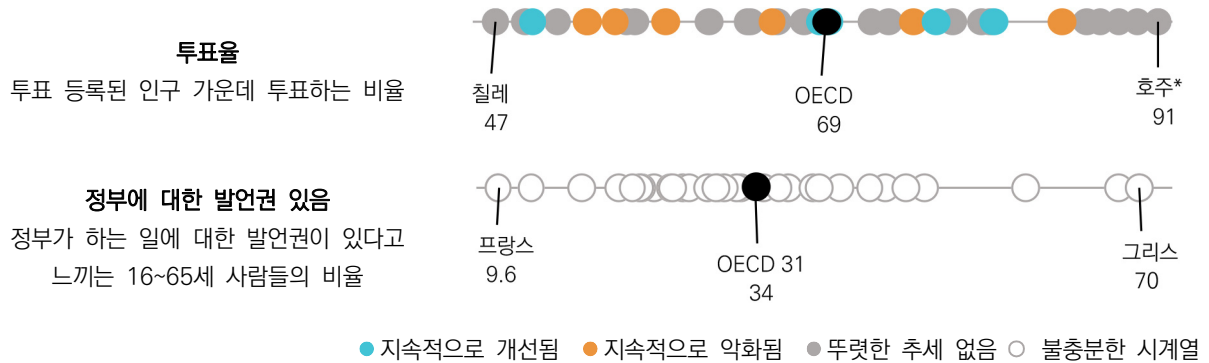
참고문헌

- Fleischer, L., C. Smith and C. Viac (2016), “A Review of General Social Survey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6/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bb54d16f-en>. [1]
- OECD (2019), *How's Life in the Digital Age?: Opportunities and Risk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People's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11800-en>. [4]
- UNECE (2013), *Guidelines for Harmonizing Time-Use Surveys*,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Geneva, <http://unece.org/index.php?id=34496>. [2]
- UNSD (2005), *Guide to Producing Statistics on Time Use: Measuring Paid and Unpaid Work*,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New York, <http://unstats.un.org/unsd/pubs/gesgrid.asp?id=347> (accessed on 12 December 2019). [3]

12 시민 참여

시민 참여는 시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OECD 국가의 투표율은 2010~13년 이후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머물고 있으며 2016~19년에는 약 69%였다. 그에 반해, OECD 국가 사람들 3명 중 1명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고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은 중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은 OECD 국가 전체에 걸쳐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 교육을 마친 사람들의 84%가 투표를 하는 반면에,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78%가 투표를 한다. 성별 차이는 대체로 작으며, OECD회원국들은 투표율과 정부에 대한 발언권 모두에 있어 평균적으로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 데, 이러한 차이가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림 12.1. 시민 참여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9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하거나 일관된 변화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 OECD 평균과 함께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방법론에 대한 세부 항목 정보는 독자를 위한 가이드를 참조한다.

* 투표율은 의무투표가 시행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출처: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 연구소(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데이터베이스)(2019), <https://www.idea.int/>, OECD 성인역량조사(Survey of Adult Skills)(PIAAC)(데이터베이스)(2019), <https://oecd.org/skills/piaac/>.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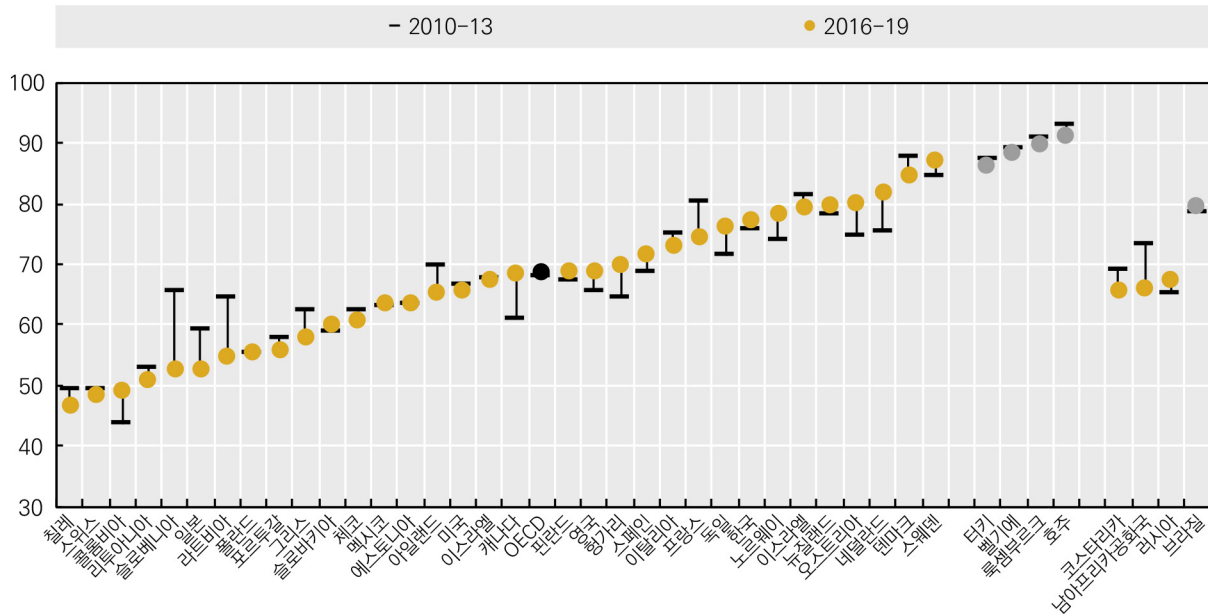
2016~19년의 투표율은 선거참여가 의무인 호주 91%부터 칠레 46.5%까지 있다(그림 12.2).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투표 등록자의 약 2/3는 지난 선거에서 투표를 했으며(68.7%), 이 비율은 2010~13년 이후 안정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안정성은 오스트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헝가리, 네덜란드(주로 평균 이상의 투표율을 이미 달성한 국가)의 5% 포인트 이상의 증가를 가리고, 일본의 7% 포인트, 라트비아와 슬로베니아의 10% 포인트가 넘는 상당한 감소를 가리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 보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9.6%의 프랑스, 거의 70%인 리투아니아와 그리스 등이며 OECD 국가 평균은 34%이다(그림 12.3). 역으로, 평균 46%의 사람들은 발언권이 없다고 생각하며 나머지 20%는 양면적이다. 북유럽 국가, 칠레, 리투아니아, 그리스, 미국은 정부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발언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초과하는 유일한 OECD 국가들이다.

그림 12.2. 2010~13년 이후 투표율의 대폭 하락은 몇 개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투표 등록된 인구 가운데 투표,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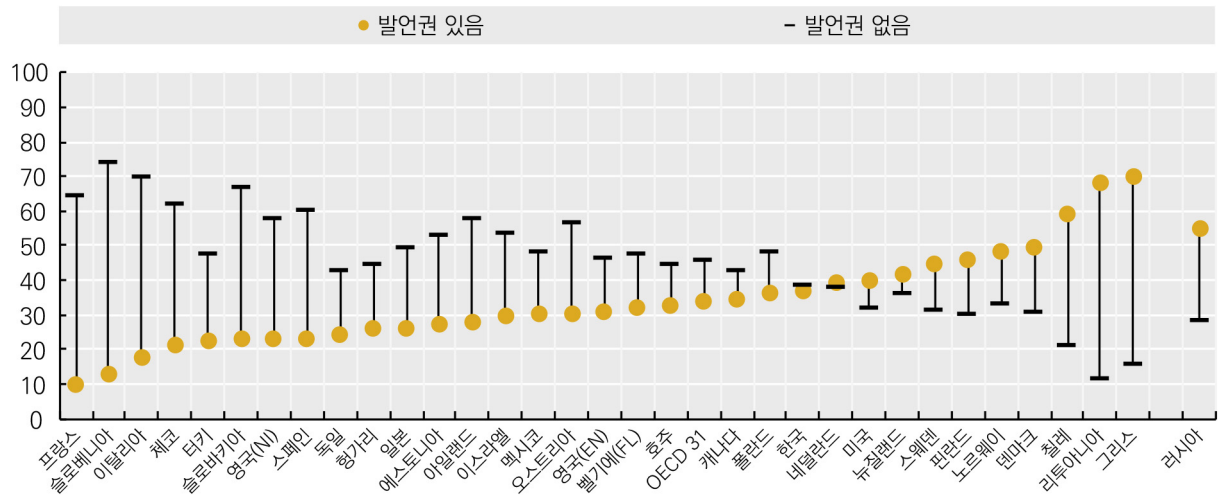


주: 최신 가용 연도는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이스라엘,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19년,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 러시아 연방은 2018년,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프랑스, 독일,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은 2017년, 호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미국은 2016년, 캐나다,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는 2015년, 일본은 2014년이다.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호주, 벨기에,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의 경우 2010년,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는 2011년, 프랑스, 그리스, 일본, 한국,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 러시아 연방은 2012년, 오스트리아, 칠레, 독일,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는 2013년이다. 총선은 브라질, 프랑스, 한국, 멕시코, 폴란드, 러시아 연방과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나타내며, 다른 국가에서는 의원 선거를 나타낸다. 호주, 벨기에, 브라질, 룩셈부르크, 터키(회색으로 표시)는 의무투표를 시행한다.

출처: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 연구소(IDEA)(데이터베이스)(2019), <https://www.idea.i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347>

그림 12.3. 세 명 가운데 한 명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느낀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고/없다고 느끼는 16~65세 사람들의 비율, 퍼센트, 2012년 경



주: 데이터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연방,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경우 2011~12년을 참조하며, 프랑스는 2012년,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터키는 2014~15년, 멕시코, 헝가리, 미국은 2017년이다. 벨기에에 대한 데이터는 플랑드르를 나타내며,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기록된다. 러시아 연방에 대한 데이터는 모스크바 도시 지역을 제외한다. OECD 평균은 잉글랜드 및 북아일랜드와 미국에 대한 2012~14년(발언권 있는 경우 41.6%, 발언권 없는 경우 35.2%, 여기에 표시되지 않음)과 2017년 데이터 수집 차수들의 단순 평균 둘 다를 포함한다. 가용 데이터 부족 때문에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는 제외한다.

출처: OECD 성인역량조사(PIAAC)(데이터베이스), <https://oecd.org/skills/piaac/>.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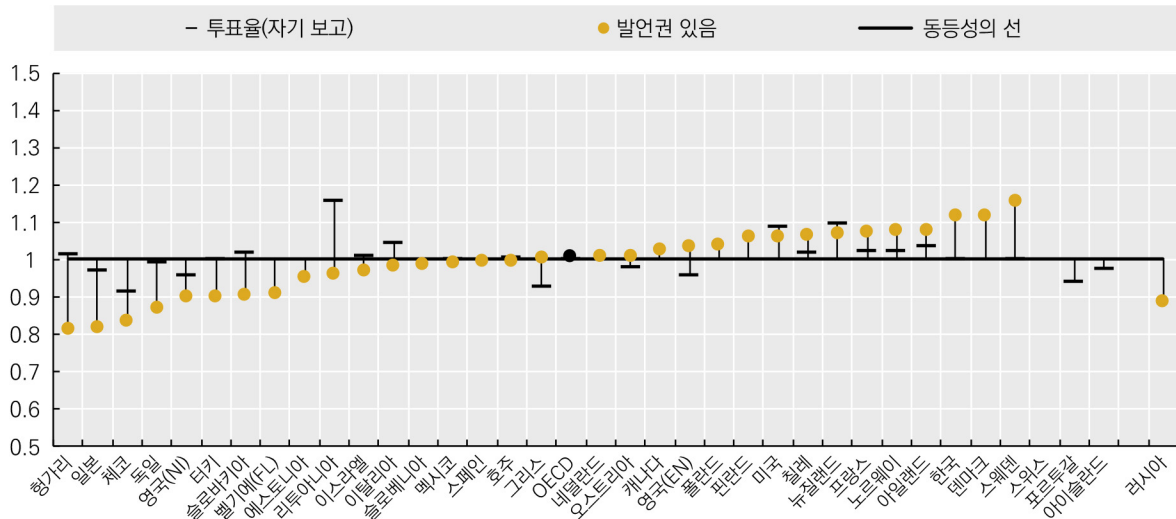
시민 참여 불평등: 인구집단 간 격차

시민 참여 성과의 성별 격차는 작고 여성에게 약간 유리하다.

대다수 OECD 국가에서 투표 행동과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는 생각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간 차이는 매우 작다. 실제로, 성별 동등성은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달성되었다.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여성들은 약간 더 많은 국가에서 더 잘 해내는 경향이 있다(그림 12.4). 여성에게 유리한 성별 격차는 북유럽 국가와 한국에서 가장 크며, 스웨덴은 최대 차이를 기록한다(여성의 47.9%와 남성의 41.3%가 정부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함). 체코, 일본, 헝가리는 남성에게 유리한 최대 성별 격차가 있다. 자기 보고된 투표율에 대한 데이터가 제공되는 24개 OECD 국가 중 절반에서 약간 더 많은 여성들이 투표하러 가겠다고 보고했다. 호주, 이스라엘, 헝가리에서는 1% 포인트 미만의 차이가 있으며 리투아니아에서는 9% 포인트의 차이가 있다. 시민 참여의 성별 격차는 관련이 없다. 더 많은 여성이 투표하는 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는 의식이 여성이 남성보다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림 12.4. 약간 더 많은 OECD 국가에서 투표를 하고 정부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약간 높다.

자기 보고된 투표율에 대한 성비, 2015~18, 그리고 정부에 대한 발언권이 있음, 2012년 경



주: 성비는 여성에 대한 평균 값을 남성에 대한 평균 값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1 위의 값은 항상 여성에게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내며 1 아래의 값은 남성에게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낸다. 자기 보고된 투표율에 대해 데이터는 프랑스의 경우 2012년을 나타내며, 호주, 체코, 아이슬란드, 일본, 노르웨이, 영국은 2013년, 뉴질랜드와 스웨덴은 2014년, 그리스, 포르투갈, 터키는 2015년, 아일랜드, 한국,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미국은 2016년, 오스트리아, 칠레, 독일은 2017년, 헝가리와 이탈리아는 2018년을 나타낸다. 북아일랜드와 잉글랜드에 대한 자기 보고된 투표율은 전체 영국에 대한 값, 그리고 의원 선거, 하원을 나타내며, 칠레와 미국(대통령 선거) 그리고 이탈리아(의원 선거, 하원과 상원 둘 다)는 제외한다. 정부에 대한 발언권에서 기준 연도와 추가 세부 사항은 그림 12.3의 주를 참조한다. OECD 평균은 자기 보고된 투표율에 표시된 24개 국가와 발언권에 대해 표시된 31개 국가를 나타낸다.

출처: 선거제도 비교 연구(데이터베이스), <https://cses.org/> 및 OECD 성인역량조사(PIAAC)(데이터베이스), <https://oecd.org/skills/piaac/>.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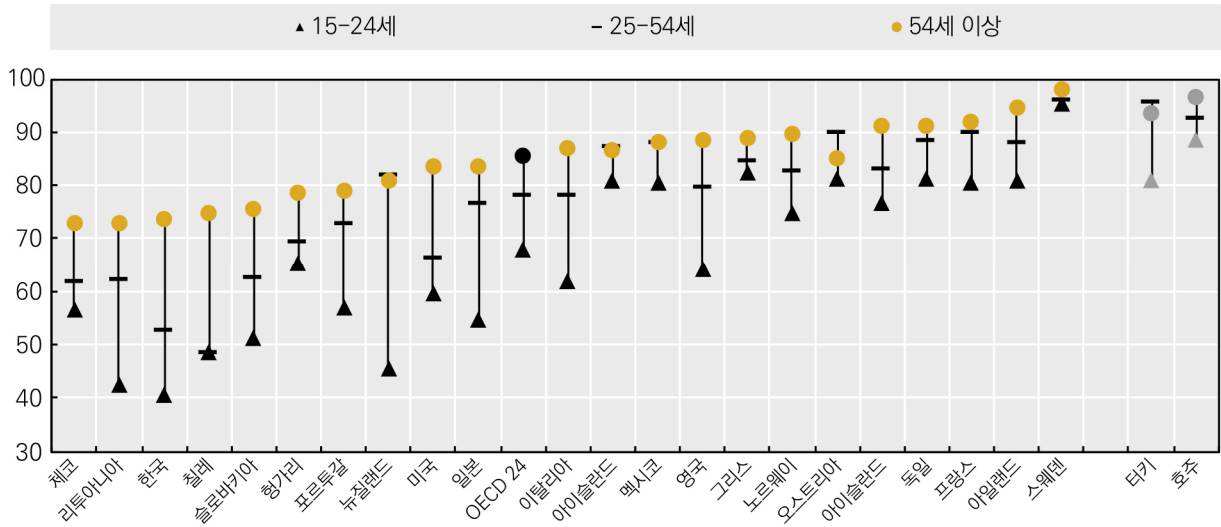
시민 참여에는 뚜렷한 연령 관련/교육 수준 관련 차이가 있다.

나이 든 사람들의 자기 보고된 투표율은 젊은층과 중년층보다 더 높다.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에서 15~24세의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가장 낮는데,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68%이며 이에 비해 54세 이상의 투표율은 85%이다(그림 12.5). 연령 차이는 전체적으로 투표율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며, 이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정치적 참여의 국가 차이가 국가 간 관찰된 차이를 설명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OECD에서 평균적으로 정부 결정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연령 차이는 매우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는 상당한 연령 차이가 있다(그림 12.6). 일부 경우에 나이 든 사람들은 더 젊은 연령층에 비해 자신에게 정부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는 생각을 덜 한다(예: 한국, 에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반대로, 더 나이 든 세대가 발언권이 있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들도 있다(예: 뉴질랜드, 리투아니아, 그리스, 미국, 영국(잉글랜드), 호주). 칠레에서는 중년층이 정부 결정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다.

그림 12.5. 젊은 층에 비해 나이 든 사람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한다.

연령별 자기 보고된 투표율, 퍼센트, 20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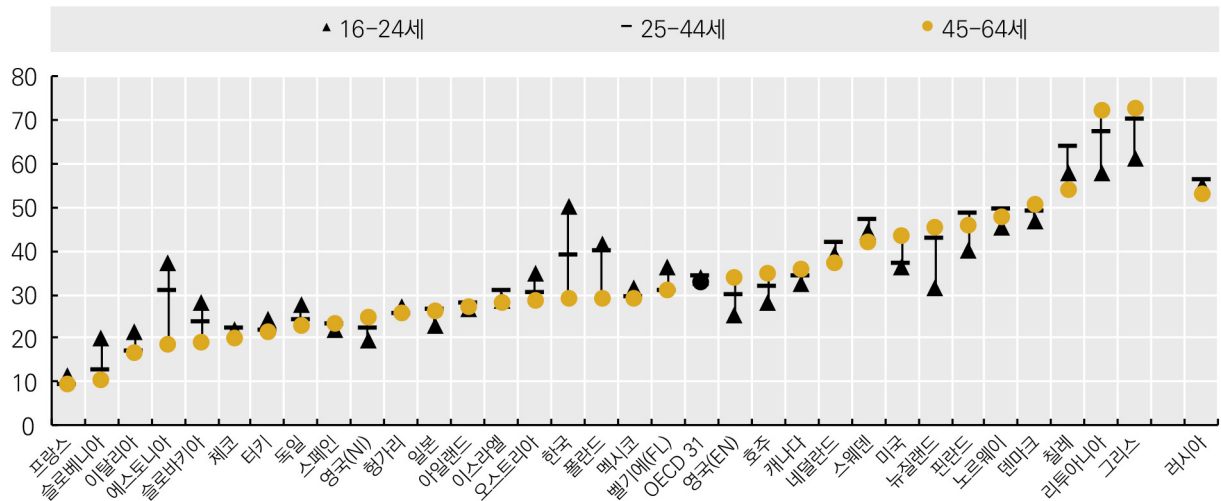


주: 기준 연도와 추가 세부 사항은 그림 12.4의 주를 참조한다. 호주와 터키(회색으로 표시)는 의무투표를 시행한다.
출처: 선거제도 비교 연구(데이터베이스), <https://cses.org/>.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404>

그림 12.6. 가장 나이 든 세대와 가장 젊은 세대가 발언권이 있다고 한 비율이 가장 낮다 (국가에 따라 다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고 느끼는 16~65세 사람들의 비율, 연령별, 퍼센트, 2012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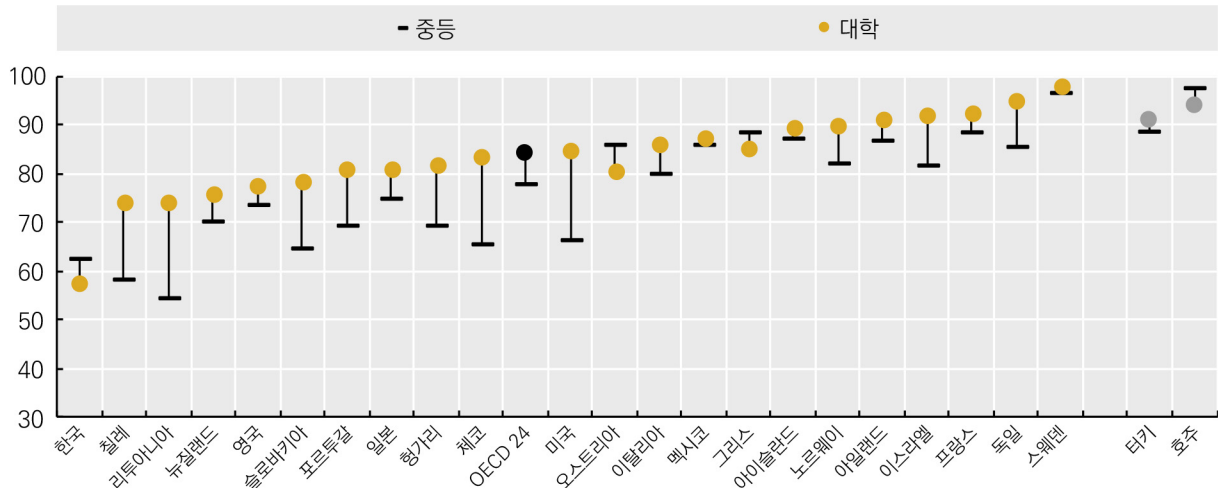
주: 기준 연도와 추가 세부 사항은 그림 12.3의 주를 참조한다.
출처: OECD 성인역량조사(PIAAC)(데이터베이스): <https://oecd.org/skills/piaac/>.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423>

24개 OECD 국가 중 20개에서 교육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다(그림 12.7). 평균적으로 대학 교육을 마친 사람들의 84%가 투표했다고 말한 것에 비해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78%가 투표했다고 말한다.

그림 12.7. 교육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이 투표할 가능성이 더 높다.

교육 수준별 자기 보고된 투표율, 퍼센트, 2012~18



주: 기준 연도와 추가 세부 사항은 그림 12.4의 주를 참조한다. 호주와 터키(회색으로 표시)는 의무투표를 시행한다.
출처: OECD 계산, *선거제도 비교 연구*(데이터베이스)에 기반, <https://cses.org/>.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442>

상자 12.1. 앞선 측정 및 통계 의제

시민 참여는 시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여러 중요한 시민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상적 지표 세트는 관여할 수 있는 기회가 개인에게 있는지, 관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능력 및 기타 자원을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지, 실제로 자신에게 있는 기회를 붙잡고 실현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밝힌다. 이 장은 사람들의 정치적 권리와 선호의 표현(투표율)과 이 과정에서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권한(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한다(표 12.1). 관련된 몇몇 제도적 요인(예: 정부 이해당사자 관여 활동)과 사회적 규범(예: 기관에 대한 신뢰)을 다루는 사회 자본에 대한 제16장 참고문헌이 이를 보완한다.

표 12.1. 이 장에서 고려한 시민 참여 지표

	평균	수직적 불평등 (분포의 상층과 하층 간 격차)	수평적 불평등 (성별, 연령 및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	박탈
투표율	투표 등록된 인구 가운데 투표하는 비율	해당 없음	자기 보고된 투표율의 격차	해당 없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 보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고 느끼는 16~65세 사람들의 비율	해당 없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의 격차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이 없다고 느끼는 16~65세 사람들의 비율

투표율은 투표 수, 투표 등록된 인구의 비율로 측정한다(즉, 선거인 명부에 나열된 사람의 수). 이 정보는 통계청과 선거 관리 기관에서 수집하고,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 연구소가 편집하며, 주요 전국 선거(의회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를 참조한다. 투표율 분포 추정치(연령별, 성별, 교육 수준별)는 선거제도 비교 연구의 선거 후 자기 보고된 조사 데이터를 통해 얻는다.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 보유는 응답자에게 “나와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떠한 발언권도 없다.”는 진술에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는지 묻는 OECD 성인역량조사(PIAAC)의 질문을 통해 측정한다. 응답 옵션은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아님, 동의함, 강력하게 동의함”이다. 정부에 대한 발언권 보유는 이 진술에 동의하지 않거나 강력하게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발언권 보유하지 않음은 동의하거나 강력하게 동의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낸다.

시민 참여 지표 간 상관관계

정부에 대한 발언권 보유와 투표율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느낌을 반드시 투표 행위로 해석할 필요는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임을 암시한다(표 12.2).

표 12.2. 정부에 대한 발언권 보유와 투표율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시민 참여 지표 간 이변량 상관 계수

	투표율(등록됨)	정부에 대한 발언권 있음
투표율(등록됨)		
정부에 대한 발언권 있음	-0.15 (31)	

주: 괄호 안의 값은 관찰 횟수를 나타낸다. * p<0.10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는 p<0.05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 ***는 p<0.01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See the Statlink for an extended correlations table.

앞선 통계 의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발언권 보유 데이터는 10년에 한번 수행되며 주요 차수는 마지막으로 2012년에 OECD가 수행했던 PIAAC에서 구한 것이다. 3년마다 수행되는 유럽 사회 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는 비슷한 질문(긍정적인 표현으로, “[국가]의 정치 시스템은 귀하와 같은 사람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갖도록 허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을 포함하고 있지만 유럽 국가만 포괄한다. 향후 라운드에서 PIAAC는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인 질문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How's Life?*에 포함된 정부에 대한 발언권 보유의 척도가 시민의 요구에 대한 공공 기관과 정부 관리의 (외부적) 응답성에 대한 신뢰만을 나타내는 한편, 정치에 참여하기 위한 개인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내부적) 느낌은 제외한다(Hoskins, Janmaat 및 Melis, 2017^[1]). 지속가능 개발 지표의 기관간 및 전문가 그룹 목록의 2019년 개정판에서 목표 16(평화, 정의와 강력한 제도(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유엔 경제사회처 통계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2019^[2])하에 내부 및 외부 측면 둘 다 추가되었다.

투표는 정치적 목소리의 가장 전통적인 형태이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정치적 활동(탄원서에 서명하기, 정치적 회합이나 시위에 참여하기, 공무원 접촉하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캠페인과 항의에 참여하기 등) 또한 시민의 의사 표현의 중요한 방법이다(Boarini 및 Diaz, 2015^[3]). 이러한 참여 형태의 비교 가능한 척도는 유럽 국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유럽 삶의 질 조사)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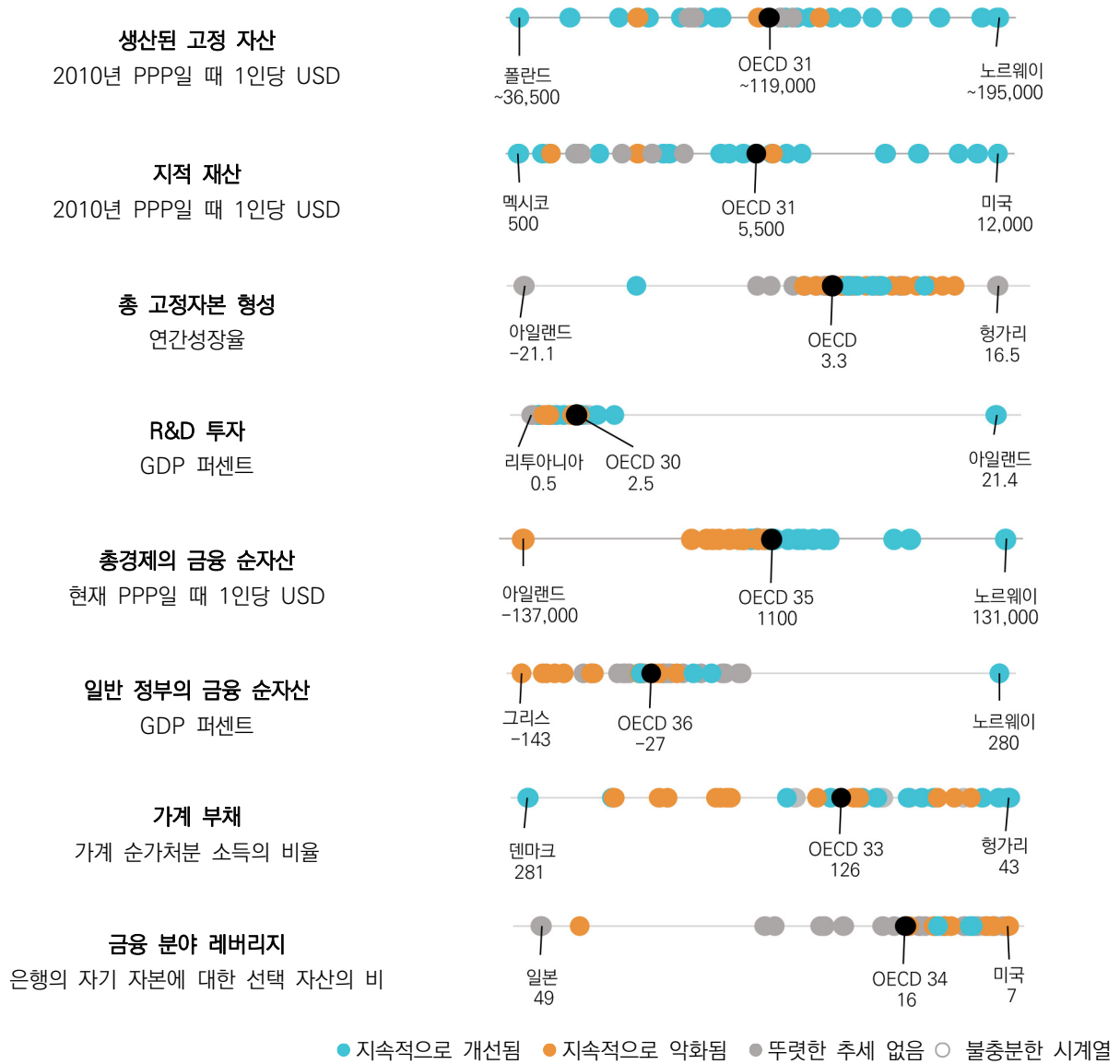
- Boarini, R. and M. Diaz (2015), “Cast a Ballot or Protest in the Street - Did our Grandparents Do More of Both?: An Age-Period-Cohort Analysis in Political Participation”, 2015, No. 02,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Paris, <https://doi.org/10.1787/5js636gn50jb-en> (accessed on 11 September 2019). [3]
- Hoskins, B., J. Janmaat and G. Melis (2017), “Tackling inequalities in political socialisation: A systematic analysis of access to and mitigation effects of learning citizenship at school”, *Social Science Research*, Vol. 68, pp. 88-101, <http://dx.doi.org/10.1016/j.ssresearch.2017.09.001>. [1]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2019), *SDG Indicators: Global indicator frame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indicators-list/> (accessed on 12 February 2019). [2]

13

경제 자본

경제 자본은 생산된 (사람이 만든) 자산과 금융 자산 모두 포함한다. 2010년 이후 OECD 평균 상황은 몇몇 (모두는 아닌) 경제 자본 지표가 약간 개선되었고, 큰 폭의 격차는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심화되고 있다. 생산된 고정 자산에 대한 OECD 평균 비축 규모가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점증적으로 11%까지 증가했고 지적 재산은 16%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총 고정자본 형성의 연간 성장률은 약 1/3의 OECD 국가에서 2010년보다 낮았고, R&D 투자율은 약 절반 정도만 증가했다. OECD 국가의 순 재정상태는 2010년 이후 더욱 갈라졌고, 상위 및 하위 OECD 국가 간 일반 정부 부문의 금융 순자산에 대한 격차는 커졌다. OECD 국가 전체에 걸친 가계 부채 수준은 가처분 소득의 200%부터 50% 미만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13.1. 경제 자본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하거나 일관된 변화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 OECD 평균과 함께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방법론에 대한 세부 항목 정보는 독자를 위한 가이드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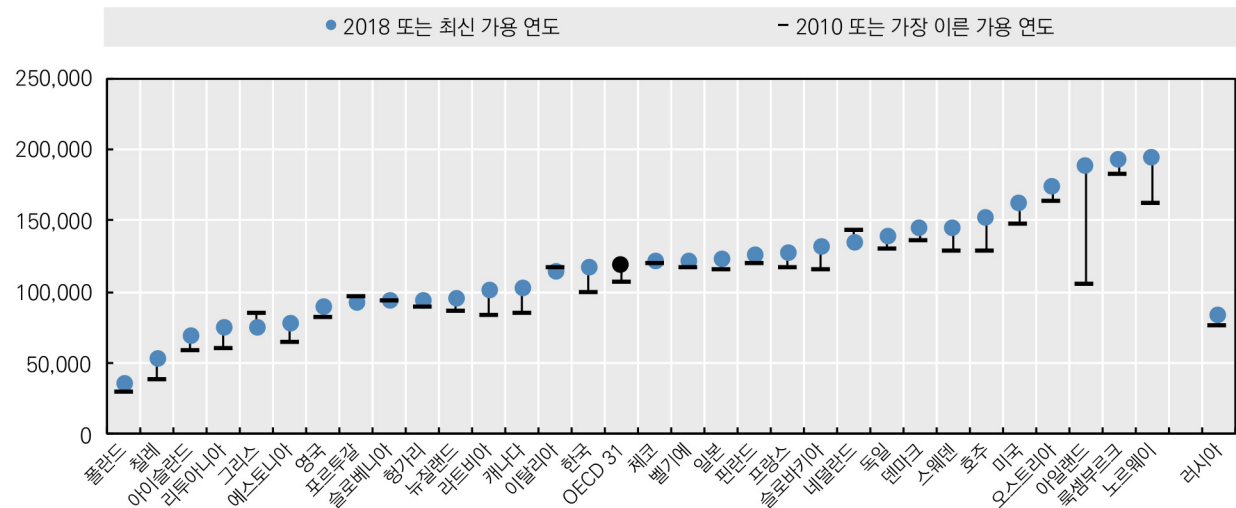
출처: OECD 국가 계정 통계(데이터베이스), <http://dx.doi.org/10.1787/na-data-en> 및 OECD 부의 분포(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

생산된 고정 자산

건물, 기계, 인프라 같은 생산된 고정 자산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가의 역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8년, 1인당 생산된 고정 자산 비축의 OECD 평균은 USD 119,000에 가까웠다(그림 13.2). 1인당 생산된 고정 자산 비축은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및 아일랜드에서 가장 높았고(USD 189,000 이상) 폴란드, 칠레,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및 그리스(USD 76,000 이하)에서 가장 낮았다.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생산된 고정 자산의 OECD 평균 가치는 점증적으로 11% 가까이 증가했다(2010년 1인당 약 USD 107,000에서 상승). 최대 증가는 아일랜드(78.6%), 칠레(37.4%), 리투아니아(22.5%)에서 발생했으며, 최대 감소는 그리스(-12.0%), 포르투갈(-5.5%), 네덜란드(-5.4%)에서 발생했다.

그림 13.2. 2010년 이후 생산된 고정 자산의 누적 성장은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12% 부터 +79%까지 있다.

생산된 고정 자산, 2010년 PPP일 때 1인당 USD



주: 최신 가용 연도는 캐나다, 칠레, 체코, 프랑스 및 이스라엘의 경우 2018년이며,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및 포르투갈의 경우 2016년, 러시아 연방의 경우 2015년, 기타 국가의 경우 2017년이다. 러시아 연방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1년이다.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 때문에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및 터키를 제외한다.

출처: OECD 국가 계정 통계(데이터베이스): 9B. 비금융 자산에 대한 대차대조표,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9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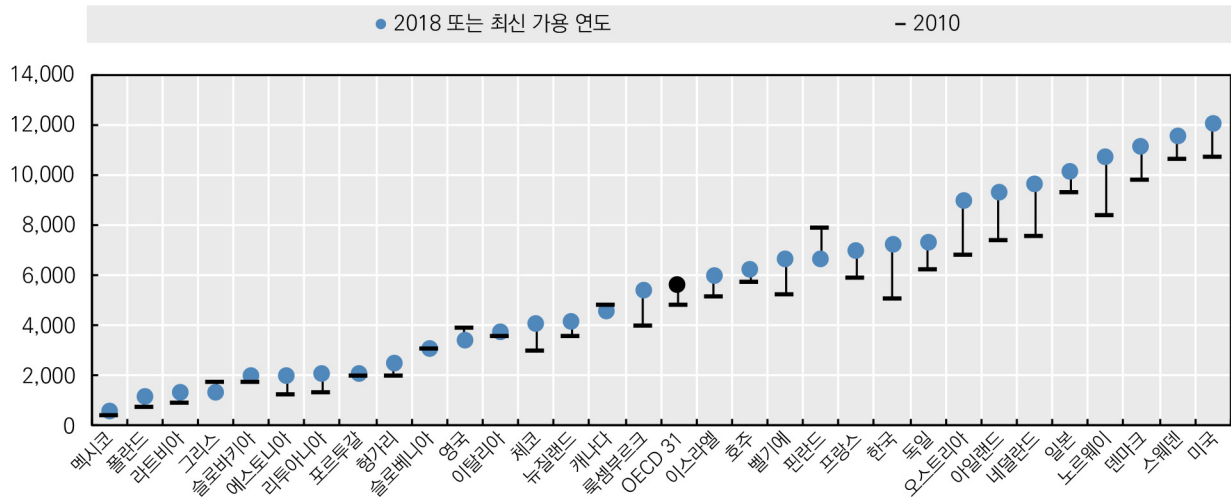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461>

지적 재산

지식 재산은 생산성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현재보다 효율적인 자원 사용 등을 통해 미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2018년, 지적 재산의 OECD 평균 비축은 1인당 USD 5,556였다(그림 13.3).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미국,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일본(1인당 USD 10,000 이상)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멕시코, 폴란드, 라트비아, 그리스(1인당 USD 1,300 이하. 즉, 가장 높은 집단의 1/7 미만).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31개 OECD 국가 전체에 걸친 지적 재산의 평균 비축은 실질적으로 16.2% 증가했다. 멕시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에서는 50% 이상 올라갔지만 그리스, 핀란드, 영국에서는 10% 이상 내려갔다.

그림 13.3. 가장 실적이 좋은 국가의 지적 재산은 가장 실적이 나쁜 국가보다 7배 높다.

지적 재산, 2010년 PPP일 때 1인당 USD



주: 최신 가용 연도는 캐나다, 체코, 프랑스 및 이스라엘의 경우 2018년이며,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및 포르투갈의 경우 2016년, 아일랜드의 경우 2014년, 기타 국가의 경우 2017년이다.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 때문에 칠레,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스페인, 스위스 및 터키를 제외한다. 출처: OECD 국가 계정 통계(데이터베이스): 9B. 비금융 자산에 대한 대차대조표,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9B.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480>

총 고정자본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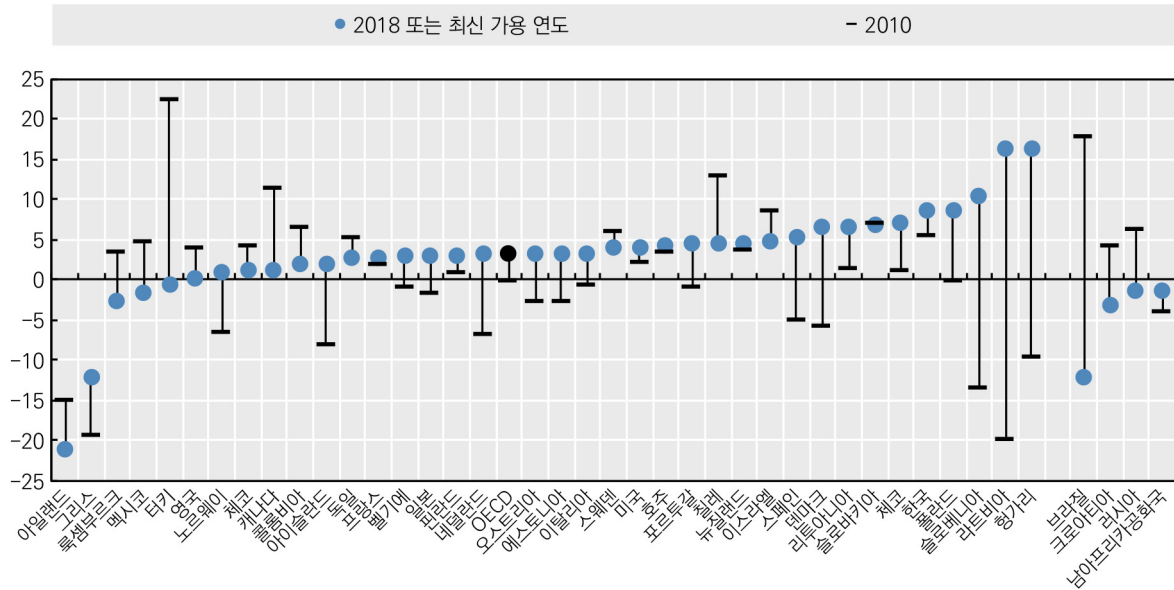
총 고정자본 형성(GFCF)은 생산된 고정 자산의 투자 수준을 나타낸다. 2018년, OECD 국가의 GFCF 연간 성장은 평균적으로 3.3%였다(그림 13.4).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등 최고 실적 국가는 연간성장율이 10% 이상이었던 반면, 아일랜드, 그리스, 룩셈부르크는 GFCF가 줄어들었다(각각 -21.1%, -12.2%, -2.7% 비율).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GFCF가 2010년 제로 성장 상태에서 회복되었고 2018년에는 연간성장율이 3%를 약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1/3은 성장율이 2010년보다 낮다. 특히 큰 감소는 터키(-23.1% 포인트), 캐나다(-10.3) 및 칠레(-8.5)에서 발생했다.

R&D 투자

연구 개발(R&D)에 대한 투자가 지적 재산 비축에서 변화의 핵심 동인이다. 2018년, OECD의 R&D 평균 투자율은 GDP의 2.5%였고(그림 13.5) OECD 국가 중 절반 정도는 2% 미만이었다. 최고 비율은 아일랜드(21.4%), 한국(4.2%), 일본(3.4%) 및 스웨덴(3.0%)이었으며, 가장 낮은 비율(모두 GDP의 1% 미만)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그리스였다.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R&D 투자 비율은 아일랜드, 한국, 벨기에의 경우 0.6% 포인트 이상 증가했지만 핀란드, 스웨덴, 호주는 0.3% 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그림 13.4. OECD 국가 중 1/3은 총 고정자본 형성의 연간성장율이 2010년보다 낮다

총 고정자본 형성, 연간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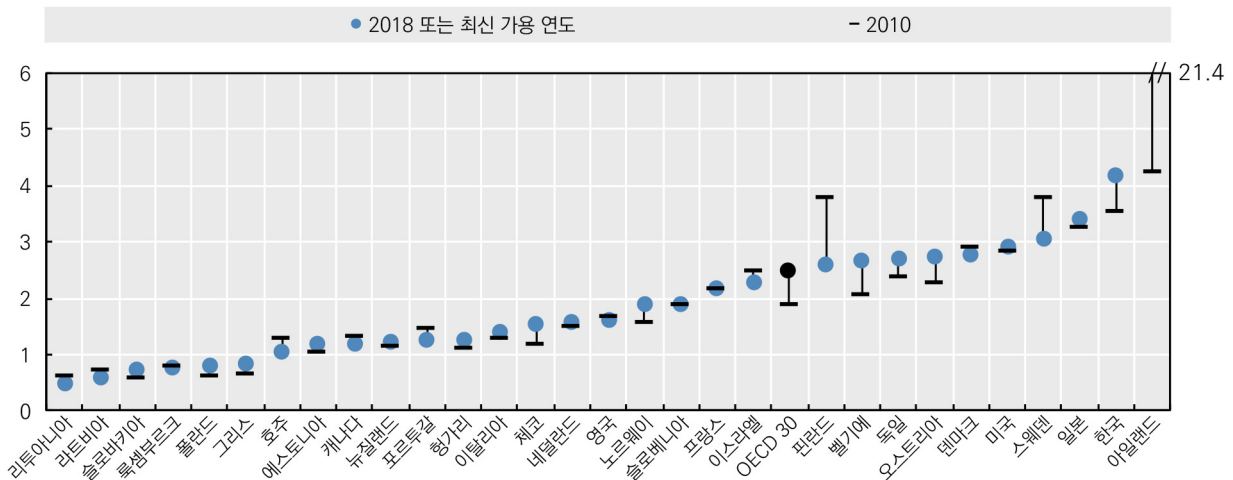
주: 호주,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및 뉴질랜드의 최신 가용 연도는 2017년이다.

출처: OECD 국가 계정 통계(데이터베이스): 1. 국내총생산,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1.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499>

그림 13.5. OECD 국가 중 절반 정도는 R&D 투자가 GDP의 2% 미만이다.

R&D 투자, GDP 퍼센트



주: 최신 가용 연도는 체코, 핀란드, 프랑스의 경우 2018년이며,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및 스웨덴의 경우 2016년, 덴마크와 폴란드의 경우 2015년, 기타 국가의 경우 2017년이다.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 때문에 칠레,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 및 터키를 제외한다.

출처: OECD 국가 계정 통계(데이터베이스): 8A. ISIC 활동에 의한 자본 형성(Capital formation by activity ISIC) rev4,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8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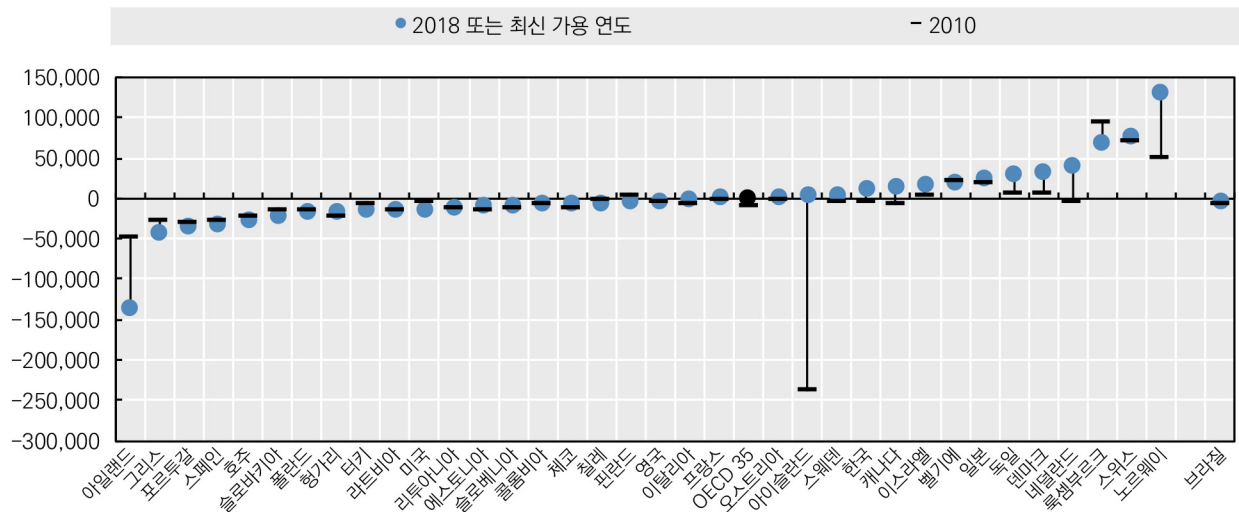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518>

총경제의 금융 순자산

국가의 순 재정상태는 대외 위험에 대한 노출과 금융 자산의 비축 및 미래 수익원을 나타낸다. 가용 데이터가 있는 35개 OECD 국가의 경우 2018년에 거의 2/3가 음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며(그림 13.6), 이는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이들의 채무가 금융 청구권을 초과한다는 뜻이다.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및 스페인의 순부채는 1인당 USD 30,000를 초과했다. 이와 반대로, 노르웨이는 순자산이 가장 높았고(1인당 USD 131,000 조금 안됨), 그 다음은 스위스였다(USD 77,000 조금 넘음). OECD 국가의 순 재정상태는 2010년 이후 더욱 양극화되었고, 이미 비교적 높은 순자산을 누리고 있는 몇몇 국가는 큰 증가가 있었던 반면, 최하위 국가의 순부채는 심화되었다.

그림 13.6. OECD 국가의 순 재정상태는 2010년 이후 더욱 양극화되었다.

총경제의 금융 순자산, 현재 PPP일 때 일인당 USD



주: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스위스, 터키의 최신 가용 연도는 2017년이다.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 때문에 멕시코와 뉴질랜드를 제외한다.

출처: OECD 국가 계정 통계(데이터베이스): 720. 금융 계정(비통합, SNA 2008),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720R, 호주와 이스라엘 제외: 710. 금융 계정(통합, SNA 2008),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710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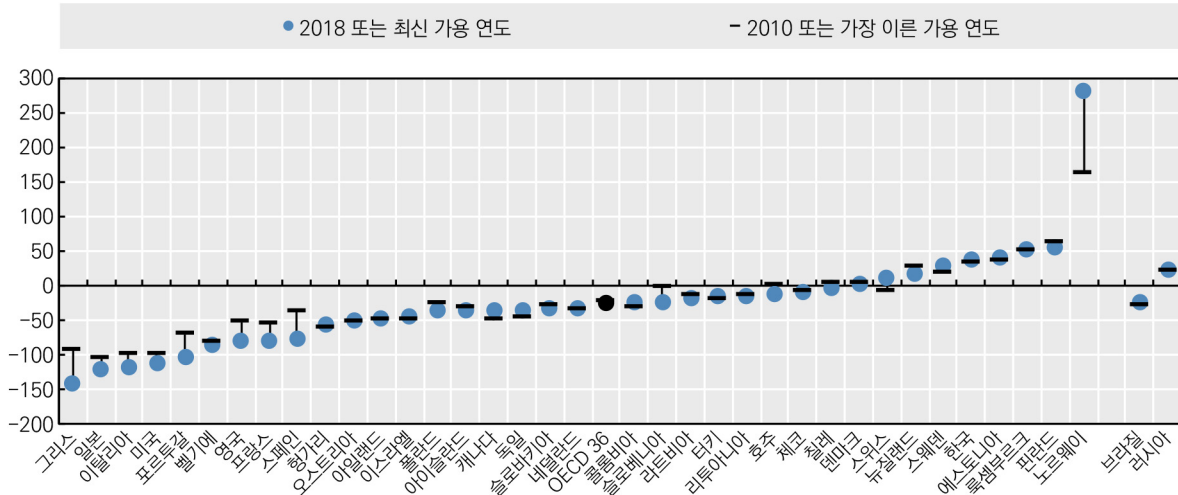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537>

일반 정부의 금융 순자산

일반 정부의 금융 순자산은 또한 재정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암시할 수 있다. 2018년,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정부 채무가 무려 GDP의 27% 포인트까지 금융 자산을 초과했다(그림 13.7). 이 비율의 범위는 노르웨이(280.5%), 핀란드(52.7%) 및 룩셈부르크(50.0%)의 양의 값부터 그리스(-142.6%), 일본(-123.7%), 이탈리아(-120.3%), 미국(-112.7%) 및 포르투갈(-104.4%)의 음의 값까지 있다.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정부의 금융 순자산은 평균 OECD 국가에서 4% 포인트 떨어졌고, 상위 및 하위 OECD 국가 간 격차는 더 넓어졌다. 최대 악화는 그리스(-49.8% 포인트), 스페인(-40.0) 및 포르투갈(-33.4)을 포함해서 이미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국가들에서 발생했다. 최대 개선은 노르웨이(116.7% 포인트)와 스위스(18.3)에서 있었다.

그림 13.7. 2010년 이후 정부 금융 순자산은 이미 무거운 채무를 지고 있었던 국가에서 더욱 악화되었다.

일반 정부 부문의 금융 순자산은, GDP 퍼센트



주: 최신 가용 연도는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일본,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의 경우 2017년이고,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러시아 연방의 경우 2016년, 브라질의 경우 2015년이다. 콜롬비아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5년이고, 러시아 연방은 2011년이다.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 때문에 멕시코를 제외한다.

출처: OECD 재정 지표 - 비축(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ND_FB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556>

가계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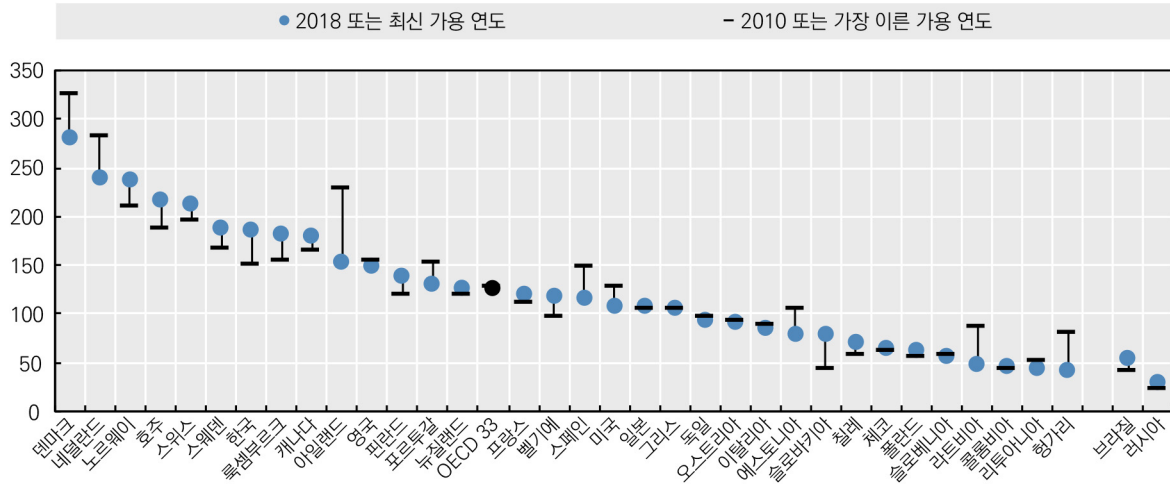
높은 가계 부채는 가정에 재정적 심리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지급 불능이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면 더 넓은 경제 체계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2018년, OECD 평균 가계 부채는 가계 순가처분 소득의 126%였다(그림 13.8). 이 부채의 범위는 헝가리, 리투아니아, 콜롬비아, 라트비아의 50% 미만부터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호주, 스위스의 200% 이상에 이른다. 2010년과 2018년 사이, OECD 평균 가계 부채는 대략 3% 포인트 하락했다(129%에서 126%로). 하지만 이는 전체 국가에 걸친 다양한 패턴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 아일랜드에서 가계 부채가 75% 포인트 감소하는 동안, 덴마크, 네덜란드, 라트비아, 헝가리에서는 35% 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반대로, 슬로바키아, 한국, 룩셈부르크, 호주 및 노르웨이에서는 가계 부채 수준이 25%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금융 분야 레버리지

금융 분야의 높은 레버리지(금융 자산과 자기 자본 간 비율에 따라 여기에서 측정한다)는 금융 시스템의 위험과 순환적 하락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18년, OECD 평균 금융 분야 레버리지는 약 16(그림 13.9)이었으며 범위는 28 이상인 경우(일본, 영국, 이탈리아, 그리스)부터 8 이하인 경우(미국, 호주, 칠레, 헝가리, 에스토니아)까지 있다. 2010년 이후, 영국, 슬로바키아, 노르웨이를 비롯해 이전에 가장 높은 레버리지 비율을 보유하고 있었던 국가들 중 일부에서 비율이 하락한 한편, 터키, 리투아니아, 폴란드에서는 레버리지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그림 13.8. OECD 국가 중 거의 2/3에서 가계 부채가 가처분 소득의 100%를 넘어섰다.

가계 부채, 가계 순가처분 소득의 퍼센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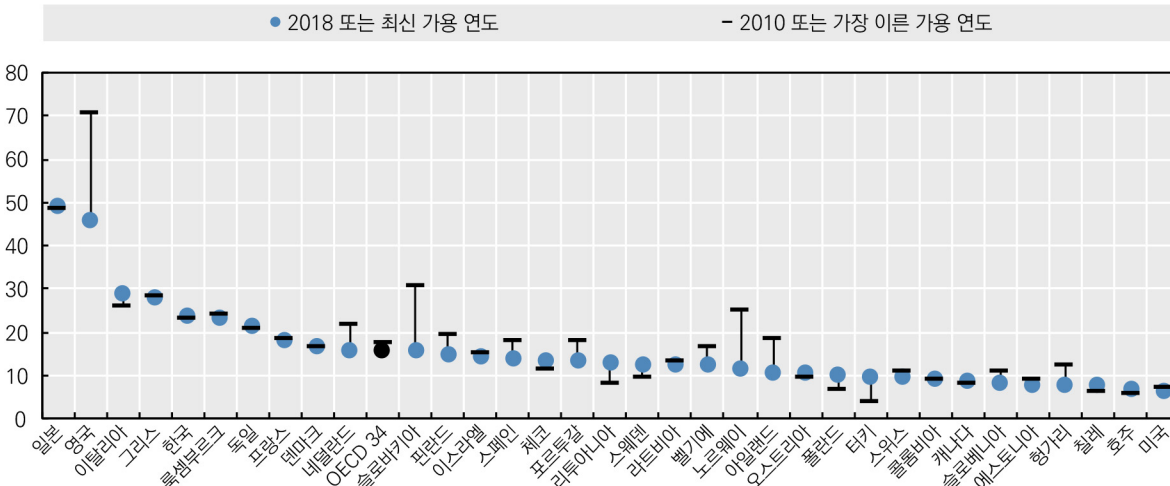
주: 최신 가용 연도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의 경우 2018년이고, 콜롬비아와 스위스의 경우 2016년, 브라질과 러시아 연방의 경우 2015년, 기타 국가의 경우 2017년이다. 콜롬비아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5년이고, 러시아 연방은 2011년이다.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 때문에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및 터키를 제외한다.

출처: OECD 재정 지표 - 비축(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ND_FB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575>

그림 13.9. 2010년 이후 금융 분야 레버리지는 가장 레버리지가 높았던 국가 중 일부에서 하락했다.

금융 분야의 레버리지, 은행 자체 자기 자본에 대한 금융 자산의 비



주: 최신 가용 연도는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스위스 및 터키의 경우 2017년, 콜롬비아와 체코의 경우 2016년이다. 콜롬비아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5년이고, 스위스는 2014년이다.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 때문에 아이슬란드, 멕시코와 뉴질랜드를 제외한다.

출처: OECD 재정 지표 - 비축(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IN_IND_FB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594>

상자 13.1. 앞선 측정 및 통계 의제

경제 자본은 생산 자본과 금융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된 자본은 도로, 철도, 건물, 기계 등 사람이 만든 유형의 재산, R&D 지출, 컴퓨터 소프트웨어, 예술 작품 등의 지적 재산, 최종 재화와 중간재의 재고자산을 나타낸다. 금융 자본은 통화와 저축예금, 자기 자본, 증권 및 파생상품, 그리고 용자 및 부채 증권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 경제적 자본은 실제 생활 수준(예: 주거, 일자리, 부와 소득)을 뒷받침하고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의 웰빙을 추구하면서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OECD, 2013^[11]). 이 장의 지표(표 13.1)는 비축(생산된 고정 자산, 지적 재산, 총경제의 금융 순자산의), 흐름(총 고정자본 형성과 R&D에 대한 투자), 그리고 경제의 특정 하위분야에 관련되어 있지만 전체 경제 체계(정부의 금융 순자산, 가계 부채 및 금융 분야의 레버리지)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포함한다.

표 13.1. 이 장에서 고려한 경제 자본 지표

지표	측정 단위	비축	흐름	위험 요소	회복력 요소
생산된 고정 자산	2010년 PPP일 때 1인당 USD	✓			
지적 재산	2010년 PPP일 때 1인당 USD	✓			
총 고정자본 형성	연간성장률		✓		
R&D 투자	GDP 퍼센트		✓		
총경제의 금융 순자산	현재 PPP일 때 1인당 USD	✓			
정부의 금융 순자산	GDP 퍼센트			✓	
가계 부채	가계 순가처분 소득의 퍼센트			✓	
금융 분야 레버리지	은행 자체 자기 자본에 대한 금융 자산의 비			✓	

생산된 고정 자산은 생산된 경제적 자산(주택, 건물, 구조물, 기계 및 장비 포함), 사육용 가축, 포도밭 같은 경작 자산,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엔터테인먼트, 문학 또는 예술 작품 같은 무형 자산, 그리고 재고자산에 대한 국가 비축의 가치를 나타낸다. 생산된 고정 자산은 물리적 악화, 정상적 노후화 또는 정상적 돌발 손상으로 인한 가치의 감소를 반영한다. 데이터는 2010년 PPP일 때 1인당 USD로 나타내며 OECD 국가 계정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다.

지적 재산은 국가의 지식 자본(예: 연구개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광물 탐사와 평가, 엔터테인먼트, 예술 및 문학 작품)을 나타낸다. ICT 장비는 한국에서 포함되는 한편, 호주에서는 소유비용이 제외되며 예술 작품은 캐나다에서 제외된다. 데이터는 2010년 PPP일 때 1인당 USD로 나타내며 OECD 국가 계정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다.

총 고정자본 형성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고정 자산(주택, 건물 및 기타 구조물, 수송 장비, 기타 기계와 장비, 경작 자산 등)과 무형 고정 자산(지적 재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예술 작품) 둘 다에 대한 투자를 나타낸다. 데이터는 고정가격일 때 연간성장률로 나타내며 OECD 국가 계정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다.

R&D 투자는 인류의 지식, 문화와 사회, 그리고 새로운 응용을 고안해내기 위한 지식 비축의 이용을 포함해 지식 비축을 증가시키기 위해 거주 생산자가 조직적 기저에서 수행한 창의적 작업에 대해 처리한 지출을 나타낸다. 데이터는 GDP의 비율로 나타내며 OECD 국가 계정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다.

총경제의 금융 순자산은 나머지 국가들과 관련하여 한 국가의 순 외화자산상태를 포착한다. 금융 자산은 통화, 저축예금, 부채 증권, 용자, 자기 자본 및 투자 펀드 지분/단위, 파생금융상품과 주식옵션 고용 급부, 기타 미수금을 포함한다. 데이터는 현재 PPP일 때 1인당 USD로 나타내며 *OECD 국가 계정*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다.

일반 정부 부문의 금융 순자산은 미상환 부채의 총 가치를 빼고 일반 정부(중앙정부, 주정부 및 지방 정부와 사회보장기금)가 보유한 금융 자산의 총 가치를 나타낸다. 데이터는 GDP의 비율로 나타내며 *OECD 국가 계정* 데이터베이스의 금융 대시보드에서 구한다.

가계 부채는 가계의 총 미상환 부채를 나타내며(가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 포함), 용자(주로 주택 담보 대출과 소비자 금융) 및 기타 미지급금을 포함한다. 데이터는 가계 순가처분 소득의 비율로 나타내며 *OECD 국가 계정* 데이터베이스의 금융 대시보드에서 구한다.

금융 분야 레버리지(자기 자본 승수 비 또는 재무 레버리지라고도 함)는 금융 분야의 총 금융 자산과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투자 펀드 지분 제외) 간 비율이다. 금융 분야는 중앙은행과 통화 금융 기관을 포함한다. 데이터는 *OECD 국가 계정* 데이터베이스의 금융 대시보드에서 구한다.

표 13.2. 가계 부채는 생산된 고정 자산, 지적 재산 및 금융 순자산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경제 자본 지표 간 이변량 상관 계수

	지적 재산	생산된 고정 자산	총 고정자본 형성	R&D 투자	총경제의 금융 순자산	일반 정부의 금융 순자산	가계 부채	금융 분야 레버리지
지적재산								
생산된 고정 자산	0.72*** (30)							
총 고정자본 형성	-0.20 (31)	-0.35* (31)						
R&D 투자	0.37** (30)	0.40** (30)	-0.65*** (30)					
총경제의 금융 순자산	0.31 (29)	0.24 (30)	0.27 (35)	-0.55** (29)				
일반 정부의 금융 순자산	0.01 (31)	0.07 (31)	0.15 (37)	-0.06 (30)	0.19 (35)			
가계 부채	0.63*** (29)	0.55*** (30)	-0.29 (33)	0.15 (29)	0.43** (32)	0.22 (33)		
금융 분야 레버리지	0.03 (29)	-0.02 (30)	-0.18 (34)	-0.05 (29)	0.12 (34)	-0.35** (34)	0.08 (32)	

주: 표는 피어슨 이변량 상관 계수를 보여준다. 괄호 안의 값은 관찰(국가) 수를 나타낸다.

*는 p<0.10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는 p<0.05 수준, ***는 p<0.01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경제 자본 지표 간 상관관계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생산된 고정 자산의 비축은 지적 재산(0.7)과 R&D 투자(0.4)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표 13.2). 가계 채무 수준이 더 높은 국가는 더 많은 생산된 고정 자산(0.6), 더 많은 지적 재산(0.6), 전체 경제의 더 큰 금융 순자산(0.4)이 있는 경향이 있다. 금융 분야의 더 높은 레버리지는 일반 정부 부문의 낮은 금융 순자산(0.4)과 약하게 관련되어 있다.

앞선 통계 의제

이 장에서 사용된 경제 자본 지표는 전체 국가가 보유하거나 다른 경제 분야(가계, 일반 정부, 금융사)가 보유한 비축의 척도와 투자 흐름 및 위험 요소를 아우른다. 이들 지표의 다수는 국민계정체계에서 잘 정의되고 측정되지만 국가의 경제 자본 상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점만 제공한다. 예를 들어 경제 회복력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는 보다 상세한 대시보드(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9^[2], Röhn 외, 2015^[3]).

여기에 표시된 경제 자본의 지표 내에서 일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 가용 척도가 항상 다양한 그룹 전체에 걸쳐 기관 분야별 및 자산 분포별 대차대조표 데이터를 보다 상세한 수준에서 집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자산 가격 거품은 시간 경과에 따른 금융 순자산의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떤 연도에서 다른 연도까지 순자산의 변화는 금융 거래 때문만이 아니라 금융 자산 및 채무의 가격 변동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 자본의 성장은 미래 위험과 재정 상태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
- 금융 분야 레버리지는 변동성과 위험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 해석이 간단하지 않지만, 이와 동시에 은행의 자본 요건에 대한 규정을 반영한다. 웰빙 생산 관점에서 어떤 비율이 이상적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며 국가 상황에 따라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가구의 부는 웰빙의 소득과 부 영역의 일부분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여기에서 중복되지 않는다. 몇몇 국제 및 국가 웰빙 프레임워크(예: UNEP의 포괄적 부 프레임워크(Inclusive Wealth Framework),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라트비아,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는 또한 생산성을 생산 과정과 경제적 지속가능성(간접적으로)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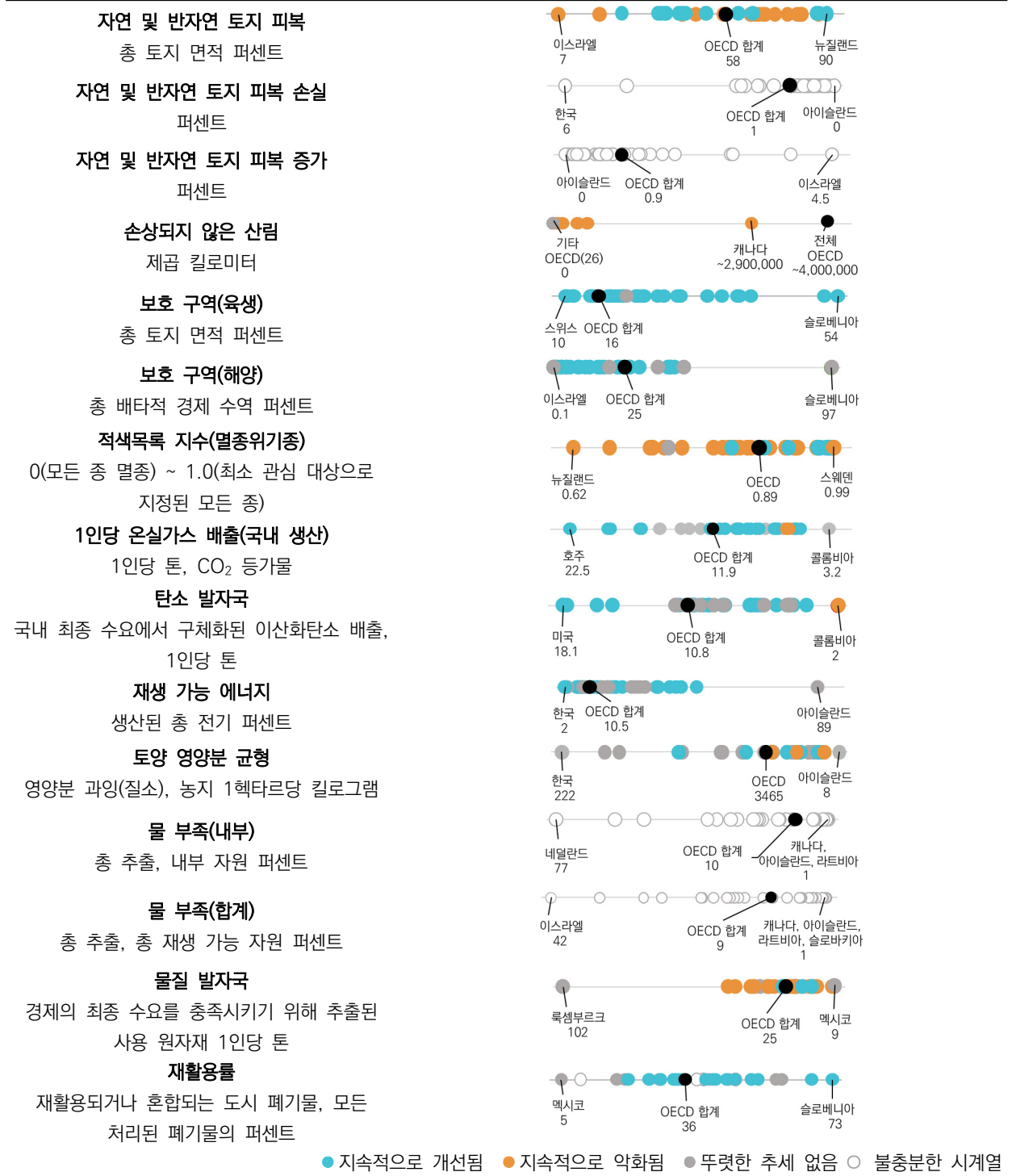
참고문헌

- Financial Stability Board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9), *G20 Data Gaps Initiative (DGI- 2): The Fourth Progress Report — Countdown to 2021*, Financial Stability Board, Basel, <http://fsb.org/2019/10/g20-data-gaps-initiative-dgi-2-the-fourth-progress-report-countdown-to-2021/>. [2]
- OECD (2013),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01392-en>. [1]
- Röhn, O. et al. (2015), “Economic resilience: A new set of vulnerability indicators for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24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jrxhgjw54r8-en>. [3]

14 자연 자본

자연 자본은 자연 자산(예: 자연 토지 피복, 생물다양성)의 생태계와 그 서비스(예: 대양, 삼림, 토양 및 대기) 모두에 관한 것이다. 이 장은 이러한 자연 시스템의 비축 규모와 흐름뿐만 아니라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회복력 요소도 검토한다. 자연 식생으로 덮인 토지의 비율은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6%~90% 범위이며, 가장 낮게 비축한 국가가 가장 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다. 2010년 이후 OECD 국가에서 더 많은 해양과 육지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종 다양성(적색목록 지수로 측정) 측면에서는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총 OECD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 이후 4% 감소했지만 전세계 수준에서 1990년 이후 1.5배 증가했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대다수 OECD 국가의 에너지 혼합사용에서 작은 역할만 하고 있으며 1인당 물질 발자국은 2010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그림 14.1. 자연 자원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 지속적으로 개선됨 ● 지속적으로 악화됨 ● 뚜렷한 추세 없음 ○ 불충분한 시계열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9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하거나 일관된 변화 없이는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 OECD 평균과 함께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방법론에 대한 세부 항목 정보는 독자를 위한 가이드를 참조한다.

출처: OECD 환경 데이터베이스, <https://data.oecd.org/environment.htm>, OECD 구조 분석(STAN)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TANI4_2016, OECD 농업 데이터베이스, <https://data.oecd.org/fr/agriculture.htm>, UN DESA 전세계 SDG 지표 데이터베이스, 지표 15.5.1, <http://unstats-undesa.opendata.arcgis.com/datasets/indicator-15-5-1-red-list-index-2/data?orderBy=series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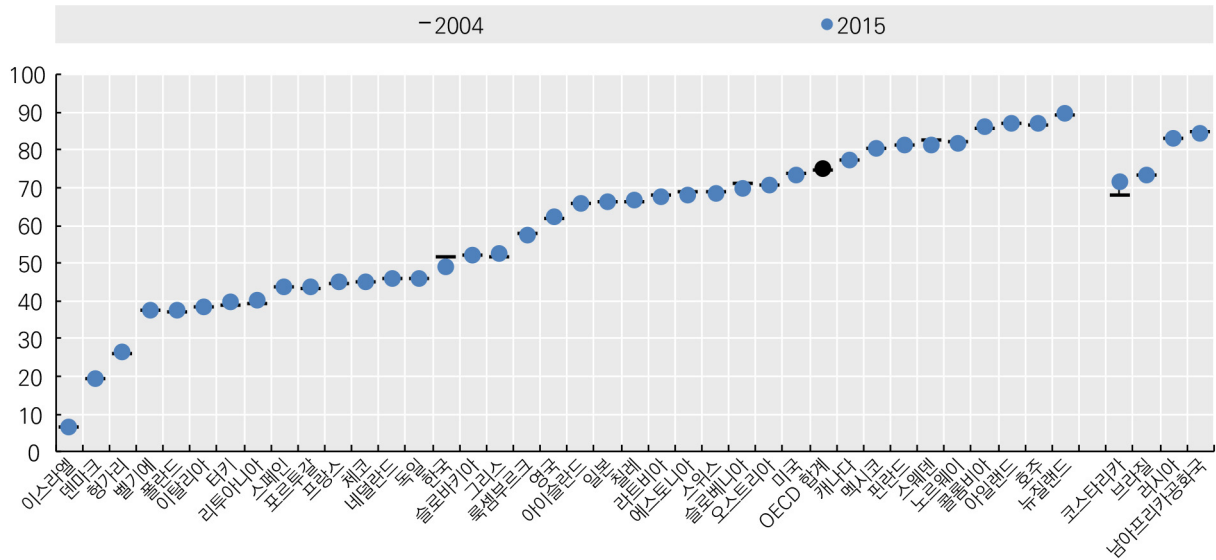
생물 자원과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상실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압력은 주된 기여요소로서 토지 피복과 토지 사용의 변화와 함께 가장 시급한 지구 환경 과제에 포함된다. 1992년 이후 전 세계에서 자연 또는 반자연 초생 토지의 2.7%(즉, 수목으로 덮인 지역, 초원, 습지, 관목지와 희박한 초목)가 다른 토지 피복 유형으로 손실되었다. 이는 스페인의 두 배 크기 면적을 나타낸다. OECD와 G20 국가가 이 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로 브라질, 중국, 러시아 연방, 미국 및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다(OECD, 2019^{[1])}.

2015년에는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75%의 토지가 자연 또는 반자연 초목으로 덮여 있었다. 이 비율의 범위는 이스라엘, 덴마크, 헝가리의 30% 미만부터 콜롬비아,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의 85% 이상에 이른다(그림 14.2). 2004년과 2015년 사이에 OECD 국가에서 자연 및 반자연 초목으로 덮인 총 토지는 안정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토지 피복 순 비축의 변화 외에, 손실과 증가를 별도로 고려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손실은 생물다양성이 열악한 반자연 지역에서의 증가가 보상할 수 없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서식지(예: 1차 산림 또는 노숙림)의 훼손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이스라엘,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2004년 이후 2% 이상의 자연 토지 피복 손실을 경험했다(그림 14.3). 슬로베니아를 제외하고 이들 나라는 모두 이미 OECD 평균 미만이다.

그림 14.2. OECD 국가의 자연 토지 피복의 비축은 6%~90%이다.

전체 토지 면적의 비율로서 자연 및 반자연 초생 토지 피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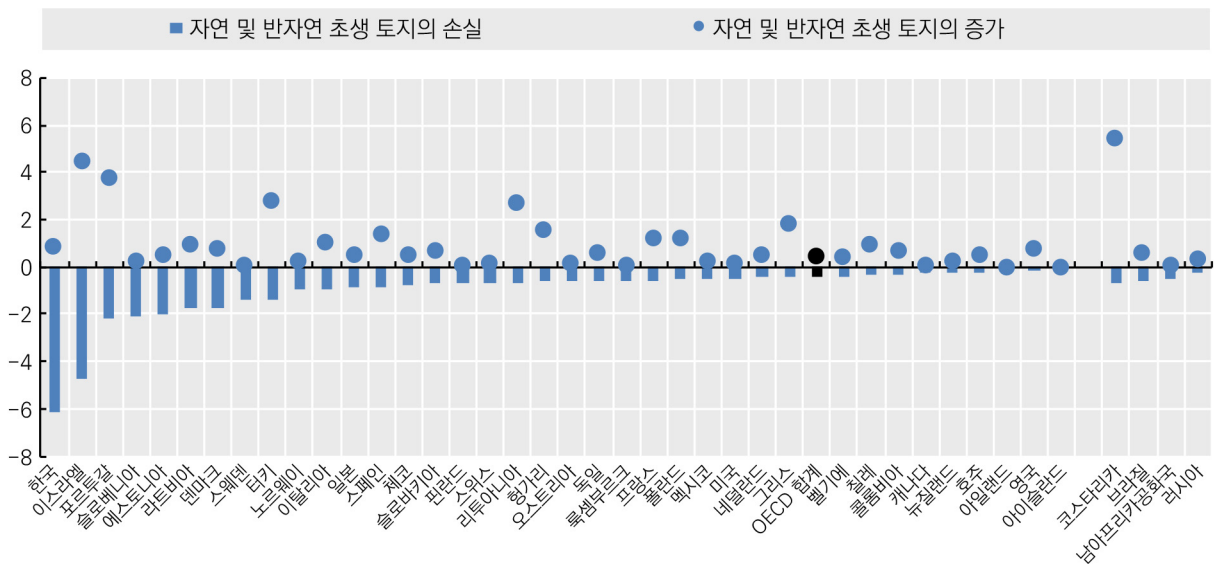
주: OECD 합계는 콜롬비아가 OECD에 합류하기 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콜롬비아를 제외한다.

출처: OECD 국가와 지역의 토지 피복(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AND_COVER.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613>

그림 14.3. 자연 토지 손실은 한국, 이스라엘,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컸다.

자연 및 반자연 초생 토지를 오가는 전환 강도, 비율, 2004~2015



주: OECD 합계는 콜롬비아가 OECD에 합류하기 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콜롬비아를 제외한다.

출처: OECD 국가와 지역의 토지 피복 변화(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AND_COVER_CHAN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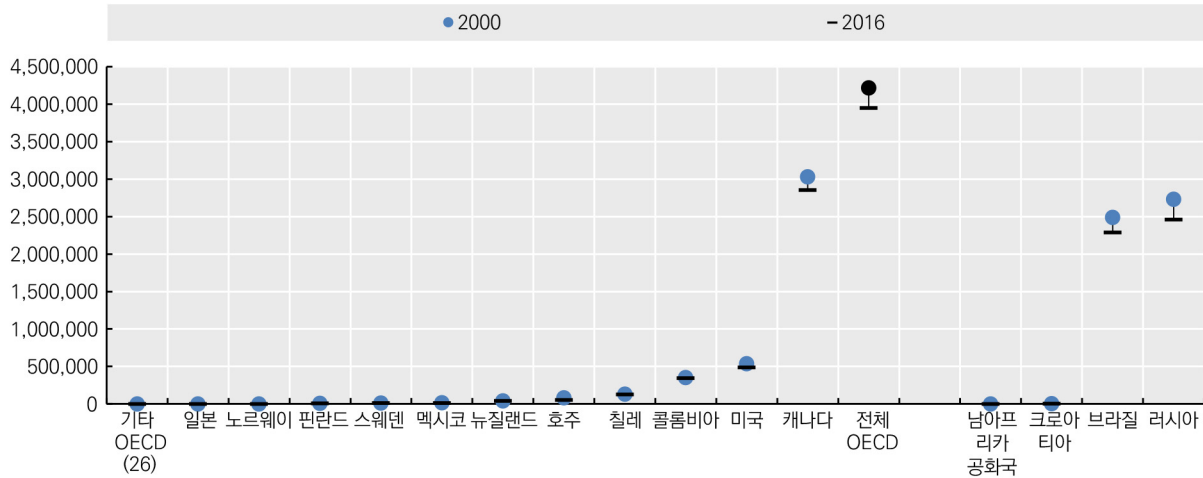
높은 수준의 토지 피복 지표는 잃거나 얻게 된 구체적 생물다양성 가치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무손상 산림 경관은 멀어서 감지되는 인간 활동 징후가 없고, 모든 토착 생물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큰 자연 생태계의 중단되지 않는 확장이라는 매우 높은 가치의 생태계의 예를 대표한다(상자 14.1 참조). 오직 11개의 OECD 국가만 무손상 산림 경관이 남아 있으며, 그림 14.4에 표시된 국가 중 단 3개(러시아 연방, 브라질, 캐나다)가 2000년 세계 무손상 산림 경관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Potapov 외, 2017^[2]).

2000년과 2016년 사이에 OECD의 총 무손상 산림이 6% 감소했다(즉, 손상되었다). 이는 263,600평방킬로미터(영국의 규모보다 큰 면적)의 손상을 나타낸다(그림 14.4). 이 기간 동안 OECD 국가 가운데 최대 손상(퍼센트 측면에서)은 호주(-34.4%), 영국(-9.1%), 캐나다(-5.8%) 및 멕시코(-4.6%)에서 발생했다. 이에 반해,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는 1% 이하의 손실이 있었고 일본은 0이었다. 2010년 이후 무손상 산림 면적은 러시아 연방에서 10% 감소했고 브라질에서는 8%, 코스타리카에서는 3.1% 감소했다.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 노력은 보호 구역 설정을 포함한다. 육지에서는 엄격한 자연보존 및 야생 보호 구역, 국립 공원, 보호 경관/해양경관 및 서식지 또는 종 관리 구역 등이 있고, 해상에서는 엄격한 해양보호 및 어업금지 구역(해양 “보호구역”), 느슨한 해양 보호구역 네트워크 등이 있다. 오늘날 보호 구역은 OECD에서 평균 16%의 육지(그림 14.5)와 25%의 해양영역(그림 14.6)을 포함하며, 두 지표 모두 2010년 13.5%에서 증가한 것이다.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해양 보호구역의 비율은 10개 OECD 국가(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멕시코, 리투아니아, 영국, 칠레, 호주 및 프랑스)와 두 개 파트너 국가(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에서 두 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육지 보호구역의 비율은 9개 OECD 국가(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벨기에, 독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호주 및 룩셈부르크)에서 적어도 1% 포인트 증가했다.

그림 14.4. 11개 OECD 국가만 2000년 이후 총 6% 손상된 무손상 산림 경관을 가지고 있다.

무손상 산림 경관, 평방킬로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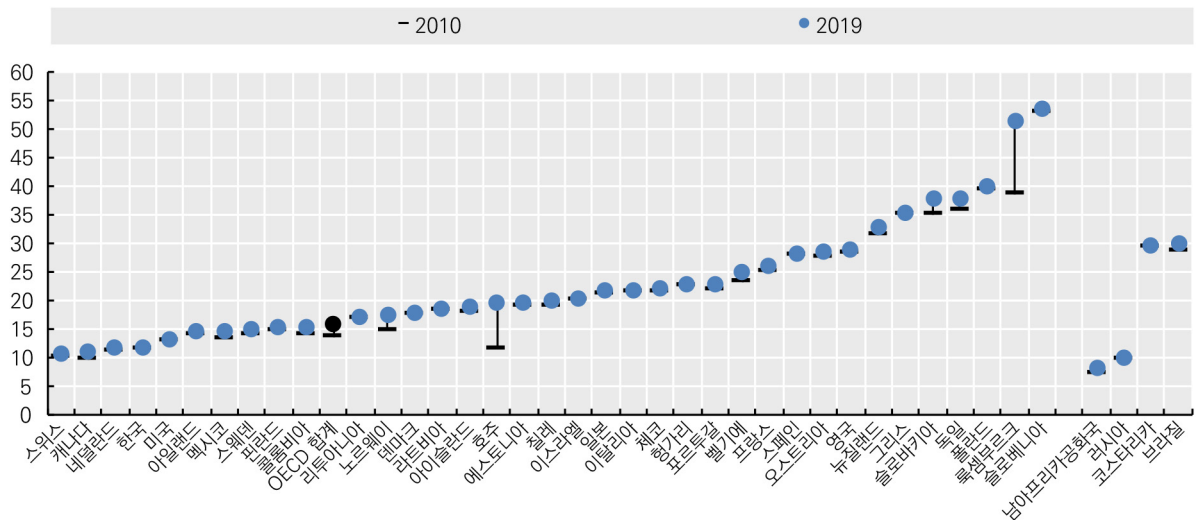
주: “기타 OECD(26)”는 무손상 산림 경관이 없는 26개 OECD 국가를 나타낸다. OECD 합계는 콜롬비아가 OECD에 합류하기 전에 발표되었던 것처럼, 콜롬비아를 제외한다.

출처: OECD 무손상 산림 경관(Intact Forest Landscapes)(데이터베이스), (Potapov 외, 2017^[2]) 기반,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NTACT_FOREST_LANDSCAPE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651>

그림 14.5. OECD 국가 육지 영역의 16%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육생 보호 구역, 총 토지 면적의 비율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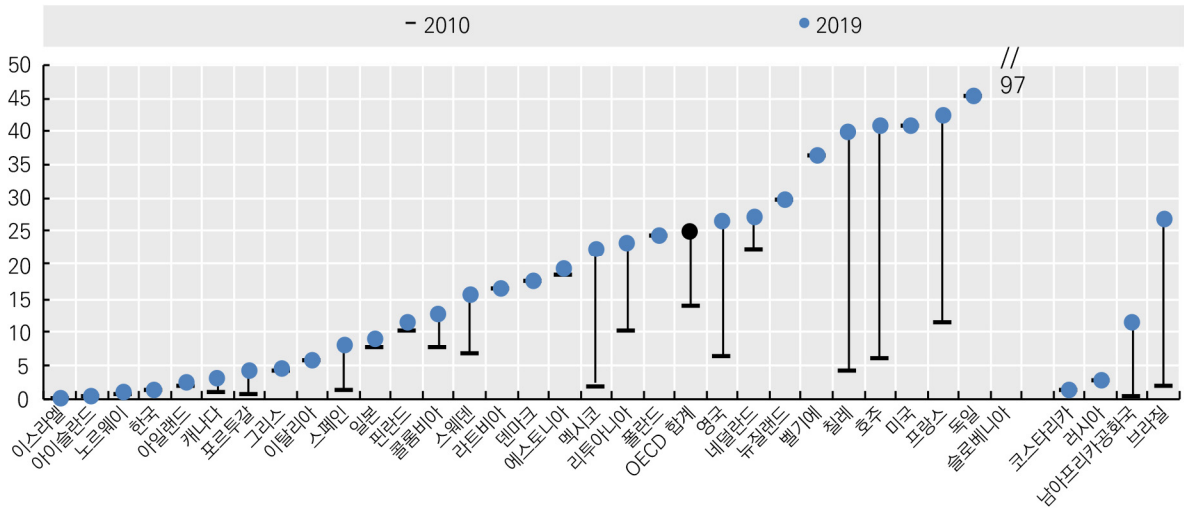
주: OECD 합계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터키를 제외하고, 콜롬비아가 OECD에 합류하기 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콜롬비아를 제외한다.

출처: OECD 보호 구역(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PROTECTED_AREA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670>

그림 14.6. 10개의 OECD 국가는 2010년 이후 해양 보호구역의 비율을 두 배 증가시켰다.

해양 보호구역, 각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비율로서



주: OECD 합계는 콜롬비아가 OECD에 합류하기 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콜롬비아를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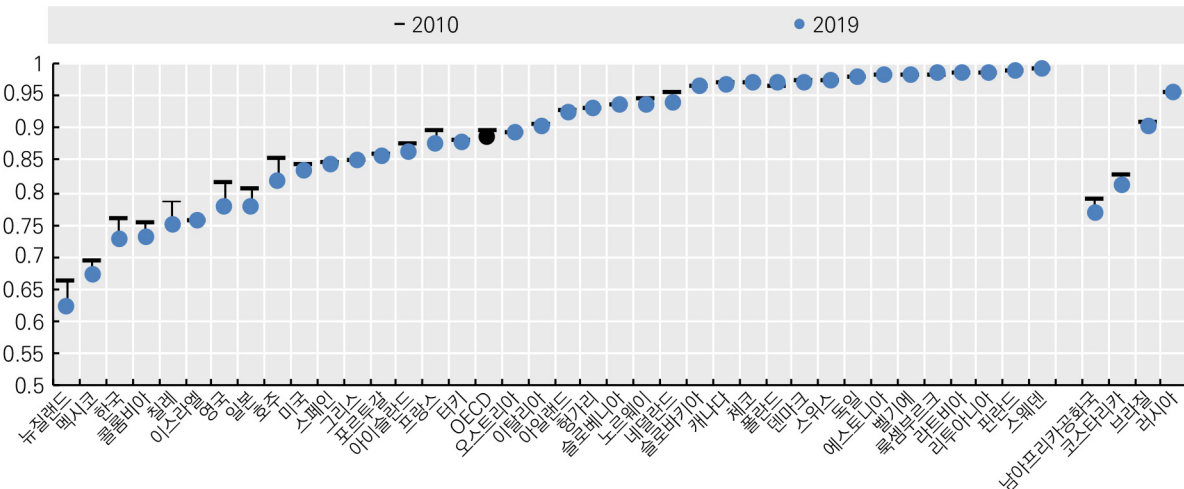
출처: OECD 보호 구역(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PROTECTED_AREA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689>

멸종위려종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또 다른 통찰력을 제공한다. OECD 국가에 대한 적색목록 지수(조류, 포유류, 양서류, 소철류 및 산호초의 결합 멸종 위기를 고려함)는 2010년 이후 평균적으로 약간 감소했다(그림 14.7). 최대 감소는 뉴질랜드, 멕시코, 한국, 콜롬비아, 칠레,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를 비롯해 이미 “위험물”이 높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했다.

그림 14.7. 적색목록 지수는 최대 생물다양성 압력의 국가에서 악화되었다.

적색목록 지수, 이때 1.0 = “최소 관심 대상”으로 지정된 모든 종, 0 = 멸종된 모든 종



주: 적색목록 지수는 조류, 포유류, 양서류, 소철류 및 산호초의 멸종 위험 결합 지표이다. 1.0의 RLI 값은 최소 관심 대상으로 지정된 모든 종(즉, 가까운 미래에 멸종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과 동일하다. 0의 RLI 값은 멸종된 모든 종과 동일하다.

출처: UN DESA 전세계 SDG 지표 데이터베이스, 지표 15.5.1,

<http://unstats-undesa.opendata.arcgis.com/datasets/indicator-15-5-1-red-list-index-2/data?orderBy=seriesCod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708>

기후 변화

기후 변화는 미래 웰빙에 엄청난 위협을 가한다. 전 세계 온실가스(GHG) 배출은 1990년 이후 1.5배 증가했다(OECD, 2019^[11]). 최근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가속화는 2018년에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CO₂ 배출량 1.7% 증가를 초래했고(IEA, 2019^[3])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다. 대기 중 총 온실가스 농도는 CO₂가 2010년 427ppm에서 2016년 449ppm으로 상승했으며(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 2019^[4]) 이는 1980년 이후 거의 30% 증가한 것이다. 50% 확률로 전 세계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 높은 수준으로 제한하려면, 최고 농도가 (현재 추세를 기반으로) 향후 5~16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478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유럽환경청, 2019^[4]). 해양 산성화는 탄소 배출과 관련된 추가적 위험이다. 바다는 대기 중에 방출되는 CO₂의 약 30%를 흡수하며, 지난 200년 동안 바다의 산성은 30%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미국 해양 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0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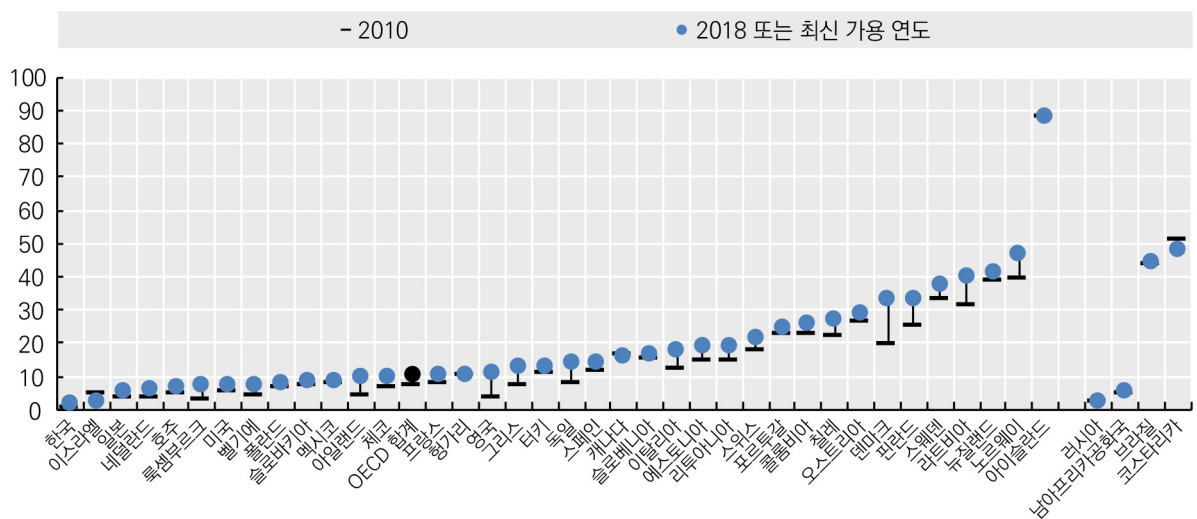
최근에 안정화되기는 했지만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국내 생산의 총 OECD GHG 배출이 4.3% 감소했으며 최근에 증가하는 에너지 사용과 CO₂ 관련 배출로 인해 미래에 다시 상승할 수 있다(OECD, 2019^[11]). 1인당 기준으로, OECD 평균 GHG 배출은 약 1톤씩 감소하여 2010년 12.9톤에서 2017년에는 11.9톤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감소의 진행 속도는 개별 OECD 국가 간에 크게 다르다(그림 14.8). 비교적 높은 1인당 GHG 배출량의 일부 국가는 2010년 이후 이를 상당히 감소시켰는데(예: 룩셈부르크는 28%, 미국은 11%, 호주는 7% 감소), 보다 온건한 배출량의 일부 국가도 상당한 감소를 경험했다(예: 핀란드, 영국, 덴마크, 스웨덴은 25% 이상 감소). 1인당 GHG 배출량은 이미 배출량 수준이 높았던 두 개 국가에서 증가했고(한국 2.6%와 러시아 연방 3.3%), 포르투갈(5.7%), 리투아니아(8.1%), 칠레(14%), 터키(18%)도 증가했는데, 이들 국가는 여전히 1인당 배출량이 OECD에서 가장 낮은 국가들이다.

한 국가의 탄소 발자국은 대외 무역에서 구체화되는 CO₂를 반영하며, 국내 경제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최종 수요와 관련되어 있는 배출량(수입과 수출로 인해 위에 표시된 생산 기반 배출과 다를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춘다. OECD 국가에서 1인당 탄소 발자국은 2010년 11.8톤에서 2015년 10.8톤으로 감소했다(그림 14.9). 다시 한번, 최대 감소 중 일부는 최초 발자국이 최대였던 국가에서 발생했지만, 보다 온건한 탄소 발자국의 일부 국가 또한 상당한 감소를 달성했다.

화석 연료 연소에서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에너지 생산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총 1차 에너지 공급의 10.5%만이 재생 가능 자원에서 나온다(그림 14.10).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라트비아, 뉴질랜드 같은 OECD의 작은 나라 중 일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40% 이상을 차지한다. 2010년과 2018년 사이에 OECD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6% 포인트 증가했다. 덴마크, 핀란드, 라트비아, 영국, 노르웨이에서 7% 포인트 이상의 상승이 관찰되었고, 이들 중 몇몇은 2010년에 이미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그에 반해, 재생 가능 에너지가 에너지 공급의 10% 미만을 구성하는 15개 OECD 국가에서는 에너지 믹스에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의 개선, 안정, 그리고 하나의 사례에서, 감소의 혼합이 있었다.

그림 14.10. 재생 가능 에너지는 여전히 대부분의 OECD 에너지 믹스에서 미미한 역할만을 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총 1차 에너지 공급의 비율로서



주: 최신 가용 연도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러시아 연방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17년이다. OECD 합계는 콜롬비아가 OECD에 합류하기 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콜롬비아를 제외한다.

출처: OECD 녹색 성장 지표: 환경과 자원 생산성(Green Growth Indicators: Environmental and resource productivity) (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77867>.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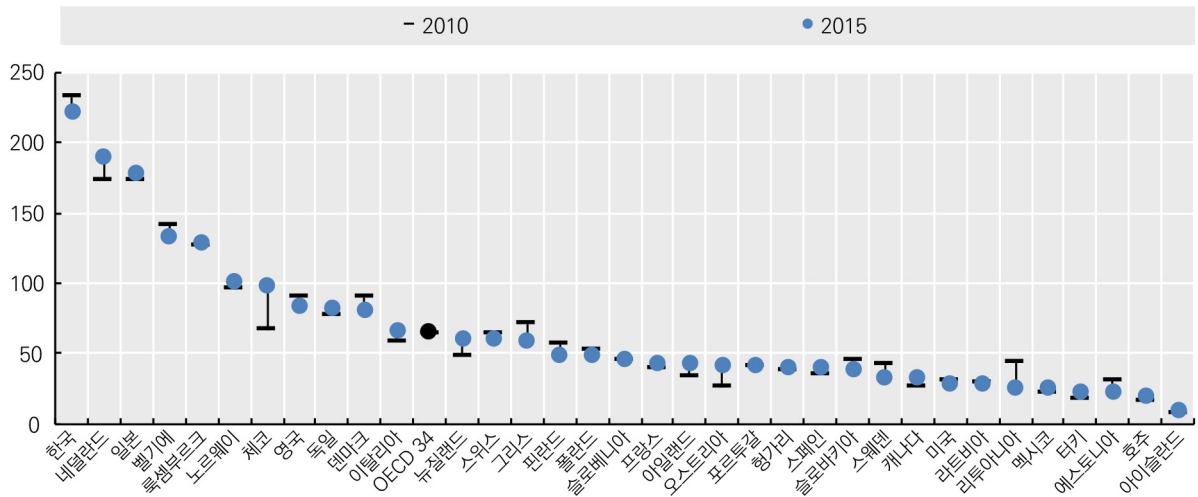
토양의 질과 담수 자원

농업의 과잉 질소 투입은 물, 토양 및 공기에 대한 오염 압력을 더한다. 1990년과 2009년 사이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OECD, 2013^[6]), 몇몇 OECD 국가에서 2010년 이후 농지의 연간 토양 질소 균형이 증가했다(그림 14.11). OECD 국가의 거의 2/3는 2015년 40kgN/ha를 초과하는 연간 국가 질소 과잉 투입이 있었다. 몇몇 북유럽 국가와 한국 및 일본이 특히 높았다.

물 사용은 몇몇 OECD 국가에서 자원에 압박을 준다. 연간 물 사용은 1/3에 가까운 OECD 국가에서 내부수의 20% 이상에 해당한다. 몇몇 경우에서 총 재생 가능 자원의 비율로서 물 사용(인근 국가로부터의 유입 포함)은 훨씬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그림 14.12).

그림 14.11. 물, 토양 및 공기에 대한 오염 압력을 더하는 과잉 질소 위험

농지 1헥타르당 토양 질소 균형, 킬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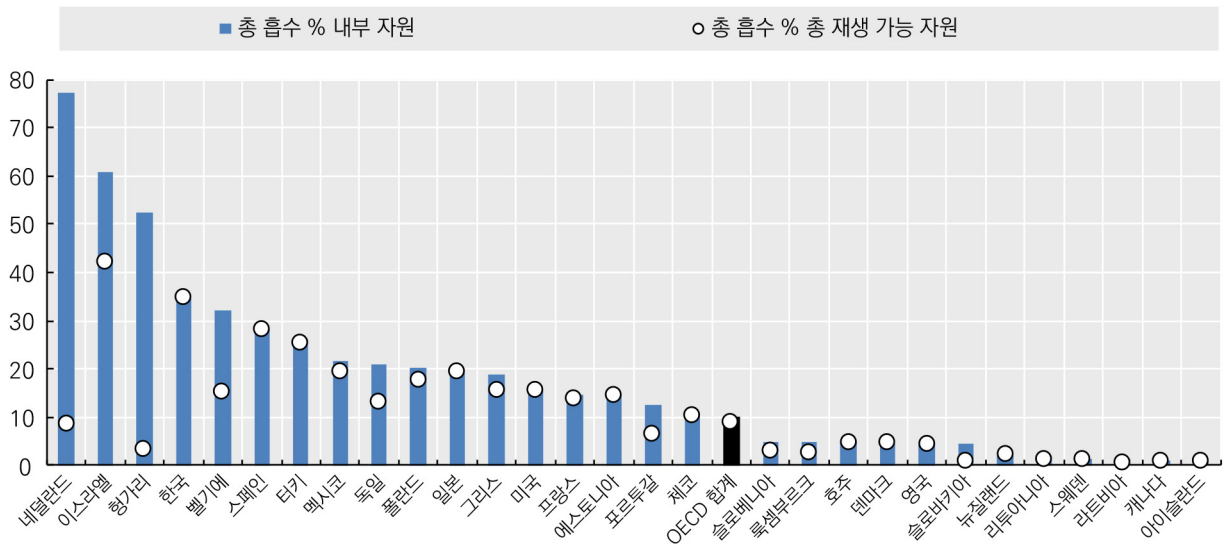
주: 총 질소 균형(과잉 또는 결손)은 농업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질소 투입(주로 축산 분뇨와 비료)과 시스템에서 나오는 질소 산출량(농작물과 목초 생산을 위한 질소 흡수) 사이의 차이이다. OECD 평균은 데이터 부족 때문에 칠레, 콜롬비아 및 이스라엘을 제외한다.

출처: OECD 농업·환경 지표: 영양분(Agri-Environmental indicators: Nutrients)(데이터베이스), https://stats-2.oecd.org/Index.aspx?DataSetCode=AEI_NUTRIENT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784>

그림 14.12. OECD 국가의 1/3이 자국 내부수의 20% 이상을 사용한다.

연간 총 추출물, 자원 비율로서, 2016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주: 국가들이 이용한 정의와 추정법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추가 세부사항은 그림 출처를 참조한다. 최신 가용 연도는 독일,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터키의 경우 2016년, 벨기에, 캐나다, 일본, 스웨덴, 미국은 2015년,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스만 나타냄), 아이슬란드, 뉴질랜드는 2014년이다. OECD 합계는 OECD 사무국 추정치이며 칠레와 콜롬비아를 제외한다.

출처: OECD 담수 추출(백만 m³)(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ATER_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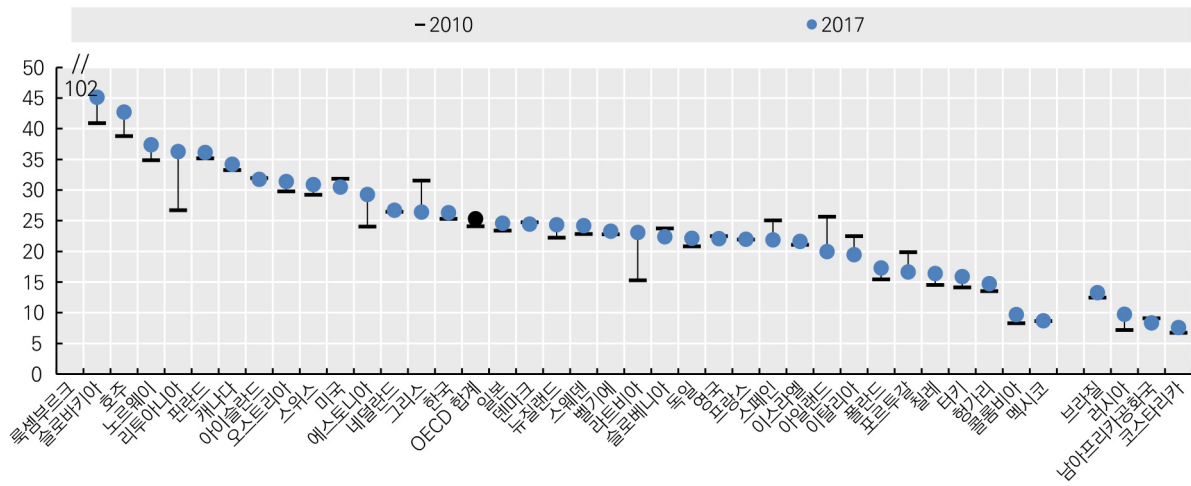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803>

폐기물과 물질

물질 발자국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출된 원자재의 총량을 참조한다. 1인당 기준으로 이 발자국은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OECD 국가의 2/3에서 증가했다(그림 14.13). 최대 증가(3톤 이상)는 OECD 평균을 초과하는 발자국의 국가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호주가 기록했다. 반대로, 평균 미만 발자국의 몇몇 OECD 국가가 전체적 추세에 맞섰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및 아일랜드 등이 이런 국가로, 2010년 이후 1인당 3톤 이상 감소했다.

그림 14.13. 1인당 물질 발자국은 대다수 OECD 국가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1인당 물질 발자국, 톤



주: 물질 발자국은 경제의 최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한 추출 원자재의 전체적 할당을 나타낸다. OECD 합계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체코를 제외하고, 콜롬비아가 OECD에 합류하기 전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콜롬비아를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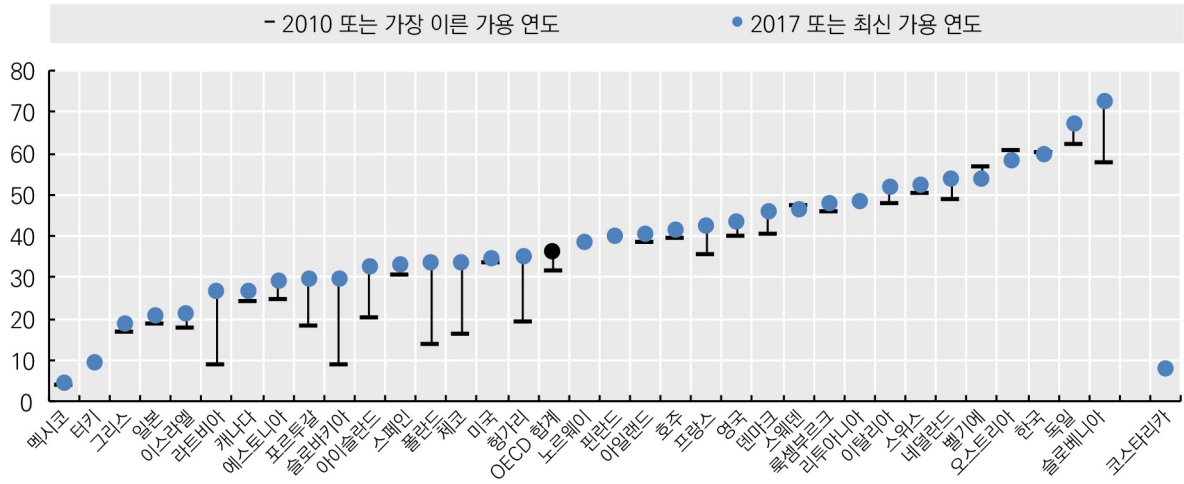
출처: OECD 물질 자원(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ATERIAL_RESOURCE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822>

폐기물은 또한 자연 환경에 압력을 더한다. 도시 폐기물 재활용 및 비료화율은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다수의 OECD 국가에서 개선되었다(그림 14.14). 약 1/3의 회원국에서 이 비율이 5%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벨기에와 오스트리아에서는 재활용률이 2% 포인트 이상 감소했지만 두 나라는 여전히 상위 5개 국가에 포함된다.

그림 14.14. 도시 폐기물 회수율은 2010년 이후 모든 OECD 국가 중 절반 이상에서 개선되었다.

재활용되거나 비료화되는 도시 폐기물, 처리된 폐기물의 비율로서



주: 최신 가용 연도는 캐나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한국의 경우 2016년이고 호주의 경우 2015년, 멕시코는 2012년이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이른 가용 연도 2015년을 나타낸다. OECD 합계는 불완전한 데이터에 기반한 OECD 사무국 추정치이다.

출처: OECD 도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MUNW>.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841>

상자 14.1. 앞선 측정 및 통계 의제

자연 자원은 광물, 목재 등 거래할 수 있는 품목부터 바다와 대기에 이르기까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산과 생태계이다. 자연 자원의 범위는 방대하다. 이 장을 위해 선택된 지표는 모든 가능한 비축, 흐름, 그리고 관련 위험 및 회복력 요소의 작은 주요 세트를 나타낸다(Exton 및 Fleischer, 2020^[7]). 여기에 표시된 지표(표 14.1)는 환경경제통합계정(System of Environmental and Economic Accounting, SEEA) 핵심 프레임워크에서 식별된 환경 자산의 몇몇 범주: 토지, 토양 자원, 수자원,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반영한다. 또한 공기 중 배출(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를 통해 기후 조절에 영향을 주는)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측면, OECD의 녹색성장전략(*Green Growth Strategy*)(OECD, 2017^[8]) 주요 지표와 *한눈에 보는 환경(Environment at a Glance)*(OECD, 2019^[11])의 다양한 데이터도 포함하고 있다.

표 14.1. 이 장에서 고려한 자연 자원 지표

지표	측정 단위	비축	흐름	위험 요소	회복력 요소
생물 자원과 생물다양성					
자연 및 반자연 토지 피복 (손실과 증가 별도로 기록)	총 토지 면적 퍼센트로서 자연 및 반자연 초생 토지 피복(나무로 덮인 지역, 초원, 습지, 관목지와 희박한 초목)	✓			
손상되지 않은 산림	제공 킬로미터	✓			
보호 구역 - 육생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총 토지의 퍼센트	✓			
보호 구역 -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총 배타적 경제 수역 퍼센트	✓			
멸종 위기종 (적색목록 지수)	조류, 포유류, 양서류, 소척류 및 산호초의 멸종 위험 결합 지표 1.0의 값은 최소 관심 대상으로 지정된 모든 종(즉, 가까운 미래에 멸종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과 동일하다. 0의 값은 멸종된 모든 종과 동일하다.			✓	
기후 변화					
국내 생산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	국내 생산의 총 온실가스 배출,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삼림 관리(LULUCF)의 배출 제외, 1인당 톤, CO ₂ 등가			✓	
탄소 발자국	국내 최종 수요에서 구제화된 이산화탄소 배출, 1인당 톤			✓	
재생 가능 에너지	총 1차 에너지 공급의 퍼센트로서 재생 가능 에너지				✓
토양의 질과 담수 자원					
토양 영양분 균형	영양분 과잉(질소), 농지 1헥타르당 킬로그램			✓	
물 부족(내부 자원)	내부 자원 퍼센트로서의 총 추출			✓	
물 부족(총 재생 가능 자원)	총 재생 가능 자원 퍼센트로서의 총 추출			✓	
폐기물과 물질					
1인당 물질 발자국	경제의 최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출된 사용 원자재, 1인당 톤		✓		
재활용되거나 비료화되는 도시 폐기물	모든 처리된 폐기물 퍼센트로서의 재활용되거나 비료화되는 도시 폐기물,				✓

자연 및 반자연 토지 피복은 수목 피복, 초원, 습지, 관목지 및 희박한 초목으로 구성된 총 토지 면적의 퍼센트로 정의된다. **자연 및 반자연 초생 토지의 손실(증가)**은 다른 토지 피복 유형(예: 농업 지역, 시가지)으로 (유형에서) 전환된 수목 피복, 초원, 습지, 관목지 및 희박한 초목의 퍼센트이다. 사용된 분모는 기준 기간이 시작될 때 자연 및 반자연 토지의 “비축”이다. 토지 피복 변경 데이터는 *OECD 환경 데이터베이스*의 국가와 지역의 토지 피복 변화 데이터세트에서 구한다. 방법론의 세부 항목 정보는 (Hašič & Mackie, 2018^[9])을 참조한다.

무손상 산림 경관은 멀리서 감지되는 인간 활동 징후가 없고 광범위한 종의 존속가능개체군을 포함한 모든 토착 생물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자연 생태계의 현재 산림 범위 내에서의 중단되지 않는 확장을 나타낸다(Potapov 외, 2017^[2]). 이 산림은 500km² 이상 크고 10km 이상 넓은 산림으로 정의되며 정착지나 인프라가 없고 지난 70년 동안 산업 활동, 농업 개간 또는 기타 인위적 교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어야 한다. 이 산림 내에는 호수, 얼음, 목초지 등 나무가 없는 지역이 포함된다. 무손상 산림 경관의 식별은 전세계 산림 지도를 기반으로 하며, 위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모든 산림 지역은 위성 영상과 주제도(도로, 정착지 등) 같은 다른 정보원을 이용한 육안 식별을 통해 제외시킨다. 데이터는 *OECD 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 토지 자원에서 구한 것이며 (Potapov 외, 2017^[2])을 기반으로 한다.

보호 구역은 국가, 지역(예: 유럽 Natura 2000 네트워크) 또는 국제 프레임워크(예: 람사르 습지로 알려진,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를 이용해서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총 토지(육생 구역의 경우)와 총 배타적 경제 수역(해양 구역의 경우) 비율을 나타낸다. 엄격한 천연보호구역, 야생보호 구역, 국립 공원, 천연 기념물, 서식지/종 관리 구역, 보호 경관/해양경관, 그리고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통한 보호 구역을 포함한다. 데이터는 *OECD 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 생물다양성에서 얻은 것이다. 계산은 세계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과 UNEP의 세계보존모니터링센터(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가 관리하는 *세계 보호지역 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n Protected Areas, WDPA)*를 기반으로 한다. 방법론의 세부 항목 정보는 (Mackie 외, 2017^[10])을 참조한다.

멸종우려종 - 적색목록 지수는 국가 내에서의 전반적 멸종 위험종 추세를 보여준다. 조류, 포유류, 양서류, 소철류 및 산호초의 멸종 위험 결합 지표이다. 1.0의 값은 최소 관심 대상으로 지정된 모든 종(즉, 가까운 미래에 멸종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반면, 0의 값은 멸종된 모든 종과 동일하다. 데이터는 *UN DESA 전세계 SDG 지표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하며 IUCN 멸종우려종 적색목록을 기반으로 한다.

국내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은 토지 이용, 토지 이용 변화 및 삼림 관리(LULUCF)의 배출을 제외한 국내 생산의 1인당 총 온실가스 배출(GHG)이며, 1인당 톤이고 CO₂ 등가이다. 이 지표는 이산화탄소(CO₂, 에너지 사용과 산업 공정(예: 시멘트 생산)의 배출 포함), 메탄(CH₄, 고형 폐기물, 축산, 무연탄과 갈탄 채굴, 논, 농업, 천연가스 배관의 누설),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₆) 등의 사람이 만든 6가지 가스의 배출에 대한 것이다. 각 유형의 가스 배출은 “온난화지수”에 의해 가중되며 CO₂ 등가 1인당 톤으로 표시된다. *OECD 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데이터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보고(National Inventory Submissions) 2014를 기초로 편집되며 OECD 국가 환경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다.

탄소 발자국은 국내 소비와 관련된 이산화탄소(CO₂)의 1인당 총 배출의 추정치이며, 국내에서 배출되고 소비되는 CO₂와 해외로 배출되고 수입에서 구체화되는 CO₂를 포함한다. 국가의 국내 소비에서 구체화되는 배출은 국내 생산의 배출이 전혀 증가하지 않더라도 전세계 GHG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 지표는 연료 소비의 CO₂ 배출에 대한 IEA 통계 및 다른 산업 통계와 결합해서 *OECD 국가 간 투입-산출(Inter-Country Input-Output, ICIO) 데이터베이스* 2015년 호에서 도출한 것이다. *OECD 구조 분석 데이터베이스(Structural Analysis Databases)*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데이터는 (Wiebe 및 Yamano, 2016^[11])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방법론에 따라 편집된다.

재생 가능 에너지 공급은 재생 가능 자원에서 오는 1차 에너지 총 소비량(Total Primary Energy Supply, TPES)의 비율을 참조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는 수력, 지열, 태양(열 및 PV), 풍력 및 조류/파도/해양 에너지뿐만 아니라 고체 생물량, 액체 생물량, 생물 가스 및 재생 가능 도시 폐기물의 연소로 얻는 재생 가능 에너지도 포함한다. TPES는 수입을 더하고, 수출을 빼고, 국제 해양 병커와 국제 항공 병커의 에너지를 빼고, 에너지 비축의 변화를 더한 생산으로 구성된다. “재생 가능 및 폐기물 에너지 공급”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IEA 재생 가능 에너지 정보 통계 데이터베이스(Renewables Information Statistics Database)*의 세계 - 재생 가능 및 폐기물 에너지 통계 데이터세트에서 구한다. 1차 에너지 총 소비량(TPES)에 대한 데이터는 *세계 에너지 통계 및 균형(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에 대한 *IEA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다. 여기에 표시된 추정치는 *OECD 환경 통계 데이터베이스: 녹색 성장*에서 구한 것이다.

헥타르당 질소 균형은 농업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질소 투입(주로 비료, 축산 분뇨)의 총량과 시스템에서 나오는 질소(주로 농작물과 목초의 영양분 섭취)의 양 사이의 차이로 계산된다. 총 질소 균형은 농지의 헥타르당 영양분 과잉(양일 때) 또는 결손(음일 때)을 kg으로 표시된다. 이 지표는 토양 비옥도 감소(영양분 결손의 경우) 또는 토양, 물 및 공기 오염의 위험(영양분 과잉의 경우) 같은 환경 압력의 상태를 밝히기 위한 대용물로 사용된다. 영양분 균형은 농업-환경 지표: 영양분 균형 데이터세트, *OECD 농업 및 어업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다.

물 부족은 총 내부 재생 가능 담수 자원(침전 순 증발산)과 총 가용 재생 가능 담수 자원(인근 국가로부터의 유입 포함)이라는 두 가지 척도의 가용 수자원 비축의 퍼센트로서 담수의 총 추출 비로 표현된다. 물 부족은 가용 자원에 중요한 부족이 없음을 의미하는 “낮음”(10% 미만), 물 가용성이 개발에 제약이 되고 충분한 공급을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중간”(10~20%), 수요와 공급 둘 다 관리가 필요하고 물 사용 경쟁 가운데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중간-높음”(20~40%), 그리고 사회 경제적 발전의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부족 및 (일반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물 사용을 나타내는 “높음”(40% 이상) 등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담수 추출에 대한 데이터는 *OECD 환경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다. 영국에 대한 데이터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담수 추출만 포함한다는 것에 유의한다.

물질 발자국은 1인당 톤으로 표시하며, 수입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물질을 포함해서 경제의 최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된 추출 원자재의 전체적 할당을 나타낸다. 이들 데이터는 물질 자원(경제의 물질 토대를 형성하는 천연 자원에서 유래하는 물질: 금속(철, 비철), 비금속성 광물(구조 광물, 산업 광물), 생물량(목재, 식품) 및 화석 에너지 운반체)을 나타낸다. OECD 국가의 물질 발자국에 대한 데이터는 *OECD 환경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물질 자원 데이터세트에서 구하며 이것은 결국 *UNEP “Environment Live” 데이터베이스*의 토대가 된다.

표 14.2. 각각의 자연 자본 지표는 전체적 그림에 기여한다.

자연 자본 지표 간 이변량 상관 계수

	자연 토지 피복	자연 토지의 손실	자연 토지의 증가	손상 되지 않은 산림	보호 구역 - 육생	보호 구역 - 해양	멸종 우려종	생산의 GHG 배출	탄소 발자국	재생 가능 에너지	토양 영양분 균형	물 부족 (내부)	물 부족 (재생 가능)	물질 발자국
자연 토지의 손실	-0.39** (41)													
자연 토지의 증가	-0.49*** (41)	0.33** (41)												
손상되지 않은 산림	0.28* (41)	-0.17 (41)	-0.18 (41)											
보호 구역 - 육생	-0.21 (40)	-0.08 (40)	0.10 (40)	-0.21 (40)										
보호 구역 - 해양	0.03 (34)	-0.13 (34)	-0.26 (34)	-0.13 (34)	0.57*** (34)									
멸종우려종	-0.24 (41)	-0.13 (41)	-0.15 (41)	0.16 (41)	0.08 (40)	0.04 (34)								
생산의 GHG 배출	0.24 (40)	-0.04 (40)	-0.40** (40)	0.30* (40)	-0.09 (39)	0.05 (33)	0.04 (40)							
탄소 발자국	0.08 (41)	0.06 (41)	-0.37** (41)	0.07 (41)	-0.09 (40)	0.07 (34)	0.11 (41)	0.83*** (40)						
재생 가능 에너지	0.28* (41)	-0.18 (41)	-0.01 (41)	-0.00 (41)	-0.05 (40)	-0.20 (34)	0.04 (41)	-0.20 (40)	-0.23 (41)					
토양 영양분 균형	-0.22 (34)	0.40** (34)	-0.15 (34)	-0.14 (34)	-0.02 (33)	-0.11 (27)	-0.16 (34)	0.10 (34)	0.28 (34)	-0.32* (34)				
물 부족(내부)	-0.57*** (33)	0.23 (33)	0.19 (33)	-0.16 (33)	-0.16 (32)	-0.09 (27)	-0.08 (33)	-0.07 (33)	0.01 (33)	-0.40** (33)	0.44** (30)			
물 부족(재생 가능)	-0.51*** (34)	0.49*** (34)	0.26 (34)	-0.25 (34)	-0.09 (33)	-0.19 (28)	-0.31* (34)	-0.08 (34)	0.07 (34)	-0.41** (34)	0.32* (30)	0.61*** (32)		
물질 발자국	-0.00 (40)	-0.04 (40)	-0.27* (40)	-0.11 (40)	0.35** (39)	0.07 (34)	0.31** (40)	0.45*** (39)	0.60*** (40)	-0.04 (40)	0.17 (33)	-0.20 (32)	- 0.19 (33)	
재활용률	-0.04 (35)	0.09 (35)	-0.45*** (35)	-0.13 (35)	0.20 (34)	0.55*** (28)	0.31* (35)	0.17 (35)	0.32* (35)	-0.09 (35)	0.33* (33)	0.11 (31)	- 0.05 (31)	0.25 (34)

주: 표는 피어슨 이변량 상관 계수를 보여준다. 괄호 안의 값은 관찰(국가) 수를 나타낸다.
 *는 p<0.10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는 p<0.05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는 p<0.01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도시 폐기물 회수율은 재활용되거나 비료화되는 폐기물을 나타내며, 모든 처리된 폐기물의 퍼센트로 표시된다. 재활용은 연료로 재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폐기물 흐름에서 전용하는 생산 공정의 모든 물질 재처리로 정의된다. 같은 유형의 제품으로 및 다른 용도를 위해 재처리하는 것 둘 다 포함한다. 발생 장소의 산업 공장 내 직접적 재활용은 제외된다. 비료화는 생분해성 폐기물을 혐기성 또는 호기성 분해하기로 하고 회수되는 산물로 끝나는 생물학적 과정으로 정의된다. 처리된 폐기물은 재활용, 비료화, 소각 및 매립 처분을 포함한다. 폐기물 처리 데이터는 *OECD 환경 데이터베이스*의 도시 폐기물 - 발생과 처리 데이터세트에서 구한다.

자연 자본 지표 간 상관관계

자연 자본 지표 간 가장 강력한 상관관계는 국내 생산의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탄소 발자국 사이에서 발견된다(0.8)(그림 14.2). 보호 구역의 두 가지 척도(육생과 해양)는 서로 강력하게 관련되어 있으며(0.6), 재활용률과도 관련이 있다(0.6). 물 부족의 두 가지 척도는 관계가 있고(0.6), 자연 토지 피복의 비율이 더 높은 국가는 낮은 비율의 물 부족을 겪는 경향이 있다(-0.6). 탄소 발자국이 더 높은 국가는 물질 발자국도 더 높다(0.6).

앞선 통계 의제

표 14.1의 몇 가지 지표는 보다 완전한 국가 범위, 시계열 및 적시 데이터가 필요하다. 다른 주요 지표가 완전히 누락되었다. 인간의 웰빙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의 이점과 종 다양성에 대한 데이터가 특히 어설프게 포함된다. 다른 중요한 격차는 강과 호수의 오염과 해양 산성화의 측면에서 수질뿐만 아니라 자원(예: 어류 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다른 경우에는 기존 지표가 추가 개선 또는 보완 정보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재생 가능 에너지의 1차 에너지 총 소비량 비율에 대한 데이터는 모든 탄소 제로 자원의 총 에너지 비율에 대한 정보로 보완해야 한다. 보호 구역은 생물다양성 보존과 관련해서 반드시 최적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 제시된 지표는 보호 구역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거나 시행되는지 여부의 징후를 제공하지 않는다. GHG의 공기 중 배출에 대한 이상적 데이터 세트는, 각각의 가스에 서로 다른 대기 중 효과가 있는 경우 이 집계를 수행하는 것은 까다롭기 때문에, 가중된 탄소-등가 조건으로 이들을 함께 합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온실가스의 분석을 별도로 보여준다. 총 비료 투입은 토양 영양분(질소) 균형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재활용과 비료화는 처리된 도시 폐기물의 물질 회수뿐만 아니라 모든 가계와 산업을 이상적으로 포함할 것이다. 자연 재해에 대한 데이터 또한 포함시키기에 적절할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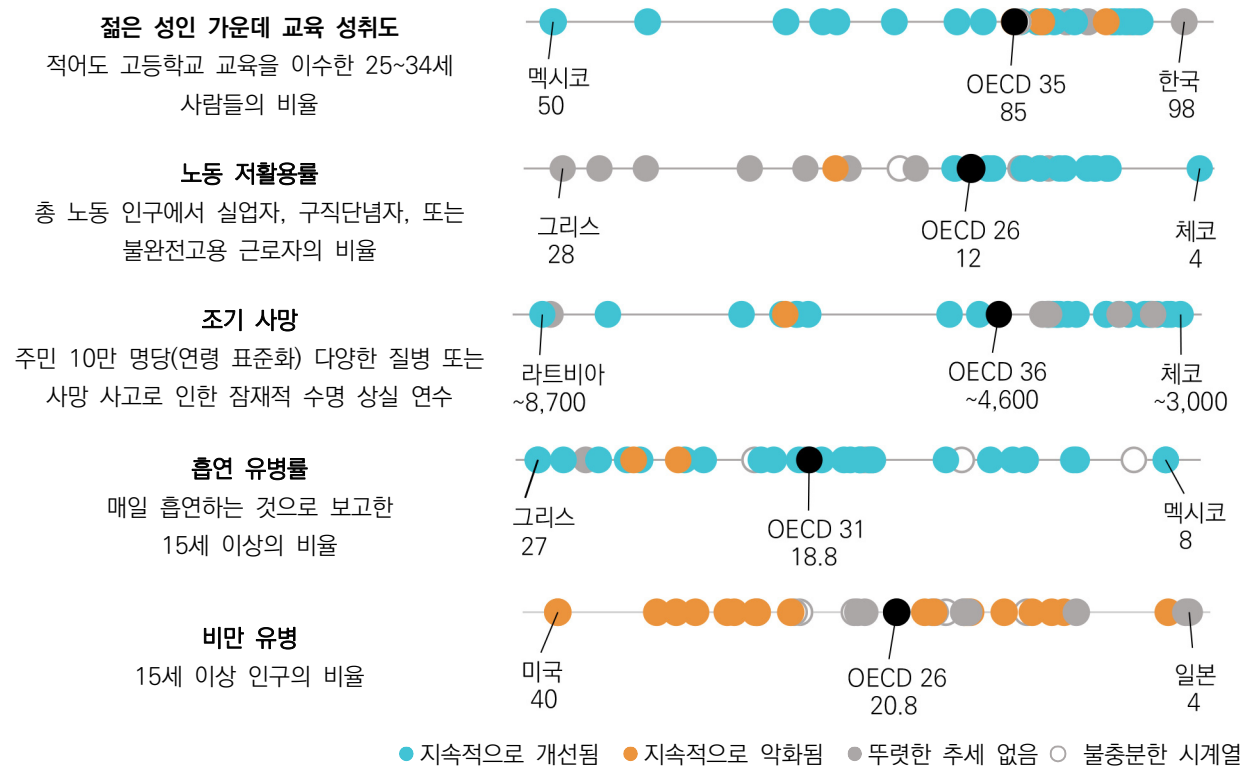
- 유럽환경청(2019),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 지표(Atmospheric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 indicator) assessment*, <http://eea.europa.eu/data-and-maps/indicators/atmospheric-greenhouse-gas-concentrations-6/assessment> (accessed on 8 August 2019). [4]
- Exton, C. and L. Fleischer (2020), “The Future of the OECD Well-being Dashboard”,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forthcoming, OECD Publishing, Paris. [7]
- Hašiči, I. and A. Mackie (2018), “Land Cover Change and Conversions: Methodology and Results for OECD and G20 Countries”, *OECD Green Growth Papers*, No. 2018/0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2a9e331-en>. [9]

- IEA (2019), *Global Energy and CO₂ Status Report: The latest trends in energy and emissions in 2018*, [3]
IEA, Paris, <http://iea.org/geco/>.
- Mackie, A. et al. (2017), “Indicators on Terrestrial and Marine Protected Areas: Methodology and Results [10]
for OECD and G20 countries”, *OECD Environment Working Papers*, No. 126,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e0796071-en>.
-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2019), *Ocean acidification*, [5]
<http://noaa.gov/education/resource-collections/ocean-coasts-education-resources/ocean-acidification>.
- OECD (2019), *Environment at a Glance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1]
<https://dx.doi.org/10.1787/ac4b8b89-en>.
- OECD (2017), *Green Growth Indicators 2017*, OECD Green Growth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8]
<https://dx.doi.org/10.1787/9789264268586-en>.
- OECD (2013), *OECD Compendium of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6]
<https://dx.doi.org/10.1787/9789264186217-en>.
- Potapov, P. et al. (2017), “The last frontiers of wilderness: Tracking loss of intact forest landscapes from [2]
2000 to 2013”, *Science Advances*, Vol. 3/1, <https://advances.sciencemag.org/content/3/1/e1600821>.
- Wiebe, K. and N. Yamano (2016), “Estimating CO₂ Emissions Embodied in Final Demand and Trade [11]
Using the OECD ICIO 2015: Methodology and Result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Working Papers*, No. 2016/5,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5jlrcm216xkl-en>.

15 인적 자본

인적 자본은 미래 웰빙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지식, 역량, 능력 및 건강 상태를 나타낸다. 인적 자본에 관한 OECD 국가의 성과는 혼합되어 있다. 젊은 인구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진전이 있었던 한편, 국가들 간 큰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역량 악화를 통해 인적 자본에 위협을 제기하는 노동 시장에서의 저활용이 대다수 OECD 국가의 경우 2010년 이후 개선되고 있다. 오직 한 국가만 지난 10년간 조기 사망 증가를 경험했다. 미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위험 측면에서 흡연 유병률은 2005년 이후 두 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OECD 국가 대다수의 비만이 높아지고 있어서 여전히 비만은 인적 자본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남아 있다.

그림 15.1. 인적 자본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하거나 일관된 변화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 OECD 평균과 함께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방법론에 대한 세부 항목 정보는 독자를 위한 가이드를 참조한다.

출처: OECD 교육 수준과 노동 인구 상태(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NEAC, OECD 가계 대시보드(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H_DASH 및 OECD 건강 상태(데이터베이스),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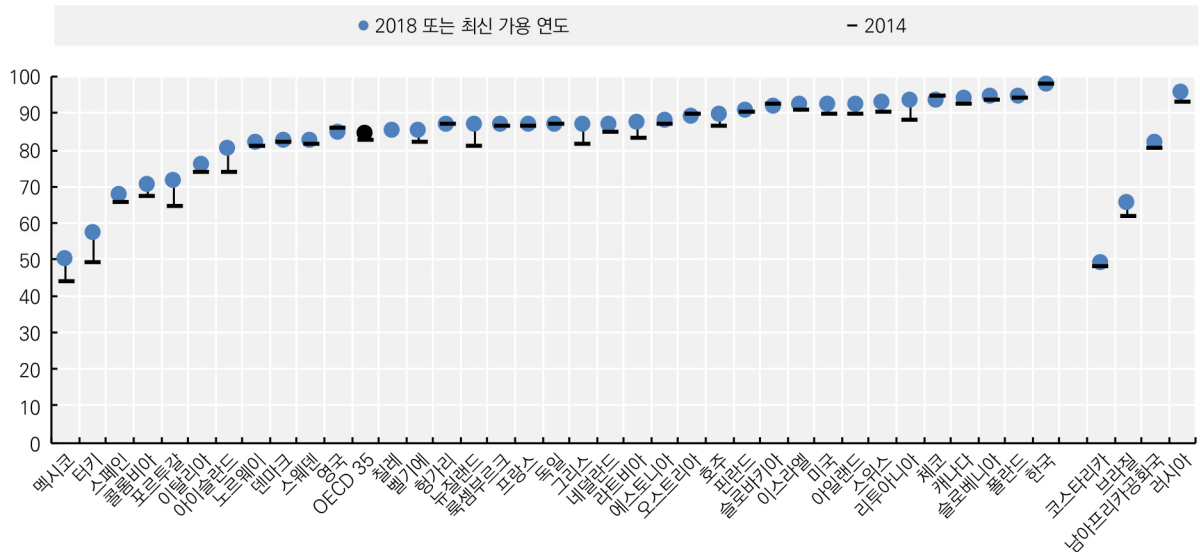
젊은 성인 가운데 교육 성취도

젊은 성인 가운데 교육 성취도는 미래 세대가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지식과 역량의 비축을 반영한다.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젊은 성인(25~34세)의 비율은 지난 4년 동안 OECD 국가의 다수에 대해 상승했다(그림 15.2). OECD 평균 비율은 2018년 84.9%였다. 한국과 러시아 연방은 95% 이상이고, 터키, 스페인, 콜롬비아는 70% 미만, 멕시코는 50%이다.

2014년 이후 OECD 평균 젊은 성인의 고등학교 교육 이수 비율은 2% 포인트 증가했다. 몇몇 최대 개선은 2014년 OECD 평균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는 국가들에서 발생했고, 따라서 국가들 간 교육 수준 격차가 좁아졌다. 예를 들어 터키는 7.7% 포인트가 증가했고 포르투갈은 6.9, 아이슬란드는 6.8 증가했다. 반대로, 최대 감소는 영국(약 1.3% 포인트)에서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오스트리아(1.1)였다.

그림 15.2.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젊은 성인의 교육 성취도가 상승하고 있다.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25~34세 사람들의 비율, 퍼센트



주: 브라질, 칠레, 이스라엘, 러시아 연방(2017)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최신 가용 연도는 2018년이다. OECD 평균은 누락 데이터 및/또는 불완전한 시계열 때문에 칠레나 일본을 포함하지 않는다. 19개 OECD 국가에 대한 교육 분류의 변화 때문에 2014년은 2010년과 대조되는 기준 연도로 사용된다.

출처: OECD 교육 수준과 노동 인구 상태(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EAG_NEAC 및 러시아 연방 통계청(Rossta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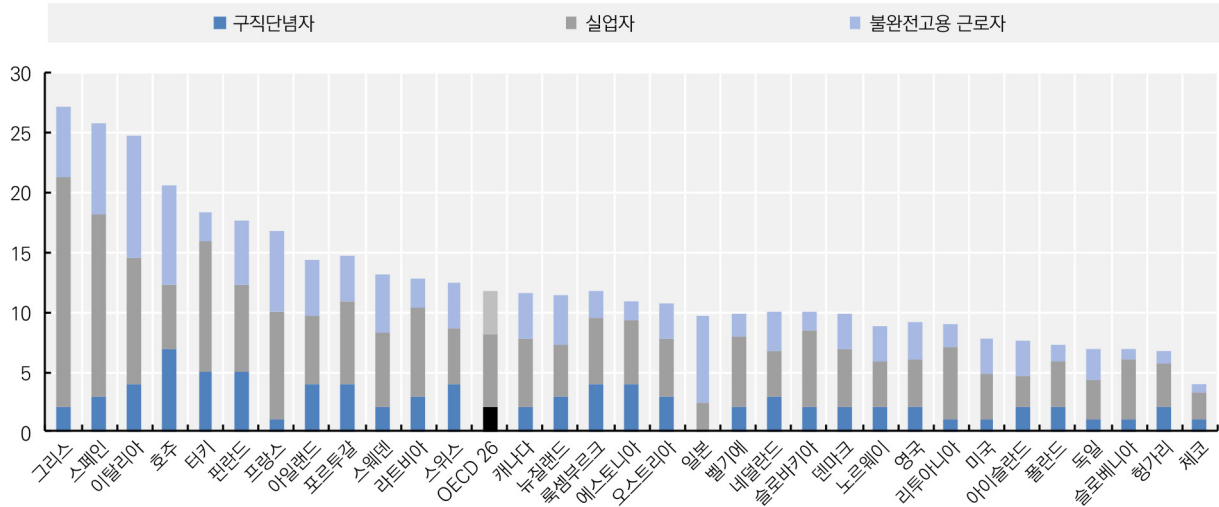
노동 저활용률

노동 저활용률은 실업자, 불완전고용 근로자(예: 비자발적으로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 또는 구직단념자(즉, 노동 인구에 속하지 않으며 이전 4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았지만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인 노동 인구의 비율을 설명한다. 따라서 실업 하나와 비교하여 실직자와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제공하며, 저활용률은 일반적으로 표준 실업률보다 1.5배~4배 더 높다.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노동 저활용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그림 15.3) 그리스(인구의 27% 이상이 저활용)와 체코(3.6%에 불과) 사이의 격차는 24% 포인트 이상이다.

2010년 이후 노동 저활용률은 5개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가 개선되었으며(그림 15.4), 이들 중 두 개 국가만(이탈리아와 그리스) 1% 포인트 이상 악화되었다. 라트비아는 노동 저활용이 18.8% 포인트 감소하며 최대 개선을 기록했다.

그림 15.3. OECD 전체에 걸친 노동 인구 저활용의 큰 불일치

노동 저활용, 총 노동 인구의 비율로서,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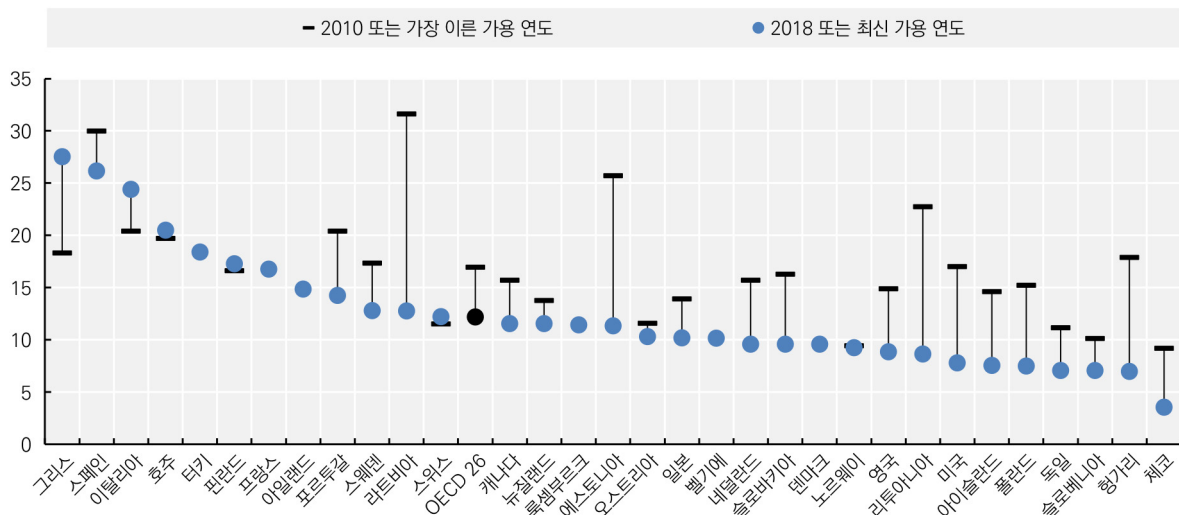
주: 전반적 노동 저활용률은 실업자, 구직단념자(즉, 노동 인구에 속하지 않으며 이전 4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았지만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할 수 있는 사람) 및 불완전고용 근로자(경제적 이유로 조사 기준 주 동안 평소보다 일을 덜한 전일제 근로자 및 전일제 일자리를 원했지만 찾지 못한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총 노동 인구의 비율로 표시된다. OECD 평균은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한국 또는 멕시코를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OECD 가계 대시보드(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H_DASH.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879>

그림 15.4. 노동 저활용은 5개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OECD 국가에서 개선되고 있다.

총 노동 인구에서 실업자, 구직단념자, 불완전고용 근로자의 비율, 퍼센트



주: 최신 가용 데이터는 2018년이다. 2018 OECD 평균은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한국 또는 멕시코를 포함하지 않는다. 가장 이른 가용 데이터는 2010년이며, 체코, 독일, 포르투갈, 터키는 2011년, 일본은 2012년, 네덜란드는 2013년이다. 2010년 또는 가장 이른 가용 OECD 평균은 누락 데이터 또는 시계열 중단 때문에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또는 터키를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OECD 가계 대시보드(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H_D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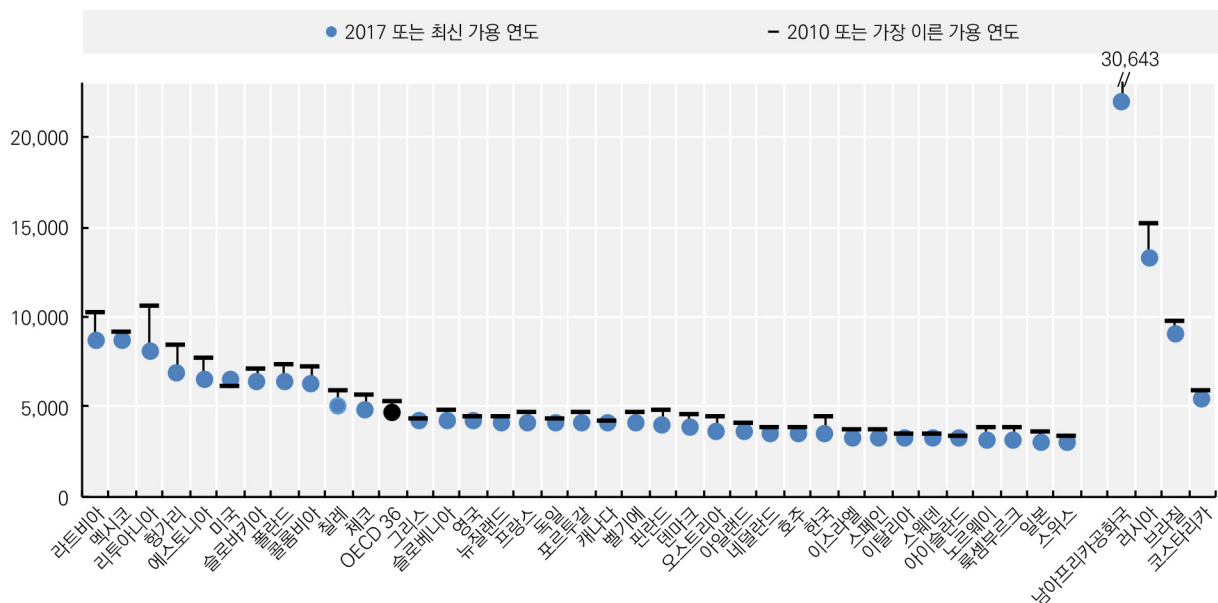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898>

조기 사망

잠재적 수명 상실 연수(PYLL)는 다양한 질병 또는 사망 사고로 인한 조기 사망의 척도이다. OECD 국가 가운데 스위스,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는 주민 10만 명당 3,200년 미만으로 조기 사망 최저 발생률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라트비아와 멕시코는 가장 높은 비율(각각 8,733년과 8,661년)(최고 성과 국가보다 세 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그림 15.5).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조기 사망이 개선되었다. 잠재적 수명 상실 연수 최대 감소 국가는 리투아니아(24% 감소), 한국(22%), 룩셈부르크(19%) 및 핀란드(18%)이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 조기 사망은 5% 증가했다. OECD 국가를 넘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매우 큰 개선(거의 28%)을 확인했다.

그림 15.5. 한 개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OECD 국가에서 조기 사망이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당 잠재적 수명 상실 연수(연령 표준화됨)



주: 수명 상실 연수는 젊은 나이에 발생한 사망에 더 큰 가중치를 둔다. 지표는 각 연령에서 발생하는 사망을 더하고, 이 합계에 남은 기간을 미리 결정된 연령 제한(OECD 보건 통계(Health Statistics)는 75세 이용)까지 곱해서 만들어낸다. 각각의 국가에 대한 PYLL 척도는 OECD 인구 연령 구조(즉, 연령 표준화됨)를 기반으로 계산한다. 최신 가용 연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6년이고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의 경우 2017년,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5년,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코스타리카, 러시아 연방은 2014년을 나타낸다. 모든 국가의 가장 이른 가용 연도는 2010년이다. 누락 데이터 때문에 OECD 평균은 터키를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OECD(2020), “잠재적 수명 상실 연수”(지표), <https://doi.org/10.1787/193a2829-en>.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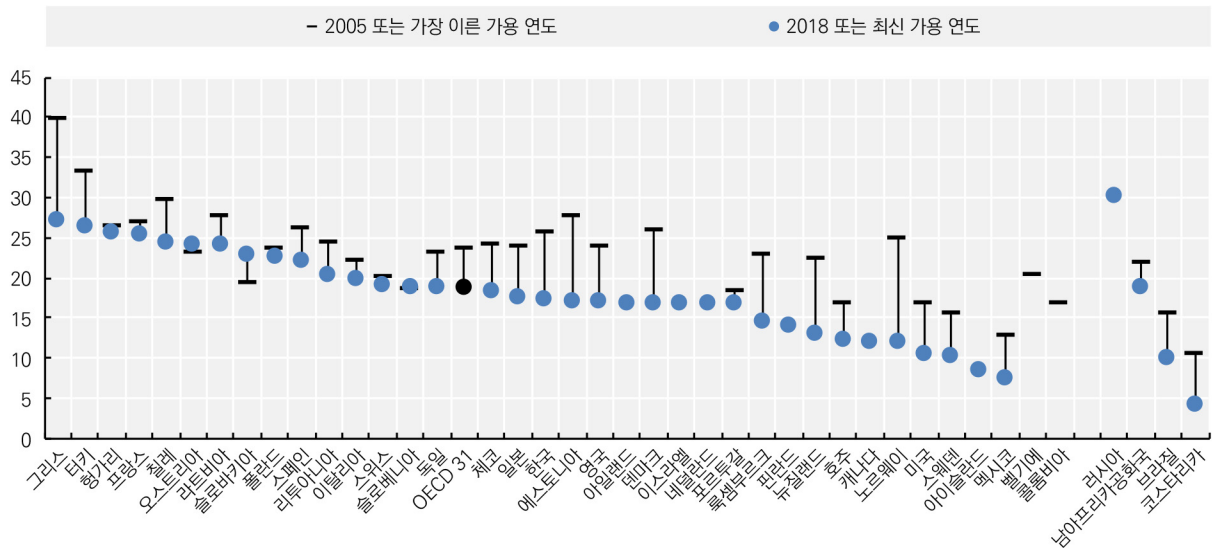
흡연 유병률

흡연은 암, 심장병, 호흡기 질환 및 선천적 결손증 관련성을 통해 미래 건강을 훼손하기 때문에 인적 자본에 대한 위험 요소이다.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19%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번 이상 흡연한다고 보고한다. 그리스, 터키, 헝가리에서는 인구의 1/4 이상이 매일 흡연하는 반면, 멕시코와 아이슬란드에서는 10% 미만이 매일 흡연한다. 2005년 이후 흡연율은 이미 비교적 잘 하고 있는 OECD 국가에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감소했다.

감소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급격했고(13% 포인트), 그 다음은 그리스(12.7포인트),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및 덴마크(각각 10.6, 9.4 및 9.1포인트)였다. 코스타리카는 2005년 이후 흡연율이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그림 15.6 (4%일 때)에 포함된 모든 국가 중에서 일일 흡연 유병률 수준이 가장 낮다.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만이 2005년 이후 흡연 증가를 겪었다(각각 1.1% 포인트와 3.4% 포인트).

그림 15.6. 흡연 유병률은 OECD 전체에 걸쳐 감소하고 있다.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보고한 15세 이상의 비율, 퍼센트



주: OECD 평균은 시계열 중단 때문에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및 네덜란드를 제외한다. 가장 이른 가용 데이터는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스라엘, 멕시코, 포르투갈, 스페인, 터키 및 브라질(2006), 호주,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및 스위스(2007), 벨기에, 콜롬비아 및 라트비아(2008), 칠레,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러시아 연방(2009)을 제외하고 2005년이다. 시계열 중단 때문에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네덜란드와 러시아 연방에 대한 가장 이른 가용 데이터는 없다. 최신 가용 데이터는 캐나다, 체코, 덴마크,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및 브라질(2017), 호주, 칠레, 터키 및 러시아 연방(2016), 남아프리카공화국(2015),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2014)를 제외하고 2018년이다. 데이터 누락 때문에 벨기에와 콜롬비아에 대한 가용 데이터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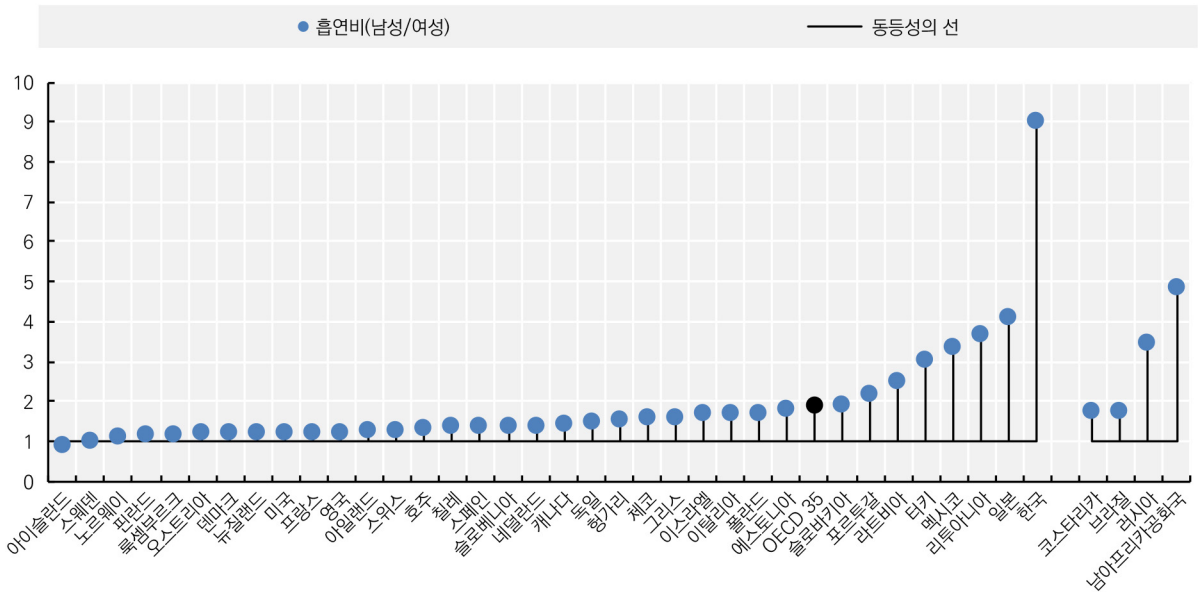
출처: OECD 비의료 건강 결정요소(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LVNG.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936>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흡연율이 높다(그림 15.7). 한국은 성별 격차가 가장 큰데, 남성의 흡연 가능성이 여성의 9배이다. 일본, 리투아니아, 멕시코 및 터키 또한 격차가 크며, 남성의 흡연 가능성이 여성의 3배이다.

그림 15.7.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흡연을 더 많이 한다.

남성 대 여성 흡연 유병률 비, 2018 또는 최신 가용 연도



주: 성비는 더 높은 값(1 이상)이 여성의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최신 가용 데이터는 캐나다, 체코, 덴마크,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및 브라질(2017), 호주, 칠레, 터키 및 러시아 연방(2016), 남아프리카공화국(2015), 오스트리아,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2014)를 제외하고 2018년이다. 누락 데이터 때문에 OECD 평균은 벨기에와 콜롬비아를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OECD 비의료 건강 결정요소(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데이터베이스),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LVNG.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955>

비만 유병률

심장병, 당뇨 및 몇몇 유형의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비만은 인적 자본에 대한 또 다른 주요 위협이다. OECD 국가에서는 평균적으로 5명 중 한 명이 비만이다(체질량 지수 30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한 경우). 국가 간 차이가 큰데(그림 15.8), 일본과 한국은 5% 이하이며 미국은 40% 이상이다(OECD, 2017^{[11])}.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비만율이 증가해왔다. 시계열 데이터가 있는 27개 국가 중에서 비만을 감소를 보인 국가는 없었으며 두 개 국가만 같은 비율을 유지했다(아일랜드와 프랑스). 칠레는 비만 유병률이 9.3% 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가파른 증가를 보였다. 비만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또한 지난 15년 동안 최대 증가를 기록하면서 안정기에 도달하기 보다는 문제가 혼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한국 등 비만 수준이 비교적 낮은 국가조차 지난 10년 동안 증가를 겪었다.

OECD 국가 간 비만 유병률의 성별 격차의 그림은 혼합된다. 15개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만 유병률이 높다(스위스, 슬로베니아 및 이탈리아에서 20% 더 높은 비율). 반면에, 19개 OECD 국가에서 여성들 간 비만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고 터키와 콜롬비아의 격차가 가장 크다.

표 15.1. 이 장에서 고려한 인적 자본 지표

지표	측정 단위	비촉	흐름	위험 요소	회복력 요소
젊은 성인 가운데 교육 성취도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한 25~34세 사람들의 비율	✓			
노동 저활용률	총 노동 인구에서 실업자, 구직단념자, 불안전고용 근로자의 비율			✓	
조기 사망	주민 10만 명당(연령 표준화) 다양한 질병 또는 사망 사고로 인한 잠재적 수명 상실 연수		✓		
흡연 유병률	매일 흡연하는 것으로 보고한 15세 이상의 비율			✓	
비만 유병률	비만인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 자기 보고 또는 건강 면접을 통한 측정			✓	

젊은 성인 간 교육 수준은 적어도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25~34세 사람의 비율로 측정한다. 고등학교 교육은 레벨 3 이상의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정의를 이용한다. 이 정의는 고등 교육 준비에 맞게 구성된 일반 프로그램과 직업 교육 훈련(VET) 프로그램 둘 다 포함한다(OECD, 2018^[6]). 데이터는 *OECD 한눈에 보는 교육(Education at a Glance)*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 것이다.

노동 저활용률은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기회 및 역량 감소에서 노동 시장 부진의 영구적 영향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 저활용률은 실업자, 구직단념자(즉, 노동 인구에 속하지 않으며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았지만 일을 하고 싶어하고 할 수 있는 사람) 및 불안전고용 근로자(경제적 이유로 조사 기준 주 동안 평소보다 일을 덜한 전일제 근로자 및 전일제 일자리를 원했지만 찾지 못한 시간제 근로자)를 분자에 포함하며, 노동 인구의 비율로 표시된다. 따라서 실업률을 넘어 실직자와 실현되지 않은 잠재력에 대한 보다 넓은 관점을 제공한다. 데이터는 *OECD 가계 대시보드*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다.

조기 사망은 75세 전에 발생하는 사망을 나타낸다. PYLL 지표는 전체 합계를 구하기 위해 개인의 실제 사망 연령에서 선택한 조기 사망 연령(OECD 계산에서는 75세)을 빼고, 그 다음 여기에 조기 사망수를 곱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연령 집단 간 숫자를 더해서 계산한다. 이 접근법이 암시하는 것은 더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사망이 더 나이 든 연령층의 사망보다 무겁게 가중된다는 것이다(예: 태어난 첫 해에 사망한 영아의 경우 PYLL은 75 - 1, 즉, 74이고, 74세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PYLL은 75 - 74, 즉, 1이다). 이 지표는 다른 더 젊은 인구 구조와 동일한 연령별 사망률을 가지고 있는(데이터 연령 표준화) 국가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보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OECD 인구 구조를 적용하여) OECD 국가 간 연령별 인구 구조의 차이점을 고려한다. 데이터는 *OECD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다.

흡연 유병률은 매일 담배를 피우는 1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정의된다. 이 지표는 하루 한 개 이상의 흡연 담배 수량을 고려하지 않으며(OECD, 2017^[7]) 간접 흡연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무연 담배 제품(씹는 담배 등)의 사용도 제외한다. 데이터는 *OECD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다.

비만은 개인의 키와 몸무게를 고려한 단일 수치인 신체질량지수(BMI)를 이용해서 정의한다. WHO 표준을 기반으로, BMI 30 이상의 성인을 비만으로 간주된다. BMI는 비만을 정의하는 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메트릭이지만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예: 서로 다른 인종 집단은 동등한 건강 위험 수준의 BMI 값이 서로 다를 수 있다(OECD, 2017^[8])). 데이터는 *OECD 보건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구한다.

인적 자본 지표 간 상관관계

인적 자본 지표 간 상관관계는 중간부터 약함까지이며 여러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15.2). 중요한 예외는 노동 시장 저활용과 젊은 성인의 교육 성취도이다. 교육 수준 비율이 더 높을수록 저활용 수준은 더 낮다. 흡연 유병률과 비만은 국가 간 중요한 관계가 없다.

표 15.2. 이 장에서 사용된 지표는 인적 자본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다.

인적 자본 지표 간 이변량 상관 계수

	교육 수준	노동 저활용률	조기 사망	흡연 유병률	비만 유병률
교육 수준					
노동 저활용률	-0.48*** (31)				
조기 사망	-0.10 (39)	-0.29 (31)			
흡연 유병률	0.34** (38)	0.27 (31)	0.18 (38)		
비만 유병률	-0.28 (36)	-0.10 (29)	0.27 (36)	-0.23 (35)	

주: 표는 피어슨 이변량 상관 계수를 보여준다. 괄호 안의 값은 관찰(국가) 수를 나타낸다.

*는 $p < 0.10$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는 $p < 0.05$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 ***는 $p < 0.01$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앞선 통계 의제

OECD 국가 성인의 거의 40%가 적어도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젊은 성인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 이수율은 특별히 민감한 척도가 아닐 수 있다. 이는 OECD 국가에 존재하는 차별적 고등 교육 대 기술 훈련 경로를 고려하여 지표로 유지되어 왔다.

저활용된 노동 인구의 일부로서 개인이 보내는 시간이 역량 손실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 시장 저활용은 본질적으로 박탈 척도는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저활용되고 있지만 그 시간을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보내고 있거나 무급 간병인으로 봉사하고 있는 경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웰빙에 대한 기여를 암시한다. 이 측면은 현재 웰빙 프레임워크에 고려되고 있지 않다.

비만 데이터는 건강면접조사(자기 보고)와, 의료 전문가가 관리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건강검진이라는 두 가지 별개의 조사 유형으로부터 편집한다(OECD, 2017^[7]). 상충하는 데이터 공급은 국가 간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

여러 인적 자본 지표, 특히 비만과 흡연 유병률에 대한 일관되고 규칙적인 시계열의 부족은 시간 경과와 국가 간 성과의 측정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만과 흡연의 추세는 과거 10년이 아니라 과거 15년에 걸쳐 측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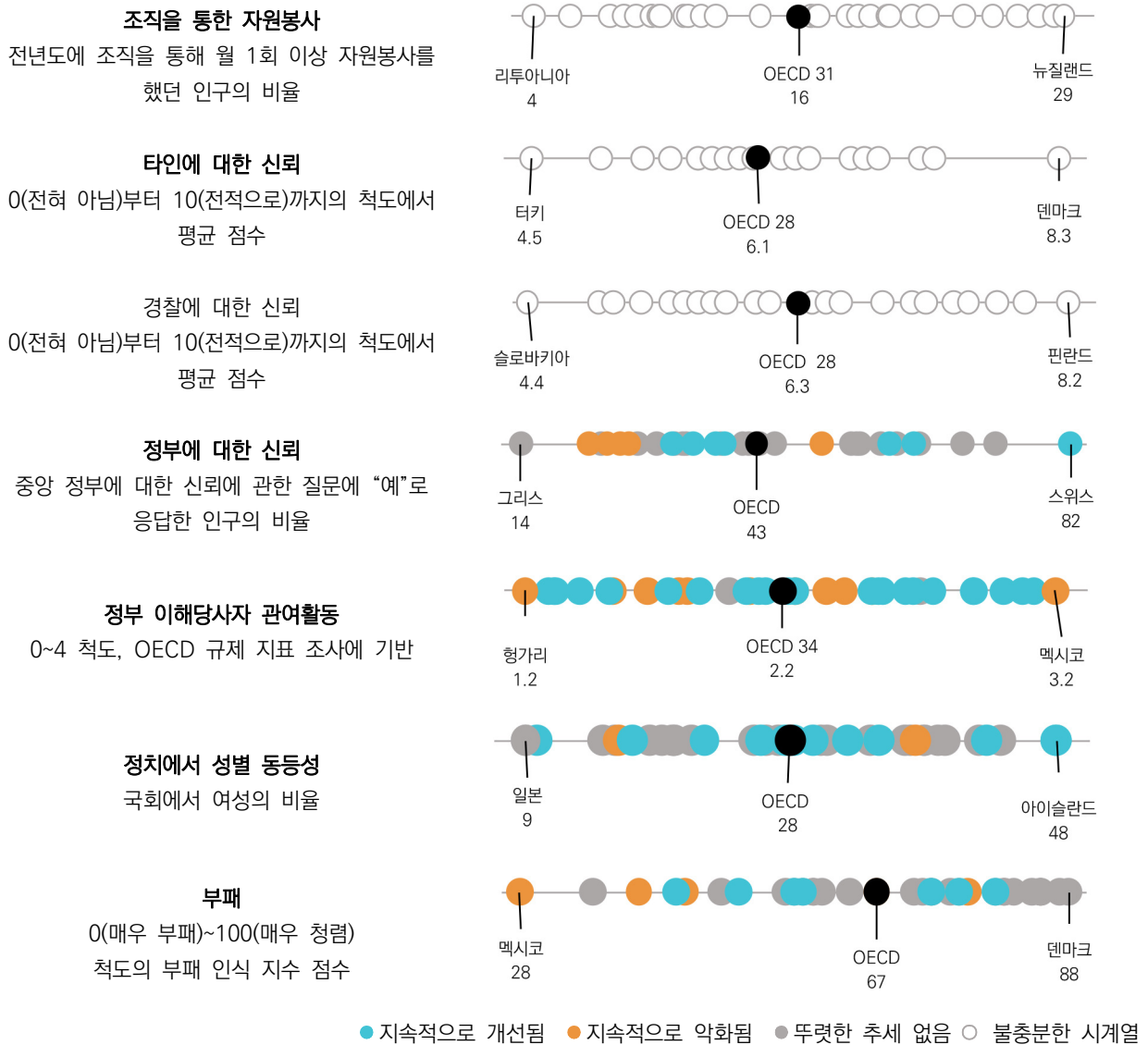
참고문헌

- Boarini, R., M. Mira d'Ercole and G. Liu (2012), “Approaches to Measuring the Stock of Human Capital: A Review of Country Practic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2/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5k8zlm5bc3ns-en>. [3]
- OECD (2018), *Education at a Glance 2018: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eag-2018-en>. [6]
- OECD (2017), *Health at a Glance 2017: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7-en. [7]
-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how_life-2017-en. [8]
- OECD (2017), *Obesity Update 2017*, OECD, Paris, <http://oecd.org/health/obesity-update.htm>. [1]
- OECD (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how_life-2015-en. [2]
-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121164-en>. [5]
- OECD (2009), *Measuring Capital - OECD Manual 2009: Second edi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068476-en>. [4]

16 사회 자본

사회 자본은 인구 집단 간 협업을 조성하는 사회적 규범, 공유 가치와 제도 정비에 대한 것이다. OECD 국가 인구 6명 중 1명 정도는 공식 조직(자선 단체 등)을 통해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자원봉사를 한다. 사람들에게 0(신뢰 없음)부터 10(완전한 신뢰)으로 신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타인에 대한 신뢰에 대한 평균 점수는 6.1, 그리고 경찰에 대한 신뢰는 6.3이다. OECD 인구의 절반 미만(43%)이 자신의 정부를 신뢰한다. 법률을 제정할 때 공식적으로 시민을 참여시키는 정부 점수는 2.2(4점 중)이다. 인지된 공공 부문 부패의 경우, 0(매우 부패)~100(매우 깨끗) 척도에서 OECD 국가의 평균점수는 67이다. 정치 분야에서는 아직 성별 동등성을 달성하지 못했다. 전체의식 중에서 여성은 불과 28%의 의석만 보유하고 있다. OECD 국가에서 사회 자본의 진전은 평균적으로 2010년에 비해 느리거나 정체되어 있다.

그림 16.1. 사회 자본 스냅샷: 현재 수준, 그리고 2010년 이후 변화의 방향



주: 스냅샷은 각 지표별로 2018년 또는 최신 가용 연도의 데이터를 보여준다. 원의 색깔은 2010년 또는 가장 가까운 가용 연도와 비교한 변화의 방향을 나타낸다. 개선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악화는 주황색으로 표시되며, 뚜렷하거나 일관된 변화 없음은 회색, 추세를 결정하기에 불충분한 시계열은 흰색이다. 각 지표별 OECD 평균과 함께 최저(왼쪽) 및 최고(오른쪽) 웰빙 수준의 OECD 국가가 표시된다. 방법론에 대한 세부 항목 정보는 독자를 위한 가이드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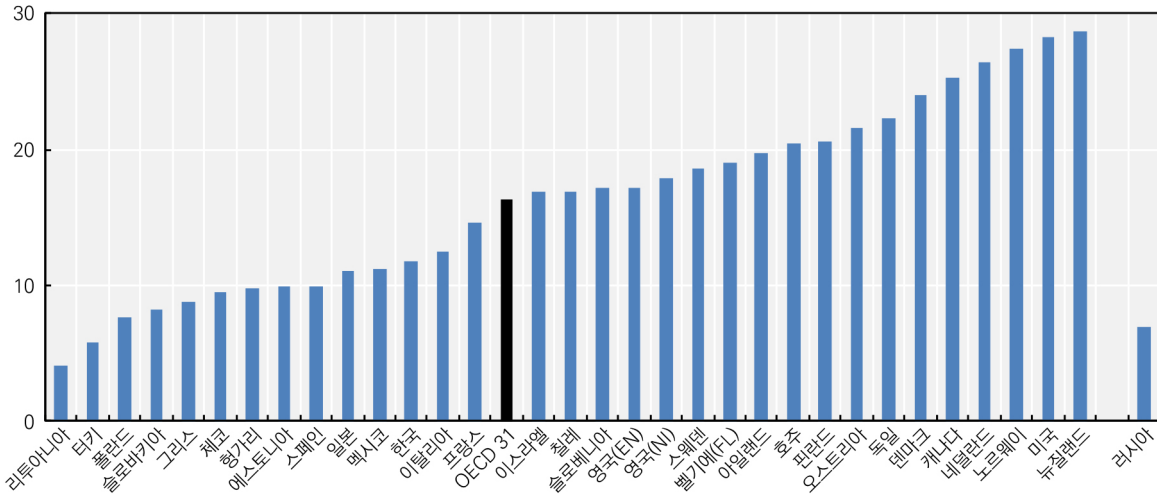
출처: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 Stats NZ(뉴질랜드 통계청),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뉴질랜드 라이선스(2017)에 따른 재사용을 위한 Stats NZ의 맞춤형 보고서와 허가, OECD 성인역량조사(Survey of Adult Skills)(PIAAC)(데이터베이스), <https://oecd.org/skills/piaac>;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OECD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데이터베이스), <http://oe.cd/ireg>, OECD 정치에서의 여성(데이터베이스), <https://data.oecd.org/inequality/women-in-politics.htm> 및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8(데이터베이스), <https://transparency.org/cpi2018>.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평균적으로 OECD 국가 6명 중 1명이 자선 단체, 정당, 노동조합 또는 다른 비영리단체 등 확립된 조직을 통해 적어도 월 1회 자원봉사를 한다(그림 16.2). 이 비율은 인구의 1/4 이상이 자원 봉사에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캐나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에서는 상당히 높지만 리투아니아와 터키는 훨씬 낮으며 16명 중 1명만 그러한 활동을 한다.

그림 16.2. 6명 중 1명은 공식 조직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다.

전년도에 조직을 통해 월 1회 이상 자원봉사를 했다고 말한 노동 가능 인구의 비율, 퍼센트, 2012년 경



주: 데이터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연방,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경우 2011~12년을 참조하며, 프랑스는 2012년, 칠레, 그리스,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터키는 2014~15년, 멕시코, 헝가리, 미국은 2017년이다. 벨기에에 대한 데이터는 플랑드르를 나타내며,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로 기록된다. 러시아 연방에 대한 데이터는 모스크바 도시 지역을 제외한다. OECD 평균은 잉글랜드 및 북아일랜드와 미국에 대한 2012~14년과 2017년 데이터 수집 차수들의 단순 평균(28.5%, 여기에 표시되지 않음) 둘 다 포함한다. 가용 데이터 부족 때문에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는 제외한다.

출처: OECD 성인역량조사(PIAAC)(데이터베이스), <https://oecd.org/skills/pia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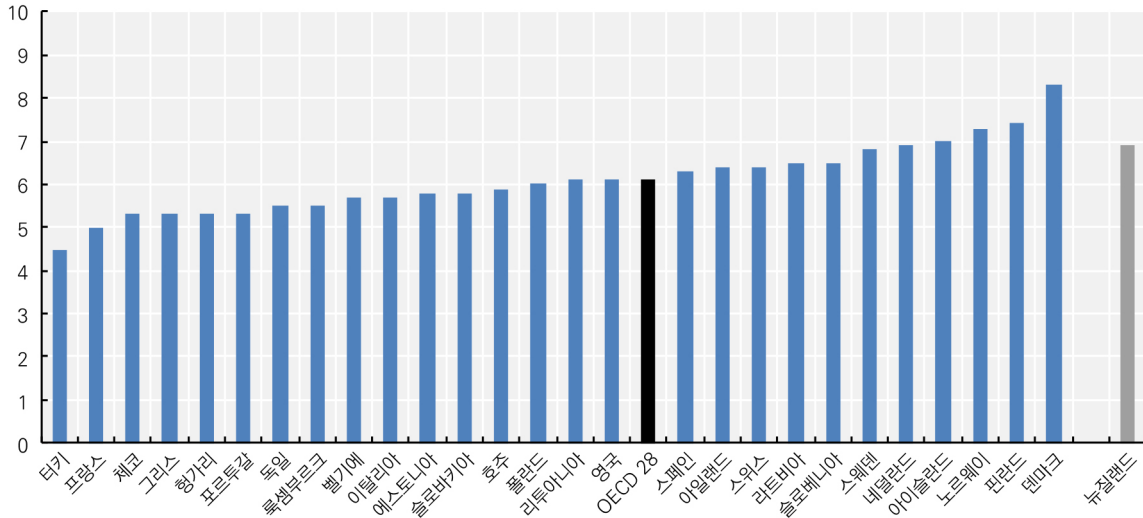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2993>

타인에 대한 신뢰

OECD 국가 가운데 타인에 대한 평균 신뢰는 0(아무도 신뢰하지 않음)~10(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음)의 척도에서 6.1이다(그림 16.3). 대인관계 신뢰 수준이 5 미만인 터키와 프랑스에 비해 북유럽 국가는 7 이상의 평균 점수를 기록한다.

그림 16.3. 타인에 대한 신뢰는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높다.

평균 점수, 0(전혀 아님)부터 10(전적으로)까지의 척도, 2013



주: 뉴질랜드에 대한 데이터(회색으로 표시)는 2014년을 나타내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묻는 질문에 의존하며 이는 결과를 상향 편향시킬 수 있다.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 부족 때문에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및 미국을 제외한다.

출처: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 뉴질랜드 통계청,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뉴질랜드 라이선스(2017)에 따른 재사용을 위한 Stats NZ의 맞춤형 보고서와 허가.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3012>

기관에 대한 신뢰: 경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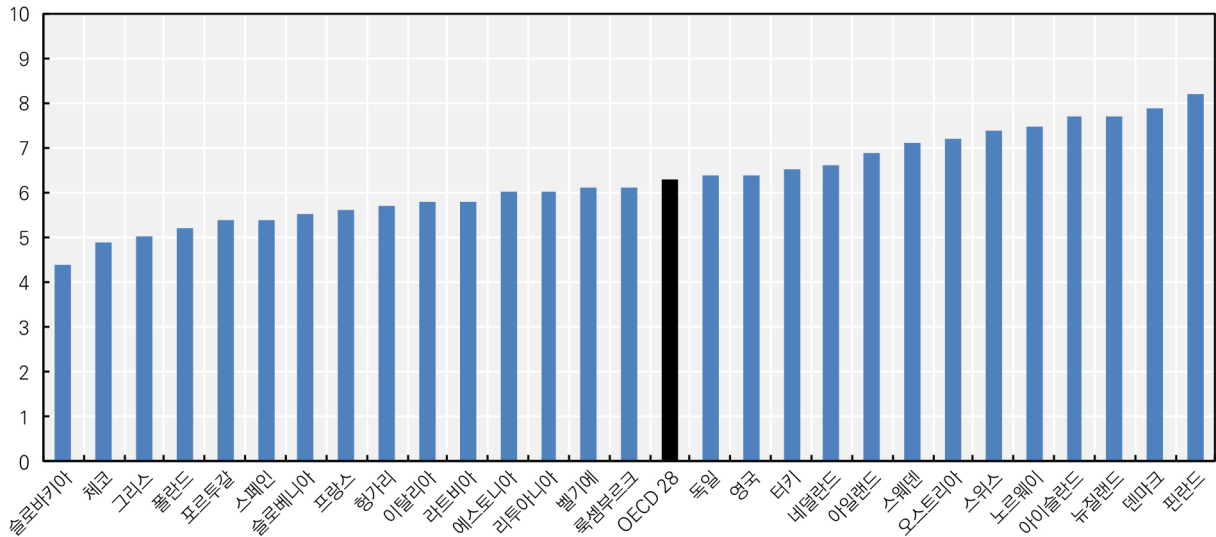
기관에 대한 신뢰에 관한 한, OECD 국가 사람들 가운데 경찰에 대한 신뢰의 평균 점수는 6.3(0이 전혀 신뢰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10이 완전한 신뢰를 의미하는 척도에서)이다(그림 16.4). 대인관계 신뢰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대한 신뢰는 북유럽 국가(평균 점수 7점 초과)와 호주, 뉴질랜드 및 스위스에서 가장 높다. 그에 반해 체코, 그리스, 슬로바키아는 경찰에 대해 비교적 낮은 신뢰를 기록하며, 평균 점수가 5점 이하이다.

기관에 대한 신뢰: 중앙 정부

평균 OECD 국가 인구의 절반 미만(43%)이 자신의 중앙 정부를 신뢰한다. 하지만 이는 2010~12년 금융 위기의 여파로 기록되었던 수준(40%)에서 약간 개선된 것이다(그림 16.5). 실제로, 2008년 후 일반적 악화 이후에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는 OECD 국가 1/4에서 2006년 위기 전 값의 바로 아래로 반등했다. 2010~12년과 비교했을 때 최대 증가는 15% 포인트 이상이며 체코, 아일랜드, 일본에서 발생했다. 한편, 칠레에서는 10% 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콜롬비아는 20% 포인트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및 스위스에서 가장 높고(65% 이상), 콜롬비아, 이탈리아, 그리스 및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낮다(25% 이하).

그림 16.4. 경찰에 대한 평균 신뢰는 10점 중 6.3점이다.

평균 점수, 0(전혀 아님)부터 10(전적으로)까지의 척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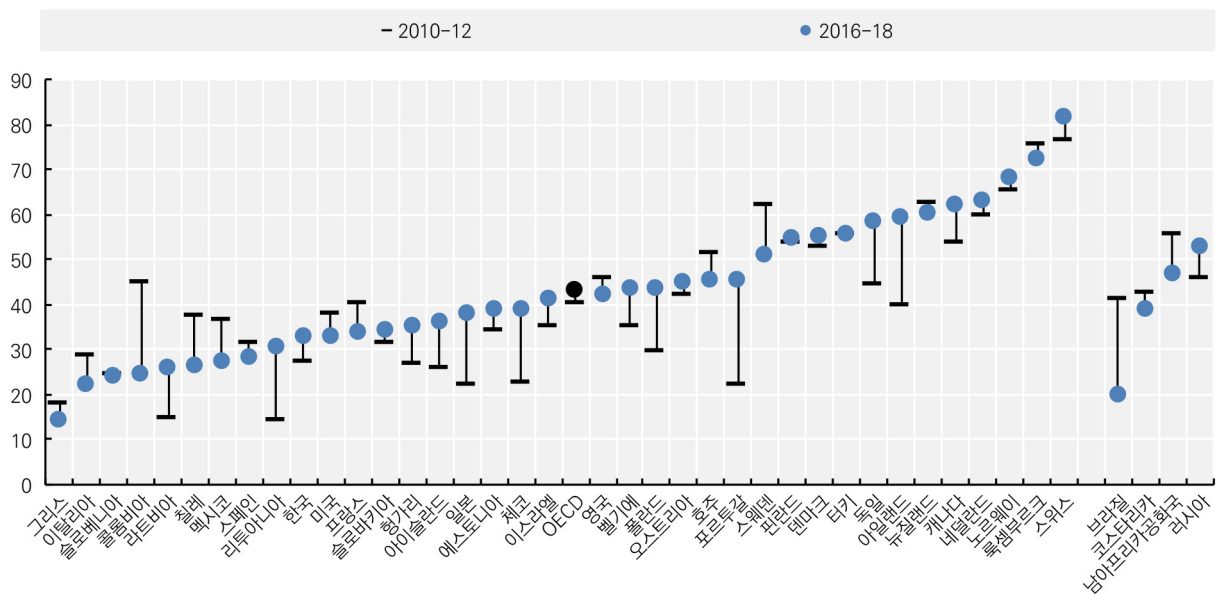
주: 뉴질랜드에 대한 데이터는 2014년을 참조한다. OECD 평균은 가용 데이터 부족 때문에 호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및 미국을 제외한다.

출처: 유럽연합 임금과 생활조건 통계(EU-SILC)(데이터베이스),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 뉴질랜드 통계청,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뉴질랜드 라이선스(2017)에 따른 재사용을 위한 Stats NZ의 맞춤형 보고서와 허가.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3031>

그림 16.5. 2010년 이후 1/4의 OECD 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반등했다.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에 관한 질문에 “예”로 응답한 인구의 비율, 퍼센트



출처: 갤럽 세계 조사(데이터베이스), <https://gallup.com/analytics/232838/world-poll.asp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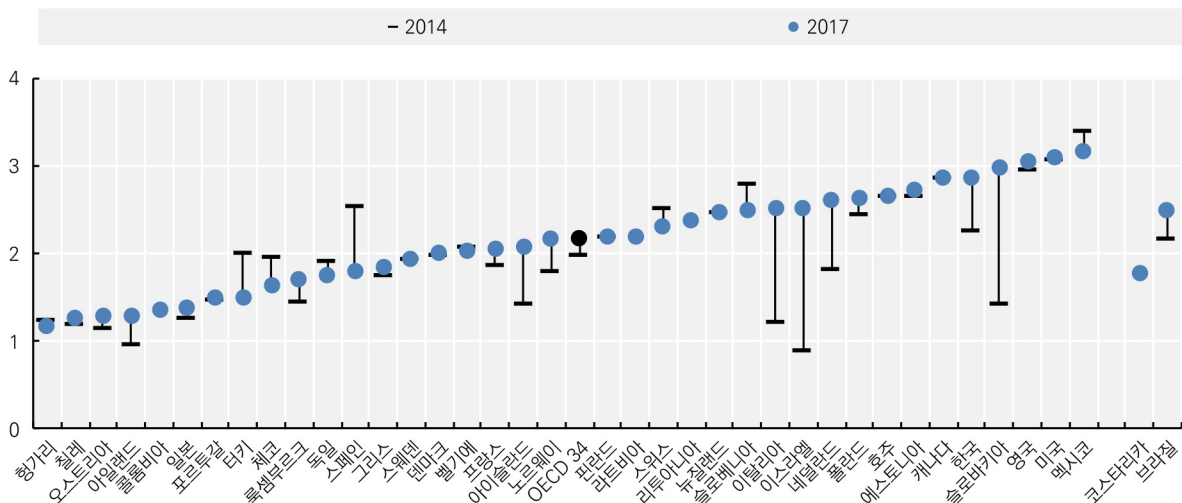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3050>

정부 이해당사자 관여활동

정부의 이해당사자 관여활동은 법률의 설계, 시행 및 검토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법률을 개발할 때 OECD 국가가 체계적으로 채택한 공식 이해당사자 관여활동 관행의 범위는 0(관여 없음)~4(최대 관여) 척도에서 헝가리 1.3, 멕시코 3.2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해당사자 관여활동은 부차적 규정(운용화에 초점을 맞춘)보다는 기본 법률(공공 정책 문제의 해결에 대한 프레임워크 제공)과 관련해서 더 높다(OECD, 2018^{[1])}. 정부 이해당사자 관여활동의 전체 평균 수준은 2014년 이후 2에서 2.2로 증가했다(그림 16.6). 개선은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바키아에서 특히 강력하다(1.3포인트 이상 증가, 주로 기본 법률에 대한 더 나은 개선활동이 견인함). 이는 체코(0.3포인트), 터키(0.5) 및 스페인(0.7)(OECD 순위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국가들)에서 기록된 감소와 대비를 이룬다.

그림 16.6. 평균 정부 이해당사자 관여활동은 2014년 이후 개선되었지만 이미 약화된 성과의 일부 국가에서는 감소했다.

기본 법률과 부차적 규정을 개발할 때 정부 이해당사자 관여활동, 0(관여활동 없음)~4(최대 관여활동) 척도



주: 기본 법률에 대한 하위 요소 점수는 행정부의 관행만 포함한다. 따라서 모든 기본 법률 제정을 의회가 독점적으로 착수하는 미국의 기본 법률에 대한 점수는 없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한국 및 멕시코에서는 대다수 기본 법률의 제정을 입법부에서 착수한다. OECD 평균은 불완전한 시계열 때문에 콜롬비아, 라트비아 및 리투아니아를 제외한다. 출처: OECD 규제 정책과 거버넌스 지표(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데이터베이스), <http://oc.cd/i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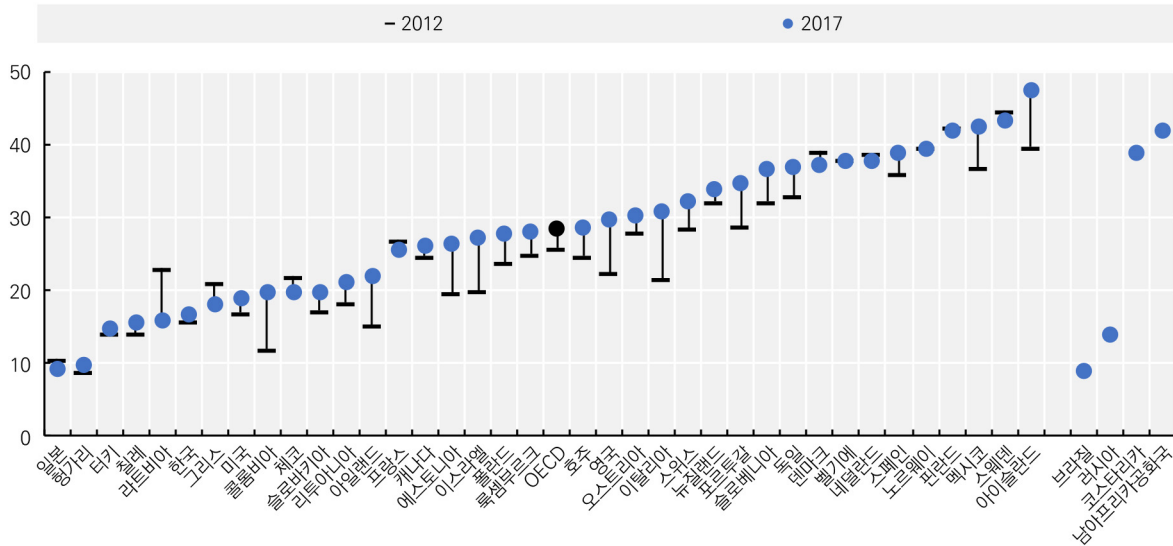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3069>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

2017년 평균적으로 OECD에서 여성이 확보한 의회 의석은 2012년 26%에서 약간 증가한 28%였다. 정치에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조차 완전한 성별 동등성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의회에서 여성의 존재감은 일본에서 가장 낮고(의석의 9.3%)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높다(47.3%)(그림 16.7). 2012~2017년 사이에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OECD 국가의 거의 1/3에서 증가했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및 영국에서는 7%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에 반해, 라트비아 의회에서는 감소하여 지금은 여성 하원의원이 7% 포인트이다.

그림 16.7. 정치는 여성에게 보다 포용적으로 되었지만 성별 동등성은 달성하지 못했다.

국회, 상원 또는 하원에서 여성의 비율, 퍼센트



주: 최신 가용 연도는 콜롬비아의 경우 2015년, 브라질, 코스타리카, 러시아 연방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14년이다.

출처: OECD 정치에서의 여성(데이터베이스), <https://data.oecd.org/inequality/women-in-politics.htm> 및 리투아니아 통계청(2017), <https://osp.stat.gov.lt/services-portlet/pub-edition-file?id=30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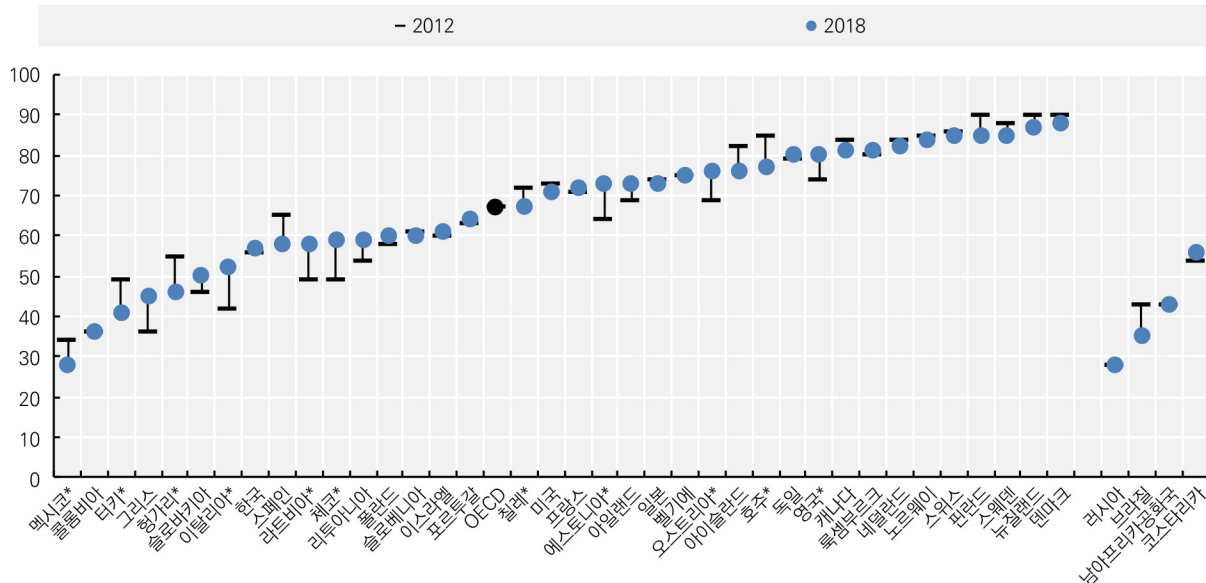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3088>

부패

국제투명성기구의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전문가와 기업인 평가에 따르면, 공공 부문에서 OECD 평균 부패 수준은 0(매우 부패)~100(부패가 전혀 없음) 척도에서 67이다. 이 척도를 통해 인지된 공공 부문 청렴성은 북유럽 국가, 스위스 및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고(84와 88 사이의 점수)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멕시코 및 터키에서 가장 낮다(50 미만의 점수)(그림 16.8). OECD 평균은 2012년 이후 안정적인 상태로 남아 있지만, 이는 일부 국가에서의 부패 관리의 분명한 진전(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및 라트비아의 9점 이상 증가)과 다른 국가에서의 상당한 감소(호주, 터키 및 헝가리의 약 8점 하락)를 가리는 경향이 있다.

그림 16.8. 평균적으로 2012년 이후 인지된 부패는 고착된 상태로 남아 있다.

부패 인식 지수, 0(매우 부패)~100(매우 청렴) 척도



주: * 2012년 이후의 상당한 변화를 나타낸다(90% 신뢰수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계산).
출처: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8(데이터베이스), <https://transparency.org/cpi2018>.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83107>

상자 16.1. 앞선 측정 및 통계 의제

사회 자원은 다양한 집단 간 협력을 증진하는 사회의 네트워크, 규범 및 공유 가치에 대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공공 기관에 대한 기대치(신뢰), 시민/공동체의 삶에 기여하는 활동 참여(자원봉사), 사회 자원을 생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조건을 설정하는 거버넌스와 제도 정비 측면(정부 이해당사자 관여활동, 청렴성, 의사결정에서 성별 평등)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제시되어 있다(표 16.1).

표 16.1. 이 장에서 고려한 사회 자본 지표

지표	측정 단위	비축	흐름	위험 요소	회복력 요소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전년도에 조직을 통해 월 1회 이상 자원봉사를 했다고 말한 노동 가능 인구의 비율		✓		
타인에 대한 신뢰	평균 점수, 0(그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않음)~10(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음)의 척도	✓			
경찰에 대한 신뢰	평균 점수, 0(전혀 신뢰하지 않음)~10(완전히 신뢰함)의 척도	✓			
정부에 대한 신뢰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에 관한 질문에 “예”로 응답한 인구의 비율	✓			
정부 이해당사자 관여활동	0~4 척도, OECD 규제 지표 조사(Regulatory Indicators Survey)에 기반				✓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	국회 또는 상원/하원에서 여성의 비율				✓
부패	0(매우 부패)~100(매우 청렴) 척도의 부패 인식 지수 점수			✓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는 “지난 12개월 동안, 자선 단체, 정당, 노동 조합 또는 기타 비영리 조직을 위한 무급 노동을 포함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까? 했을 경우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라는 질문과 “전혀 하지 않음”, “월 1회 이하”, “주 1회 이하, 월 1회 이상”, “주 1회 이상, 매일은 아님” 및 “매일”의 응답 범주를 포함한 응답자들에 대한 OECD 성인역량조사(PIAAC)의 단일 질문을 통해 측정한다. 표시된 데이터는 월 1회 이상 자원봉사를 했다고 말한 16~65세 성인의 비율을 나타낸다.

타인에 대한 신뢰는 다음 조사 질문을 기반으로 한다. “신뢰에 대한 일반적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응답자는 0(“전혀 신뢰하지 않음”)~10(“완전히 신뢰함”) 범위의 11점 척도로 대답한다. 16세 이상 인구에 대한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웰빙에 대한 유럽통계청의 EU-SILC 임시 모듈을 통해 유럽 국가에 제공되며 뉴질랜드 통계청의 종합 사회 조사를 통해 뉴질랜드에 제공된다. 유럽통계청은 2021년부터 계속 연례 EU-SILC 핵심 모듈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경찰에 대한 신뢰는 다음 조사 질문을 기반으로 한다. “개인적으로 다음의 각 기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합니까?...경찰”, 응답자는 0(“전혀 신뢰하지 않음”)~10(“완전히 신뢰함”) 범위의 11점 척도로 대답한다. 16세 이상 인구에 대한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웰빙에 대한 유럽통계청의 EU-SILC 임시 모듈과 뉴질랜드 통계청의 종합 사회 조사를 통해 유럽 국가에 제공된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다음 조사 질문을 기반으로 한다. “이 나라에서 다음 각 기관에 대해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 중앙 정부는 어떻습니까?” 표시된 데이터는 “예”로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반영하며(다른 응답 범주는 “아니요”와 “모름”) 3년의 기간에 대해 평균화된다. 정보는 매년 국가당 약 1,000명을 표본으로 하는 연례 갤럽 세계 조사를 통해 구한다. 국가 평균의 경우, 추정치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3년 기간(예: 2016~2018)의 모든 가용 연도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한다. 표본은 15세 이상 인구의 국가적 대표가 되도록 사전 설계된다.

정부 이해당사자 관여활동은 국가가 이해당사자 관여활동 관행을 채택하고 새로운 규정을 개발할 때 이들과 협의하도록 요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데이터는 정부 공무원에게 이해당사자 관여활동의 네 가지 측면(이해당사자 관여활동 요건의 체계적 채택, 협의 방법론, 투명성, 감독과 품질 관리)에 대해 묻는 OECD의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질문지에 대한 응답에서 구한다(Arndt 외, 2015^[2]). 기본 법률과 부차적 규정 둘 다에 대해 최대 점수 4점(각 측면에 대한 최대 점수 1점)의 복합 지표를 계산한다. 이 장에서 보고된 지표는 기본 법률과 부차적 규정 복합 지표의 단순 평균이다.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은 하원 또는 국회의 선출직 의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을 나타낸다. 데이터는 OECD 국제 개발 통계: 성별, 기관 및 개발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데이터 베이스에서 구한 것이다.

부패는 전문가와 기업체가 인지하는 국가 공공 부문의 부패 정도를 기반으로 국가의 순위를 정하는 국제 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를 통해 측정한다. CPI는 0(매우 부패)~100(매우 깨끗)의 점수를 얻기 위해 거버넌스와 기업 풍토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12개 독립 기관의 전문가 평가와 13개 조사의 정보를 결합한 복합 지수이다.

사회 자본의 지표 간 상관관계

OECD 국가 간에 사회 자본의 대다수 지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대인관계 신뢰가 높은 국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경찰에 대한 신뢰가 더 높고, 더 많은 여성이 의회에 선출되며, 전문가들은 공공 부문 부패가 낮다고 인식한다(표 12.2). 마찬가지로,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은 OECD 국가는 사람들이 다른 공공 기관(경찰 등)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지된 부패는 더 낮다. 여성의 의회 참여와

인지된 부패는 이 장에 포함된 거의 모든 다른 지표와 유의미하고 강력하게 상관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대인 관계 신뢰와 함께 전체로서 사회 자본의 선행 지표로 적합하다. 정부 이해당사자 관여활동은 사회 자본의 다른 측면과 함께 하지 않는 유일한 척도이다.

표 16.2. 타인에 대한 신뢰, 의사 결정의 포용성 및 인지된 부패는 사회 자본의 다른 여러 측면을 포착한다.

사회 자본 지표 간 이변량 상관 계수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타인에 대한 신뢰	경찰에 대한 신뢰	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 이해당사자 관여활동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	부패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타인에 대한 신뢰	0.66*** (23)						
경찰에 대한 신뢰	0.74*** (23)	0.68*** (28)					
정부에 대한 신뢰	0.56*** (32)	0.29 (28)	0.61*** (28)				
정부 이해당사자 관여활동	0.13 (31)	0.28 (28)	-0.06 (28)	-0.06 (39)			
정치에서 성별 동등성	0.45** (30)	0.62*** (27)	0.54*** (27)	0.31* (36)	0.05 (36)		
부패	0.77*** (32)	0.63*** (28)	0.75*** (28)	0.59*** (41)	0.02 (39)	0.42** (36)	

주: 괄호 안의 값은 관찰 횟수를 나타낸다. * p<0.10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는 p<0.05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 ***는 p<0.01 수준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앞선 통계 의제

최근 발표된 *OECD 신뢰 측정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Measuring Trust)*은 신뢰의 조사 척도가 목적에 적합하다는 강력한 증거를 포함한다(OECD, 2017^[3]). 하지만 이것은 여러 OECD 국가 간에 비교 가능한 데이터 모음으로 아직 바뀌지 않았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상적 데이터 세트는 정치 시스템(정부, 정당, 의회)에 대한 신뢰, 사법 시스템(경찰, 군대, 법원)에 대한 신뢰, 비정치 기관(행정 조직)에 대한 신뢰를 고려해야 한다. 가용 척도는 현재 EU-SILC와 뉴질랜드(경찰에 대한 신뢰), 그리고 비공식 껍질 세계 조사(중앙 정부에 대한 신뢰)로 제한된 상태로 남아 있다.

OECD 국가 다수의 자원봉사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10년마다 수행되고 주요 데이터 수집 차수는 2012년에 마지막으로 수행되었던 OECD PIAAC 조사를 통해 제공된다. 또한 여기에 표시된 지표는 확립된 조직을 통한 관여활동으로만 제한되며,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 보다 비공식적인 형태의 기여는 잠재적으로 도외시킬 수 있다.

정치에서 여성의 비율은 의사결정의 포용성에 대한 중요한 지표이다. 다른 일반적으로 과소대표되는 사회 집단(예: 다른 경제적 또는 민족적 배경의 사람들)의 존재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한편, 아직 그러한 척도는 모든 OECD 국가에 대한 빈번하고 비교 가능한 기준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비교 후보자 조사(The Comparative Candidates Survey), 2019^[4]).

부패에 대한 정보는 부패 인식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 평가나 가구조사, 또는 뇌물 경험에서 구한다. 가구 조사는 작은 부패로 상향 편향되고 회전문 인사, 계약 및 입찰 수여와 부당한 로비 등 다른 중요하고 덜 눈에 띄는 측면을 놓치는 한편, 전문가 평가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시민의 관점을 무시한다(OECD, 2017^[6]). 이상적으로는, 다양한 단면에서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패 척도에 의존하는 것이 좋다(UN Praia City Group, 공개 예정^[6]).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세부목표 16.5(“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감소 시킨다”)를 통해 청렴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관리 기관 UNODC는 최근에 가구조사를 통한 부패 측정에 대한 방법론적 가이드를 발표했고(UNODC, 2018^[7]) 연간 UN 범죄동향조사(Crime Trends Survey)(국가 범죄피해 조사에서 도출)를 통해 이전 12개월 동안 뇌물 상황에 있던 개인과 기업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현재로서 데이터는 소수의 국가에만 제공된다.

참고문헌

- Arndt, C. et al. (2015), “2015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Design, Methodology and Key Results”, *OECD Regulatory Policy Working Papers*, No. 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5jrmwqm3zp43-en>. [2]
- OECD (2018),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3072-en>. [1]
-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how_life-2017-en. [5]
- OECD (2017),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rus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78219-en>. [3]
- The Comparative Candidates Survey (2019), *The Comparative Candidates Survey (CCS)*, <http://comparativecandidates.org/node/1> (accessed on 23 September 2019). [4]
- United Nations Praia City Group (forthcoming), *Praia City Group Handbook on Governance Statistics*. [6]
- UNODC (2018), *Manual on Corruption Surveys*, http://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Crime-statistics/CorruptionManual_2018_web.pdf (accessed on 23 September 2019). [7]

How's Life? 2020: 웰빙의 측정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발 행 일 : 2021년 12월
원 저 : OECD
번역 · 발행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사회정책본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5층
Tel. 02 3702 7144 Fax. 02 3210 1313
www.oecdkorea.org
인 쇄 : 월드프린테크

How's Life? 2020

웰빙의 측정

*How's Life?*는 37개의 OECD 회원국과 4개의 파트너 국가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는지 기록한다. 이번 제5호는 현재의 웰빙 성과, 불평등, 그리고 미래 웰빙을 위한 자원을 포함한 80개 이상의 업데이트된 지표 세트에서 최신 증거를 제시한다. 2010년 이후 사람들의 웰빙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었지만,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정부와 연결되는 방식을 포함한 다른 측면에서는 느려지고 있거나 악화되었다. 성별, 연령 및 교육 수준별 큰 격차는 대부분의 웰빙 성과 전체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잘 해온 OECD 국가는 인구 집단 간 평등도 더 우수하고 박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수도 더 적다. 2010년에 더 열악한 웰빙 상태였던 많은 OECD 국가들이 이후로 최대 개선을 경험했다. 하지만 자연, 인간, 경제 및 사회 자본 전반에 걸쳐 부상하는 경고 징후와 함께, 현재 웰빙에서의 발전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이를 지속시키는 자원에서의 개선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보고서는 2010년 이후 웰빙 추세에 대한 전반적 분석을 넘어 건강, 주관적 웰빙, 사회적 연계, 자연 자본 등을 포함한 OECD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의 15개 영역을 자세히 탐색하고 국가 전용 프로필에서 각 국가의 성과를 살펴본다.

